

2007 속초문화유산

# 속초의 모습

## 제대로 알기 II



속초시 · 속초문화원



# 속초의 모습

## 제대로 알기 II





## 시의 상징



심볼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 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해오미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문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시화 / 국화

국화는 번식률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 시목 / 은행나무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 시조 /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단결을 의미한다.





##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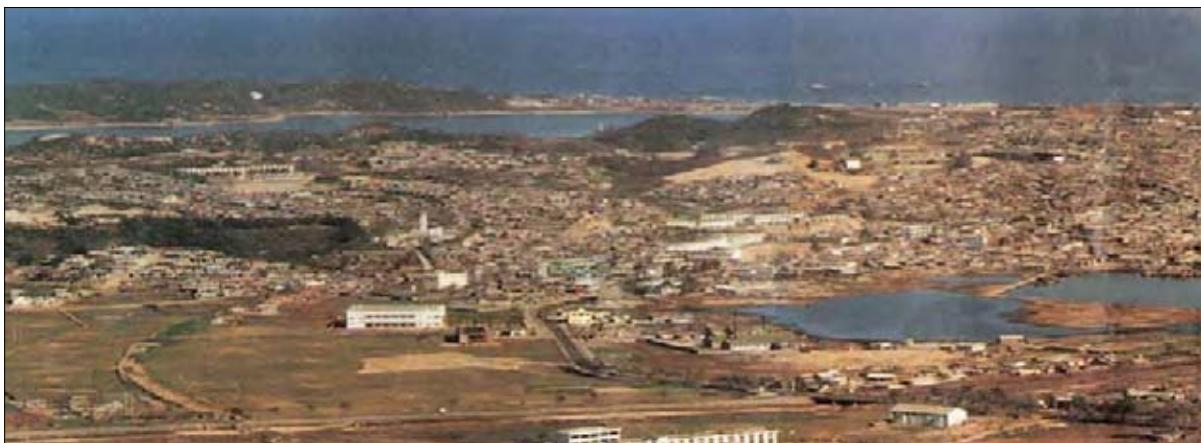
◆ 시의 상징 .....	2
◆ 사진으로 보는 속초 발자취 .....	5
◆ 속초의 변천 .....	29
I . 속초의 자연환경(自然環境) .....	91
1. 지형(地形) .....	93
2. 기후(氣候) .....	96
3. 속초의 식물 · 동물상(植物 · 動物相) .....	106
II . 속초의 역사(歷史) .....	113
1. 선사시대(先史時代) .....	115
2. 고대시대(古代) .....	119
3. 고려시대(高麗) .....	120
4. 조선시대(朝鮮) .....	121
5. 일제시대(日帝) .....	124
6. 현대(現代) .....	129
III . 속초의 지명(地名) .....	133
1. 속초 땅이름 어원의 유래 .....	135
2. 연혁(沿革) .....	136
3. 행정동 지명 .....	137
IV . 속초의 문화(文化) .....	167
1. 문화재(文化財) .....	169
2. 지도로 찾아보는 문화재 .....	215
3. 속초의 민속(民俗) .....	224
4. 속초의 방언(方言) .....	291
V . 만화로 보는 “속초”문화 .....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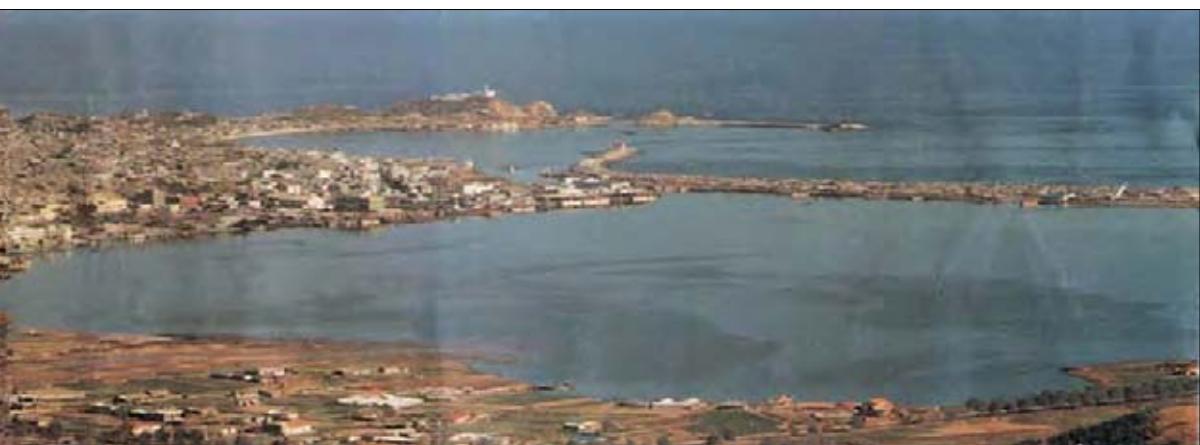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속초발자취





## 속초시 시대별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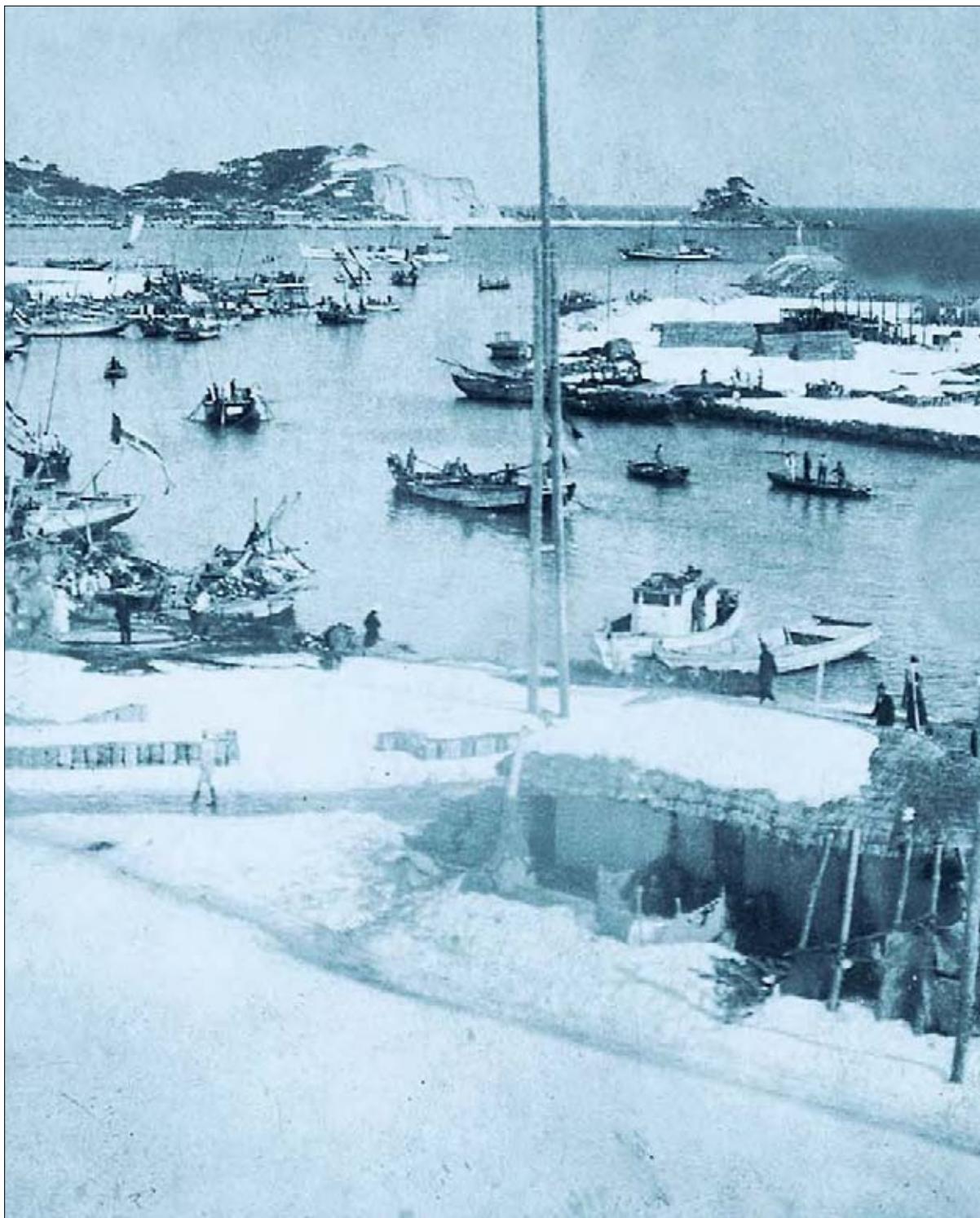




### 1930년대 후반 동명항 인근전경

돛을 내린 어선과 바쁜 일손을 놀리는 어민들.

레일은 속초항 방파제 축조(築造)를 위해 영금정에서 채취한 암반(岩盤)을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 해방전 갯배나루의 겨울

중앙동과 청호동 지역의 한적한 모습과  
출어하는 어선들



### 1940년대 영금정

영금정에서 속초항 방파제 축조를 위해  
암반을 채취하는 모습과 이를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레일



### 1956년도 영금정

영금정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꼭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다하여 영금정  
이라 이름지어졌으며, 선녀가 내려와 놀  
던 신비한 곳이라 하여 김정호의 대동지  
지에는 비선대로 기록되어 있다. 바다와  
접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바위산이  
었으나 일제시대 속초항의 방파제를 축  
조하기 위해 바위산을 파괴하여 옛모습  
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는 동해의 싱싱  
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는 횟집들이 즐비  
한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유원지로 개발  
되었다.

아래 사진에는 홀로 남은 바위산과 고기  
잡이 하는 뜬단배 그리고 멀리 조도와 외  
옹치가 보인다.



### 1950년대 속초읍사무소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된 이후 건립된 읍사무소는 당시 속초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었으며, 읍사무소앞 광장은 시승격 기념행사 등 각종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속초 전경

청초호를 중심으로 한 시내중  
심 가와 청호동, 조양동,  
노학동 전경





1960년대 속초 전경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전경





### 1960년대 속초 전경

영금정을 중심으로 한 동명동,  
영랑동과 영랑호 전경



1960년대 외옹치지역과 청대산 전경



1960년대 속초해수욕장과 속초의 해안선 전경





1950년대 속초항 및 중앙동 거리 전경

속초항과 7번 국도를 중심으로 가옥이 밀집되어 있으며, 청호동과 이어진 방파제와 빽빽하게 정박한 어선들과 덕장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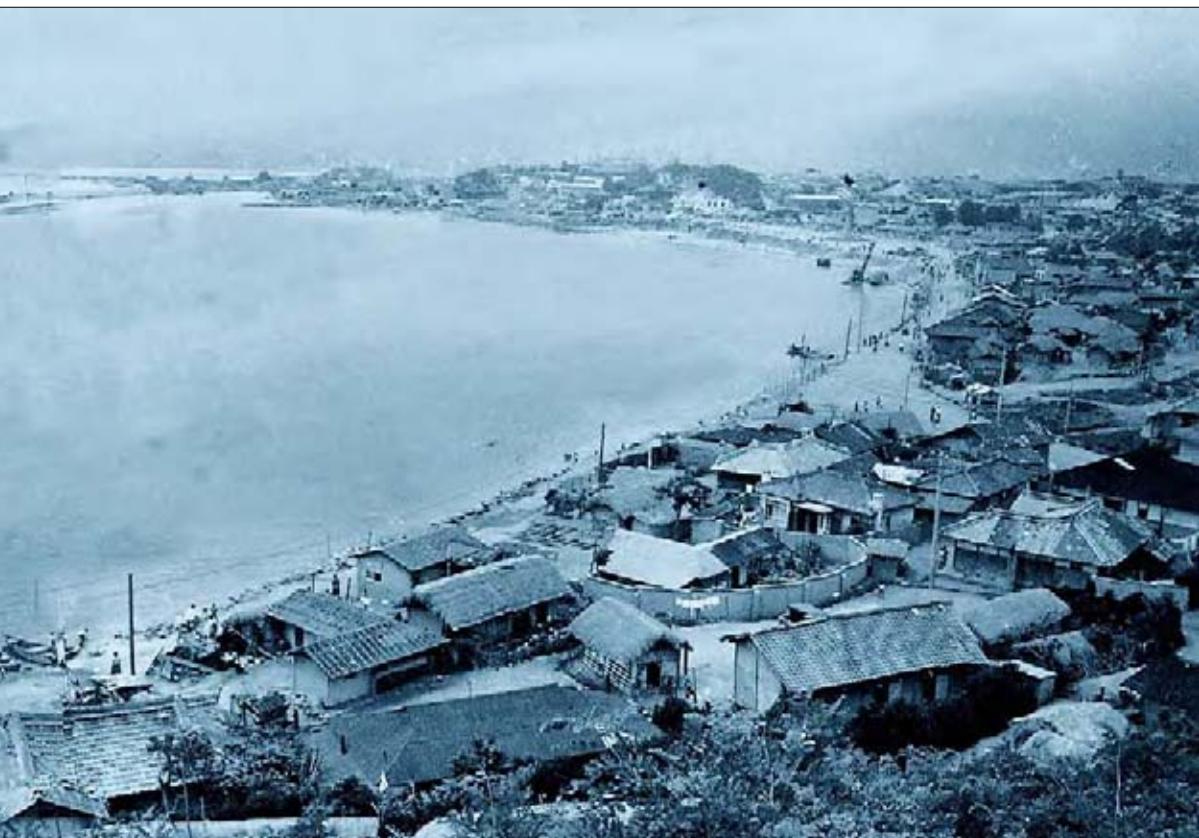
1950년대 금호동 전경

7번 국도를 경계로 좌측에는 덕장들이 우측으로 가옥과 상가가 있으며, 멀리 낮은 구름사이로 청대산과 설악산이 보인다.





1965년 갯배나루 주변 전경



1966년 속초항과 동명동 · 중앙동 전경

동명항에 정박한 어선과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옛 마을을 볼 수 있다.





1966년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왼쪽으로 속초역사(驛舍)가 보이고 낮은 구릉지대에 경작을 위한 논과 밭을 볼 수 있다.



1966년 교동주택지

낮은 구릉지역에 개간한 논과 밭 뿐이나 현재는 속초 인구중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다.



# 속초의 변천





영랑동 전경



60년대 영랑동 전경



90년대 영랑동



현재 영랑동



## 동명항 전경



◆ 66년 동명항 전경



◆ 90년대 동명항 ◆



◆ 현재 동명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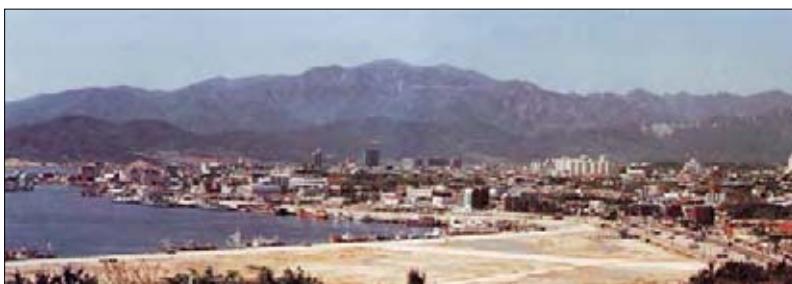
시내전경



60년대 동명동 등대 옆에서 본 속초시내 전경



80년경



90년대



현재



## 속초내항 전경



◆ 속초내항 전경  
(63년 시승격 이전)



90년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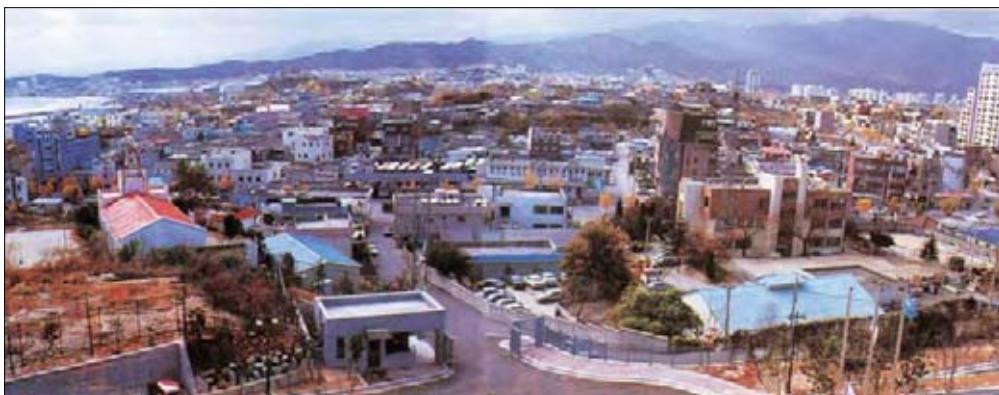
현재 ◎



시외버스 터미널



◆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66. 3)



◆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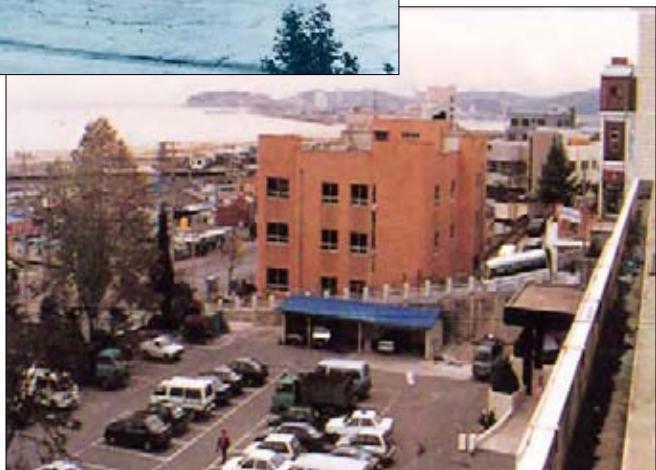
◆ 현재의 전경



## 시청앞



● 시청앞 광장 (64년)



90년대 ●



현재 ●



속초항 수로



◆ 중앙동거리 및 속초항 수로(시승격 이전)



◆ 90년대



◆ 현재의 전경



## 금호동 전경



◆ 금호동 전경(시승격 이전)

78년대 ◆



◆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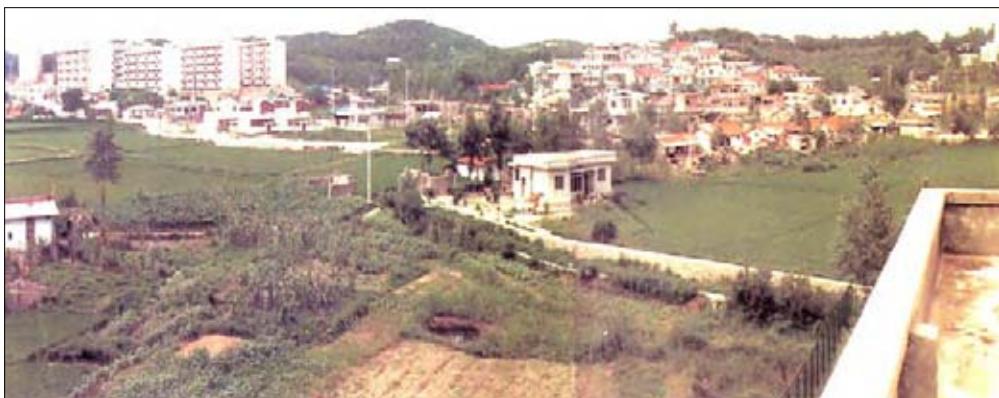


◆ 현재의 전경





교동 만천지구



◆ 80년대 교동 만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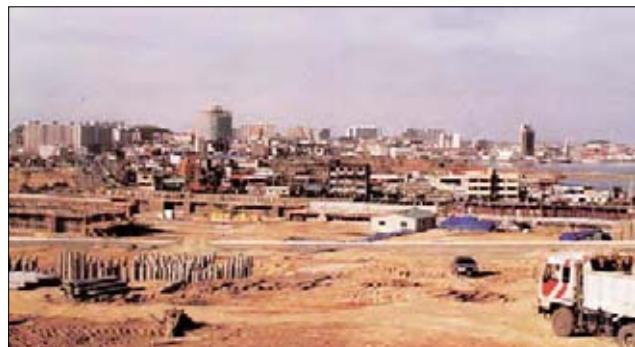
◆ 90년대



◆ 현재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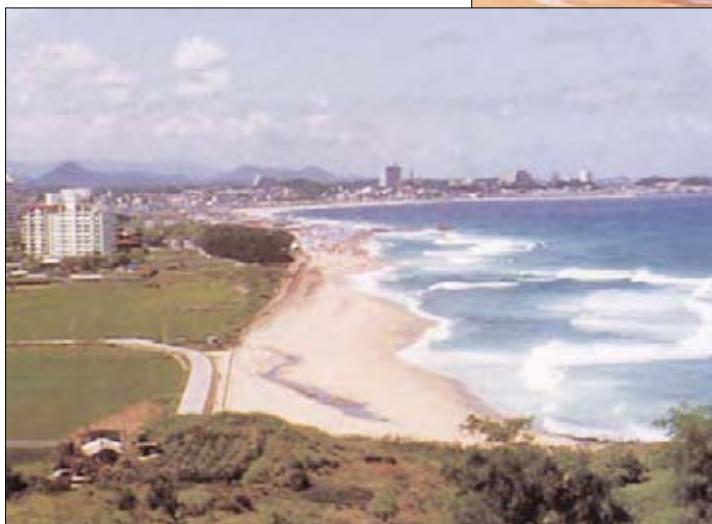
## 시내 전경





속초해수욕장 전경

속초해수욕장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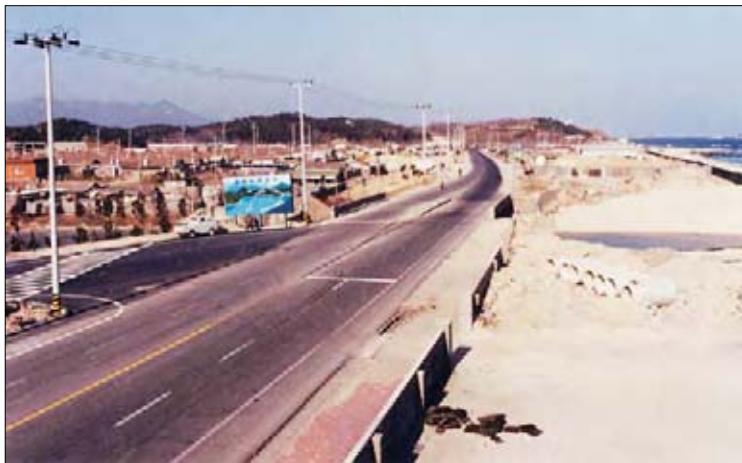
◎ 90년대

현재의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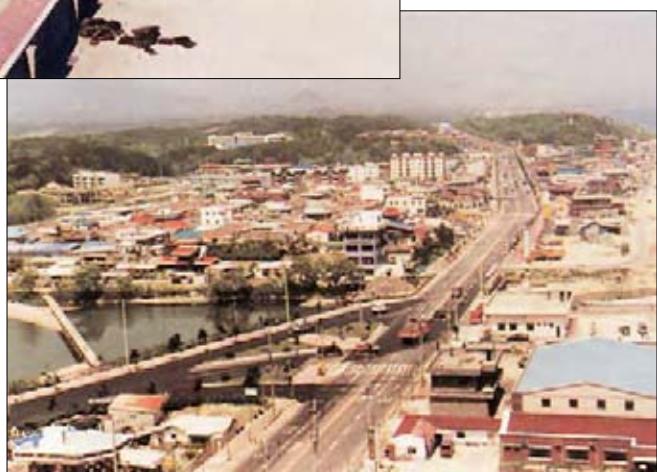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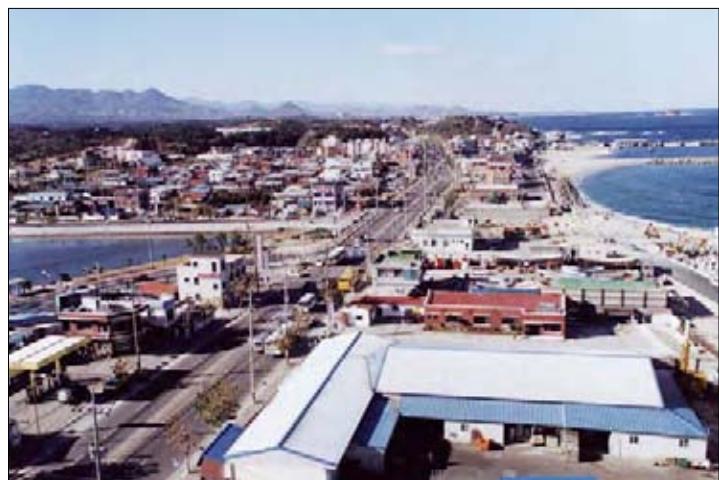
## 장사동 전경



장사동 전경(81) ◎



90년대 ◎



현재의 전경 ◎



7번 국도



영랑동 국도 (75. 2)



81. 3



현재의 전경



시청앞 국도(72년) ◎



◎ 81. 3



90년대 ◎



현재의 전경 ◎



90년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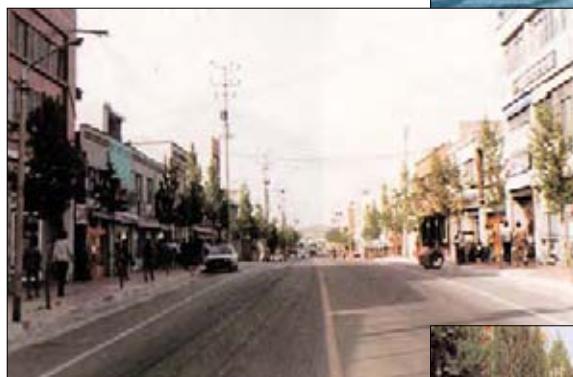




중앙 · 금호동간 국도(68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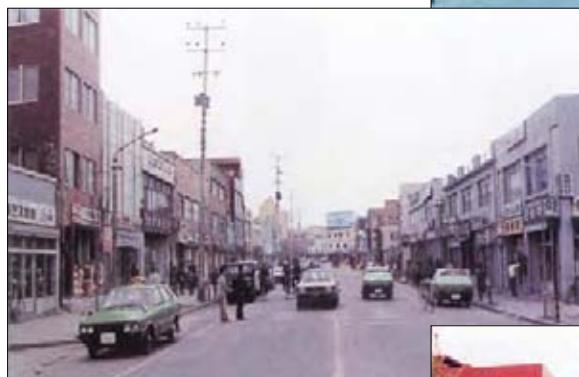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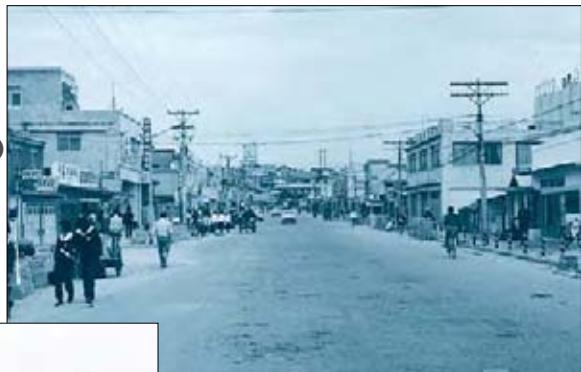
◎ 81. 5



90년대 ◎



현재의 전경 ◎





청학동 국도(80년대) ◎



◎ 90년대



현재의 전경 ◎



교동 구 속초중앞 국도(81.3) ◎



◎ 90년대



현재의 전경 ◎



교동 구 보건소앞 국도(81.3) ◎



◎ 90년대



현재의 전경 ◎



교동 소방서앞 국도 ◎



◎ 90년대



현재의 전경 ◎



조양동 고속터미널 국도(70년경) ◎



◎ 81. 3

90년대 ◎



현재의 전경 ◎





◆ 조양~대포간 국도 (70년경)



◆ 90년대



현재의 전경 ◆



◆ 대포동 국도(8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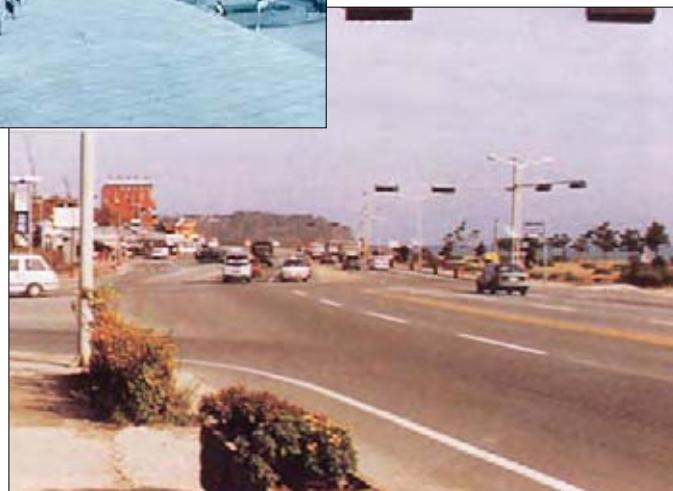
◆ 90년대



현재의 전경 ◆



◆ 대포동 내물치(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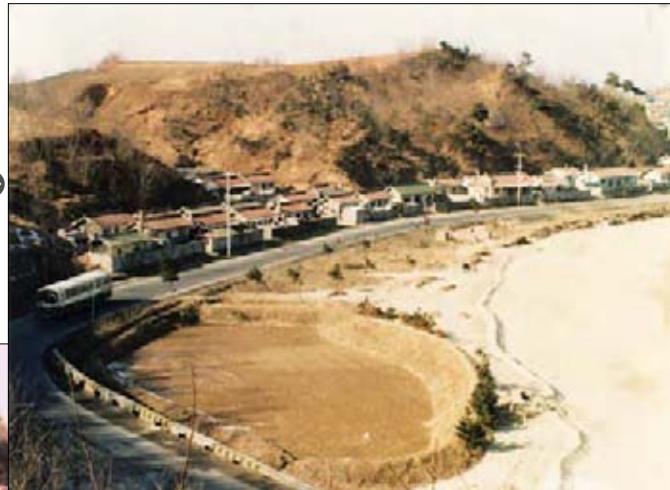
90년대 ◎



현재의 전경 ◎



대포동 산뒤꾸미 노선 국도(79) ◎



◎ 8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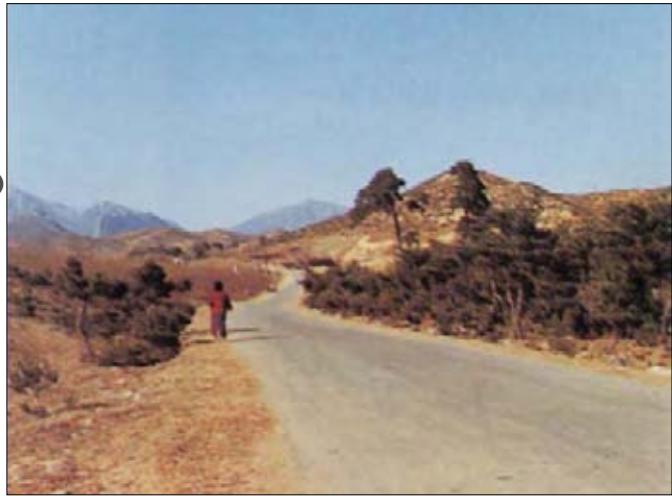


현재의 전경 ◎



## 설악산 진입로

하도문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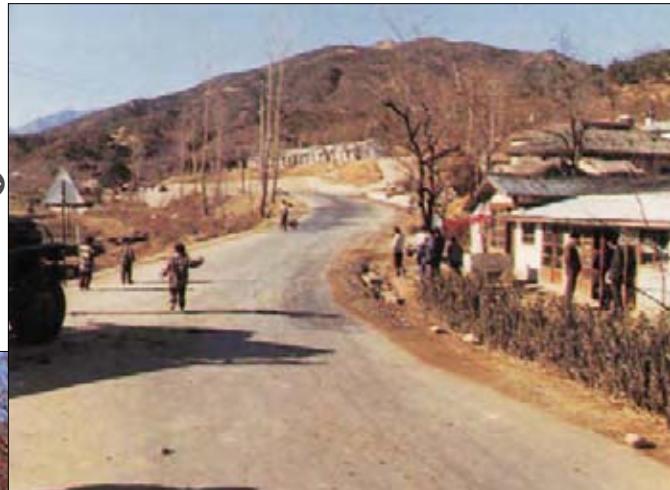


현재의 전경 ◎





상도문리 ◎



◎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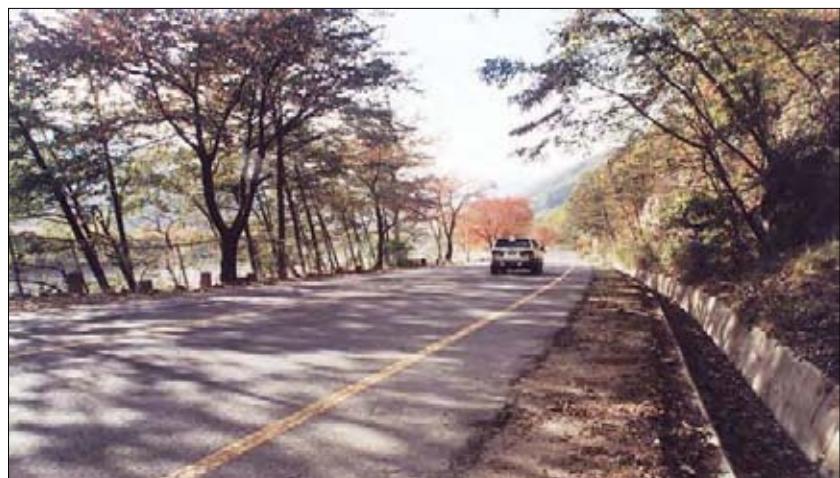
현재의 전경 ◎



◆ 설악산 C지구 설악교 앞  
(63. 9. 7 준공된 포장공사 이전)



72년경 ◎



현재의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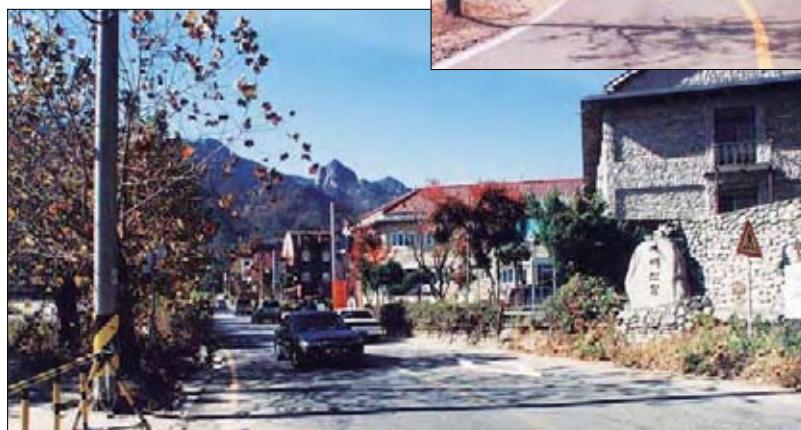


설악동 B지구 앞(76.6) ⏪



81. 4 ⏪

90년대 ⏪



현재 ⏪



영랑초등학교 뒤(77. 3) ◎



◎ 8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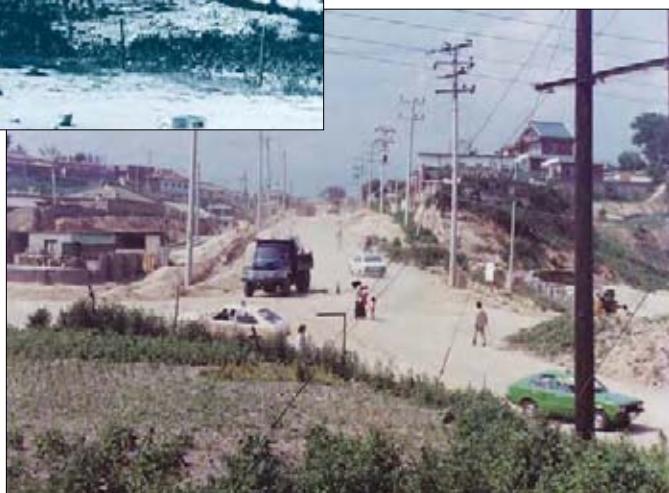
90년대 ◎



현재 ◎



▶ 문화회관 옆 로터리(79)



82년 ▶



현재 ▶



가원주택 설악타워 맨션 앞(79.8) ◎



◎ 82년

90년대 ◎



현재 ◎



공설운동장 옆(80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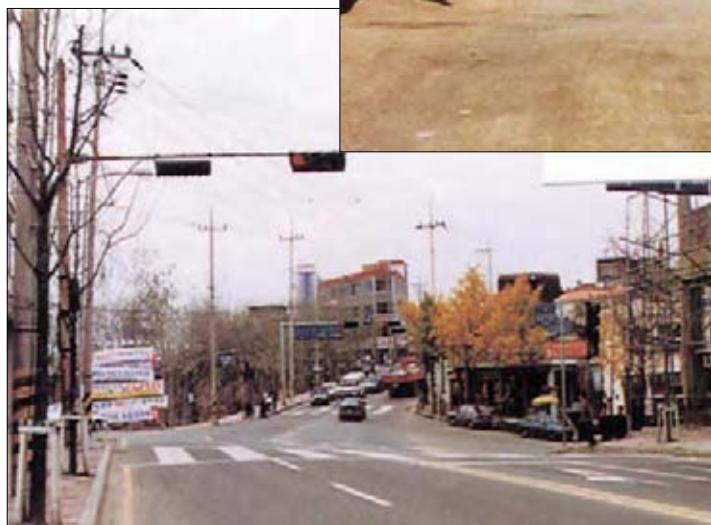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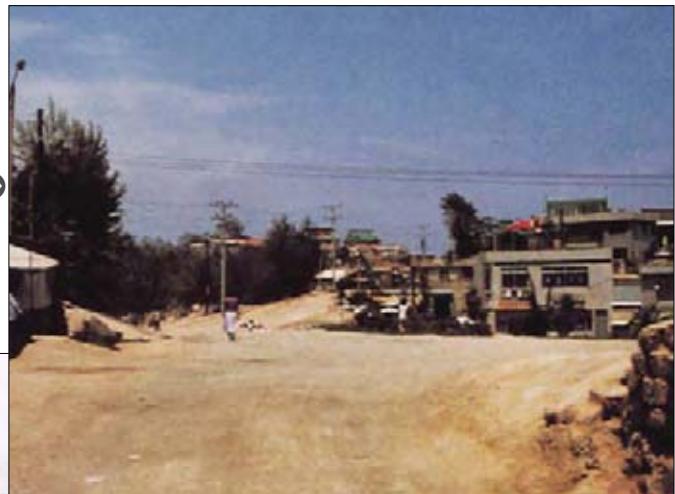
◎ 90년대



현재 ◎



공설운동장 앞 로터리(79) ◎



◎ 90년대

현재 ◎





속초여중 앞(78. 4) ◎



◎ 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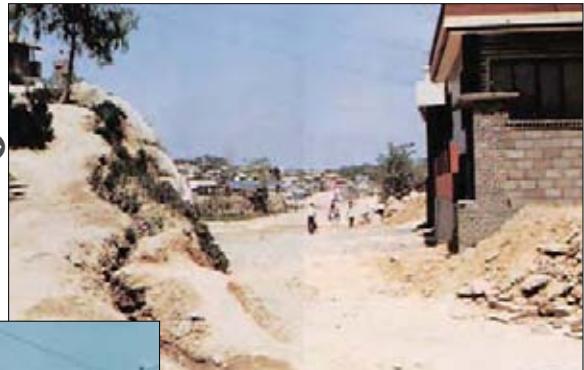
90년대 ◎



현재 ◎



속초초등학교 뒤 (79) ◎



◎ 81년



90년대 ◎



현재 ◎





교동가로 입구(91.10) ◎



◎ 90년대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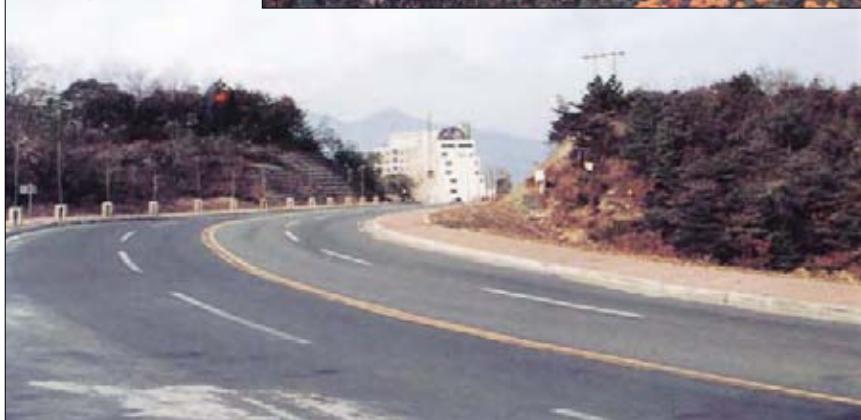




속초중 뒤(91. 10) ◎



◎ 90년대



현재 ◎





속초중 뒤(91. 10) ◎



◎ 90년대

현재 ◎





교동택지 진입로 입구(91.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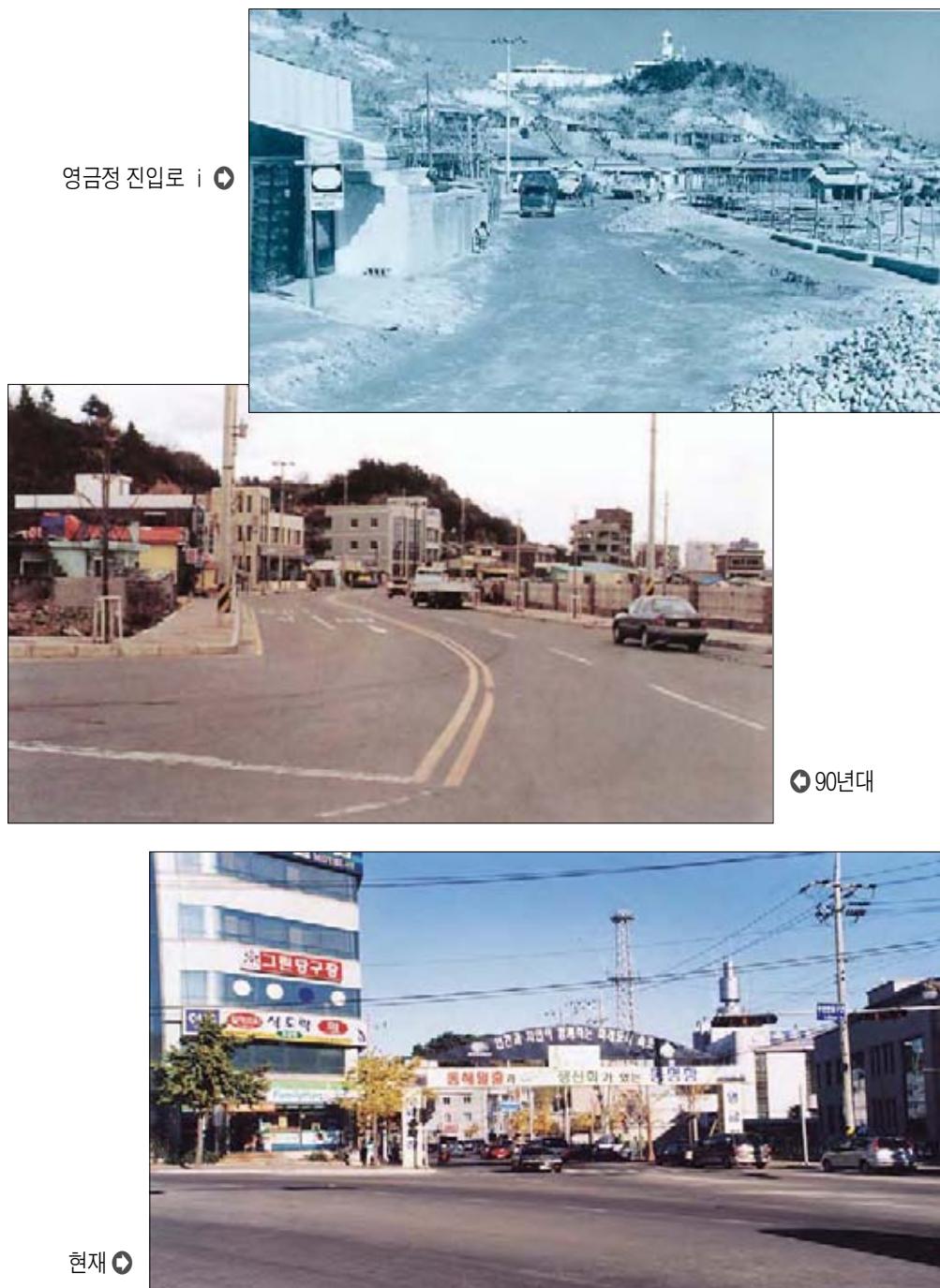
◎ 90년대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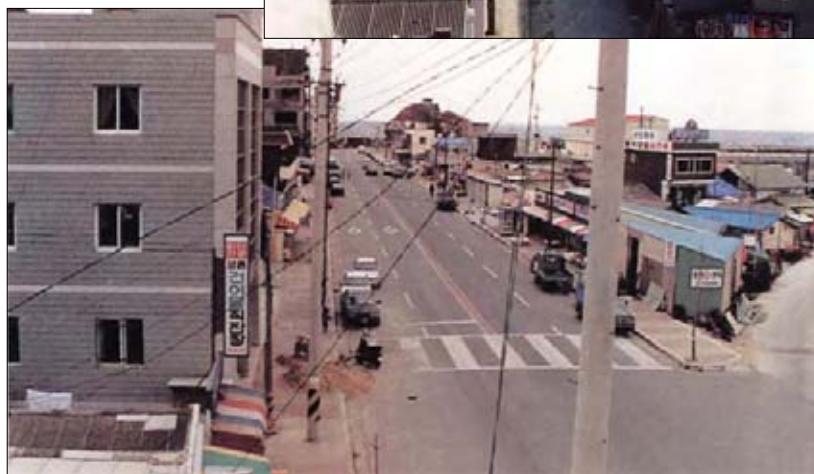


기타 간선도로





영금정 진입로 ii ◎



◎ 90년대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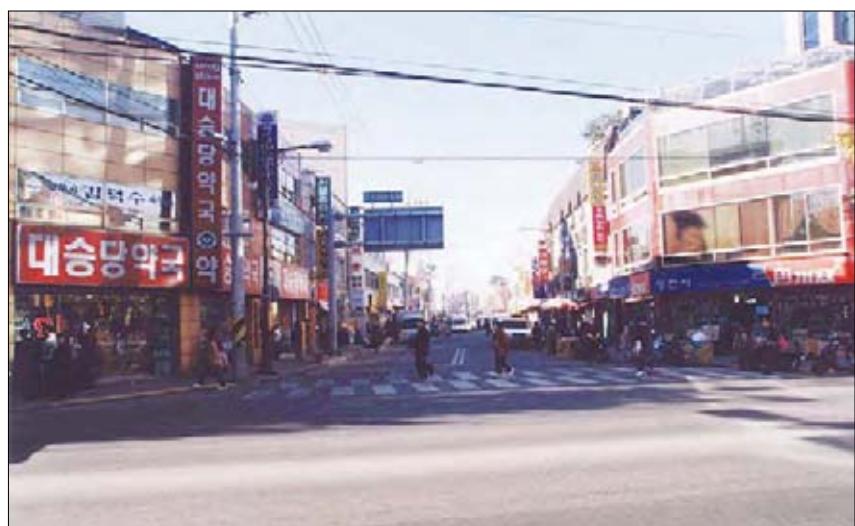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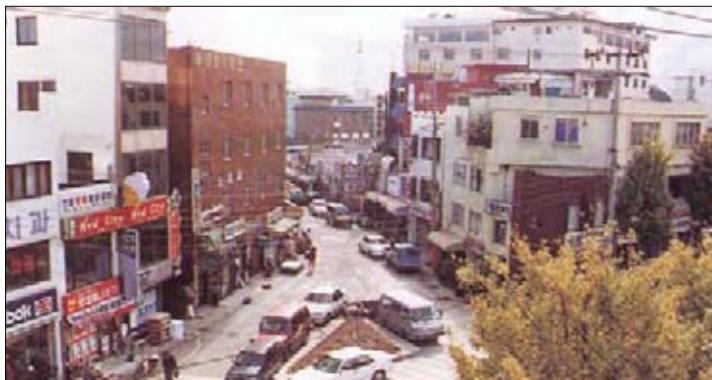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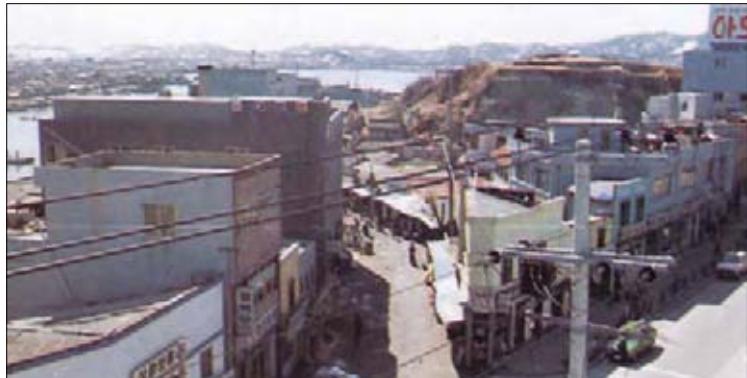
중앙가로 하단(81. 5) ◎



◎ 90년대



현재 ◎





수복로 ◎



◎ 90년대



현재 ◎



교동가로 i (81) ◎



◎ 90년대



현재 ◎



교동가로 ii (81) ◎



◎ 90년대



현재 ◎



교동택지 진입로(85. 2)



85. 12



90년대



현재



속초해수욕장 진입로(83. 7) ◎



◎ 90년대



현재 ◎



속초해수욕장 진입로(83. 7) ◎



◎ 90년대



현재 ◎



▣ 목우재 진입로(76.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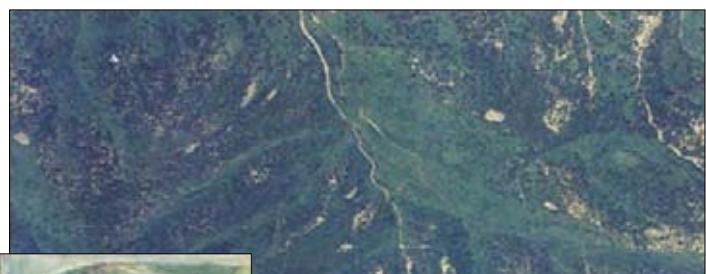


▣ 목우재 도로(75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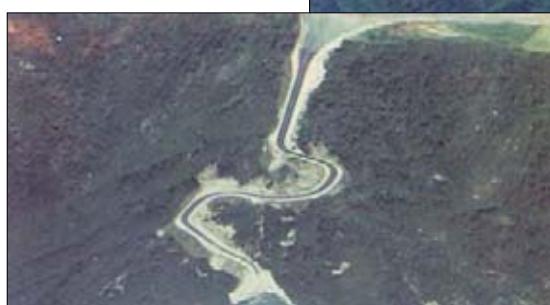


▣ 항공촬영

▣ 현재



▣ 목우재 도로(75년 이전)



▣ 도로 포장후



외옹치 순환도로(76) ⓠ



● 81. 4



90년대 ⓠ



현재 ⓠ



## 항 공 사 진





73년경 시가지 전경 ◎



73년경 영랑동 일대 ◎



73년경 영랑호, 장사동 ◎



73년경 시내 중심부



73년경 보광사 일대



73년경 조양동 일대



74년경 시내 중심부 ◎



77년경 청초호 일대 ◎



79년경 시내 중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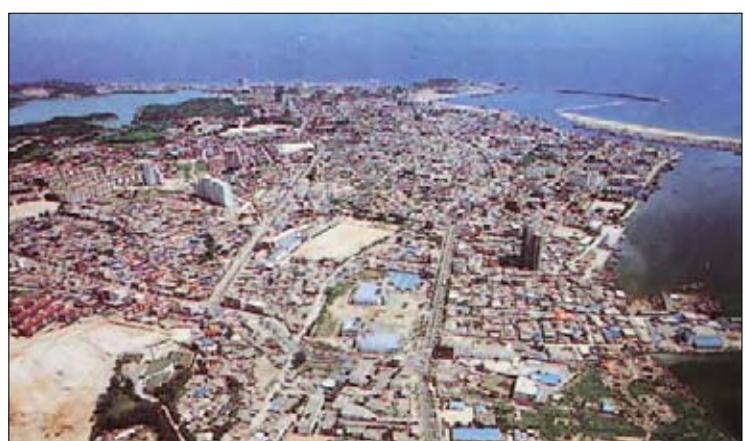
## 연대별 시가지 전경 대비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속초시 전경 항공사진  
(92. 11. 13 정밀촬영)





## I. 속초의 자연환경(自然環境)

1. 지형(地形)

2. 기후(氣候)

3. 속초의 식물·동물상(植物·動物)



## I. 속초의 자연환경

### 1. 지형(地形)



속초는 강원도 동북부 동해안 동경  $128^{\circ}25' \sim 37'$  과 북위  $38^{\circ}07' \sim 13'$  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고성군, 남쪽으로 양양군, 서쪽으로 설악산맥을 경계로 인제군, 그리고 동쪽으로 동해와 접하는, 남한땅 동해안에서 최북부에 위치한 항구(港口) 도시이며, 천혜의 관광(觀光)도시이다.

속초는 태백산맥 줄기 중 최고봉인 설악(雪嶽)의 대청봉(1,708m)이 남서 경계에 위치하고, 마등령·화채봉·칠성봉 등 높이 1,000m 이상의 높은 연봉들이 서부와 남부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한에서 한라산·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인 설악산은 수려하면서도 용장한 산세, 울산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 계곡의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 및 숲, 그리고 신흥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사철 경관이 뛰어나다.

설악산은 내설악(內雪嶽)과 외설악(外雪嶽)으로 구분되는데,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미시령과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주능선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외설악, 서쪽은 내설악이다. 또한 북동쪽의 화채봉과 서쪽의 귀폐기청봉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남설악, 북쪽은 북설악이라 구분하여 부른다.

속초시는 동서간 19km, 남북간 9km의 연장거리를 갖으며, 면적은  $105.25\text{km}^2$ 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6%에 해당하며, 속초시 면적의 53.2%인  $55.80\text{km}^2$ 는 국립공원 설악산에 포함되어 있다.

속초는 7번 일반국도에 의해 북쪽의 고성군, 남쪽의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로 연결되고, 56번 지방도에 의해 인제군, 서울과 연결되며, 설악산과는 462번 지방도에 의해 연결된다. 수도인 서울과는 248km,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는 174.6km, 휴전선과는 62km의 거리에 위치한다.

### 속초시의 지리적 위치

구 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 번	극 점	지 명	
동 단	속초시 청호동 1340	동경 $128^{\circ} 37'$	조도	동서간 19km
서 단	속초시 설악동 산41	동경 $128^{\circ} 25'$	저항령 남쪽	
남 단	속초시 설악동 산41	북위 $38^{\circ} 07'$	대청봉	남북간 9km
북 단	속초시 장사동 478	북위 $38^{\circ} 13'$	장사동 북쪽해안	

### 가. 암석(巖石)과 능선(稜線)

설악산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대청봉을 제외하고는 여러 종류의 화강암(花崗巖)으로 되어 있다. 태백산맥은 제3기의 용기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진 화강암은 강원도의 간성·속초·인제·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설악산의 능선으로는 대청봉을 기점으로 북방으로 무네미 고개, 북서쪽으로 마등령, 저항령, 다시 북쪽으로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이며, 그 중 대청봉에서 마등령까지의 능선을 공룡능선이라 부르며, 날카로운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청봉의 남쪽으로는 태백산맥이 계속 이어지며 북서쪽으로 귀폐기청봉, 여기에서 대승령과 안산에 이르는 능선이 서북주능이다. 황철봉과 미시령 사이의 동쪽으로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달마봉으로 이어지고, 목우재와 청대산을 거쳐 대포동으로 낮은 능선이 뻗어 있다.

### 나. 하천(河川)

남서쪽을 제외한 모든 사면이 급경사이며, 내설악의 남부에는 한계천이, 북부에는 북천이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의 상류를 이루는데 외설악의 남부에는 양양 남대천이, 북부에는 쌍천이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이러한 설악산의 분수령 동쪽 사면이 급경사를 이루며 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달마봉·청대산 등의 산줄기가 시 중앙을 동서로 가로질러 해안까지 뻗어 내린다.

속초지역에는 설악산에서 발원한 쌍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중류에서 하안단구를 형성하고, 하류에서는 하천 양안에 도문평야를 만들면서 시의 남쪽 경계를 이룬다. 북쪽의 청초천은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청초호로 유입되는데, 하천 주위에 비옥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하천 경사가 급하고 유로연장이 짧아 강

수량을 저유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갈수기 때마다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단점도 있다.

## 다. 해안지형(海岸地形)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북부와 남부가 지질 구조와 지형 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 편마암과 고생대층으로 된 남부는 암석해안이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부는 비교적 사빈해안(모래해안)이 넓게 분포한다.

사빈(沙濱)은 해안이나 호수의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퇴적지형으로 보통 암석 해안이나 절벽 해안에 접해 있는 곳에서 길고 좁은 퇴적물의 집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해양퇴적이 일어나는 해안 평야의 바깥쪽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외에 특수한 것으로 연안에 평행하게 나타나는 좁은 평행사주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러한 평행사주들은 바다를 고립시켜 석호를 형성하는데, 속초에서는 청호동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지형이 이에 해당한다.

속초지역의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된 암석과 자갈이 많은 해빈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해안에 발달한 사빈의 모래 주공급원은 고성군 토성면의 용천천과 양양군의 남대천이다.

## 라. 석호(潟湖)

동해안에는 사빈과 함께 석호가 많다. 해안에서 연안류의 작용으로 사주나 사취 등에 의해 가로막혀 형성된 호수로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구에 발달하였으며 이런 하천의 경우에는 토사의 운반량이 적어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속초 지역에는 영랑호와 청초호가 분포하고 있다.

영랑호(永郎湖)는 장사동과 영랑동·금호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석호로 면적은 1,024,000m<sup>2</sup>, 둘레는 7.7km 정도이다. 영랑호라는 이름은 신라시대의 화랑이었던 사선(四仙-영랑·술랑·안상·남석행)이 경주에서 열리는 무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이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영랑이 호수의 자연에 도취되어 무술대회 조차 잊어버렸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청초호(靑草湖)는 청학동·교동·조양동·청호동 일대에 걸쳐 있는 호수로 면적은 879,863m<sup>2</sup>(호수 일부를 매립하여 '99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장 조성함에 따라 면적 이 다소 줄었음), 둘레는 4.276km 정도이다. 미시령 부근에서 발원해 학사평과 소야 평야를 거쳐 동쪽으로 흐르는 청초천이 이곳으로 흘러든다. 청초호는 천연적으로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선박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현재 속초항의 내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9년에는 청초호 매립지에서 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 2. 기후(氣候)

### 가. 속초 지방 기후의 특성

속초 지방은 한반도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중위도지대에 속하여 편서풍(偏西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이 구별되는 온대성기후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북서계절풍이 탁월하고 한랭건조(寒冷乾燥)한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高溫多濕)한 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속초지방은 해발 1,708m의 대청봉을 포함한 설악산맥이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에는 동해(東海)와 연접하여 사계절에 걸쳐 변화 많은 기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폭풍(暴風), 대설(大雪), 호우(豪雨), 가뭄 등 갖가지 악기상(惡氣象)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속초 지방의 기후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지방(인제)과 판이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해안형인 속초의 연평균 기온은  $12.1^{\circ}\text{C}$ 로 내륙형인 인제의 연평균 기온  $9.9^{\circ}\text{C}$  비해 보다 온난하고, 연간 강수량이 속초 1,342.4mm, 인제 1,114.1mm로 속초 지역이 220mm이상 강수량이 많고, 연평균 풍속은 속초가 3.1m/s로 인제의 1.9m/s보다 바람이 강한 특성이 있다. 또한 강릉보다도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뚜렷함을 나타내고 있다.

속초와 인근 지방의 기후 비교

지역	기온( $^{\circ}\text{C}$ )			연간 강수량 (mm)	연간 증발량 (mm)	연평균 풍속 (m/sec)	연평균 상대습도 (%)	일조율 (%)
	연평균	일최고 연평균	일최저 연평균					
속초	12.1	15.8	8.5	1,342.4	1243.9	3.1	67.1	49
인제	9.9	16.3	4.4	1,114.1	1114.0	1.9	71.0	51
강릉	12.9	17.4	8.9	1,401.9	1239.7	2.6	63.4	48

(한국기후표, 1971~2000)

## 나. 기온

### 1) 평균기온

속초의 연평균기온은  $12.1^{\circ}\text{C}$ 로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1971년 이래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9년  $13.2^{\circ}\text{C}$ 이고 가장 낮았던 해는 1986년  $10.5^{\circ}\text{C}$ 로서 기온의 연 변화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교차를 보여주고 있다. 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서  $23.7^{\circ}\text{C}$ 이고 가장 낮은 달은 1월로서  $-0.2^{\circ}\text{C}$ 이다.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과 평균일최저기온은 속초가  $-0.2^{\circ}\text{C}$ 와  $-3.8^{\circ}\text{C}$ 로 인제의  $-5.2^{\circ}\text{C}$ 와  $-11.0^{\circ}\text{C}$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과 평균 일최고기온은 속초가  $23.7^{\circ}\text{C}$ 와  $26.7^{\circ}\text{C}$ 로 인제의  $23.1^{\circ}\text{C}$ 와  $28.6^{\circ}\text{C}$ 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나 속초는 해양성 기후, 인제는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혹한이 두드러진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속초 지방의 월별 기온( $^{\circ}\text{C}$ )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2.1	-0.2	0.9	5.2	11.3	15.9	19.0	22.8	23.7	19.7	14.9	8.6	2.9
최고	15.8	3.7	4.7	9.0	15.6	20.1	22.2	25.6	26.7	23.2	19.0	12.6	6.9
최저	8.5	-3.8	-2.6	1.4	7.1	11.9	16.0	20.1	20.9	16.3	10.7	4.6	-1.0

(한국기후표, 1971~2000)

속초 지방에서 일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4년 7월 23일로  $32.7^{\circ}\text{C}$ 이었고, 일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2004년 1월 21일과 1986년 1월 5일 두 차례 있었으며  $-11.9^{\circ}\text{C}$ 이었다.

일평균기온 최고값( $^{\circ}\text{C}$ )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1	값	32.7	37.3	32.7
	년.월.일	2004. 7. 23.	1988. 8. 1.	1994. 8. 7.
2	값	31.9	36.5	32.7
	년.월.일	2002. 7. 31.	1988. 8. 2.	1994. 8. 6.
3	값	31.5	36.3	32.6
	년.월.일	1968. 7. 23.	1994. 7. 22.	1983. 8. 4.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4	값	31.4	36.3	32.4
	년.월.일	2004. 7. 24.	1972. 7. 29.	1992. 7. 29.
5	값	31.3	36.2	32.4
	년.월.일	1997. 8. 31.	1978. 7. 27.	1983. 8. 3.

일평균기온 최저값(℃)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1	값	-11.9	-18.2	-16.1
	년.월.일	2004. 1. 21.	1981. 1. 5.	1931. 1. 10.
2	값	-11.9	-18.1	-15.7
	년.월.일	1986. 1. 5.	1981. 1. 4.	1915. 1. 13.
3	값	-11.8	-17.6	-12.9
	년.월.일	2001. 1. 15.	2001. 1. 15.	1963. 1. 23.
4	값	-11.2	-17.3	-12.8
	년.월.일	1981. 2. 26.	2001. 1. 16.	1927. 1. 22.
5	값	-11.0	-17.3	-12.8
	년.월.일	1977. 2. 161.	1986. 1. 5.	1915. 1. 14.

### 2) 최고기온

속초 지방의 최고기온의 연평균 값은 15.8℃이며, 이는 인제의 16.3℃보다 낮은 값이다.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6.7℃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3.7℃이었다.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4년 7월 23일로 37.1℃이었다.

최고기온 최고값(℃)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1	값	37.1	37.3	39.4
	년.월.일	2004. 7. 23.	1988. 8. 1.	1942. 7. 25.
2	값	36.6	36.5	39.3
	년.월.일	2002. 7. 31.	1988. 8. 2.	1994. 7. 13.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3	값	35.9	36.3	38.9
	년.월.일	2004. 7. 24.	1994. 7. 22.	1994. 8. 6.
4	값	35.9	36.3	38.5
	년.월.일	1997. 8. 23.	1972. 7. 29.	1939. 7. 20.
5	값	35.8	36.2	38.0
	년.월.일	1997. 8. 31.	1978. 7. 27.	1939. 7. 19.

### 3) 최저기온

속초 지방의 최저기온의 연평균 값은  $8.5^{\circ}\text{C}$ 이며, 이는  $4.4^{\circ}\text{C}$ 보다 높은 값이다. 최저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0.9^{\circ}\text{C}$ 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3.8^{\circ}\text{C}$ 이었다. 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1981년 2월 26일로  $-16.2^{\circ}\text{C}$ 이었다. 인제와 강릉의 최저기온 최저값  $-25.9^{\circ}\text{C}$ 와  $-20.2^{\circ}\text{C}$ 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고 있다. 이는 겨울철 동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저기온 최저값( $^{\circ}\text{C}$ )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1	값	-16.2	-25.9	-20.2
	년.월.일	1981. 2. 26.	1981. 1. 6.	1945. 1. 13.
2	값	-15.6	-25.5	-19.1
	년.월.일	2004. 1. 22.	1981. 1. 4.	1931. 1. 11.
3	값	-15.6	-24.8	-18.2
	년.월.일	1970. 1. 5.	1981. 1. 5.	1931. 1. 10.
4	값	-14.8	-24.8	-17.8
	년.월.일	2003. 1. 29.	2001. 1. 6.	1915. 1. 14.
5	값	-14.7	-24.5	-17.0
	년.월.일	1977. 2. 16.	1984. 2. 3.	1917. 1. 8.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다. 강수량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1,100~1,500mm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속초지방의 연간 강수량은 1,342.4mm로 비교적 많은 양이다. 8월의 강수량이 293.7mm로 가장 많은 비가 오며 특히 여름철인 6, 7, 8월의 강수량이 속초 618.0mm, 인제 655.3mm로서 연평균 강수량의 46.0%와 58.8%를 차지하는 하계다우형의 강수 집중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지방의 60%보다는 낮은 편이며, 초가을인 9월에 강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속초 지방의 월별 강수량(mm)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42.4	53.1	56.4	56.2	71.0	87.9	122.9	201.4	293.7	205.4	81.5	71.6	41.3

(한국기후표, 1971~2000)

하루동안 비가 많이 온 날은 1984년 9월 2일로 314.2mm였고 다음이 1984년 9월 1일로 303.6mm였다. 태풍 루사가 속초 지방을 지나가던 2002년 8월 31일은 295.5mm의 일 강수량으로 세 번째로 비가 많이 온 날이다.

일최다강수량(mm)

지역		속초	인제	강릉
1	값	314.2	275.8	870.5
	년.월.일	1984. 9. 2.	1984. 9. 1.	2002. 8. 31.
2	값	303.6	232.0	305.1
	년.월.일	1984. 9. 1.	1990. 9. 11.	1921. 9. 242.
3	값	295.5	216.5	297.7
	년.월.일	2002. 8. 31.	1999. 8. 2.	1936. 9. 27.
4	값	241.0	200.0	297.5
	년.월.일	2004. 7. 4.	1991. 7. 25.	1990. 9. 11.
5	값	240.8	186.5	289.1
	년.월.일	1990. 9. 11.	1999. 8. 1.	1984. 8. 5.

속초 지방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눈이 가장 많이

쌓였던 날은 1969년 2월 21일로 123.8cm이었고, 그 다음이 모두 2월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다. 이와 같이 속초 지방에 눈이 많이 오며 특히 2월에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평균고도가 해발 900m이상이 되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쪽에 치우쳐 있어 영동 지방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동해와 접해있는 지형적 특성과 만주 동쪽이나 오헤츠크해 부근에서 고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배치 때문이다. 대륙성 고기압의 세력이 시베리아의 동부까지 확장하거나, 오헤츠크해 고기압이 발달하여 북고남저형 기압배치가 되면 북동풍이 영동지방으로 불어오게 된다. 동해쪽에서 불어오는 차고 습한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상승할 때 엄청난 눈구름을 형성하게 되어 폭설이 내리게 된다.

최심적설(cm)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1	값	123.8	35.6	138.1
	년.월.일	1969. 2. 21.	1987. 2. 3.	1990. 2. 1.
2	값	113.8	35.0	130.2
	년.월.일	1969. 2. 20.	1987. 2. 4.	1923. 1. 27.
3	값	102.0	34.1	118.0
	년.월.일	1969. 2. 22.	1987. 2. 5.	1990. 2. 2.
4	값	88.6	32.0	113.7
	년.월.일	1972. 2. 11.	1987. 2. 6.	1990. 1. 31.
5	값	87.0	31.9	109.7
	년.월.일	1996. 2. 18.	1997. 1. 7.	1996. 2. 21.

## 라. 습도

습도는 복사냉각(輻射冷卻)으로 수증기 응결현상(凝結現象)이 나타나는 이른 아침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정오를 지나면서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습도는 내륙지방보다 해안지방이 높은 것이 특성이지만 지형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속초 지방은 월 평균습도는 51.8~83.2%의 분포로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다. 월 평균습도가 가장 높은 달은 장마기간으로 잦은 비와 흐린날이 많은 7월로 83.2%이며, 가장 낮은 달은 12월로 51.8%이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속초 지방의 월별 습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7.1	53.0	57.7	63.3	63.3	68.5	80.1	83.2	83.0	77.4	66.1	58.2	51.8

(한국기후표, 1971~2000)

속초 지방에서 최소 습도의 최저값은 2004년 3월 31일의 5%이다. 속초 지방에서 최소 습도는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데, 이는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높새바람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봄철의 낮은 습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소습도가 20% 미만이 되는 날은 연간 14.8일이며 4월에 2.8일로 가장 많으며, 최소습도 10% 미만의 날 역시 4월에만 0.1일로 가장 건조한 달임을 나타낸다. 특히 2004년도 봄에는 유난히도 습도가 낮은 날이 많아 청대산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최소습도 최저값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값	5	3	5
1	값	5	3	5
	년.월.일	2004. 3. 31.	1989. 4. 2.	1994. 1. 24.
2	값	7	4	5
	년.월.일	2005. 5. 3.	1977. 5. 3.	2004. 3. 28.
3	값	7	5	5
	년.월.일	2004. 4. 30.	1991. 4. 20.	2005. 5. 7.
4	값	7	5	5
	년.월.일	2004. 4. 28.	1978. 4. 23.	2005. 1. 6.
5	값	7	5	5
	년.월.일	2004. 2. 19.	1976. 10. 29.	2004. 4. 18.

(속초기상대 제공)

속초 지방의 최소습도 20% 미만 일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일수	2.3	1.3	2.2	2.8	1.5	0.2	-	-	0.0	0.7	1.6	2.2	14.8

(한국기후표, 1971~2000)

## 마. 바람

바람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보다 해안지방에서 강하게 분다. 속초 지방의 연평균 풍속은 3.1m/s로 인제의 1.9m/s보다 월등히 강하며, 강릉의 2.6m/s보다도 강하여 예로부터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달은 12월로 월 평균 풍속이 4.5m/s이고, 가장 약하게 바람이 부는 달은 7, 8월로 월 평균 풍속이 2.4m/s이다. 특히 상대습도가 낮은 11월부터 5월까지의 강풍 때문에 산화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속초 지방의 월별 풍속(m/s)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	3.7	3.5	3.4	3.7	3.3	2.7	2.4	2.4	2.6	2.9	3.4	4.5

(한국기후표, 1971~2000)

속초 지방에서 순간최대풍속이 가장 강했던 날은 1974년 4월 22일과 1980년 4월 19일 두 차례 있었으며 순간최대풍속이 46.0m/s로 강원도의 최고 기록이다.

최대순간풍속(m/s)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1	값	46.0	26.6	41.6
	풍향	SSW	E	SSW
	년.월.일	1980. 4. 19.	2002. 3. 21.	1983. 4. 27.
2	값	46.0	23.8	38.0
	풍향	SSW	NNE	SSW
	년.월.일	1974. 4. 22.	1992. 7. 2.	1974. 6. 12.
3	값	43.6	22.4	36.2
	풍향	NW	SSW	SW
	년.월.일	1980. 1. 26.	1997. 1. 1.	1987. 4. 21.
4	값	43.0	22.1	36.0
	풍향	SW	SSW	SW
	년.월.일	1983. 4. 27.	1997. 4. 12.	1968. 11. 9.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순위	지역	속초	인제	강릉
5	값	41.0	21.2	33.0
	풍향	SW	SSW	WSW
	년.월.일	1973. 4. 18.	2004. 3. 10.	1982. 5. 4.

### 바. 계절관측

#### 1) 서리

속초 지방의 첫서리가 가장 빨랐던 해는 1983년 10월 24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해는 1981년 2월 5일이었다. 마지막 서리가 가장 빨랐던 해는 1989년 2월 14일이고, 가장 늦었던 해는 1984년 4월 8일이었다.

#### 서리 내리는 시기

지역	첫 서리		마지막 서리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속초	1981. 10. 24.	1981. 2. 5.	1989. 2. 14.	1984. 4. 8.
인제	1982. 9. 26.	2000. 11. 1.	1972. 4. 2.	1976. 5. 14.
강릉	1969. 10. 10.	1980. 1. 24.	1966. 2. 14.	1947. 5. 10.

(속초기상대 제공)

#### 2) 눈

속초 지방의 예년 첫눈은 11월 30일이며, 가장 빨랐던 첫눈은 1980년 10월 25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첫눈은 1994년 12월 31일이었다. 예년의 마지막 눈은 3월 25일이며, 가장 빨랐던 마지막 눈은 2000년 2월 27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마지막 눈은 1992년 4월 15일이었다.

#### 눈오는 시기

지역	첫 눈			마지막 눈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속초	11. 30	80. 10. 25.	94. 12. 31.	3. 25.	00. 2. 27.	92. 4. 15.
인제	11. 18	81. 10. 23.	75. 12. 21.	3. 30.	98. 2. 28.	74. 4. 22.
강릉	12. 1.	76. 10. 30.	65. 12. 30.	3. 27.	00. 2. 28.	17. 4. 28.

### 3) 얼음

속초 지방의 예년 첫 얼음은 11월 8일이며, 첫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89년 10월 17일이었고, 첫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71년 11월 28일이었다. 예년 마지막 얼음은 4월 1일이며, 마지막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59년 3월 9일이고, 마지막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84년 4월 20일이었다.

얼음 어는 시기

구분 지역	첫 얼음			마지막 얼음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속초	11. 8.	89. 10. 17.	71. 11. 28.	4. 1.	59. 3. 9.	84. 4. 20.
인제	10. 17.	87. 9. 27.	94. 10. 30.	4. 20.	81. 4. 3.	76. 5. 14.
강릉	11. 9.	99. 10. 17.	54. 12. 2.	4. 3.	89. 3. 18.	47. 5. 9.

### 4) 적설

속초 지방의 예년 첫 적설(積雪)은 12월 17일이며, 첫 적설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81년 11월 17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날은 1968년 2월 10일이었다. 예년 마지막 적설은 3월 20일이며, 마지막 적설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94년 2월 18일이고, 마지막 적설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92년 4월 16일이었다. 적설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은 1972년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50일간이었다. 인제 지방에 비해 적설량은 많으나 적설 기간이 짧은 것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해양성 기후의 속초 지방이 내륙성 기후의 인제 지방보다 높기 때문이다.

적설 시기

구분 지역	첫 적설			마지막 적설			가장 오래 계속된 적설기간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평년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시작	끝	일수
속초	12. 17.	81. 11. 17.	68. 2. 10.	3. 20.	94. 2. 18.	92. 4. 16.	72. 1. 23.	72. 3. 12	50
인제	11. 26.	78. 10. 29.	94. 12. 30.	3. 22.	98. 2. 15.	88. 4. 19.	80. 12. 22.	81. 2. 13.	54
강릉	12. 14.	81. 11. 17.	54. 2. 14.	3. 19.	38. 2. 14.	47. 4. 21.	69. 1. 28.	69. 3. 22.	54

### 3. 속초의 식물 · 동물상(植物 · 動物)

#### 가. 설악산의 식물

##### 1) 설악산의 생물 지리학적 특징(特徵)

설악산은 남한 지역에서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태백산맥 중에서는 최고봉인 관계로 저지대와 산 정상과의 기온 차가 12~13℃가 된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텔개불알꽃, 홍월귤 등을 비롯 금강봄맞이꽃 등 남한에서는 주로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자라며, 눈측백, 난쟁이붓꽃, 솔나리 이외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이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한온(寒溫)의 기후 변천에 따라 식물이 이동하는, 즉 남하 또는 북상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후가 한랭해지면 식물의 분포 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그 분포 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은 고지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설악산의 식생개황(植生概況)

설악산의 식물구계는 중일식물구계, 온대아구의 한국구에 속하며,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원시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 원시림은 신갈나무, 서나무, 당단풍 등의 낙엽활엽수림과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의 상록침엽수림의 혼합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단순림을 구성하고 있다.

설악산의 전체적인 식생은 낙엽활엽수림으로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나, 설악산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산맥에서 서해와 동해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13 : 1에 달해 외설악은 내설악에 비하여 경사가 매우 심하고 따라서 침식의 속도가 빨라 많은 기암절벽과 폭포를 만들며, 표토의 깊이가 얕고 건조한 편이어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치 않아 생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며, 내설악은 외설악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표토가 깊고 수분 조건이 적당하여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편이다.

따라서 외설악에서는 건조에 비교적 강한 소나무림의 발달과 굴참나무군락을 볼 수 있으며 내설악은 대부분이 신갈나무를 우점종으로 하는 낙엽활엽수의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 때문에 고도별 수직 분포와 구성 종의 차이를 약간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112과 486속 1,300분류군(1,043종, 214변

종, 34품종, 1아종, 8교잡종)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이 매우 넓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과거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 삼림이 울창하였으나, 6·25전쟁 중에는 격전지이었기 때문에 삼림의 훼손이 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까지는 인간의 간섭이 없어 삼림의 복구 속도가 매우 빨라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삼림이 울창하고 식물상이 다양하였다.

그리하여 설악산 국립공원과 그 주변을 포함한 지역이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기부터 등산 인구와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외래종이 도입되는 등 종의 분포 상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 3) 설악산의 대표적인 수종(樹種)

설악산에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는 신갈나무, 소나무, 당단풍, 졸참나무, 서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전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굴참나무가 있다.

### 4) 설악산에 자라는 특산식물(特產植物)

우리나라에서만 서식 또는 자생하는 특산식물로서 설악산에 자라는 모데미풀과 특산종의 설악눈주목 등 특산 변·품종 두께김의털을 포함 모두 71종류가 있다.

### 5) 설악산에 자라는 희귀(稀貴) 및 멸종(滅種)위기 식물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감소 추세에 있고 개체수가 아주 희소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희귀 및 멸종 위기의 식물로서 환경부에서 자연보전법 시행령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식물과 보호대상식물 중 보호대상 식물은 솔나리를 비롯해 74종류가 설악산에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6)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歸化植物)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은 29속 33종류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 225종에 대한 설악산의 출현 종수는 1,262종류로 2.61%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에 조사된 종류에서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가 자생종으로 밝혀져 제외되고 새로운 종류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설악산에는 귀화종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귀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화종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설악산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재 운반 등 귀화식물의 도입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나. 속초의 해안식물(海岸植物)

#### 1) 해안환경(海岸環境)

속초의 해안은 태백산맥이 해안 가까이 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는 육지에서 풍화 침식으로 생성되는 모래를 운반 공급하는 양양 남대천, 쌍천, 용촌천 등의 하천이 있어 모래해안이 발달되어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약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부족하며,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들이 해안 식물이다. 이들 해안식물들은 부족한 수분과 무기영양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잎과 줄기에 비하여 뿌리가 매우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 뿌리의 양이 잎과 줄기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보수력이 보다 나은 내륙으로 갈수록 잎과 줄기의 양의 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모래해안에서 파도의 영향을 들 받고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며, 그 바깥쪽의 불안정 지역에는 땅속줄기가 발달한 식물, 기는줄기가 발달한 식물, 뿌리가 깊은 방석형 식물 등이 잘 자라며, 암석해안의 바위틈에는 방석형 식물과 잎이 두터운 식물, 털이 있는 식물 등이 잘 자란다.

#### 2) 해안식물(海岸植物)

속초시의 해안에 자라고 있는 해안식물 중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은 왕잔디를 비롯해 밀사초 등이 있다.

### 다. 속초의 습원식물(濕原植物)

석호(潟湖)인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관개용 저수지와 웅덩이 등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쌍천과 청초천 등의 소하천과 농수로 주변에는 하천식물이 자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초는 수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며, 수생식물은 생활 장소나 생활형에 따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및 부유식물로 대별할 수 있다. 속초시의 호수, 하천, 관개용 수로 등의 습지에 자라는 수생식물을 생활형에 따라 나누

어 보면 침수식물에 실말, 줄말과 물질경이, 부엽식물에는 가래, 애기가래, 수련, 개연꽃, 부생식물에는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등이 있으며, 정수식물에는 갈대, 줄, 부들과 습지식물로는 알방동사니, 부처꽃 등 이외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 라. 설악산의 동물상(動物相)

### 1) 포유류

설악산에서의 보고된 과거 문헌, 동물의 흔적(발자국, 배설물 등), 관찰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총 6목 15과 39종을 기술하였고,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 6목 16과 37속 45종을 기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설악산에 과거 서식하였거나 현재에 서식하고 있는 종은 모두 6목 16과 39속 48종이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가) 절종되었다고 보는 종류

과거에 설악산에 서식하였으나, 설악산은 물론 남한에서는 절종되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호랑이, 사슴이다.

#### 나) 사라져 가는 종류

환경부에서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로서 과거에는 설악산에 서식하였으나 개체수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목격담과 생활흔적으로 서식을 추정할 뿐 확인되지 않고 있는 종으로, 일부 종은 최근에 전혀 목격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으로 늑대, 여우, 곰(반달가슴곰), 표범, 사향노루 등이다.

#### 다) 환경 변화로 감소되어 가는 종류

과다한 등산객과 연중 무휴의 입산 등 인간의 간섭으로 이들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종류로서 고슴도치, 너구리, 수달, 오소리, 담비, 노루, 산양 등이다.

#### 라) 환경 변화로 증식되는 종류

인간 간섭에 의한 임상의 변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천적인 포식동물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두더지, 벗돼지, 고라니, 다람쥐, 벗토끼, 청설모, 들쥐(땃쥐, 작은땃쥐, 뒤지,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벗밭쥐, 갈밭쥐 등)등이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마)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 야생화 된 종

가축 또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이 야생화 한 종으로 고양이와 염소가 있으며, 특히 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생태계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 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

청문 조사만으로 기재되었거나 잘못된 동정 등으로 기재된 종 중에서 설악산에 분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종으로, 갯첨서는 주민들에 목격되었다고 하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고, 날다람쥐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하늘다람쥐를 잘못 동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조류

원병오와 구태희의 「설악산의 조류의 분포와 임상과의 관계」(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77~284)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62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2001)에서는 109종을 기록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관찰된 109종에 『강원의 자연-조류편』(1988,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기록된 설악산 지역 외의 속초 지역에서 관찰된 종류를 추가하면 속초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총 46과 121속 227종이 된다. 그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조류는 I 급이 7종, II 급이 20종이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23종이 있다.

## 3) 파충류 · 양서류 · 담수어류

### 가) 파충류

백남극, 박상률과 심재한의 「설악산의 파충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93~30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파충류는 1목 2아목 3과 13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는 설악산 경계 밖 저지대에서 발견한 7종을 포함하여 모두 2목 6과 16종을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구렁이(I 급) 1종이다.

### 나) 양서류

백남극과 심재한의 「설악산의 양서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85~29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양서류는 2목 5과 6속 10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 한국미기록종 1종을 추가하여 2목 5과 6속 1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담수어류

전상린의 「설악산의 계류동물- I. 담수어류」(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370~411)에 의하면 태백산맥의 일부인 설악산맥을 분수령으로 내설악과 외설악에서 뚜렷한 담수어류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된 담수어는 원구류를 포함하여 총 61종류이다.

설악산에서 관찰된 담수어 61종에 『강원의 자연-담수어편』(1986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기록된 속초지역의 담수어를 검토하여 추가하면 원구류를 포함하여 21과 50속 65종이다. 이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II급이 8종이며, 천연기념물은 어름치 1종이다. 또한 한국고유어종은 16종이다. 종의 배열 순서는 『한국동식물도감-담수어류편』(1997 김익수, 교육부)을 따랐다.





## Ⅱ. 속초의 역사(歷史)

1. 선사시대(先史時代)
2. 고대시대(古代時代)
3. 고려시대(高麗時代)
4. 조선시대(朝鮮時代)
5. 일제시대(日帝時代)
6. 현 대(現代)



## II. 속초의 역사

### 1. 선사시대(先史時代)

#### 가. 석기시대

우리나라에서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펜석기를 가지고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신석기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농경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농경생활로 인해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였다.

정착생활은 농경문화의 틀을 만들어 민족문화의 뿌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동 북부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다고 확인된 시기는 구석기 시대이다. 인근 지역인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이미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속초 지역에서 조사, 보고된 구석기 또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없다. 하지만 손양면 도화리 구석기 유적지 외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와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조양동에서도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속초지역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동해안의 선사시대 유적지 분포를 보면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가 위치한 해안의 호수가 주변 충적지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양양 오산리와 고성 문암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대가 앞서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임이 밝혀졌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나왔는데, 이것의 원산지는 백두산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흑요석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속초는 원시 시대 사람들의 이동 경로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유적지의 발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나. 청동기시대

신석기 시대에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기원전 15~13세기경에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속초가 있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은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양동 유적은 조양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 골입술구멍무늬토기, 숫돌조각이 지표 채집되었으며, 일부 탐색조사 캠내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화층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발굴을 실시한 결과 유적에서는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가 조사되었다. 집자리는 해발 25~30m 사이의 구릉 정상부에 등고선의 방향과 평행하게 동서열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과 네모반듯한 형태로 풍화암반 충을 파고 만든 웜집이다. 웜집의 크기는 길이 6.2~12.8m, 폭 3.6~6.75m로 작은 것은 약 8.5평에서 큰 것은 23평까지 된다.

웜집의 바닥은 대개 점토, 마사토를 섞어 다짐하였으며 내부시설로는 화덕자리,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제습용(除濕用) 흄, 작업대 등이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집자리의 4벽면을 따라 나있으며 장축의 중심선에서 4개의 기둥자리가 확인된 것도 있어 지붕은 맞배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기둥구멍 사이를 연결한 흄으로 옥외로 연결한 배수구시설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집자리의 형태나 구조 및 내부 시설들은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장용 구덩이가 많이 사용된 점이라던

가 이러한 구덩이 속에 저장용 토기 등을 묻어 두는 것 등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집자리의 특성에 속하는 것이며, 제습용 흄과 같은 내부시설은 지역적 특성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돌은 2기가 조사되었는데, 1호 고인돌은 묘실에 별도의 덮개돌이 없이 묘곽의 바로 위에 뚜껑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묘곽의 바닥에는 납작한 할석을 깔았다. 그리고 네 벽을 큼직한 할석을 쌓아서 만든 전형적인 석곽형의 개석식(蓋石式) 고인돌이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에 비해 유물의 출토량은 적은 편이나 1호 고인돌에서는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도끼 1점과 화살촉 9점이 완형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중국 요령 지방의 요령식 동검문화 유적에서 유행한 형식으로 실물로는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속초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 내세울 만하다.

토기로는 홀구연과 이중구연에 구멍무늬, 골무늬, 단사선문이 결합된 것이 많으며, 두형(豆形)굽다리잔과 목항아리 등의 붉은간토기가 대부분의 집자리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굽다리잔은 청동기시대 초기의 것으로 함경도 동북지방과 연결되는 토기로 강원 영동지방의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 문화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석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집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것들이 골고루 출토되었는데, 돌도끼, 돌대패, 돌살촉, 반달돌칼, 돌창이 있으며 그 밖에 석제, 토제의 가락바퀴와 그물추가 있다. 조양동유적은 토기의 성격 등으로 살펴볼 때 남한지역의 초기 민무늬토기 문화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서북 및 동북지방의 민무늬토기 문화를 수용하여 이를 혼합한 중요한 지역으로 한강유역뿐만 아니라 강원 영동지방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된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집자리의 저장구덩이, 화덕자리 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청동기 시대 집자리 구조와 가옥발달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집자리로 평가된다. 조양동 유적은 이런 이유로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다.

속초 장사동 지역(현 속초고등학교 앞산)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이 1980년 12월에 발견되었다. 간돌검은 자루가 있는 돌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며, 화살촉은 버들잎 모양이 5점이고 슴베(자루 속에 박히는 뾰족한 부분) 달린 화살촉이 1점이다. 간돌검과 돌화살촉 이외에 철기 1점과 토기 편 3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가 박물관이 폐관됨에 따라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이전되어 일부 전시되고 있다.

## 다. 동예(東瀛)

청동기시대 이후 지배·피지배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발전하여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국가(족장국가)가 형성되었다.

그 초기 국가의 하나로 강원도 동해안 북부에 동예(東瀛)라는 나라가 있었다. 동예의 영역은 영흥, 덕원, 안변 등 영흥만 일대였으나 뒤에는 고구려에게 쫓겨 더 남쪽의 강릉, 영덕 등지로 옮겨갔다. 이러한 점은 속초가 동예의 영역이었음을 말해준다.

동예의 크기는 총 2만호 정도로 지리적인 여건상 선진문화(금속문화)의 수용이 늦었다. 따라서 정치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여 군장국가의 단계에 머물다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중국문물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문화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위만조선과 한(漢) 군현 및 고구려 등 주변의 강대한 세력들에 의한 잇따른 지배와 수탈이 그 주요 원인의 하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동예는 2세기 이후 고구려의 지배아래 있었는데, 245년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동예의 주요읍락들이 위(魏)군에 유린되거나 그에 투항하였다. 이후 동예는 당분간 낙랑군의 영향 아래 귀속되었다. 그러나 4세기 초 진(晉)나라의 쇠퇴와 함께 고구려가 낙랑군을 병합함에 따라 동예지역에 다시 고구려의 세력이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예의 일부는 여전히 고구려의 지배 밖에 있었는데, 5세기 초 광개토왕 대에 동예에 대한 정벌전이 감행되어 많은 촌락이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생활은 고기잡이, 사냥, 농경으로 넉넉했고 특히 산누에를 길러 명주를 짜고 삼베도 짬다. 동예의 읍락은 산과 내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함부로 남의 구역을 침범하면 책화(責禍)라 하여 노예·소·말 따위로 보상하게 했고,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써 죄를 갚게 했다. 또한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꺼리는 것이 많아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으로 죽으면 살던 집을 버리고 새집으로 옮겨가는 풍속도 있었다. 이는 가옥구조가 비교적 간편하며 사회발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풍속이기도 하다.

## 2. 고대시대(古代時代)

### 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속초

속초가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에 속해 있었다. 당시 이곳은 삼국 중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양양의 고구려 때 이름은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그 후 속초·양양 지역은 신라의 북상에 따라 고구려에서 신라에 속하게 되는데, 신라 진흥왕 12년(551)에 신라가 고구려의 10군을 취한다는 기사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에 비렬흘주(比列忽州)를 설치한다는 기사로 미루어 그 시기는 진흥왕 때라고 추정된다.

신라 때 양양은 익현(翼縣)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졌고, 9주 중 명주에 속하였다.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이었고, 명주의 영역은 오늘날의 영동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 나. 화랑도(花郎徒)들의 순례와 불교의 발달

속초의 영랑호는 신라 화랑(花郎) 영랑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화랑도는 일상생활의 규범과 옛 전통을 배우며, 각종 제전 및 의식에 관한 훈련을 쌓고, 수렵이나 전쟁에 대한 기술을 익히며,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개인한 체력을 연마하였다.

화랑도들은 국토순례를 중시했다. 그 중 금강산과 관동 8경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었다. 속초의 영랑호를 비롯하여 통천 총석정의 사선봉, 고성 삼일포, 간성 선유담, 강릉의 경포대, 한송정 등에는 화랑들의 고사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이 고장은 고승들도 즐겨 찾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꽂피웠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율사에 의해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가 현재 켄싱턴호텔 자리에 창건되었다. 그 이외에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에 의해 건봉사의 전신인 원각사가, 문무왕 11년(671)에는 의상대사에 의해 낙산사, 신문왕 8년(688)에는 원효대사에 의해 영혈사, 혜공왕 5년(769)에는 진표율사에 의해 화암사가 개창되었다. 선종의 대사찰 진전사, 선림원도 이때 세워진 사찰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 고장에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 3. 고려시대(高麗時代)

#### 가. 고려시대의 속초

고려는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지방은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졌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 전국 주요지점에 12목(牧)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도(道)와 계(界)로 나누면서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경우에 따라 중감이 있었으나, 뒤에 전국은 5도 양계로 낙착되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였고, 양계는 국경 지대에 설치된 군사행정구역으로 북계와 동계가 그것이었다.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방은 동계에 속하여 동북면 병마사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국경선의 북상에 따라 동계 지역은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영동지역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불려지다가, 강릉도가 우왕 14년(1388)에 영서의 교주도와 합쳐져 교주강릉도의 토대가 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였다.

#### 나.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 발해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은 현종 2년(1011)부터 숙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것이 20여 회나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몽고가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 왔다. 고종 40년(1253) 에구(也古)에 의한 제5차 침입 때에는 강원도에도 침입하였다. 고려 승 익장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퀸금성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려 후기에 오면 왜구가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침입 기록은 무려 471회나 되는데 속초 인근에도 우왕 9년(1383)에 왜구가 동산현에 침입한 기사가 있고, 우왕 6년(1380) 강릉도 상원수로 활약한 조인벽이 말년에 지금 낙산 해수욕장 부근인 양양 조산리

에 은거했으며, 그 후 그를 모시는 동명서원이 그곳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가 이 부근에서 왜구를 격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조선시대(朝鮮時代)

강원도는 근세조선 이후에 쓰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 구역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강원도는 처음에 고려 말에 형성된 교주 강릉도의 이름을 바꾼 데서 출발하였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 3년(1393)에 생긴 것이며, 1395년에 충청도에 속해있던 원주를 강원도에 복귀시켜 감영 소재지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구역 정비와 행정조직을 완성하였는데, 이때의 것이 조선 말기(1895)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원양도·강양도·강춘도·원춘도 등 명칭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시대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반역, 강상죄 등이 명칭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 가. 조선시대의 속초

#### 1) 행정구역(行政區域)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양양도호부는 도문면, 소천면을 포함하여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속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태종 16년(1416)에 처음으로 양양으로 불려졌는데,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다가 아관파천 이후 다시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속초의 인구는 영조 41년(1765)에는 1,265명, 1871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邑誌)』에는 1,20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유학 · 교육(儒學 · 教育)

당시 지방 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들 수 있다. 향교는 관립학교로서 모든 고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다.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 · 간성에 모두 향교가 있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또 사립학교로는 양양읍 조산리에 고려말의 무장 조인璧(趙仁璧)을 모시는 동명서원이 있었으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에 남아있는 유물재비(愈勿齋碑)에 의하면 그 자리에 물재 유희일(愈晦一)을 추모하고 제사지내던 향현사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많은 서당이 있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05개의 서당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속초에도 많은 서당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 3) 군사와 국방(軍士와 國防)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중앙에는 5위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 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세조(世祖)이전에는 각 도에 절도사가 주재하는 주진을 두고 변경 · 해안 등 요충지에 진(鎮)을 두어 방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해안 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 6년 정축에 .....수군만호수어처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

속초포(束草浦)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 10명이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에 의해 확인된 최초의 것이다. 아울러 이미 세종때 수군만호처가 존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은 강릉대도호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에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첨사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는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퀸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청초호),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는 겪지 않았다. 다만 임진왜란(1592~1597) 때 제 4진으로 상륙한 모리 요시나리 군이 안변에서 영동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에 사명대사가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아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양양 『향토지』에 부사 김수연이 9월에 부임하여 방어하지 못해 10월에 면직 당하고, 임시 수령 정은신이 11월에 부임하였다가 12월에 해임되고, 12월에 부사 황규가 부임하는 등 그 피해가 5개월에 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 4) 교통 · 통신(交通 · 通信)

교통제도를 대표하는 것은 역마제다. 역은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마다 말과 역정(役丁)을 갖추어 공문을 전달하고,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그밖에 진상하는 관물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양에는 상운, 연창, 인구, 강선, 오색 등에 역이 있었다.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상의 이유로 설치되었다. 대략 수십 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서로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봉화대를 마련해 놓고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였다.

속초 대포동 외옹치에도 덕산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남으로는 수산, 초진산, 북으로는 죽왕면 삼포리의 죽도, 거진 반암리의 정양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 5) 특산물(特產物)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각 군현별로 공납이라고 하여 특산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특산물은 전곡과는 달리 수확량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농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모시, 철, 죽간(竹簡, 글씨를 쓰던 대조각), 해송자, 오미자, 자초(화상, 동상등에 바르던 약초), 인삼, 지황(한방약재), 복령(버섯종류, 한약재), 꿀, 백화사(뱀종류), 김, 콩, 전복, 홍합, 문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해삼, 송이 등을 기록하고 있다.

## 나.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전개

### 1) 동학농민운동(동학농민운동)

동학은 1860년경 철종 때 경주 사람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다.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 창건사』에 의하면, 1869년에 2대 교주 최시형이 2년간 양양에 체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류하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영동보다 영서에 동학이 크게 퍼졌고, 아울러 영서지역에서 동학군이 봉기하게 된다. 영월, 평창, 정선 등지에서 봉기한 동학군은 대관령을 넘어 한때 강릉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하나, 곧 강릉읍민에게 패퇴하여 평창 등지에 주둔한다. 또 홍천에서는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 5읍 도접주였던 차기석이 동학군을 이끌고 홍천 동창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기린, 양양, 간성 등지에 비밀리에 통문을 발하여 동지를 모으고 영동으로 진격할 기세였다.

이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에서는 유림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동학군을 조직하고 각 영에 배치하여, 동학군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영서의 동학군을 공격한다. 이때 양양에서는 도문동 출신 이석범이 민병을 조직하여 홍천 내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했다.

### 2) 의병항전(義兵抗戰)

한말 민족 운동의 두 흐름은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이다. 의병항쟁은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시해한 사건)과 단발령에 대한 항거에서 시작되었다. 각지의 의병들은 친일적인 지방 수령을 숙청하고 일본인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9개월 정도 후에는 활동이 종식된다.

영동지역의 의병장으로는 민용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기도 여주 사람으로 원주에서 의병을 모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여, 1896년 1월 30일 강릉에서 그 곳 의병들과 합류하여 관동9군 창의소를 설치했다. 양양 『향토지』에 의하면 양양에도 창의소가 설치되었다. 그는 의병들을 이끌고 원산까지 공격하나, 안변·선평에서 관군에게 패퇴하여 강릉으로 후퇴한다. 원산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의병과 관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읍에서 임천리까지 전투장이 되었고, 민가 30여호가 불에 탔다. 독립신문(1896. 6. 20일자)에 보면 당시 군수가 의병에게 처형당했다는 기사가 있다.

## 5. 일제시대(日帝時代)

1910년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고, 의병 부대는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 독립군으로 재편성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 활동이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봉기의 배경이 되

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족의 활동에 맥을 같이하여 활발한 주권회복을 벌였다.

## 가. 일제시대의 속초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다.

이 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에 의하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5년경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후기에 와서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속초는 면 이름이자 동리 이름이 된 것이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시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리가 되었다.

당시 양양군 소재지인 양양은 아직 면이었으나 속초는 이미 읍이 되었다. 그러니까 속초가 6·25사변 후 함경도 사람들의 남하로 비로소 커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3·1 운동

속초가 속한 양양군의 3·1운동은 그 규모나 내용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지도자는 이석범(李錫範)이었는데, 그는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으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인물로 반동학군 활동, 의관, 면장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많았다는 점이 3·1운동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또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개성 호수돈 여학교를 다니던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온 후 양양 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하던 중 유림세력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이석범의 지휘와 또 다른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양양에서는 4월 4일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면·서면·손양면민 등 4천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홍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

터에 모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 모였다. 오전에는 도천면민이 대포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오후에는 강현면 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여 시위하던 강현면민이 대포리에 와서 합세하였다. 이에 일제는 경찰 이외의 일본인을 새벽부터 배를 띄어 바다에 머물게 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4월 6일자 전신보고에,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 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를 8백 명이라 했는데 1천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만세운동은 4일 양양시장과 군청, 경찰서 앞에서 시작된 이래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6개면 82동리의 주민 6,000명이 참가하여 전개한 전군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만세운동으로 12명의 사망자와 7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으며 3일 오후 임천리에서 추진되던 준비 작업의 일부가 발각되어 22명이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양지방의 만세운동은 독자적으로 계획되어 상반된 이해를 갖는 보수 세력과 개화세력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 타 지역의 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제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 시위운동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 다. 3·1 운동 이후 사회운동의 전개

### 1)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농민조합운동

3·1 운동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후, 양양 지역의 사회운동은 점점 쇠퇴하여 갔다. 이러한 가운데 1923년 물치 노농동맹이 조직되었다. 물치 노농동맹은 양양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으로 당시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운동사에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양의 대표적인 사회 운동은 농민조합운동이다. 양양은 지주 경영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급자족적인 영세 소농 경영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지주 투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야학의 설립과 외지 유학생들에 의한 신문화 유입 등이 농민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각 리별로 활동하던 농민조합을 1927년 12월에 군 농민조합으로 탄생시켜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천면 출신의 지도자 김병환은 1926년 12월경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양양 농민조합은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하여 1931년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일제는 1932년 도내의 21개 경찰서에서 무장 경관대를 차출하여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쳤다. 짧은 시간 안에 3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검거되었고, 이 중 공판에 회부된 인원은 김병환 등 36명으로 이들은 4년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양의 농민조합운동은, 당시 신문이 단천 농민조합사건 다음 가는 대사건이라 보도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 활동도 활발했다. 그러나 농민조합운동이 1931년 이후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민조합에 참여한 것은 현실생활의 타개, 토지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조합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2) 신간회(新幹會) 운동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의 일환으로 1927년 2월에 조직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우파의 연합단체이다. 신간회의 설립 목적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으로서 양양 지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정도로 군민의 기대가 커졌다.

설립 후 신간회는 미신타파, 조혼금지, 단연과 아편흡연추방, 매춘과 풍기문제 등 계몽운동의 전개와 생활·생존권 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반일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 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반일 감정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신간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포공진소년회 매욕 사건’(대포공립 보통학교의 교장이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학생 24명에게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인데, 결국 이 문제는 양양 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가 관여하게 되어 양양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립은 결국 일제의 방해를 심화시켰고, 신간회의 활동도 비공식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1927년 말~1928년 초에 드러난 신간회의 조직상 결함으로 인해 창립 1주년이 되는 시기에도 구체적 활동 방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연히 신간회의 활동 역시 이전의 사회단체들이 전개하여 왔던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에 이르면 조직 자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농민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농민조합이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신간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신간회는 중앙에서부터 합법적 단체 성격의 한계와 여러 차례 주요 간부가 검거되면서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양양에서는 1930년 4월 25일 제4회 정기대회를 열고 신간회의 활성화를 피하려고 하나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농민조합으로 넘기게 된다.

그러나 신간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성장해 온 민중운동을 규합하여 조직하고, 민족단일 전선을 이루었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 6. 현대(現代)

### 가. 해방(解放) 후의 속초

#### 1) 공산 치하(共產治下)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학정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해방된 민족을 조직하고 이끌만한 조직체가 없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되어 혼란만을 가져왔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으로 혼란을 빚어내고 있을 때, 미국·소련 양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지역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 2) 반공 투쟁(反共鬪爭)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정권이 만들어졌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이른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토지개혁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속초에서는 반공인사들을 중심으로 반공 투쟁을 위한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활동을 벌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속초애국 동지회 사건과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펫골 전투이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가)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

속초 애국 동지회는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高在德)을 중심으로 10명이 조직한 반공 애국단체였다. 이들은 소련 점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 이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자는 각오로 지하조직망을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들은 1946년 2월 18일 거사를 모의하다가 비밀이 탄로되어, 다음날인 2월 19일 모두 체포되었다. 중언에 의하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송곳으로 몸을 찔러 잠을 못 자게하고, 자루를 대로 만든 망치로 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1946년 3월 15일 원산보안서로 송치되었다가, 4월 5일 원산교도소로 이감된 후 1946년 6월 19일 사건 기각으로 풀려났다.

### 나) 90인 사건

90인 사건은 해방 후 일본인이 물려간 뒤 그들이 살던 적산(敵產)가옥 처리에 있어서 공산당 요인들만 차지한데서 사건이 기인되었다고 한다. 김환기, 박상희 등 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하룻밤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하룻밤만 고초를 겪고 풀려났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다고 한다. 주동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 다)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

호림 유격대는 8·15 해방 이후부터 주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38선 접경에서 대북 침보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1949년 육군 정보국 소속 하에 육군 호림 부대로 통합되어 120명의 특수 요원으로 편성되었다. 호림 부대의 작전 임무는 38선 이북 지역에 침투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었다.

호림 부대는 1949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여 멸공유격전을 개시하였다. 그 중 호림 5대대가 대청봉에서 화채봉까지를 본거지로 삼고 양양 지구의 반공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식량 등의 군수 물자 보급은 현지 반공 청년들의 지원을 받았다. 7월 8일 강현면 상복리에 진입하여 반공 청년 김종모와 김정배의 집에 4일간씩 머물면서 작전을 구상하던 중, 김정배의 조카딸이 극력 공산주의자였던 남편 이종구에게 밀고함으로써 발각되었다. 호림 부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민군과 상복리 핏골(현재의 설악동 C지구)에서 북한 보안대원 6명과 열성당원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많은 청년대원들이 전사하였다.

## 나. 6·25 동란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남침을 감행하였다. 속초는 동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를 명령받은 인민군 제5사단의 진격코스가 되었고, 전쟁 초기에는 접전지역이 아닌 인민군의 후방 보급 루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부득이 낙동강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유엔이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듯 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 다. 속초의 수복(收復)

속초의 수복은 한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의 진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0월 1일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국군은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린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이에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 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안 확보를 위하여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하여 도망가는 북한 공산군을 논산리(지금의 조양동) 앞뜰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 라. 북한 주민의 월남

국토의 분단은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다. 1946년부터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남하한 월남민은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속초에 거주하는 함경도 사람들은 아직도 일명 아바이마을(청호동)이라는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분단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느끼는 월남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속초에는 실향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망향의 숨결을 달래고 있다.

## 마. 속초시의 승격

일제시대 후기에 오면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가 커져서, 1937년 7월 1일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25동란으로 수복되어 1951년부터 군정이 실시되면서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가 편입되었다. 그 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하여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이때 속초리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6호에 의해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1966년 1월 1일 동체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외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과 더불어 12개 동이 되었다.

## 바. 현재의 속초

1963년 시로 승격된 이래 속초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행정구역은 1998년 동 통폐합으로 13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조정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87,306명으로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속초시는 2016년 상주인구 15만 명을 목표로 하여 안락한 전원도시를 꿈꾸고 있다.

속초시의 면적은 105.25km<sup>2</sup>로 강원도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53.2%가 국립공원 설악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는 한국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1999년에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50일간 국·내외 관광객 226만명이 박람회를 관람함으로써 강원관광의 위상을 뛰낸 바 있다. 또한 2000년 4월 28일에는 속초항에서 러시아(자루비노항)를 경유하여 중국(훈춘)으로 항해하는 카페리 직항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북방 관광·교역의 전진기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III. 속초의 지명(地名)

1. 속초 땅이름 어원의 유래
2. 연혁(沿革)
3. 행정동 지명



### III. 속초의 지명

#### 1. 속초(束草) 땅이름 어원의 유래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 땅이름 유래는 4가지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는 속새풀 <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다.>이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땅이름만 남게 되었다.

둘째, 영금정과 관련된 전설로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셋째, 풍수지리학상 속초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雪嶽山)을 구경 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꼳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사이 꼳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 멘 후 불에 태워 재로 꼳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묶을 속(束) · 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와 전설 중에서 지금까지의 정설은 첫 번째 것이다. 참고적으로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7)을 보면 “속초를 일명 속새, 속진(束津)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며, 1912년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지자료』에도 속진(속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연혁(沿革)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다.

또 조선 영조 41년(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속초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과 도문면의 2개의 면지역으로 소천면에 4개리(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옹진리,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 부월, 논산, 노리, 대포, 외옹치, 내물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장항리)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37년에는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이 되었다. 1942년에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속초리를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누었으며 노리에서 도리원, 이목, 척산리를 분리하여 14개리가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 있다가 한국 전쟁으로 2차례의 탈환을 거듭하면서 1951년 8월 18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되었다.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고,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 사무소를 두었다.

1966년 12개동으로 개편되었으며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 장사동으로 개칭 13개동이 되었다.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으로 확정되었다가 1990년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도문동·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은 13개동, 행정동은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행정동 지명

#### 가. 영랑동(永郎洞)

##### 1) 영랑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속초리(束草里) 1구를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삼짜개** 영랑동(永郎洞) 바닷가 마을. 남쪽으로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를 경계로 동명동(東明洞) 마짜개 마을과 인접해 있다. 바다 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마쪽은 남쪽을 뜻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짝, 마쪽을 마짝이라고도 하고, 새짝 마을, 마짝 마을의 의미로 삼짜개, 마짜개로 불린다.

**영랑호(永郎湖)** 속초시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潟湖)로 모래가 퇴적하여 발달한 것이다.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장사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영랑교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다.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장천천이 유일한데 농경지를 지나 흐르면서 호수로 유입된다. 영랑호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의 화랑인 영랑(永郎)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라고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영랑교(永郎橋)** 영랑호(永郎湖)의 바다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과 장사동을 연결하는 다리.

**영랑시장(永郎市場)** 영랑동에 위치한 시장. 현재는 조그마한 시장이나, 속초(束草)의 중심지가 영랑동, 동명동이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크고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이라고도 했었다. 또 속초가 시(市)로 승격되어 동(洞)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이 속초리(束草里) 1구였으므로 1구 시장이라고도 했다.

**개안골** 지금 속초문화원(束草文化院)이 세워진 지점에서 동진리조텔 건물이 선 앞쪽 일대로 주택들이 들어선 둥근 원형의 옛 논밭 자리였던 곳. 개안골은 현 속초지방법원 쪽에서 뻗어 내린 산맥이 서북쪽을 둘러 안고 서쪽으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보광사 뒷산이 감싸고 있어 분지모양을 띤 논밭 자리였다.

**개안논** 개안골 안에 있던 논. 지대가 영랑 호수보다 낮아 가뭄이 심할 때는 영랑 호수를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고, 반대로 장마가 저서 개안 논물이 호수보다 높으면 호수 쪽으로 빼내곤 하였다.

**포교당자리** 일제 시대 때 설악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들 학교)가 있었던 자리.

### 2) 장사동(章沙洞)

장사동(章沙洞)은 과거에 고성군(高城郡) 지역이었다. 조선 시대 말까지는 간성군(杆城郡) 토성면에 속하였다. 일제 시대에 들어와 간성군(杆城郡)이 고성군(高城郡)과 양양군(襄陽郡)에 분속되면서 양양군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지만, 영랑호까지 간성군(杆城郡) 영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속초의 발전에 따라 생활 편의상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 가) 사진리(沙津里)

장사동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로 되어있던 것이, 1973년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장천리(章川里)와 합쳐져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일제 시대부터 줄어서 사진리(沙津里)라고 불리웠다. 속칭으로는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한다.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었고, 이것을 한자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강장군산(姜將軍山)** 속초고등학교 뒷편(북쪽) 산. 강장군(姜將軍)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姜將軍)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龍村里)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용촌리(龍村里) 용지호(龍池湖, 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에서는 강장군(姜將軍)이 탄 용마(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고바우**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古語)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밧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윤선(輪船) 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고밧개(고바웃개)**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고바우 부근의 갯가. 고바위가 있는 갯가라는 뜻으로 고바웃개라고 하던 것이 고밧개로 변하였다.

**고추골** 마을 서쪽, 영랑호(永郎湖)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노직(露積)바위**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마을 안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노직(露積)가리를 쌓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깨어 부서져 없어지고 바닥만 남아 있다. 버리개 된고개 밑(동남쪽) 갯가. 벌판에 위치한 갯가라는 뜻의 벌개가 변해서 버리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빨주박(박쥐바위)** 영랑호(永郎湖) 북쪽 가에 있는 바위. 바위에 박쥐가 서식하므로 박쥐바위라고 하던 것이 빨주박으로 변했다.

**빡쟁이** 영랑호(永郎湖) 북쪽 엄달개 서편 골짜기.

**서낭골** 속초고등학교 뒷 골짜기.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서낭산** 흰고개 동편,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이 위치한 산. 산의 남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엄달개** 현재 속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으로 응달진 곳이다.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 우리나라 해안을 지키다 순국한 해양경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탑.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형제바위(兄弟岩)** 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두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황새골** 영랑호(永郎湖) 북쪽,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전에 황새가 많았다.

**흰고개** 마을 북쪽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용촌리(龍村里)와 연결되는 큰 고개.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 나) 장천리(章川里, 노루내)

장천리(章川里)는 본래 ‘노루 장(獐)’자 장천리(獐川里)였던 것이, 일제 시대부터 ‘글 장(章)’자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章川)의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이다. 후에 장천(章川)으로 변하였다.

**국사봉(國師峰 국수봉, 국시봉, 둔봉)**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노루목 고개** 장천리(章川里)에서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고개.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는 다른 노루목 고개와 마찬가지로 고개가 길게 늘어졌으므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깻버덩** 마을 동쪽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한 벼덩.

**건녕골** 마을 동남쪽 골짜기.

**고추골** 마을 북동쪽 국사봉(國師峰) 바로 서편 골짜기.

**골논골** 마을 북동쪽 큰바위골과 방축골 사이의 골짜기.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던바우** 마을 동쪽 던바우골에 있는 바위.

**던바우골** 마을 동쪽 샘치골 다음(동쪽)에 있는 골짜기.

**독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독바우** 독골에 있는 바위.

**뒷골** 마을 뒷(북)쪽에 있는 골짜기.

**망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는 마을 진입로가 망태골로 뚫려 있었다.

**물안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편(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우매기** 큰령골에서 왼편(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현재 한화리조트 바로 뒤 편으로 큰 바위가 산등성이에 박혀 있다.

**방축(防築)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예전에 방축(防築)이 있었다고 한다.

**불매앞** 치시골 입구를 가리키는 말. 예전에 이곳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매(풀무의 사투리)를 사용하여 불을 일으켜 쇠를 녹였으므로, 풀매를 사용하는 대장간 앞이라는 의미로 풀매앞이라고 하던 것이 불매앞으로 변화되었다.

**샘치골** 마을 남동쪽 건녕골과 던바우골 사이의 골짜기.

**서낭봉** 마을 앞 큰령골 입구와 독골 입구 사이의 산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싱싱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쪽(북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 물안골 서쪽이다.

**안산** 마을 앞산. 예전에는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여바우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 바우골이 줄어들어서 여바우골이 되었다.

**여우바우** 여바우골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굴이 있는데 예전에 여우가 굴에서 살았다고 한다.

**장재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치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령골** 마을 서쪽으로 뚫린 큰 골짜기. 큰령, 즉 미시령(彌矢嶺)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 바위** 큰바위골에 있는 바위.

**큰 바위골**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타앞** 마을 남쪽 불매앞과 망태골 사이를 가리키는 말.

## 나. 동명동(東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햅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하였다.

**관음암(觀音岩)** 속초의료원 뒷쪽(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큰 바위. 바위에 관음(觀音)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출현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1952년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글자를 새겼다.

**보광사(普光寺)** 영랑호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절. 1937년에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세웠다. 절 이름을 보광사라고 한 것은 부처의 제자 53 불(佛) 중 수제자인 보광불존(普光佛尊)을 이 절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 중수하였으며, 절 입구 암벽에 ‘정화담(鄭華潭) 대법사(大法師) 보광사창건(普光寺創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선대(秘仙臺)** 지금은 영금정(靈琴亭)이라고 한다.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솔산이라는 석산이 있었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고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비선대라고 불렸다. 비선대라고 불리게 된 것은 솔산 위에 비선대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시대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곳에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을 쌓아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속진(束津)** 수복탑에서부터 지금의 영금정 솔산 일대로 이어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항구가 만들어졌고 이와 함께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곳을 이르는 말이다. 솔산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이 있었다.

**영금정(靈琴亭)** 속초 등대 아래를 말한다. 영금정에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영금정은 누대나 정자가 있어서 영금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훑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오리바위** 영금정 앞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앓는다고 한다.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 일명 수복탑(收復塔)이다. 이 탑은 1954년 3월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金根植),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朴相善),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朴成柱) 등이 피난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1군단의 도움으로 1954년 5월 10일 건립하였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새벽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이 부서져 버렸다. 그러자 수복탑(收復塔)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1983년 수복기념탑 복원 건립위원회(收復紀念塔 復元 建立委員會)가 발족하여 시민 성금 4천여 만원과 시비 1천여 만원으로 원래 이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모자상(母子像)을 조각했던 박칠성(朴七星)에게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과 모자상(母子像) 등 전체를 복원하게 하여 그 해(1983) 11월 17일 제막식(除幕式)을 가졌다. 복원된 이 탑은 좌대폭 4m, 탑신 높이 7m, 모자동상 높이 2.55m, 총탑 높이 9.55m로 원형보다 2m가량 높다.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殉國同志忠魂塔)**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가에 있다. 이 탑은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공산군과 싸운 반공전사자 및 6.25 전몰용사 중 통천군(通川郡) 출신 114명의 불멸의 충혼을 탑에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고자 전국 통천군민(통천군민)의 희사금으로 1960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낚시바위** 통천군민 충혼탑 바로 뒤(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태공들이 많이 몰려들어 낚시를 했으므로 낚시바위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마짜개** 마작, 마쪽이라고도 함. 등대가 있는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 남쪽 마을. 불당골 보광사(普光寺) 옆(동쪽)골짜기. 현재는 활터가 들어서 있으나, 예전에는 절이 있었다. 한자로 불당곡(佛堂谷)이라고도 한다.

**성황봉(城隍峰)** 현재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 지금은 약간 서쪽으로 옮겨졌으나 예전에는 등대 자리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었고, 그것에 연유하여 성황봉(城隍峰)이라고 부른다.

**아랫말** 수복탑(收復塔) 쪽이 윗말인데 대해 등대 쪽 마을을 아랫말이라고 불렀다.

**우령골(우용골)**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골짜기의 옛 이름.

**웃말** 등대 쪽이 아랫말인데 대해 수복탑(收復塔) 쪽 마을을 일컫던 말.

**옹고개** 우령골에서 용솟골로 가는 고개의 옛 이름.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공설운동장, 중앙 시장 입구로 가는 고개.

**장골(장안골)** 법원·검찰청과 감리교회, 천주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둘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 시대에 발행된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자료』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城地)’는 바로 이 곳을 말한다. 일명 장안골이라고 했다.

**중간말** 아랫말과 윗말의 중간에 위치했던 마을의 옛 이름.

**촌말** 우령골과 용솟골 사이의 마을을 부르던 옛 이름. 옛 경찰서 뒤편 마을이다.

## 다. 금호동

### 1) 금호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4구를 금호동(琴湖洞)이라고 명명하였다. 금호동은 신라 화랑인 영랑(永郎)이 선유하였다는 영랑호(永郎湖)와 청초호

(青草湖)의 두 호수와 연하고 있다. 또한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하다 하여 이런 낭만적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옛날 고려말엽 동문수학했다는 안축(安軸)과 이곡(李穀) 두 시인이 이 호수에서 선유하면서 음자를 놓고 서로 시를 짜은 것을 보면 가히 금호동의 동명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호동명(琴湖洞名)은 거문고 소리와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이 서로 어울리는 깊은 뜻이 담긴 땅이름이라 할 것이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중앙동과 금호동이 합쳐 금호동으로 통합되었다.

**금장대(金將臺)** 영랑호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다. 6·25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 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축조한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던 것을 2005년도 복원계획에 의해 새로운 정자가 들어섰고, 시민공모에 의해 ‘영랑정(永郎亭)’이란 명칭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범바위** 영랑호(永郎湖)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간 신앙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어 무속인들의 발길이 잦다.

**40계단** 금호동 철둑길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다가 언덕 위로 오르기 위해 만 들어진 계단인데 수가 40개이다.

**연풍사(蓮豐寺)** 미시령(彌矢嶺) 도로가에 있는 신흥사(新興寺)에 딸린 조그만 절.  
**옹고개** 지금의 속초시(束草市) 우회도로라고 불리는 교동에서 영랑동 영랑교까지의 도로. 속초여자중학교 앞길에서 교동 쪽으로 속초초등학교 뒷길까지 내리막으로 쭉 뻗은 언덕길은 옛적에는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으로 속초에서 노학동(즉, 칼풀, 배나무풀, 노리)을 통하여 유일한 도로였다. 이 길은 우차가 다닐 수 있었던 큰 언덕진 고갯길이었다. 교동 천주교회 앞 만천동 입구에는 큰 소나무 밭이 있는데, 이곳에서 중앙동 공설운동장 옆 옛 짱터까지 40도 각도의 긴 산길이 바로 옹고개길이다. 옹고개란 명칭은 농촌 사람들이 땔감나무 지게를 지고 이 고개를 힘겹게 넘으면 지개 땔빵 양쪽 어깨가 옹어리진다고 하여 옹고개라 불러왔다.

### 2) 중앙동(中央洞)

수복 이후 매년 인구 증가 추세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7번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국도변은 금융업, 청초호 연안은 어항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1963년 속초시 승격 후 속초리 3구로,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까닭으로 중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금호동과 통합되어 금호동이 되었다.

**중앙시장**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 속초리 3구에 위치했으므로 3구 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으로 이름 지어져 이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린다.

**야채시장** 중앙시장 위(서쪽)에 야채를 취급하던 시장이었는데, 그 후 중앙시장이 넓어져서 지금은 중앙시장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러나 야채시장이란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용솟골(용소골)**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 이름.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용소골이라 부르던 것이 용솟골로 변화되었다.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중앙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彌矢嶺)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 예전에 이곳에서 짱치기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렸다.

### 라. 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 1966년 12개동으로 개편될 때 청호동(靑湖洞)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때 청호동에는 정어리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 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영홍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호(靑湖)라는 이름은 청초호(靑草湖)에서 온 것이다. 청호동에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咸鏡道)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깻배나루** 중앙동(中央洞)과 청호동(靑湖洞)을 연결하는 깻배를 타는 곳. 이전에는 5구 도선장이라고도 했다.

**조도(鳥島, 새섬)** 청호동(靑湖洞)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말로는 새섬이고, 한자(漢字)로는 조도(鳥島)이다.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 이용(李龍)이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이

름 붙인 일로 인하여 용초도(龍草島)란 이름도 있다. 현재 정자는 헐리고 조그만 등대만 서 있다.

**주교(舟橋, 배다리)**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 오늘날의 청호동이다. 동쪽은 동해 바다요 서쪽은 청초 호수, 그 복판으로 다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한자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해방 전까지 배로 건너다니던 사진이 있다.

### 마. 교동(校洞)

#### 1) 교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가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되었다. 보통 향교(鄉校)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束草)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가 없었다. 따라서 향교와는 관련이 없고, 속초 중학교(束草中學校)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校洞)으로 명명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통합되었다.

**만천동(萬千洞, 萬泉洞)** 교동(校洞)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던 옛 땅이름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땅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명과, 또는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萬泉)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이 있다.

**청초교(青草橋)** 청초천(靑草川)하류에 놓여 교동(校洞)과 조양동(朝陽洞)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두 개의 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다리라고도 부른다.

**청초호(青草湖)** 논뫼호,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고도 한다. 이 호수는 선박들이 외해(外海)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선 시대에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킨 일도 있다. 일제 시대 말기에 청초호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다.

**샘치골** 현 속초중학교 자리에서 속초교육청 건물 뒤로 미시령(彌矢嶺)으로 뚫린 도로가 있다. 그곳 언덕길을 오르면 고개 언덕 바른편에 국민은행연수원이 나오고 그 북쪽 산골짜를 샘치골이라고 하는데, 논농사를 경작할 때 천수답들이라 멘 위쪽 논이 샘물로 논물을 받고 난 다음 차례로 논물을 대고 그런 순서로 샘물을 나누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논물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언쟁이 발생하여 밤을 새우며 논물을 가두던 골짜기였다. 샘물을 꼭대기부터 차례로 대던 곳이라서 샘치골이라 불렸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 2) 청학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 6구를 돌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청학동이란 이름은 청초호(靑草湖)가 너무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잤다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통합되었다.

**청학시장(육구시장)** 속초리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구시장이라고 하다가, 6구가 청학동(靑鶴洞)으로 바뀜에 따라 청학시장(靑鶴市場)이라고 불렸다.

### 바. 노학동(蘆鶴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를 합쳐서 노학동(蘆鶴洞)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뜯 것이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는 현재의 노학동 지역에는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 시대부터 행정상 노리(蘆里)가 신설되었다. 습지대의 개발로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노리(蘆里)가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의 4동리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덩으로 집단 이주해 와서 신흥리(新興里)가 신설되었으나,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洞)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蘆里)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으로 명명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 노리(蘆里)

노학동(蘆鶴洞)의 중심 마을이며, 갈골,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다. 현재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 노리(蘆里)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뒷버덩** 노리(蘆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에 걸쳐 있는 넓은 벼덩. 신흥리는 뒷버덩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었던 노리(蘆里)에서 불 때, 마을 뒤(북서쪽)에 위치한 벼덩이므로 뒷버덩이라 했다. 한자로 표기하여 후평(後坪)이라고도 한다.

**앞벼덩** 노리, 도리원리 마을 앞(남쪽)에 있는 넓은 들. 모두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습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넓이 390여 정보, 한 해에 3,600석이 생산된다고 한다.

**청초천(青草川, 노동천, 갈골내)**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여러 골짜기 물을 척산(尺山)에서 합류하고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靑草湖)로 유입되는 하천을 말한다. 예전에는 갈골내라고 하였고 이를 한자로 노동천(蘆洞川)이라고 하였다.

## 2) 응골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청대산(靑岱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기여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

**맷돌바위** 맷돌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맷돌바위골** 마을 뒤(남쪽)에 있는 골짜기. 맷돌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부엉이 바위** 부엉이 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에 부엉이 집이 있다.

**부엉이 바위골** 마을 뒤(남쪽), 맷돌바위골 서편에 있는 골짜기. 부엉이 바위가 있으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사당골** 제사를 지내던 사당(祀堂)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蘆鶴洞) 지역 동북쪽 언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 한자로는 도리원(桃里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里源)이라고 하였다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 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桃里源)이라는 한자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桃里源)이 인구가 적어 노리(蘆里)에 속할 때, 노리(蘆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가운데 쇠골 마을 북쪽 골짜기.

뒷꼬뎅이 마을 뒤(북쪽) 높은 지대.

사지난골 마을 뒤(북서쪽) 골짜기.

아래 쇠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바위 사지난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 굴에 여우가 살았다고 한다.

윗 쇠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4) 이목리(梨木里)

노리(蘆里)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도장생이 마을 제일 끝(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돌배나무골 마을 입구에서 원편(서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동우(東宇)대학 뒷편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무박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밭벼덩 마을 입구 원쪽의 벼덩. 바깥벼덩이 줄어서 밭벼덩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샘골천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1972년 제방 축조 공사 때, 당시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 박경원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서낭골 마을 북쪽 골짜기.

서낭봉 서낭골에 있는 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아랫 골짜 마을 아래(남쪽)에 있는 골짜기.

장자골(장재골) 마을 북쪽 골짜기.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큰말사니 마을 뒤(북쪽) 큰 골짜기.

화전(花煎)바위 큰말사니에 있었던 바위. 근래에 마을 앞 샘골천 제방 축조 공사 때 화전바위를 깨어서 제방 석축에 썼으므로 지금은 바닥만 남아 있다. 원래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예전에 이 바위에서 화전(花煎) 놀이를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 5) 척산리(尺山里)

마을 뒷(남쪽)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나 정확하지 않다.

**가마소(沼)**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입구에 있는 소(沼). 소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하여 현지 발음으로 가매소라고 불리었다.

**가마소 개울** 마을 서쪽 학사평(鶴沙坪)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목우(牧牛)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노적(露積)바위** 암지동 입구에 있는 바위.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 같다.

**딴봉** 척산리(尺山里) 마을 중의 하나로 남동쪽 마을이다.

**마치장(馬馳場)** 마을 동쪽 산기슭 별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 딴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만호첨사(水軍萬戶僉使)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망태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명가산** 주봉산(朱鳳山)과 목우(牧牛)재 사이에 있는 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면(面)의 가산(家產), 즉 재산이라는 뜻의 면가산(面家產)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명당골** 마을 서쪽 가매소 개울 상류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상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목우(牧牛)재**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고개(산천편 참조).

**목우(牧牛)재 개울** 마을 남쪽 목우(牧牛)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져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물안골**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주봉산(朱鳳山)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에너레** 암지동 끝 달마봉(達磨峰) 북쪽 기슭에 있는 큰 암반.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하며, 범이 미끄러졌다고 하여 범에너레라 부른다.

**병풍(屏風)바위** 마을 서쪽 망태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한다.

**사당골** 마을 동쪽 응골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서산태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사태가 난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암지동(암지골)**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에 암자가 있었으므로 암자골이라고 하던 것이 암지골, 암지동으로 변하였다.

**양짓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가마소) 개울 남쪽 마을.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옹달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양짓말 건너편에 있는 마을.

작은 너례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큰 너례골에서 윤편(북쪽)으로 갈라진다.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한다.

작은 늑동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 늑동골 바로 남쪽이며, 현재 종합 경기장이 자리 잡았다.

주봉산(朱鳳山, 朱峰山, 주왕재)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338m

증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척산(尺山) 마을 뒷산. 산이 곡척(曲尺)처럼 생겼다 함.

척산교(尺山橋) 청초천(靑草川) 상류 척산(尺山) 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

척산리(尺山里) 본래 노리(蘆里)의 지역으로서 척산(尺山) 밑이 되므로 척산이라 하였는데, 1942년 속초읍제 실시에 따라 학사평(鶴沙坪)을 병합하여 척산리(尺山里)라 하여 노리(蘆里)에서 갈라져 독립하였다.

큰 늑동골 마을에서 서북쪽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바로 남쪽이 작은 늑동골이다.

척산 온천(尺山溫泉) 척산(尺山)에 있는 온천.

파명당 목우(牧牛)재와 달마봉(達磨峰) 사이에 있는 터. 현재 송신탑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탐이 나서 파보니 그곳에서 학이 세 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普光寺) 쪽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탑상골 마을 서쪽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 노학동 3층 석탑(塔)이 있는 곳이다.

### 6) 신흥리(新興里)

5·16 군사정변 후 군사 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되어 뒷버덩에 정착시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1963년 동(洞)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둉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리라는 땅이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상예동네(상예, 신흥상) 학사평(鶴沙坪) 끝(서쪽) 마을. 새로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사평(鶴沙坪)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에 소속 되었으며, 신흥리 위쪽(서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상(新興上), 또는 상예라 불린다.

신흥교(新興橋) 청초천(靑草川)에 놓여 신흥 2리(新興二里)와 척산리(尺山里)를 연결하는 다리.

**신흥 2리(新興二里, 신홍하)** 노리(蘆里)와 척산(尺山) 사이의 뒷버덩에 위치한 마을. 신흥 1리(新興一里) 밑(남동쪽)에 해당하므로 신흥하(新興下)라고도 부른다. 신흥 1리(新興一里) 설악(雪嶽) 한화리조트 바로 앞(남동쪽) 마을. 뒷버덩에 건설된 신흥리(新興里)의 중심 마을이다.

### 7) 학사평(鶴沙坪) . 자활촌(自活村)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앓는 별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鶴)’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별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벌이라고 한다.

**자활촌(自活村)** 학사평(鶴沙坪) 별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1961년 군사 혁명 정부에 의한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자활촌(自活村)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구복암(求福菴)** 심방골에 있는 암자.

**명당골** 학사평(鶴沙坪) 남서쪽 골짜기.

**미시령(彌矢嶺)**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

**심방골**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 달마봉(達磨峰)으로 이어진다.

**옹장골** 마을 남서쪽, 심방골 서쪽 골짜기. 계조암(繼祖菴) 밑으로 이어진다.

**원암교(元岩橋)** 용춘천(龍村川) 상류에 놓여 학사평(鶴沙坪)과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元岩里)를 연결하는 다리.

**코끼리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코끼리처럼 생겼다.

**큰령** 미시령(彌矢嶺).

**호랑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 사. 조양동(朝陽洞)

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는데,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에 4개리(논산, 부월, 속초, 속진리)가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를 두었는데 부월, 논산리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靑垈里)를 합쳐서 조양동(朝陽洞)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양(朝陽)이란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땅이름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이다.

### 1) 부월리(扶月里)

조양동(朝陽洞)의 중심 마을이다. 현재는 ‘도울 부(扶)’자를 써서 부월(扶月)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름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뜰 부(浮)’자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扶)’자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浮月)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청초호(靑草湖)에 달이 비쳐 마치 물 위에 뜬 것 같다고 하여 부월(浮月)로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그 후 읍지(邑誌)에서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하고 있다.

**반부득(반부평, 半扶坪)** 부월리(扶月里) 앞에 있는 뜰. 청초호(靑草湖)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득으로 변하였다. 반월형이라고도 하며 주위에 반부득 주막(半扶坪酒幕)이 있었다.

**새마을** 부월리(扶月里)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

**연깨** 부월리(扶月里) 안쪽, 현재 조양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이전에 큰 연못이 있어 연못개라고 하던 것이 연깨로 변화되었다.

### 2) 온정리(溫井里)

행정상 부월리에 속하고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구 증가로 부월리에서 분리되어 온정리가 되었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扶月里)에 속해 있을 때 부월리(扶月里)는 바깥이고 온정리(溫井里)는 안쪽이므로 안말이라고도 했다.

**가래터** 마을 서쪽 골짜기

**떡밭** 마을 남쪽 골짜기

**산지랑골** 마을 남서쪽 골짜기. 산신령께 산신제를 지내던 산제당(산제당)이 있어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을 거쳐 산지랑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솟개** 마을 입구의 눈. 습기가 많은 눈 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중밭** 마을 남동쪽 골짜기

### 3) 논산리(論山里)

논산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리말로 논뫼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論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논뫼를 현지에서는 논미로 발음한다.

**깻가(깻마을)** 논산리 북서쪽 청초호(靑草湖) 깻가에 새로 조성된 마을.

**떡밭재(떡고개)** 논산리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

**떡장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현재 대원마트 부근 마을이 있는 곳이다.

**범바위** 범박골에 있는 바위.

**범박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부무골** 마을 남쪽 떡밭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신재나무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랫등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부무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아랫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웃등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아랫 등지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윗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함지고개** 마을 안 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 이전에 함정이 파여 있었다고 한다.

**장자목깨** 작은 함지고개에서 바로 북쪽으로 이어진 작은 구릉.

**재핏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가 잡힌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독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고개.

**큰 떡밭재(큰 떡고개)** 논산리에서 중도문리 1구로 넘어 가는 고개.

**큰 함지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이전에 짐승을 잡기 위하여 큰 함정을 파놓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 4) 청대리(青垈里)

논산리(論山里)에 속하다가,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행정상 논산리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青垈里)로 불렸다.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靑垈山)이 있어서 청대산(靑垈山)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원래는 ‘청대(靑岱)’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靑垈)’라고 쓰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청대(靑垈)라고만 쓴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가시나무골** 마을 뒤(남쪽) 할미골과 황새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가시나무가 많다.  
**덤박골** 마을 뒤(남쪽) 큰골과 할미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두루봉** 청대산 서쪽 봉우리. 산봉우리가 둥그스름하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매자** 마을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 마을과 큰골 사이에 약 300년 정도 된 단양(丹陽) 장씨(張氏) 조상묘인 큰 봉분이 있는데, 풍수지리상 반복치형(半伏雉形)이라고 한다. 매가 꿩(雉)을 잡는 새임을 고려하면 매자라는 땅이름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범바위** 산지당골에 있는 바위. 예전에 바위 밑 굴에서 범이 새끼를 쳤다고 한다.

**산지당골**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되었다.

**연화동** 마을 서쪽 할미골 입구를 말하는데, 풍수지리상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연화동(蓮花洞)이라고 한다.

**작은골** 큰골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골짜기.

**장사바위** 큰골에 위치한 바위.

**청대산(青岱山)** 마을 남쪽 중도문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큰골** 마을 뒤(남쪽) 청대산(青岱山)으로 향한 큰 골짜기. 동편은 산지당골이고 서편은 덤펙골이다.

**할미골** 마을 뒤(남쪽) 덤펙골과 가시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황새동**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아. 대포동(大浦洞)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 부월, 논산, 노리, 대포, 외옹치, 내물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장항리)를 두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66년 통제 실시 때 대포리에 외옹치리, 내물치리를 합하여 대포동이라 하였고,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 도문동으로, 그리고 장항리(獐項里)는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하였다. 1998년 또 다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 대포리(大浦里)

**나무고개** 대포리(大浦里)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

**대포꼬뎅이** 대포 고개 끝에 있는 마을.

**대포장** 대포에서 서는 장. 1, 6일에 서는데 해산물이 거래된다.

**독재** 밭뚝재

**밭뚝재** 대포 고갯길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초(束草)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옹치(外甕峙)로 가게 된다. 이 고갯길 옆에 밭뚝이 다닥다닥 충계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부르게 되었다.

**마산제** 대포 북쪽에 있는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옛 성터가 있고 말을 키우고 관리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마성대(馬城臺)라 한다.

**방축(防築)**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저수지.

**병풍바위** 예전 대포 재건학교 뒤(북서쪽)에 있는 큰 바위. 다른 말로 화랑탑이라고도 한다.

**산두꾸미** 대포(大浦)에서 남쪽 물치(勿淄) 쪽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마을. 도깨비가 출현했다고 하여 산도깨비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밭뒤꿈치에서 사용되는 ‘뒤꿈’이 산과 결합하여 산뒤꿈이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쇠괭이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쇠평골 또는 철평(鐵坪)이라고 함. 요즘 이것을 잘못 말해 회평골이라고도 한다.

**솟돌바위** 대포 동쪽 축항 너머에 있는 바위. 솟돌처럼 생겼다.

**아랫말** 대포 나룻가에 있는 마을.

**웃말** 대포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잔다리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제집골** 대포고개 밑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어 사투리로 지와집골이라고 하던 것이 제집골로 변함.

**진동** 청룡(靑龍) 서북쪽에 있는 긴 산동성이.

**청룡(靑龍)** 대포의 청룡이 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

**큰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요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큰말기** 대포 서쪽 철길 너머에 있는 들.

## 2) 옹진리(외옹치리, 外甕峙里)

조선 시대부터 면, 리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외옹치(外甕峙)의 행정지역 이름은 독 나루터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식으로 옹진(甕津)이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도 편호나 인구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행정 땅이름은 변함없이 옹진리(甕津里)라고 기록하고 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따라 도천면(道川面)으로 통합되었고 여전히 행정구역으로 옹진리(甕津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1918년 발간된 『최신조선지리』에서는 내옹진, 외옹진리로 기록되어 있다. 내옹진은 오늘날 대포리, 외옹진은 외옹치(外甕峙)이다. 외옹치리는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굴바위** 마작말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인데, 굴이 있어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전을 하기도 했으므로 투전굴이라고도 한다.

**기른네미** 외옹치(外甕峙) 새마을 쪽에서 대포 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를 가리키는 말.

**다리슴** 마작말 동쪽 해변에 섬처럼 외따로 솟아 있는 큰 바위. 나무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섬이란 뜻으로 다리섬이라고 하던 것이 다리슴으로 변화하였다.

**덕대바우(德大岩)** 외옹치(外甕峙)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 바위에 빌면 덕이 생긴다(복을 받는 바위)고 하였다. 한자로 덕대암(德大岩)이라고도 한다.

**덕산(德山)** 봉수터 봉화가 있던 터.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이 곳에서 끝난다. 옹진의 끝에 있는 산으로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덕산봉수(德山烽燧)라고도 한다.

**마당바우(場岩)** 봉끌 밑(동쪽) 해변 가에 있는 바위. 마당처럼 평평함. 한자로 장암(場岩)이라고도 한다.

**마작말** 새작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을 향한 마을. 마작은 마쪽이 변한 것인데, 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뜻한다. 현재는 풍랑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북쪽 새마을로 집단 이주했다.

**봉수터(봉화터)** 조선 시대 덕산 봉수(德山烽燧)가 있었던 터.

**새마을** 마작말이 풍랑으로 폐허가 되자 주민들이 새쪽말 북쪽에 집단 이주하여 새로 건설된 마을.

**새쪽말** 마작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동쪽을 향해 조성된 마을. 새쪽은 새쪽이 변한 것인데, 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을 뜻한다.

**약수터** 외옹치(外甕峙)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 길 중간에 있음.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 나온다.

**오리바위** 외옹치에서 대포 쪽으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한다.

**일곱매끼** 조양동 새마을 쪽으로 향하는 마을 입구의 논이 있는 일대를 일컫는 말.

**장승거리**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일대.

**지네바위** 다리슴과 굴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지네처럼 생겼다.

**해구(海狗)바위** 마당바위 북쪽 해변가에 있는 바위. 해구(물개)들이 자주 와서 앉았다.

### 3) 내물치(內勿淄里)

현재 속초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雙川)을 중심으로 양양 쪽에는 강선면 물치진리(湧淄津里)가, 속초 쪽으로는 도문면(道門面) 물치리(勿淄里)가 각각 행정지역으로 되어 있다. 강선면의 경우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부읍지』 등에도 물치진리(湧淄津里)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기록부터는 물치리(湧淄里)로 되어 있다.

반면에 도문면의 물치리는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부읍지』 등의 기록은 편호와 인구수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든 흔적은 볼 수 있으나 행정지역 개편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후인 1914년 3월 1일부터 행정지역 개편으로 인해 강선면에는 물치리, 도문면(道門面)은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에는 내물치리라 기록하고 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내물치리는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가래고지바위** 둥글바위와 섬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다에 사는 오리 종류인 가마우지가 잘 와서 앉는다고 함. 지역사람들의 사투리로 가래고지라 한다.

**개바위** 마당바위와 둥글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개가 많다.

**군개** 마을 남쪽으로 쌍천(雙川) 못미쳐 있는 작은 시내. 쓸데없는 군더더기 개(시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귀신바위** 마을 북쪽 대포와의 경계 지대에 있는 바위. 예전에 귀신이 나왔었다고 한다.

**둥글바위** 개바위와 가래고지바위 사이에 있는 둥글고 큰 바위.

**마당바위** 귀신바위와 개바위 사이에 있는 마당처럼 넓고 평평한 바위. 해구(海狗)가 와서 잠을 잤다고 한다.

**선바위** 가래고지바위 남쪽에 선돌처럼 우뚝 솟은 바위.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하였다.

**쌍천(雙川)** 설악산(雪嶽山)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쌍천교(雙川橋)** 쌍천(雙川) 하류에 놓여 내물치리와 양양(襄陽) 강현면 물치리(湧淄里)를 연결하는 다리.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

**안가산** 마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

**옹구점마을** 옹기(甕器)를 팔던 점이 있었던 마을로 현재 관광안내소 옆 군부대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자리에 있었다.

**유물재비(俞勿齋碑)** 조선(朝鮮) 후기에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勿齋) 유회일(俞晦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

**조짐이** 둑글바위 앞(동쪽)에 있는 바위.

**흙다리** 쌍천교(雙川橋)에서 약간 서쪽에 놓여졌던 다리. 지금은 없어졌다. 나무로 만들어 위에 흙을 덮었으므로 흙다리라고 했다.

### 4) 설악동(雪嶽洞)

1914년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으로 되었고, 도문면(道門面)이 있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외에 설악산(雪嶽山) 부근에 장항리(獐項里)가 행정 지역으로 신설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장항리(獐項里)를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으나 또 다시 1998년에 대포동과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였다.

#### 가) 관광지 일대

**구단지** 신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현재의 소공원 자리에 있었던 관광단지.

**군량암(軍糧岩)** 군량장(軍糧場)에 있는 큰 바위.

**군량장(軍糧場)** 정고평(丁庫坪)과 소공원 사이에 있는 벌판. 비석 형태의 자연석에 군량장(軍糧場)이라고 새겨져 있음. 예전에 군인들이 양식을 저장하던 곳이다.

**권금성(權金城)**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

**노루목** 노루목 고개 일대(동쪽) 즉, 현재의 B지구 일대를 가리키던 땅이름. 노루목이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장항(獐項)이라고도 불렸다. 옛날에는 이곳에 민자가 있어서, 설악동(雪嶽洞)의 옛이름인 장항리(獐項里)의 중심 마을을 이루었다.

**노루목 고개** 신단지 B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현재 파크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

**도문교(道門橋)** 쌍천(雙川)에 놓여 설악동(雪嶽洞) 주택 단지와 도문동(道門洞)을 연결하는 다리.

**망바위** 정고평(丁庫坪), 무명 용사의 비(無名勇士의 碑) 뒷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털었다고 한다.

**목우(牧牛)재(모기재)** 설악동과 노학동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

**식당동(食堂洞)** 비선대(飛仙臺) 웃 골짜기. 식당골이라고도 한다. 충을 이룬 반반한 바위들이 많이 있다.

**식당바위** 식당천(食堂川)에 있는 바위

**쌍동암(雙童巖)** 흔들바위를 말한다. 계조암(繼祖庵) 밑에 있는 바위. 두 아이가 길 양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조암(繼祖庵)의 문지기가 된다 함.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가 남아있다.

**와우암(臥牛巖)** 흔들바위 밑에 있는 널따란 바위. 와우형(臥牛形)으로 되었다하는데, 백여 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곳이라 한다.

**안락암(安樂庵)** 권금성(權金城)에 있는 암자.

**청룡** 장항리(獐項里)의 청룡 쪽에 있는 마을

#### 나) 능선 . 고개 . 길

**공룡 능선(恐龍稜線)** 마등령(馬登嶺)에서 회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못 미쳐 바로 북쪽 신선암(神仙岩)까지의 바위 능선. 바위가 뾰족하여 마치 공룡(恐龍)의 등같이 생겼다. 나한봉(羅漢峰, 1275m), 노인봉(老人峰, 1184m)이 위치하고 있다.

**마등령(馬登嶺)** 내.외설악(內.外雪嶽)을 연결하는 고개 중의 하나.

**무너미 고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과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의 경계에 위치하여 내.외설악(內.外雪嶽)을 구분 지으며, 고개 바로 북쪽에 회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가 있다. 무너미의 무는 물에서, 너미는 넘는다(건년다)에서 왔다. 물을 넘는다(건년다)란 뜻의 무너미를 한자로 수유(水蹊), 수월(水越)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이 땅이름도 전국에 많이 분포한다.

**범봉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범봉으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북주 능선(北主綾線)** 대청봉(大青峰)에서 북쪽으로 마등령(馬登嶺), 저항령(低項嶺), 황철봉(黃鐵峰),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까지 이어지는 설악산(雪嶽山)의 북쪽 주능선(主綾線).

**석주(石柱)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으로 염라(閻羅)길, 흑범길이 있다.

**염라(閻羅)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에는 흑범길, 서쪽에는 석주(石柱)길이 있다.

**저항령(低項嶺)** 북주 능선(北主綾線)에 있는 고개 중의 하나. 동쪽으로는 정고평(丁庫坪)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길골(路洞)을 거쳐 백담사(百潭寺)에 이른다. 다른 말로 늘목령이라고도 하는데, 저항령(低項嶺), 늘목령 모두 노루목 고개, 목우(牧牛)재와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진 고개라는 의미의 늘으목, 늘목에서 유래하였다. 즉 늘목령은 늘목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늘목령이 된 것이고, 저항령(低項嶺)은 늘목이 노루목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獐項)이라고 표기하여, 거기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장항령(獐項嶺)이라고 하던 것이, 발음상 저항령(低項嶺)으로 변하고, 이것을 의미와는 관계없이 한자로 저항령(低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項嶺)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볼 때 저항령(低項嶺)도 마등령(馬登嶺)처럼 옛날부터 이용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다.

**함지덕** 화채 능선(華彩綾線) 칠성봉(七星峰) 동쪽에 함지처럼 푹 파인 분지.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다.

**화채 능선(華彩綾線)** 대청봉(大青峰)에서 시작하여 화채봉(華彩峰), 칠성봉(七星峰),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까지 이어진 능선. 일명 동북 능선(東北稜線)이라고도 한다.

**화채 동능선(華彩東綾線)** 화채봉(華彩峰)에서 동쪽으로 송암산(松岩山)까지 뻗어나간 능선.

**흑범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서편으로 염라(閻羅)길, 석주(石柱)길이 있다.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과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의 경계인 무녀미 고개 바로 북쪽에 위치한 대피소. 1971년 한국산악회 최태묵이 건립했다. 지금은 그 일대를 가리키는 땅이름이 됨. 동쪽으로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서쪽으로는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 남쪽으로는 대청봉(大青峰), 북쪽으로는 공룡 능선(恐龍稜線)으로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 다) 봉(峰)

**나한봉(羅漢峰)** 공룡 능선(恐龍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마등령(馬登嶺)과 1,275m봉 사이에 있음. 불교의 수호신인 나한(羅漢)에서 그 이름이 유래됨.

**노인봉(老人峰)** 공룡 능선(恐龍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해발 1,120m. 1,275m봉에서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방향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봉우리.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은 20개의 암봉을 천화대(天花臺)라고 한다.

**노직봉(露積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동쪽 봉우리. 토왕골과 소토왕골 중간에 있다. 모양이 곡식을 쌓아둔 형태임.

**달마봉(達磨峰)** 소공원 북쪽에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

**대청봉(大青峰)** 청봉(青峰)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는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青峰)이라고 하였다.(遠見只縹而青故指其絕頂而名曰青峰).”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말로 상청봉(上青峰), 또는 청봉(青峰)이라고도 하는 설악산(雪嶽山)의 주봉으로 해발 1,708m이다. 바로 밑(북서쪽)에 중청봉(中青峰)이 있고, 그 밑(북쪽)에 소청봉(小青峰)이 있다.

**문수봉(文殊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옆에 문수 보살(文殊菩薩)과 보현 보살(普賢菩薩)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峯) 옆에 문수봉(文殊峯)과 보현봉(普

賢峯)이 위치하고 있다. 일명 문주봉(文珠峯)이라고도 한다.

**문필봉(文筆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모양이 붓처럼 생긴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미륵봉(彌勒峰)** 비선대(飛仙臺) 바로 북쪽에 높이 우뚝 솟은 큰 돌산이다. 마치 미륵불(彌勒佛)처럼 우뚝 솟아 있어 이름 하였고, 장군의 형상이라고 하여 일명 장군봉(將軍峰)이라고도 한다. 중턱에 금강굴(金剛窟)이 있다.

**볍봉** 천화대(天花臺)의 20여 개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보현봉(普賢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양 옆에 문수 보살(文殊菩薩)과 보현 보살(普賢菩薩)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峰) 양쪽에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이 위치하고 있다.

**석가봉(釋迦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불교의 설명대로 양 옆에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이 있다.

**세존봉(世尊峰)** 마등령(馬登嶺) 밑(동쪽) 금강문(金剛門) 바로 위(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존칭인 석가세존(釋迦世尊)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소청봉(小青峰)** 대청봉(大青峰) 바로 북서쪽에 있는 작은 청봉(青峰).

**왕관봉(王冠峰)** 천화대(天花臺)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육형제봉(六兄弟峰)** 양폭(陽瀑) 산장 뒤로 보이는 여섯 봉우리.

**중청봉(中青峰)** 대청봉(大青峰)과 소청봉 사이에 있는 청봉(青峰).

**진대봉** 마등령(馬登嶺) 바로 북쪽에 있는 봉우리. 해발 1,327 m, 최근에 등산객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하여 불린 땅이름인 것 같으나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뒷쪽(남쪽)에 연이어 있는 암봉. 암봉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마치 신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직봉(翠滴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칠성봉(七星峰)** 화채 능선(華彩綾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로 해발 1,077m이다. 남쪽 화채봉(華彩峰)과 북쪽 집선봉(集仙峰) 중간에 있다.

**칠형제봉(七兄弟峰)** 공룡 능선(恐龍稜線) 신선암(神仙岩) 북쪽에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을 향하여 용소골과 작은 바위골 사이로 뻗은 여러 개의 봉우리.

**화채봉(華彩峰)** 화채 능선(華彩綾線)의 대표적 봉우리.

**황철봉(黃鐵峰)** 북주 능선(北珠綾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남쪽으로는 저항령(低項嶺), 마등령(馬登嶺), 공룡 능선(恐龍稜線)으로, 북쪽으로는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으로 이어진다.

**귀면암(鬼面岩)**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우뚝 솟아 있는 큰 바위. 비선대(飛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仙臺)와 양폭(陽瀑) 사이에 있다.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귀면암(鬼面岩)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귀면암(鬼面岩)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것이고, 옛날에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의 입구에 버티고 서서 마치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겉문다지 또는 겉문당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금강굴(金剛窟)** 비선대(飛仙臺)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 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 일찍이 원효 대사(元曉大師)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온다. 이전에도 불을 떴던 구들의 흔적과 불상 등의 유물이 있었고, 요즘에는 신흥사(新興寺)의 부속 암자로 되어서 새 불상을 모셔 놓았다.

**금강문(金剛門)** 마등령(馬登嶺)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20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있는데, 바위가 길 양쪽에 문기둥처럼 서 있다.

**만경대(萬景臺)** 화채봉(花彩峰)에서 양폭(陽瀑)으로 내려오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좁고 높은 지대. 주위 전망이 좋아 많은 경관을 볼 수 있으므로 만경대(萬景臺)라고 하며, 또는 많은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여 망경대(望景臺)라고도 한다.

**망군대(望軍臺)** 권금성(權金城) 북쪽의 높은 암봉. 옛날에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군대(望軍臺)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는 봉화를 올려 신호를 하던 곳이라고 하여 봉화대(烽火臺)라고도 한다.

**목탁 바위** 계조암(繼祖庵)이 위치한 자연 석굴을 형성한 바위. 달마봉(達磨峰)에서 내려다보면 계조암(繼祖庵) 석굴이 목탁처럼 보인다고 한다. 계조암(繼祖庵)은 조사(祖師)들이 계속하여 배출된 암자라는 뜻인데, 목탁 속에서 수도하기 때문에 쉽게 득도하게 된다고 한다.

**비선대(飛仙臺)**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2.3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

### 라) 골짜기

**가는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약간 가다가 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권금성(權金城) 뒤 집선봉(集仙峰)까지 이어진다.

**내원(內院)골** 신흥사(新興寺)에서 내원암(內院庵) 쪽(서북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문(門) 바위골** 저항령 계곡(低項嶺溪谷) 중간에서 황철봉(黃鐵峰)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설악(雪嶽)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토막골 다음에 나타나는 골짜기. 공룡 능선(恐龍稜線)까지 이어진다.

**소토왕(小土王)골** 소공원에서 비룡교(飛龍橋)를 건너서 바로 남쪽으로 나타나는 골짜기. 토왕골의 바로 서편 골짜기로서 그 사이에 노적봉(露積峰)이 있다. 일명 은당골, 무당골이라고도 한다.

**식은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남동쪽으로 권금성(權金城)까지 뻗은 골짜기.

**염주(念珠)골** 음 폭포(陰瀑布)에서 남쪽으로 염주 폭포(念珠瀑布)를 거쳐 화채 능선(華彩綾線)까지 뻗은 골짜기. 서편으로 죽음의 계곡이 있다. 골짜기 중간에 염주 폭포(念珠瀑布)가 있으므로 염주골이라고 하며, 또 입구에 음 폭포(陰瀑布)가 있으므로 음폭골이라고도 한다.

**용소(龍沼)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을 지나 오련 폭포(五連瀑布) 못미쳐서 오른편(서쪽)으로 들어간 골짜기. 신선암(神仙岩) 부근까지 뻗었다.

**잦은 바위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서 귀면암(鬼面岩)을 향해 가다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골 다음에 나오는 골짜기.

**죽음의 계곡**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맨 끝 골짜기. 대청봉(大青峰)에서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으로 직접 내려오는 능선길 바로 동편 골짜기. 1969년 한국 산악회원 10 동지가 해외 원정을 위한 훈련을 하다가 조난당한 곳이다. 1956년 8 월 한국산악회원 전감(田堪)이 처음 등반하였으며, 아직 뚜렷한 등반로는 없다.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青峰)에 이르는 설악산(雪嶽山)의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 협곡을 이룬 계곡 양쪽의 기암 괴봉들이 마치 천불(千佛)이 꽉 들어차 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설악을 대표하는 절경들이 거의 이 골짜기에 밀집되어 있다.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青峰)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골, 잦은 바위골, 용소(龍沼)골, 원편(동쪽)으로 칠선골, 염주(念珠)골, 죽음의 계곡이 갈라진다.

**칠선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에서 양폭(陽瀑)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오련 폭포(五連瀑布) 못미쳐 원편(동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구만물상(舊萬物相)골이라고도 한다.

**토막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서 오른편으로 갈라진 골짜기.

**토왕(土王)골**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육담 폭포(六潭瀑布), 비룡 폭포(飛龍瀑布),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가 위치하고 있다.

**핏골** 신단지 C지구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 마) 폭포(瀑布). 담(潭)

**건 폭포(乾瀑布)** 죽음의 계곡에 있는 폭포.

**문수담(文殊潭)** 비선대(飛仙臺)와 귀면암(鬼面岩) 사이에 있다. 문수 보살(文殊菩薩)이 목욕을 한 곳이라고 하며, 일명 문주담(文珠潭)이라고도 한다.

**비룡 폭포(飛龍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육담 폭포(六潭瀑布)와 토왕성 폭포

(土王城瀑布)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수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양 폭포(陽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밑의 오련 폭포(五連瀑布)와 바로 위의 천당 폭포(天堂瀑布) 중간에 있다. 음 폭포(陰瀑布)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陽瀑布)는 곁에 있으므로 양 폭포(陽瀑布)이고, 음 폭포(陰瀑布)는 음폭(陰瀑)골에 들어가서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陰瀑布)이다. 현재는 양 폭포(陽瀑布)라는 말보다 양 폭포(陽瀑布)를 줄여서 부르는 양폭(陽瀑)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또 양폭(陽瀑)이라는 말은 폭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염주 폭포(念珠瀑布)** 염주(念珠)골에 있는 폭포. 음 폭포(陰瀑布)에서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염주(念珠)같다고 하여 염주 폭포(念珠瀑布), 염주(念珠)폭이라고 한다.

**오련 폭포(五連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과 양 폭포(陽瀑布) 사이에 있다. 깎아지를 듯한 바위 협곡 사이에 5개의 폭포가 연이어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폭포 일대의 암벽을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앞문의 수문장 같다고 하여 앞문다지라고 하였다.

**육담 폭포(六潭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소공원에서 비룡 폭포(飛龍瀑布)로 가는 길 중간에 있다. 암벽으로 된 협곡에 6개의 폭포와 담소(潭沼)가 연달아 있어서 절경을 이룬다. 폭포 위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음 폭포(陰瀑布)(음폭, 隱瀑) 음폭(陰瀑)골 입구에 있는 폭포. 양 폭포(陽瀑布)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陽瀑布)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곁에 있으므로 양 폭포(陽瀑布)이고, 음 폭포(陰瀑布)는 음폭골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陰瀑布)라고 명명되었다.

**이호담(二壺潭)** 문수담(文殊潭)과 귀면암(鬼面岩) 사이에 있는 담(潭). 배가 불룩한 병 모양의 아담한 담(潭)이 2개가 있어 이호담(二壺潭)이라고 한다.

**천당 폭포(天堂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양 폭포(陽瀑布) 바로 위에 있는 폭포. 위태롭게 석벽에 설치한 철 계단을 오르면서 천당 폭포(天堂瀑布)를 바라보면 천당(天堂)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칠선 폭포(七仙瀑布)** 칠선골에 있는 폭포.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토왕골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土王城)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므로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

## 5) 장재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C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 불린다.

**군개도랑** 마을 바로 앞(북쪽)에 있는 작은 냇가. 군더더기, 쓸데없는 갯가라는 의미의 군개에 도랑이 합쳐진 것이다.

**마무골** 마을 서남쪽 골짜기. 말을 묶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멧돌바위** 물안골 입구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멧돌처럼 생겼다.

**물안골** 마무골 서쪽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복교(上福橋)** 장재터와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를 연결하는 쌍천(雙川)에 놓인 다리.

**아랫고개** 장재터에서 상복리(上福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장재터와 상복리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상복리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윗고개가 있다.

**장재평** 장재터 벌판을 부르는 이름.





## IV. 속초의 문화(文化)

1. 문화재(文化財)
2. 지도로 찾아보는 문화재
3. 속초의 민속(民俗)
4. 속초의 방언(方言)



## IV. 속초의 문화(文化)

### 1. 문화재(文化財)

#### 가. 문화재란

문화재(文化財)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물(事物), 즉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文化遺產)을 말한다.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온 모든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산물(產物)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자원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천연자원과 생산적 자원에 국한하고 그 밖의 유형, 무형의 중요한 자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원은 천연자원(天然資源), 문화자원(文化資源), 사회자원(社會資源)으로 구분되며, 이 중 문화자원은 특히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일컬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문화재의 범주가 아주 좁았으나, 전후에는 그 대상을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 건조물(建造物),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와 같이 문화재를 법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법 제2조에 의해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전문 7장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82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98년 12월 9차 부분 개정되었다.

총칙, 국가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시·도지정문화재, 보적, 별칙 등으로 되어 있다.

### 나.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술기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가치가 있는 사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길이 보존해야 할 민족 전체의 재산인 동시에 인류 공영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문화재 분류

유형문화재 (有形文化財)	건조물·서적·고문서·화서·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국가 건조물·서적·고문서·화서·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유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 (無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전통생활 속에서 전래되어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기능과 예능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 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무형 문화재가 있다.
기념물 (記念物)	패총·고분·성지·궁지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기념물이 있다.
민속자료 (民俗資料)	의식주·생업·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민속자료로 구분한다.

#### 2)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나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① 일반동산문화재 - 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정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재를 말하며, 이들은 제작된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② 매장문화재 -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중에 포장되어 노출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한다.

## 3) 지정권자에 따른 분류

국가 지정 문화재	국 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 제작기술, 시대성, 형태·품질·용도, 제작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높은 문화재
	보 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사 적	기념물 중 중요한 것
	명 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사적 및 명승	기념물 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중요 민속자료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시·도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문화재 자료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 다. 속초시 문화재 현황

## 1) 속초시 문화재 현황

속초시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향성사지3층 석탑,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제351호 설악동 소나무, 사적 제376호 조양동 선사 유적 등이 있다.

또한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신흥사의 경판, 극락보전, 보제루, 아미타여래좌상 등을 비롯하여 도문동 김종우 가옥,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신흥사, 도문동 김근수 가옥, 오윤환 생가, 노학동 3층 석탑 등이 등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매장 문화재로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있는 장사동 출토 간돌검, 돌화살(6점), 교동 출토 청자 상감우점문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교동 고분 출토 청동술가락 및 향성사지 출토 기와 등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전시 보호되고 있다.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14점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문화재 현황

구 분	종 별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지정 일자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향성사지3층 석탑	1966. 8. 25
	천연 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 구역	1965. 11. 5
		제351호	설악동 소나무	1988. 4. 30
	사적지	제376호	조양동 선사 유적	1992. 10. 6
시 · 도지정 문화재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14호	신흥사 극락보전	1971. 12.16
		제15호	신흥사 경판	1971. 12.16
		제85호	도문동 김종우 가옥	1985. 1. 17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1985. 9. 13
		제143호	신흥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 유물	2003. 4. 25
	무형문화재	제20호	속초도문농요	2007. 2. 23
문화재 자료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7호	신흥사	1984. 6. 2
		제64호	도문동 김근수 가옥	1985. 1. 17
		제115호	신흥사 부도군	1991. 2. 25
		제127호	노학동 3층 석탑	2000. 1. 22
		제137호	오윤환 생가	2006. 7. 28

### 라. 국가 및 시 · 도 지정 문화재

#### 1) 국가 지정 문화재

##### 가) 보물

###### (1) 향성사지 3층 석탑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443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170번지

설악산 매표소 가기 전 켄싱턴호텔 맞은편 길가에 천년의 역사를 말해주듯이 고색창연한 석탑 1기가 서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향성사지 3층 석탑이다.

이 석탑의 제작 시기는, 옛 문헌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고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하였으며, 앞뜰에 9층 석탑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sup>2)</sup> 현재 있는 석탑은 양식상으로, 또는 외곽적인 균형으로 볼 때 이 때 만들어진(9층 석탑) 것이 아니라 조금 연도가 내려가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향성사지 3층 석탑은 2층 기단에 3층 석탑으로 전형적인 통일신라 하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기단부는 8매의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4매의 장대석으로 기대를 마련하고, 1층 기단을 받치고 있다. 1층 기단은 크고, 작은 8개의 사각형의 면석으로, 각 면 위에는 우주(양기동)과 탱주(버팀기둥)을 양각(돌을새김)으로 표시하였다.

1층 기단 위에 있는 1층 갑석은 5장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석의 경사는 급하게 되어 있고, 면석 위에는 2층 기단부를 받치기 위해 사각 2단의 괴임대를 마련하였다. 2층 기단면은 8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우주와 2개의 탱주가 양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대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부연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갑석 윗면은 평평하고 아무런 장식 없이 1층 탑신(塔身)을 받치고 있다.

탑신부(몸돌)는 1매의 돌로 구성되어 있고 면마다 양쪽에 우주를 양각으로 나타내고, 1층 탑신과 2층 탑신 높이의 비가 3 : 1의 체감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지붕돌)의 충금 받침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과 마찬가지로 5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끝의 전각은 반전되어 있으나 각이 경미하여 둔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반석을 비롯하여 상륜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1966년 12월 23일 해체 작업을 하였다. 당시 공사 감독관 김주태(金周泰) 문화재 전문위원의 보고 기록에 의하면 제3층 옥개석(지붕돌) 중앙에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네모 구멍(7cm × 5.5cm × 9cm 깊이)이 뚫려있고 그 위에 동판 1매(12cm × 9cm)가 덮여 있는 상태였으나 내용물은 없었다고 한다.<sup>3)</sup> 지반침하로 인하여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석탑 정밀 실측해체 및 보호를 실시하였다.

2002년의 정확한 실측결과 석탑의 높이는 5.276m이고 본래의 상륜부까지 높이를 추산하면 7m에 가까운 대형 탑으로 추정된다. 기단의 각 부재나 옥신(몸돌), 옥개(지붕돌)의 조성 수법은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이지만 기단부의 약화, 둔

2) 『神興寺記』에 의하면

新羅 真德女王 六年(壬子) 때 慈藏律師가 雪岳山의 東에 香城寺를 創하다. 慈藏이 九層石塔을 造해야 佛舍利를 奉安하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 때 자장율사가 설악산 동쪽에 향성사를 창건하였다. 자장율사가 9층 석탑을 조성하고, 불사리를 봉안하였다.

3) 『속초시지』, 속초시, 1991, 1201쪽.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중한 지붕돌(옥개석)의 형태와 치석으로 볼 때 전성기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8세기 말에서 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향성사지 3층석탑의 실측치				(단위 mm)
기단부	지대석	높이 150	크기 3,290×3,300	
	하층기단	높이 760	하대저석 크기 2,960×2,960 하대중석 크기 2,860×2,860 하대갑석 크기 2,950×2,935	
	상층기단	높이 1,185	상대갑석 크기 2,361×2,328 상대중석 크기 2,120×2,130	
탑신부(몸돌)	1층 탑신	높이 1,150	폭 평균 1,023	
	2층 탑신	높이 340	폭 평균 867	
	3층 탑신	높이 310	폭 평균 749	
옥개석(지붕돌)	1층 옥개석	두께 520	크기 1,830×1,843	
	2층 옥개석	두께 450	크기 1,685×1,620	
	3층 옥개석	두께 410	크기 1,410×1,395	

자료: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 실측 조사보고서』, 2002.

### 2) 시·도 지정 문화재

#### 가)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

##### (1) 신흥사 극락보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번지

이 건물은 신흥사의 중심 전각으로 조선 인조 25년(1647)에 지었다.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통안하는 보배로운 전각이라는 뜻을 지닌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머무르면서 영원토록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이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는 중생은 무릇 누구나 지극한 행복을 원한다. 이 지극한 행복을 극락(極樂) 또는 안양(安養)이라 하는데, 누구나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처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이 아미타불

을 모신 전각을 극락보전, 무량수전 또는 미타전이라고 한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창건 후 조선 영조 26년(1750)과 순조 21년(1821)에 각각 중수되어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전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 양식으로 비교적 원형 보존이 잘되어져 있다.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관세음보살과 우측에 대세지보살을 함께 봉안하여 극락세계의 광경을 나타냈다.<sup>4)</sup>

## (2) 신흥사 경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경판이란 나무 또는 금속에 불경을 새긴 대장경을 말한다. 대장경이란 부처님이 설법한 가르침을 담은 경(經), 부처님이 제정하고 제자들이 확정한 계율을 말하는 율(律), 이름난 고승들이 경전의 내용을 연구하여 집필한 연구서인 논(論)을 말하는 삼장(三藏),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온 서적들로 된 총서를 일컫는다.

신흥사의 경판은, 대형(大型)은 18.5×40cm, 소형(小型)은 18.5×30cm 크기로, 모두 280장이다. 목판 1장마다 양면에 양각으로 새기고 글자는 한글, 한자 및 범어를 사용하였다.

조선 효종 2년(1651)에 고승 호엽(昊葉)이 해장전(海藏殿)을 창건하고 묘법연화경, 중례문(中禮文), 예수문(預修文), 결수문(結手文), 제청문(諸請文) 등의 판본을 장치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신흥사사적』에는 조선 현종 2년(166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sup>5)</sup> 또 경판을 만든 고승 호엽은 조선 정조 21년

4)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아미타삼존불이라고 한다.

5) 『신흥사 사적』에 의하면

朝鮮 顯宗 二年(辛丑) 海藏殿을 創하고 法華經, 中禮文, 結手文, 請文等의 版本을 藏하다.

조선 현종 2년(신축)에 해장전을 창건하고, 법화경, 종례문, 결수문, 청문 등의 판본을 넣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1797)에 처기(處琦), 시택(始澤), 의유(毅有) 등과 함께 해장전(海藏殿)을 단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경판은 명부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부모은중경 언해본(父母恩重經 謳解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다라니경 등이 남아 있는데 참고적으로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요 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또한 다라니(多羅尼)는 한량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法)을 버리고 한없이 좋은 법을 지니게 한다는 뜻으로,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라고도 한다. 따라서 다라니경은 온 마음으로 읽고 지니면 재厄(災厄)을 피할 수 있다는 신앙에 의하여 널리 유통되었다.

### (3) 신흥사 보제루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 사천왕문을 지나 극락보전에 이르기 전에 서 있는 장방형의 누각이 바로 보제루이다.

보제루는 장대석으로 쌓은 2단의 축대 위에 정면 7칸(22.4m), 측면 2칸(8.5m)의 누마루식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1861년에 이계황이 지은 보제루 중수기(普濟樓 重修記)에 의하면, 이 건물은 1644년에 건립되었고, 영조 46년(1770)에 중수하였다. 또한 1813년 승려 벽파, 창오, 부총, 성기 등이 중수하였다.

그리고 원래는 사방이 모두 개방되어 있었으나 1971년 승려 성준이 중수하면서 문합문을 달았다.

보제루는 누각식으로 되어 위층에는 다락공간으로, 하층 중앙칸은 극락보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장이 상당히 낮아 웬만한 성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이는 누각 밑을 통과하면 곧바로 전개될 극락보전을 들어섬에 있어 고개를 세우고 교만스러운 자세로 들어가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숙인 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 유생들의 횡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유생들이 신흥사에 몰려들어 유흥을 즐기기도 했는데, 이때

갓을 쓰고 들어가거나 말이나 가마를 탄 채 들어가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그러나 이 보제루와 같은 높이의 누각을 만들면서부터 말이나 가마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극락보전을 향해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었다.

보제루는 한국 사찰공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공간의 위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낮은 입구를 만들었다. 아울러 2층 누각의 지붕선은 설악산의 산형을 고려해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찰 건물의 건축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래 사찰의 본전 앞에 세워지는 누각은 각종 법회를 거행하던 곳이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다. 현재는 그 기능이 사라졌으며 가는 문살의 분합문을 달았다.

건물 안에는 직경 6척 비자나무 통에 황우 6마리 분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법고(法鼓)와 목어가 보존되어 있고 특히 네 벽에 시판(詩板)과 추사(秋史)의 친필이 있어 유명하다.

그리고 신흥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판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해악루(海嶽樓)’, ‘외설악루(外雪嶽樓)’, ‘백설루(白雪樓)’ 등 한때 보제루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현판들이 보관되어 있다.

#### (4)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좌상 및 복장 유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3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 본전각인 극락보전 안에는 양련으로 된 목조팔각대좌에 결가부좌한 삼존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상,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상을 협시불로 안치하여 극락세계의 광경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의 본존불인 아미타불의 가사(袈裟)는 양어깨를 다 덮는 통견의(通肩衣)이고, 인상(印相)은<sup>6)</sup> 아미타여래의 수인(手印)인 미타정인을 하고 있다.

좌협시불인 관음보살상 또한 오른손을 내리고 원손을 들어 올린 미타정인을

6) 인상 : 인상은 부처나 보살의 손이나 손가락의 특정한 모습을 말한다. 손가락을 꼬부리는 것을 수인(手印), 물건으로 인을 표시하는 것을 계인(契印)이라고 한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하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가운데에는 화불(化佛)이 안치되어 있다. 우협시불은 대세지보살상으로 좌협시불과 반대되는 인상을 취한 미타정인으로, 머리 중앙에 보주가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다.

삼존불상은 근간에 새로이 개금 하였으나<sup>7)</sup>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불상의 복장물은 소실되어 조성 연대는 알 수 없고 불상의 밑바닥에 쓰여있는 가로, 세로의 목서명과 좌협시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에서 삼존불의 조성에 관한 축원문과 기문이 남아 있어 소개한다.

### 가로 목서명

香	山	普	賢	寺				
造	佛	次	雪	岳	山			
神	興	寺	佛	相	(像)	造	成	也

### 세로 목서명

順治八年辛卯八月一化主( ) 畵員無染謹封

### 축원문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腹臟安莊嚴祝願

### 기문

康熙五十九年庚子五月十日佛像腹臟安嚴記文...

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아미타삼존불좌상은 ‘묘향산 보현사’ 불상을 조성한 다음 순치 8년(1651) 화원, 무염 스님이 만들어 그 해 8월 19일 복장물을 안치했으며 69년이 지난 1720년 5월 10일(강희 59년) 또 다시 복장물을 안장했음을 알 수 있다.

좌협시불상에서도 祝願文(1651)과 記文(1720)을 비롯하여 각종 씨앗, 후령통,嘉靖三十六年(1557) 金剛山 表訓寺開板銘 목활자본 불서(佛書) 등이 발견되었다.<sup>8)</sup>

7) 개금이란 불상에 다시 금칠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문화유적 분포도 -속초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94쪽.

## (5) 김종우 가옥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5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186번지

김종우 가옥은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가옥의 규모는  $68.30m^2$  (20.66평)이다. 조선 영조 26년(1750)경, 전주 이씨가 건립 후 4대를 계승해 오던 중 같은 집안 이주환이 매수 후 2대를 계승해 오다가 현 소유자 김종우(金宗友)의 선친 김시중이 매입하여 2대째 내려오고 있다.

평면은 안채와 행랑채로 구분되며 그 밖에 창고 등의 부속건물이 떨려 있다. 집의 본체인 안채는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고 마루 뒤에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둔 산간지방의 전형적인 겹집식으로 되어 있다.

안채는 전면 5칸, 좌측면 2칸, 우측면 5칸의 그자형 집으로 벽돌기단과 주초석(柱礎石)에 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납도리, 훌처마의 팔작(八作)지붕 형식이다. 안채는 5량(樑), 외양간은 2층 구조로 2층은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 옆으로 방 2칸의 행랑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행랑채를 헐고 현대식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 가옥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둥 길이가 2m40cm 정도로 짧다는 것이며 폭은 24.5cm 의 사각형으로 굵다는 것이다. 바람의 영향 때문인지 창문은 쌍여닫이, 외여닫이로 되어 있고 겹문의 높이는 1m16cm, 너비는 94cm로 작고, 처마도 1m20cm밖에 되지 않는다.

## 나) 시 · 도 문화재 자료

## (1) 신흥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4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의 동쪽 기슭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신흥사(新興寺)는 원래 건봉사의 말사였으나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된 사찰이다.

이 절의 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고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하였으며 앞뜰에 구충석탑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향성사는 신라 효소왕 10년(701년)에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

그 후 의상대사(義湘大師)가 향성사의 부속암자인 능인암(能仁庵)터에 다시 절을 지어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번창했던 선정사 역시 조선 인조(仁祖) 22년(1644)에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영서(靈瑞), 연옥(連玉), 혜원(慧元) 세 승려가 꿈에 신인(神人)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고 선정사를 원터의 10리 아래에 중건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의 신흥사(원래는 ‘神’興寺였으나 현재 ‘新’興寺로 개명)이다.<sup>9)</sup> 조선 현종 2년(1661)에는 해장전을 창건하여 법화경, 중례문, 결수문, 예수문, 제청문 등의 판본을 넣었으며, 조선 영조 13년(1737)에는 명부전을, 조선 순조 13년(1813)에는 주운, 철수, 윤찬 등이 불이문을 세웠다. 대한 강희6년에 건봉사 말사가 되었으나, 신흥사는 1971년에 건봉사 대신에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0여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는 극락보전, 보제루, 종각, 요사채 등이 남아 있으며 극락보전은 신흥사 본전 건축물로서 전면 3칸의 겹처마 팔작기와 지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제루는 누각으로서 전면 7칸, 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형태이다. 하부는 본전을 향한 진입을 위한 공간이고, 상부는 집회, 강연을 위한 건축물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정면 3칸의 삼성각은 극락보전 우측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범종각은 좌측에 각각 위치해 있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명부전이 삼성각 우측에 있다. 그 외 식사와 손님 접대를 위한 운하당, 정면 7칸, 측면 3칸의 요사채, 적목당, 종각 등이 있다. 암자로는 안양암, 내원암, 계조암 등이 있다.

사적기에 의하면 신흥사는 극락보전 20칸, 명부전 12칸, 대향각 12칸, 삼성각 6칸, 영산전 8칸, 소향각 10칸, 선당 68칸, 승당 62칸, 보제루 32칸, 천왕문 6칸, 양로방 6칸, 고방 3칸, 소각 2칸, 편소 6칸 등 모두 253칸의 건물을 지녔던 대사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양암, 내원암, 계조암과 더불어 소림암, 반야암, 동토굴, 서토굴, 안심암, 세진암, 선일암, 극락암, 지무암, 향로암, 상원암, 동암, 백화암 등의 부속 암자들도 거느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9) 신흥사(新興寺) 예전에는 신흥사(神興寺)라 부르다가 1993년부터 신(神)자를 신(新)으로 하여 신흥사(新興寺)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 (2) 도문동 김근수 가옥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4호

소재지 :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리 150번지

이 가옥은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으며, 가옥의 규격은  $69.80m^2$ (19.9평)으로 확실한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약 20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동안 합평 이씨가 살다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현재 소유자 김근수가 매입하여 살고 있다. 소유자에 의하면 현재 지붕 위의 기와에 ‘도광 5년(道光五年)’이라고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도광 5년은 서기 182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이 가옥은 적어도 180년 전에 기와를 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륭(乾隆) 27년(1762)이라고 새겨진 수키와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 가옥이 243년 전에 신축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가옥은 겹집양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본채인 안채 중앙에 마루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다. 마루 뒤에는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두었다. 이는 대표적인 산간지방의 중앙 구들형 6칸 겹집양식 그자형 집이다.

주초석 위에 각기등을 사용했으며 납도리 훌처마의 팔작지붕 형식이다. 안채는 5량으로 모두 16량이며 외양간은 2층 구조로 2층은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 집 옆으로 방 2칸의 행랑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행랑채를 헐고 현대식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옥의 특징은 사찰공법으로 치마 끝이 올라가게 지었다는 것이며, 전체 집 높이가 낮고 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좌측 사랑방 출입문 높이가 27cm밖에 되지 않아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부엌문과 대청의 경우 나무를 도끼로 다듬어서 만들었으며 대문에는 ‘용호(龍虎)’ 글자를 붙여 놓아 액을 막고자 했다. 사랑방 옆에는 대리석 경치돌로 장식을 하였고 담은 흙담으로 상단에 기와를 얹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3) 신흥사 부도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5호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 부도군은 원래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96년 여름 현 위치인 소공원 매표소 오른쪽 부지(130여평 규모)로 옮겨지게 되었다.

부도란 명칭은 불타(佛陀)에서 파생된 것으로 불도(佛圖), 부두(浮頭), 포도(浦圖)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 스투파(塔婆)의 전음(轉音)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원상으로 불타가 곧 부처이므로 불상과 불탑도 부도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하면 승려의 사리탑인 승탑(僧塔)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수행이 높은 승려에게 불타와 같은 예우를 해주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도는 불가에서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으므로 사찰의 경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그 형식도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부도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말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신흥사 부도군에는 석종형이 10기, 원당형이 9기 총 19기, 비석 6기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벽파선사, 용암선사, 대원선사, 월암선사 등과 같이 이름을 알 수 있는 부도가 13기, 무명 선사의 부도 6기, 부도비는 6기이다. 6기의 부도비는 벽파당 대선사비, 용암당 대선사비, 대원당 대선사비, 신흥사 사적기, 김수영 공적 기념비, 해암당 대선사비이다.

### (4) 노학동 3층 석탑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27호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낮은 구릉에 둘러싸인,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골짜기에 위치한 절터에는 현재 석탑 1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들이 산재해 있다.

이 석탑은 안상(眼狀)이 새겨진 기단부에 1층 탑신, 1층 옥개석, 2층 옥개석과 3층 탑신, 3층 옥개석, 노반석이 각각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 4면에는 양 우주 및 사방불(四方佛)이 조각되어 있고, 연화좌 아래 상단 기단석 아래 면에도 양련(仰蓮)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영동지방의 석탑 중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된 탑은 노학동 3층 석탑과 함께 진전사지 삼층석탑, 강릉시립박물관 석탑재 뿐이며 그 희귀성으로 인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탑은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5) 오윤환 생가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37호

강원도 속초시 상도문동 195 5동3반

이 가옥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그자 합경도형 온돌 중심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평면의 부엌 뒤쪽으로 일자형의 방들이 연결되어 T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본체 전명은 머름대와 함께 현대식 미닫이 창호가 사랑방에서 마루까지 달려 있고 마당에는 새로 건축한 가옥도 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곳간과 창고가 있으며 창고의 상부는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고 있고 본체 지부에 이어서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안방에는 할머니가, 윗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고 윗방에는 뒷마루가 뒷 후원쪽으로 나와 있어 잘 꾸며진 후원을 거닐게 하였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윗사랑에는 손자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윗 뒷방에는 딸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집주위는 돌담이 둘러 있으며 장대석 기단에 20cm 각 기둥을 세운 팔작기와 지붕 형태의 150~180년 정도된 가옥으로 2006년 7월 28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7호로 지정되었다.

## 마. 미지정 문화재

### 1) 불교 문화

#### 가) 내원암



신흥사 북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암자이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창건할 때 동시에 현재의 내원암 자리에 능인암을 세웠으나, 신라 효소왕 7년(698)에 향성사와 같이 불타 버렸다. 그 후 3년 후인 신라 효소왕 10년(701)에 의상조사가 능인암 터에 절을 중건하여 선정사라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 인조 20년(1642) 선정사가 불타버리자 2년 후인 조선 인조 22년(1644)에 현재의 신흥사 터에 절이 중건되어 절 이름이 신흥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선정사 자리에는 같은 해 용암대사가 내원암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이 내원암은 조선 철종 11년(1860)에 불타고 말았으며 혜봉스님이 중건 하였으나 조선 고종 22년(1895)에 또 다시 불타고 말았다.

오늘날의 내원암은 1914년에 금강산 신계사 비구니 김수영에 의해 다시 재중건된 것으로 조선 고종 28년(1901)에 조성된 후불탱과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0)</sup> 정문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내원암(內院庵)’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 나) 계조암



신흥사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자연 석굴로 되어 있는 암자를 말하며 후면(북쪽)에는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창건할 때 동시에 건립했다고 한다. 일찍이 동산(洞山), 각지(覺智), 봉정(鳳頂) 세 조사가 항주하면서 정진 수도하였고 또 원효, 의상 두 조사가 서로 이어서 수

도하던 도량이라고 하여 계조암이라 명명하였다.

창건 이후의 역사는 소상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흥사사적기』에는 조선

10)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八年(辛卯) 內院庵의 後佛幀七星幀神將幀을 造成하다.

조선 고종 28년(신묘)에 내원암에 후불탱, 칠성탱, 신징탱을 조성하였다.

고종27년(1890) 응화스님이 삼성각(三聖閣)을 지었으며, 1908년 동암스님이 단청하고 동고스님이 후불탱화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법당인 석굴과 삼성각, 요사체 등이 있으며 석굴 안에 봉안된 아미타불과 삼성각에 모신 나반존자상이 있다.

## 2) 호수 및 정자

### 가) 호수

#### (1) 청초호(靑草湖)



속초시 중앙에 위치한 석호(潟湖)로 옛 이름은 쌍성호(영랑호와 청초호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있다는 뜻) 또는 진성호라 하였다.

호수의 면적은  $879.863\text{m}^2$ , 둘레는 4.276km로 북쪽 입구가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다. 이 호수는 선박들이 외해(外海)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

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선시대에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두고 병선(兵船)을 정박시킨 일도 있었다.

청초호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읍지(邑誌)』에는 용경(龍耕)에 관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가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마치 논두렁 같이 되는데, 이것을 호수 밑에 사는 용이 갈아 놓은 것이라고 하여 용경 또는 용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용경이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쪽을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여, 이것으로 다음 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또한 이 고장에는 영랑호(永郎湖)에는 암룡이, 청초호에는 숫용이 산다는 얘기가 예로부터 함께 전해져 오고 있다.

청초호는 전 세계적으로 지질적으로도 희귀한 가치를 지니는 자연석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말기에 청초호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으며 그 때부터 속초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금은 속초항의 개발로 호수 주변이 어항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수의 1/3이 매립되어 유원지로 개발되었다.

현재 청초호 상류는 철새도래지로, 호수 남쪽으로는 속초 시민 식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 (2) 영랑호(永郎湖)



영랑호는 속초시 서북쪽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쌓인 자연석호로 그 주위가 7.7km, 면적이 약 1,024,000m<sup>2</sup>이며 경관이 빼어나 아름다운 호수로 예로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명칭은 신라시대 영랑이라는 화랑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sup>11)</sup> 이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화랑이었던 영랑(永郎)이 동료인 술랑(述郎), 안상(安祥), 남석행(南石行) 등과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성 삼일포에서 3일 동안 놀고 난 후 각자 헤어져 금성(현재 경주)을 향해 가던 중 영랑은 이 호수를 만나게 되었다.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빨간 저녁노을로 한결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그리고 웅크리고 앉은 범바위가 그대로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 영랑은 금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그때부터 이 호수를 영랑호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산기슭에서 바라보는 영랑호의 풍경은 더 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또한 호수주위를 돌아 감싸는 도로는 도보여행이나 드라이브, 자전거 하이킹에도 더없이 좋다. 이곳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는 맛도 일색이다. 특히 해가 저물 무렵 하구 쪽에서 영랑호를 바라보면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선경을 만날 수 있다.

### 나) 정자

#### (1) 영금정(靈琴亭)

속초 동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石山)이 있는데, 이 석산이 솔산이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불린다.

일제시대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방파제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대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에 의하면

在郡南五十里周三十餘里汀回渚曲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어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12)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발행한 『면세일반』에 최초로 기록된 영금정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나 정자가 있어서 영금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훑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영금정을 조선시대에는 비선대라고 하였다. 이는 솔산 위에 비선대라는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 문헌에서 이야기하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비선대가 솔산의 석봉 위에 있었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이 석산의 모습을 이야기한 자료는 없다. 다만 석산의 모습을 짧게나마 기억하고 기록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솔산이란 곳을 말하자면 속초라는 지명을 만들게끔한 아름다웠던 바다 위에 떠 있던 작은 섬! 마치 농군이 풀을 베어 단을 졸라맨 모양의 작은 바위섬! 바위 위에는 두 세 사람이 팔을 벌려 앉아야 할 만큼 큰 노송이 우산 모양의 나뭇가지를 둥굴게 하여 하늘 높이 사방으로 뻗어 서 있다.(중략)

섬이라고는 하지만 섬과 해안선 사이가 넓고, 넓은 돌반석이 물밑에 깔렸고 바닷물이 불어나면 섬이 되고 바닷물이 마르면 발목정도 적시면 육지에서 이 섬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면 솔섬이 오늘에 이르러 육지가 돼 버렸다.(중략)

송림 사이로는 울퉁불퉁 묘한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며 솟아 있었고, 공작새가 날개를 편 모양이 천년 노송들이 땅바닥을 굽어보며 묘한 몸매로 쭉! 쭉! 나뭇가지를 늘어뜨렸었다.”<sup>13)</sup>

속초 앞 바다에서 바라보는 솔산의 모습은 가히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을 것이다. 이 산으로 인해 속초(東草)의 땅이름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설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정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12) 『관동음지 양양 누대조』에 의하면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불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13) 김정우, 『내 고향(故鄉)』, 강원일보사, 1997, 55쪽.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동여지도』, 『관동읍지』, 『관동지』, 『양양군읍지』 등에는 모두 비선대(秘仙臺)라고 표기하여 기록되어 있다.

### (2) 학무정



학무정(鶴舞亭)은 속초시 상도문동 송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말 성리학자 오윤환(吳潤煥)이 1934년에 현 위치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 모양이 6각(六角)이므로 옛날에는 육모정이라 불렸으나, 정자 4면에 이름을 적은 현판이 남아 있다. 남쪽 학무정, 북쪽 영모재(永慕齋), 북동쪽 인지당(仁智堂), 남서쪽 경의재(敬義齋)가 그것이다. 정자 안쪽으로 11개의 시판(詩板)과 1개의 학무정기(鶴舞亭記)가 있으며 정자 육면에 분합문(分閭門)을 단 흔적이 남아 있다.

학무정을 건립한 오윤환(1872~1946)의 본관(本貫)은 해주(海州), 호는 매곡(梅谷)으로 속초 도문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깊이 궁리(窮理)하였고,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鄉里)에서 제자 교육에만 힘썼으며 효성도 지극하였다.

3·1 독립만세운동에 제자들과 참여하였다가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곤혹을 치뤘으며, 삽발령과 창씨개명을 철저히 반대하였다. 그 후 학무정을 건립하여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며 제자들과 강론하는 교육의 도장으로 삼았다.

정자 옆으로는 1971년에 세운 학무정 기념비와 1955년에 세운 충효강릉 박공회지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知碑)가 위치하고 있다.

### (3) 영랑정(永郎亭)



영랑호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다. 6·25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 ‘금장대(金將臺)’가 있었으나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축조된 6각으로 된 기단부(基壇部)만 남아 있던 것을 2005년도 복원계획에 의해 새로운 정자가 들어섰고, 시민공모에 의해 ‘영랑정’이란 명칭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 3) 금석문 및 비석 · 기념탑

#### 가) 금석문

금석문이란 글자 그대로 쇠붙이나 돌붙이에 새겨진 글자나 그림을 통틀어서 말한다. 문헌으로 전하는 것은 애매하거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금석문은 그 당시 그 사람의 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구체적인 생의 기록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역사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석문은 중국과는 달리 쇠붙이 보다는 돌에 새긴 것이 많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비석 종류이다.

금석문은 활자와 종이로 새겨진 역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많은 기록이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남아있는 또 다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1) 비선대 각자

비선대(飛仙臺)는 설악동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이다. 예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풍류를 즐겼으므로 암반에는 수많은 글자가(주로 직책과 이름) 새겨져 있는데, 그 중 ‘飛仙臺’라고 새긴 큰 글자가 대표적이다.

현재 각자(刻字)에는 특별한 표시도 없고 그동안 관광객들에 의해 짓밟히고, 오랜 세월의 풍화에 의해 글자가 희미해졌으나 지금도 飛仙臺라는 큰 글자는 초서(草書)로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는 글자 하나의 지름이 1m 정도이고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양양읍지(襄陽邑誌)인 『현산지(峴山誌)』에 기록되어 있다. 윤순은 조선 영조 때의 서예가로 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 (2) 계조암 각자

계조암(繼祖庵)은 신흥사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자연 석굴로 된 암자이다. 이곳은 유명한 조사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었다고 하여 ‘계조(繼祖)’라는 이름이 붙여진 불교의 유명한 수도처이다.

그리고 그 옆의 바위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음각되어 있는데 그중 ‘繼祖窟’이라는 큰 글자가 가장 대표적이다. ‘繼祖窟’각자(刻字) 옆에는 ‘尹師國書’라고 새겨진 글자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각자가 조선 정조 때의 서예가이자 판서 벼슬을 지낸 윤사국(尹師國)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윤사국(尹師國)은 조선 정조(正祖) 14년(1790)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이다.

#### (3) 관음 각자

속초시 영랑호 동남쪽 속초의료원 뒷편 산봉우리에 관음암(觀音岩)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에 ‘觀音’이라는 큰 글자가 종서(縱書)로 새겨져 있다.

글자의 크기는 지름이 약 80cm 정도이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1줄에 4자씩 2줄, 종서로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지금은 잘 알아 볼 수 없다. 그 왼편에도 역시 작은 글자가 종서로 ‘西歷 日九五二年 六月 日/ 李亨根 題/崔泓熙 書’라고 3줄 새겨져 있어 수복 직후 이 고장에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제 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장군과 명필 죄홍희(崔泓熙) 장군에 의해서 각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랑호에 인접한 이곳은 옛부터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출현하는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 나) 비석

#### (1) 신흥사사적비

- 소재지 : 신흥사 입구 부도군(浮屠群)
- 연대 : 조선 영조 40년(1764)
- 규모 : 총높이 287cm, 비신 높이 204cm, 두께 31cm, 폭 79cm

#### (2) 양양 신흥사 용암대사비명<sup>14)</sup>(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有明朝鮮國龍巖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李福源撰

資憲大夫原任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姜世晃書

夫抱幽憂疾久謝筆硯有浮屠弘慤者爲師乞銘守東郭經歲不去祈叩益堅余始而疑卒而歎曰彼雖異吾道而能竭其道之忠於身去之後如此殆有不蘚然而然者存焉是足以銘矣按其狀 師法名體號龍巖 本鄭姓長城土族幼失兩親與其兄北遊兄歸而獨寓南漢隨釋穩長老入雪山祝髡受戒於白蓮堂智欽大師後遇日庵法師益肆力於內外典轉參南北諸宗而歸日庵以所居內院屬師錫以法號自此卓錫豎拂施教日廣蓋於清虛爲七世孫云晚年謝遣門徒一日弟子洪波往省之師疾病索筆書偈曰與我有親親何時更有親親親返前昔在今又無因我今又得在前聖是吾親今朝大笑去楓嶽萬峰濱乃浴身更衣越三日示寂卽己亥十二月二十一日壬戌也壽六十七法臘五十一門徒等建浮圖於內院之東寶藏舍利師喜施予有心計自童歲解屬辭有詩文若干篇傳於其徒余於少時游雪嶽意有高禪逸土棲寄於巖洞松桂之間而未之見也今聞師住此山四十年竟以樂終其得於耳謨目營而融於心者必有神解妙詮之可以啞惺人性靈喜師之遇眞境而恨余之無夙因也銘曰我不識師銘奚以爲見師之偈如眞見師東有雪山桑海其隣銘師於是亦夙因崇禎紀元後三己酉五月 日立

14) 용암대사비와 대원대사비는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해석을 실었다. 기존의 참고 자료가 없고, 현재 쓰지 않는 한자가 많아 해석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분적으로 모르는 글자가 몇 자 있긴 하나 지역 불교사를 연구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유명 조선국 용암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龍巖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경연사감춘추관사이며 세자의 스승인 이복원이 짓고 자현대부로 전에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냈던 강세황은 쓴다.

노부가 우울병이 오래되어 글을 안 쓴지 오래되었는데 홍민이라는 중이 선사를 위하여 명을 지어주기를 청하여 동곽(東郭)을 지키며, 해가 지나도 가지 않고 기원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였다. 내가 처음에는 마칠 것을 의심했으나 탄식하면서 말했다. 저쪽이 비록 내 도(道)와는 다르나 능히 그 도(道)가 몸에 충만하기를 다할 수 있으니 선사가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명을 지을만하다 그 행장을 살펴보면 선사의 법명(法名)은 체조(體照)이고 호(號)는 용암(龍巖)이다. 본래 정씨(鄭氏) 성으로 장성(長城)의 사족(士族)이었다. 어려서 양친(兩親)을 잃고 그 형과 함께 북쪽으로 유람(遊覽)왔다가 형은 돌아갔으나 홀로 남은 석암장로에게 일년간 의탁하였다. 설악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백련당 지흡대사(白蓮堂 智欽大師)에게 계(戒)를 받았다. 후에 일암법사(日庵法師)를 만나 더욱 불경(佛經) 및 기타 전적(典籍)을 공부하였으며, 남북제종(南北諸宗)의 전적(典籍)들도 공부하였다. 일암(日庵)으로 돌아와 내원(內院)에 거할 때 스승이 법호(法號)를 주었다. 이로부터 석장(錫杖)을 세우고 닦음을 완성해 가르침을 베풀는 것이 날로 넓어졌다.

대개 청허(淸虛)가 칠세손(七世孫)이 된다고 이른다. 만년(晚年)에 문도 들을 사질하여 보냈다. 하루는 제자 홍파왕(洪波往)이 선사를 보살폈는데 선사가 병이 위중할 때 붓을 찾아 개(偈)를 짓기를 나와 친함이 있는데 친함은 어느 때 바뀔까? 친했던 것은 예전에 것이 돌아온 것이니 지금(只今)은 또한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얻어진 것이니 성(聖) 이것이야말로 나의 친함이다. 오늘 아침 크게 웃으며 가리라.

만봉(萬峰)에 단풍이 들려 할 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지 삼일만에 입적하였으니 곧 개해 십이월 이십일일 임술(壬戌)이었다. 세수가 육십 칠세이고 출가한지 오십 일년 이었다. 문도(門徒)들이 내원(內院)의 동쪽에 부도를 세우고 사리(舍利)를 보장하였다.

선사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또한 심계가 어렸을 적부터 뛰어났다. 문사와 시문(詩文) 약간편이 그 문도(門徒)에게 전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설악산에 노닐면서 고선일사(高禪逸士)들이 석굴 송계(石窟 松桂)지간에 머물러 사는 것에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지금 선사

가 이산에 사십 년을 머무르다가 마침내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을 들었다. 선사는 귀에 들은 것을 눈으로 실천할 것을 도모했으며, 마음에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불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이니 인성의 존엄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사가 참된 경지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오래된 인연이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다.

그 명(銘)에 이르기를

나는 선사를 모르는데 명을 어떻게 지으리오.

선사의 계를 보니 선사를 뵙는 것과 같아

동쪽에는 설악산이 있고,

상전벽해는 그 이웃에 있네.

이에 선사의 명을 지으니

이 또한 오래된 인연이리라.

崇禎紀元後三 己酉년五月에 세우다

(3) 양양신흥사대원대사비명(襄陽神興寺大圓大師碑銘)

有明朝鮮國大圓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直提學俞彥鎬撰并篆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曹允亨書雪嶽名于域中古清寒子暨三淵翁遺躅尙在而淵翁所嘗與爲淨社之游如隣道人雄大師其人皆靈淑所鍾超上津茂其道珠而其致一後之尙賢者奚方內外之間焉余嘗居白城之墅有比丘道圓者自雪嶽走千里爲師乞銘問其師乃賢道人高足大圓大師也嘻卽其淵源之所自可而知師矣師法名無外號大圓堂本文姓高麗江城君益漸之後父壽遠母金氏夢月而娠旣生肌膚淨潔不藉洗浴爲兒嬉戲皆作佛事見者異之甫成童當戊申國難奔赴南漢守堞有勞難已賞射獲多當第遂力辭而歸忽自念人之寂於物者以有靈明也其可緣形役性喪吾神珠乎旣而父母擇對將諷日送之乃中夜脫身走入雪嶽問道日庵大師大師卽賢道人也賢與語奇之傳其心印繇其上有雪巖月渚楓潭鞭羊以接乎清虛於師六世也師夙有慧識於內外典深獨得以開衆覺中年苦眼眚於是面壁心灰回光內照行益苦道益尊蔚然爲一代業林之宗今上辛亥七月乙酉寂于雪嶽之極樂庵壽七十八臘六十臨化謂衆曰我將行矣其勿以彌文累我旣焚化有光燭天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珠一顆爲浮圖以藏之云余仍誥之曰圓菴道以無爲爲宗顯揚褒大何有於師哉圓曰以爲無也則三千大界便作空華以爲有也則眞妄皆境隨所在而致力亦人之道也圓貌古而氣清徧習竺典專心所事殆古所謂不見其山願見其木者歟遂爲之銘曰

赴難逃賞清虛之風兮

因性早覺月渚之通兮

五祖傳印臨濟之宗兮

由戎八之水止鑑空兮  
 雪山嵯峨寶珠玲瓏兮  
 於千萬年皎皎靡終兮  
 崇禎紀元後三壬子十一月 日立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大圓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 崇祿大夫)로 전에 행판중추부사 (行判中樞府事)를 지냈고,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인 유언호(兪彦鎬)가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공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工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副摠冠)인 조윤형(曹允亨)이 쓰다.

설악산은 나라에서 유명하다. 옛날 청한자(淸寒子)와 삼연옹(三淵翁)이 남긴 자취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연옹이 함께 했던 정사(淨社)의 교유(交遊)로서 색도인(曠道人)과 웅대사(雄大師) 같은 사람은 신령하고 밝은 기운이 모여 상무(上茂)를 초월한 분들이니 그 도(道)는 달랐으나 그 귀취점은 하나였다. 후세에 훌륭한 사람을 송상하는 사람이면 무엇 때문에 방내(方內)니 방외(方外)니 하는 차별을 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백성(白城)의 별장에 거(居)할 때 비구인 도원(道圓)이라는 자가 설악으로 부터 천 리를 달려와 선사의 명(銘)을 짓기를 청하였다. 그 선사가 누구인가 물으니 곧 현도인(賢道人)의 제자 대원대사 (大圓大師)였다. 아! 그 연원(淵源)이 그러하니 선사를 알만하다.

선사의 법명(法名)은 무외(無外)이고 호(號)는 대원당(大圓堂)이다. 본래(本來) 문씨(文氏) 성(姓)으로 고려(高麗) 강성군(江城君) 익점(益漸)의 후예(後裔)이다. 아버지는 수원(壽遠)이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며, 태몽(胎夢)에 달을 보고 임신(妊娠)한 후 아이를 낳았는데 피부가 정결하여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아이 때 놀이를 하는데 모두가 불사(佛事)와 관계된 것이어서 보는 이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소년 때인 무신년(戊申年)에 국난을 당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여 성(城)을 지겼는데 공이 있어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사양하고 돌아와 훌륭히 사람이 사물에 적(寂)할 수 있는 것은 영명(靈明)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이 육체적 생활(肉體的 生活)의 노예(奴隸)가 되어 사역(使役) 당하는 일은 자신의 신주(神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악산(雪嶽山)에 들어가 일암대사(日庵大師)를 물어 찾았는데 대사(大師)가 곧 현도인(賢道人)이었다. 현인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그에게 심인(心印)을 전해주었다.

그 위에는 설암(雪巖), 월저(月渚), 풍담(楓潭), 편양(鞭羊)이 있고 청허(淸虛)에 이르기까지 육세(六世)가 된다. 선사는 일찍이 불경(佛經) 및 기타 서적(書籍)에 깊은 지식이 있었으며, 깊이 있게 홀로 대중을 깨우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년(中年)에는 안질(眼疾)로 고생하였으며, 이에 면벽(面壁)수련에 들어가 마음이 다하도록 수련한 결과 회광 내조(回光 內照)에 이르러 수행은 더욱 고통스러웠으나 도가 더욱 드높아져서 울연(蔚然)히 일대(一代)의 업(業)을 이루었다. 신해(辛亥)년 칠월(七月) 을유(乙酉)에 설악(雪巖)의 극락암(極樂庵)에서 입적(入寂)하였다. 세수(世壽)가 78(七十八)이요, 출가(出家)한지 60년(六十年)이었다. 입적(入寂)하기 전에 대중에게 이르기를 나는 장차 입적(入寂)할 것이다. 글을 지어 나를 엉매이지 말라, 이미 다비식을 치를 때 환희 비추는 빛이 하늘로 이어져 날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문승(門僧) 혜원(慧遠)이 영주일과(靈珠一顆)를 얻어 부도를 세우고 그것을 보장하고 이르기를 내가 거듭 맑히지만 선사의 도(道)는 무위(無爲)로써 기본을 삼는 것이니 선사에게 세상에 명예가 드러난다든가 칭찬 받는 것이 어찌 큰 것이 되겠는가? 선사가 말하기를 삼천 세계(三千世界)라는 것은 편히 지어낸 공상으로 없는 것이고, 진실과 허망한 것 모든 경우는 있는 곳에 따를 뿐이니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道)이다. 선사의 모습은 고풍스럽고 기는 맑으며 두루 학습하고 경전을 독실히 공부하였다.

하는 일마다 마음을 다하셨고 예전에 그 산을 보지 못하며, 그 나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하여 명(銘)을 짓노라.

어려움에 이르고 상을 피한 것은 청허(淸虛)의 풍이여,  
인성(因性)을 일찍 깨달은 것은 월저(月渚)와 통한다.  
오조(五祖)에 심인(心印)을 전한 것은 성취함의 으뜸이여,  
마음으로 심복 시킴은 명경지수 같은 거울이다.  
설산(雪山)은 우뚝 솟고 보주(寶珠)의 영롱(玲瓏)함이여,  
천만년 후에도 고결함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崇禎紀元後三壬子년十一月에 세우다.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 (4) 유물재비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 반대편 서쪽에 설악 파출소가 있고 파출소 뒷편 잔디밭에 유물재비가 있다. 원 이름은 ‘물재 유선생 유허비(勿齋 翁先生 遺墟碑)’이다.

물재(勿齋) 유회일 선생(창원 출생)은 조선 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이 곳 대포동(물치리)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이다. 그의 학덕과 부친에 대한 효성을 마을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비를 건립한 연대는 1748년으로 되어 있고, 비의 총 높이는 194.5cm, 비신(碑身)높이 138.5cm, 폭 60cm, 두께 20cm의 규모로 되어 있다.

#### (5) 박지의 효자비각과 충효 강릉 박공휘지의 지비



당하자 3년 동안 정성껏 시묘살이를 했다. 51세가 되던 조선 현종 15년(1849) 6월 6일에는 임금님이 승하하시자 마을 앞 쌍천 갯가의 조용하고 깨끗한 곳(현재 학무정이 있는 곳)을 골라 제단을 쌓고 부모상 때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망곡을 하였다. 그 후 박지의는 1860년 62세로 세상을 마쳤다.

그의 뛰어난 충성심과 효성은 이 지방의 유림들에 의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알려져 마침내 그가 태계한지 33년이 지난 조선 고종 30년(1893)에 12월에 정려(旌閭)의 명이 내려 효자비각을 망곡하였던 터 옆에 세웠다.

더불어 나라에서는 그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라는 관직을 하사했다. 그 후 홍수로 비각이 유실되자 1937년 다시 비각을 그의 무덤이 가까운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웠고, 1984년 봄에는 속초시장이 비각의 단청을 다시 하고 주변을 정화했다.

사람들이 흡모하여 그의 사후 이 고장의 유림들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현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리 마을 한가운데에 항현사라는 사당을 건립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다. 그 후 사당 건물이 퇴락하자 그 자리에 지금의 유허비를 세웠고, 유허비 부근 일대에 새마을이 조성되며 되자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비문은 예조판서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그 전에 효자비각이 있었던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쌍천가 학무정 옆에는 1955년에 후손들이 세운 충효강릉박공휘지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之碑)가 있다.

### (6) 박상희 읍장 송덕비(朴祥喜 邑長 頌德碑)

초대 속초읍장을 지낸 박상희의 송덕비이다. 1958년 9월에 ‘송덕비건립위원회’의 이르으로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으나 동명동 방호위로 옮겼다가 수복탑 옆으로 옮겨졌고, 현재 속초시 내물치리 비석공원에 구비(舊碑)와 함께 1992년 8월에 건립된 신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박상희 읍장은 1890년 현 속초시 장사동 장천리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한학을 공부하였다. 청년기에는 도문동 중도문리로 이사하여 이석범이 세운 쌍천서숙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였고 3·1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 후 강원도 평의원과 도천면장을 역임하였다. 면장 재직 시 속초항 개발을 추진하여 오늘날의 속초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즉 천연의 조건을 갖춘 청초호를 항구로 개발함으로써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져 1937년 7월 1일에는 도천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의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공으로 속초읍의 초대 읍장으로 추대되어 속초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48년 향년 59세로 세상을 마쳤다.

### 다) 기념탑

#### (1) 수복기념탑

수복기념탑은 실향민 도시 속초를上げ는 탑이다. 이 탑은 전쟁 기념비라기보다는 통일을 염원하는 탑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끝나고 속초 지역은 수복되었으나 남쪽으로 피난하였다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이 탑을 만들었다.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 등이 수복을 기념하고 피난민의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제1군단 민사처 보좌관 전형윤 소령을 통해 건의를 하고 제1군단장 이형근 장군의 승낙을 얻어(한국전쟁으로 수복은 되었으나 아직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다.) 피난민의 회사금, 속초읍 부담 육백만환, 군부대의 차량 지원으로 1954년 5월 10일 건립하였다.

탑의 재원은 좌대 폭4m, 좌대 높이 7m, 모자상동상 높이 2.55m 등 총 9.55m의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전쟁 유적비 탑의 상례인 군경조각동상이 아닌 민간인 모자조각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탑의 특징이다.

이 탑의 맨 위에는 보따리를 끼고 있는 어머니와 북녘하늘을 가리키는 어린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고향땅을 바라보는 애절한 모자조각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더 이상 고향땅으로 올라 갈 수 없는 실향민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대변한다.

이 모자 조각상은 당시 1군단소속 군인인 박칠성이 제작했으며, 애절한 사연을 담은 모자상부(母子像賦)는 당시 1군단 소속인 장호강 시인(한국참전시인협회장)이 지었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모자상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해 실향민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커졌고 어부들도 귀항길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수복기념탑의 파손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이에 범시민적으로 수복기념탑복원건립위원회(위원장 김종록)가 구성돼 시민성금 모금에 들어갔으며(시민성금 4천여만원과 시비 1천여만원) 결국 눈물이 끓는 시민의 정성으로 인해 그해 11월 17일 수복기념탑은 다시 제막식을 갖게 됐다. 통일을 염원하는 속초시민 모두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철책 너머 고향을 두고온 실향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며, 통일의 그날에 대한 희망을 품은 「수복기념탑」도 이제 인간의 나이로 치면 어느덧 오십살이 넘어 육십줄을 바라본다.

「첩첩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짖궂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가야만 하느니...」(수복기념탑의 모자상부 첫귀절)

지금은 설악문화제, 설악눈꽃제 등의 축제에서도 빠짐없이 통일염원의 행사가 이곳에서 치뤄지며, 98년 5월 3일 영북지역 최초로 범시민적인 통일시민대회가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이곳 광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요즘 부쩍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복기념탑은 8만 속초시민의 통일 염원을 하나로 묶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 (2) 이름모를 자유용사(自由勇士)의 비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에서 비선대 방향으로 약 2.4km 지점인 정고평(丁庫坪)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무명용사(無名勇士)의 비(碑)’로 불리워진다.

한국전쟁 때 설악산 산악전에서 중공군을 맞아 용감히 싸운 수도사단, 제11사단, 제5사단 순국장병과 군번 없이 참전했다가 산화한 학도결사대, 호림부대(虎林部隊)의 젊은 용사들의 넋을 위로

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1965. 10. 30 한국일보사에서 제1군사령부와 강원도의 후원을 받아 <반공 애국 유적 부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였다.

당시 한국일보사 강원지사장 이구형(李錄瀅)이 비 건립을 발의하였고 제1군사령부 출입기자단장 지일권(池一權) 기자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시공은 국제토건 회사(國際土建會社, 사장 朴贊奎)가 맡아서 하였다. 공사비는 강원도 내 각 기관과 독지가에게서 모금한 성금 2백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쌍용시멘트회사에서는 시멘트 300포를 회사하였고 제1군사령부에서는 장비를 지원하였다. 공사 감독은 제1군사령부와 한국일보사 속초주재 마일연(馬一淵) 기자가 담당하였다.

‘이름모를 自由勇士의 碑’라는 휘호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김용배(金容培)장군이 썼고, 비문은 시인이자 당시 제38사단장 장호강(張虎崗) 장군이 지었다. 기단높이 1.3m, 비석 높이 13m이다.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碑文

지금은 자유의 땅 여기 남들이 고이 쉬는 설악에 영광의 탑은 높이 섰나니 아아 붉은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던 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가 꽃잎처럼 흩어진 수많은 영들 호국의 신이여 남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 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혼은 겨레의 가슴깊이 새겨져 길이 빛나리라 천추에 부를 남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 것이다.

一九六五年 十月三十日

## (3) 설악산 지구 전적비(雪嶽山 地區 戰跡碑)

설악산 소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6·25동란 때 설악산지구 전투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전적비를 세우게 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76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교통부 연두순시 때 6·25 전적지(戰跡地) 개발을 촉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부에서는 1976년 2월 10일 전적지 개발 계획을 작성하였고, 1976년 7월 21일에는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국장급 및 관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설악산 지구 전적지 개발 사업은 1978년에 추진되었다. 1978년 1~6월까지 개발 대상지 답사, 측량, 전사(戰史)자료 수집, 사업 계획 승인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위한 설계를 7월 8일 완료하였다.

전적비 건립은 조각가 최기원(崔起源)이 9월 8일에 착공하여 11월 10일에 완공하였으며, 동년(1978년) 12월 11일에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전적비 규모는 비 기단 높이 70cm, 비 높이 3m, 동상 기단 높이 75cm, 동상 높이 335m이다.

동상(銅像)은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자유·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진으로 돌진하는 국군의 용감한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전적비위에 세워져 있다.

전적비에는 <설악산 지구 전사문>과 <비문> 및 <건립 개요>가 새겨져 있다.

## &lt;설악산 지구 전사문&gt;

여기 관동의 영산, 풍광 그윽한 곳에서 혈전이 있었던 것은 1951년 5월이다. 그해 2월에 삼척 부근에서 태백의 준령을 따라 북진한 국군 수도사단( 맹호부대)이 4월에 관모봉 한계령선에 이르러 백담사와 대승폭포 부근에 도사린 북괴 제6, 제12사단과 대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맹호들이 청봉을 단숨에 뛰어넘고 노호를 터뜨리며 적구를 향해 공격해 갔으니, 그날이 5월 7일. 적의 저항도 완강하였지만 더우기 높은 봉, 깊은 골이 첨첩하여 식량과 탄약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며 악전고투가 계속되었다. 이에 공군 수송기의 공중 보급을 받아 가며 난관을 극복하고, 공격 개시 5일만인 12일에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인제에서 하진부리로 침습한 중공군이 대관령을 위협하므로, 수도 사단은 그곳으로 달려가 그 적을 막아낸 다음, 반격을 재개하여 5월 말에 일사천리로 이곳을 다시 지나 6월 초에 향로봉을 점령하고, 이어 건봉산을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인 남강 기슭에 진출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하게 되었다. 그 때, 이 산천에 선혈을 뿐린 맹호의 이름은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하거나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몸 바친 젊은이의 넋이 여기 서려 있으니, 이제 청봉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이 돌 앞에 고개 숙일 일이다.

### <비문>

여기, 청봉 높은 봉우리  
돌 하나 옮겨 세우니,  
이는 천만 년을 이어 갈  
역사의 표말이다.

바람, 꽃  
아름다운 저 능선을  
적구가 짓밟을 때  
맹호의 노호로  
이 봉우리 지켰으니,  
설악이 여기에 없었더라면  
어찌 항로와 건봉이 저기에 있으리오.  
오월 초목  
단심으로 물들인 충혼,  
이 돌과 더부러  
길이 남으리라.

### <건립 개요>

주관: 교통부  
집행: 국제관광공사  
후원: 국방부  
제작: 최기원  
준공: 1978년 11월 10일

#### (4) 충혼탑(忠魂塔)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2리와 하도문리 경계인 신문덕에 위치하고 있다. 속초시 출신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탑이다. 충혼탑은 본래 1964년 5월 동명동 등대 서편 산등성이에 건립하였던 것을 1969년 5월에 9만원의 시비(市費)를 들여 영랑호 남동쪽 현재 체육공원 자리로 옮겨 동년(1969) 현충일 날 제막식을 가졌으나, 다시 1987년 12월 15일 이곳에다 새로 건립하였다. 탑의 앞면 좌우에

는 국군의 활약상을 조각한 청동상(靑銅像)이 부착되어 있고 뒷면에는 비문과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문>

돌에 새긴다  
한줌 구름을 고향 하늘에 띄워두고  
여기 깊이 잠들었는가  
길손이 묻거든 대답하라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꽃봉오린 채 이곳에 안식한다고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대들이 누리고 있음이여  
식지 않는 땅 열렬한 지평 위에  
찬란한 역사와 함께 살아 있노라  
젊은 목숨들이 받친 보석 바구니  
겨레의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네  
이 빛나는 자유 조국의 하늘 아래  
호국의 영들이여 길이 광명하라

황금찬

西紀 一九八七年 十二月 十五日  
束草市長 尹泰景



<구 충혼탑 비문>

아아 任務(임무)와 目標(목표) 앞에 救國(구국)의 至誠(지성)은 신을 울리고 그 忠魂 天地(충혼 천지)와 함께 길이 빛났더라.

<구 충혼탑 규모>

기단(基壇) 높이 165cm, 둘레 890cm, 탑신(塔身) 높이 355cm, 둘레 360cm

(5) 해경충혼탑(海警忠魂塔)

속초시 장사동 사진리(沙津里)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에서 해상 치안 질서 유지와 어로 보호 및 대간첩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꽂다운 젊음을 나라 위해 바친 해양경찰 대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대에서 건립하였다. 기단부는 해경 합정 형태로 조각되었고, 그 위에 높은 탑이 세워졌다. 충혼탑 뒤 벽에는 비문과 순직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 <비문>

이 나라의 東西南海(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이  
여기 太白山 북쪽 기슭에 고이 잠드시도다  
꽃다운 젊음을 바다 지키시다가  
숭고한 희생으로 永遠(영원)하시니  
세월이 흘러가도 海警人(해경인)의 가슴마다  
빛나는 별들이 되어 계시리도다.  
저마다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하시고  
民族青史(민족청사)에 충흔들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 분들을 잊을 길 없어  
뜻과 정성을 모아  
여기 해양경찰대 충흔탑을 세워  
이들 忠靈(충령) 한자리에 모시여  
호국 불멸의 꽃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해경 역사에 龜鑑(귀감)을 삼고자 하노라.  
서기 一九八六年 十二月 三十日  
해양경찰대장  
치안정감 권복경

### (6) 통천군 순국동지 충흔비(通川郡 殉國同志 忠魂碑)

영랑호 동남쪽 가에 있다. 통천군 출신 인사 중, 공산 치하에서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 흘린 반공 전사자 및 6·25 전몰용사 140명의 충흔을 기리기 위하여 영북지구 통천군민회 (嶺北地區通川郡民會) 신세묵(辛世默) 회장 외 5명이 발기하여 박용학(朴龍學), 정주영(鄭



周永), 강서룡 등 전국의 통천군민 150명이 낸 회사금 120만원으로 1969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그 후 1990년 5월 30일 보수하였다.

충혼비 규모는 기단 높이 110cm, 둘레 17m, 비신(碑身) 높이 625cm, 둘레 5m이다.

충혼비 앞면에 <비문과>과 <순국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 <비문>

동방의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조국·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 아래 일신을 초개 같이 던져 북한 공산도당과 싸우다 아깝게 순국한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이 비에 새겨 고향 바다 흐르는 여기에 모시고 반공과 통일을 다짐하오니 충흔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통천군민일동

### (7) 유정충 선장 동상(劉禎忠 船長 銅像)

1990년 3월 1일 제주도 남방 370마일 동지나해(東支那海)에서 선원 21명을 구하고 하나호와 같이 운명한 유정충(劉禎忠) 선장의 동상으로 1991년 1월 9일 제막되었다. ‘하나號(호) 船長 劉禎忠 像(선장 유정충 상)’이라고 새겨진 사각형 좌대(座臺) 위에 유선장이 반쯤 침몰된 하나호에 혼자 남아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구리로 조각되어 있다. 뒷면과 오른쪽 옆면에는 각각 <동상 건립문>과 <추진위원회명단>이 새겨져 있다.

### (8) 제1군단 전적비(第一軍團 戰跡碑)

속초시 조양동 속초 해수욕장 입구, 당시 사령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1군단은 6·25동란 때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香爐峰)등지에서 적과 싸워 이 지역을 사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의 무훈을 기리고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제8675부대에서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전적비를 건립하여 현충일에 맞추어 그 하루 전날인 1991년 6월 5일 제막식을 가졌다. 전적비의 높이는 7m이고 그 위에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북쪽을 향해 돌진하는 2.5m 높이의 청동제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용사상이 세워져 있다. 비의 양쪽 옆면에는 <비문> <6·25전쟁 당시 제1군단장> <건립 개요>가 새겨져 있다.

### <비 문>

6·25전쟁 중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던 제1군단은 1950년 6월 시흥에서 창설, 1951. 6. 6~1952. 12. 22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 884고지, 월비산 전투에서 양양, 속초, 간성 을 필승의 투혼으로 사수하였다. 육군 전 장병과 지역 주민들은 이 전투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값진 희생과 무용을 후세에 영원히 기리고자 이 전적비를 세운다.

1991. 5.30

육군참모총장 대장 이진삼

### <6·25전쟁 당시 제1군단장>

초대 소장 김홍일 '50.7. 5 ~ '50. 9. 1

2대 소장 김백일 '50. 9. 1 ~ '51. 3. 29

3대 소장 백선엽 '51. 4. 7 ~ '12. 2

4대 중장 이형근 '52. 2. 2 ~ '54. 2. 2

### <건립개요>

건립 : 육군 제8675부대 부대장 중장 김태섭

후원 : 속초시, 시장 홍순호

조각 : 관동대교수 오세원

글씨 : 양양군수 정명시

## 4) 관방 유적

### 가) 권금성



신흥사 입구에서 남으로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해발 860m의 하늘높이 우뚝 솟은 웅장한 봉이 있다. 그리고 봉 정상 가까운 곳에 주위 337m의 성이 있었던 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성을 권금성이라고 한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으나 옛 서적에는 높이가 4척이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신라때 권씨와 김씨의 두 장군이 난을 피하고자 쌓은 성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설에는 권금성이 지어진 것은 고려 고종 40년(1253)으로,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로 올라간다.

처음에는 설악산성이라 불렸으나 고려말 전주, 충주, 춘천 등이 공략당하자 나라에서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 산성으로 백성을 피난케 하라 하여 급히 쌓은 것으로 권씨, 김씨 두 장수가 하룻밤에 쌓았다 하여 권금성이라 전해진다.<sup>15)</sup>

이 권금성을 둘러싼 기이한 봉으로 실요극, 방령대 등이 있는데 이 산자락에 오르면 시원히 트인 동해안과 신흥사, 울산암, 금강굴 일대를 일목요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로 5분 정도면 해발 670m의 권금산성에 도착한다.

권금성은 외설악에 들어서서 권금성에 오르지 않고서는 설악을 제대로 구경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전망이 좋아 연중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이곳을 설악의 선경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 나) 토왕성

설악산(雪嶽山) 토왕성(土旺城) 폭포 부근에 있었던 성.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 『관동읍지』, 『대동지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설악산 동쪽에 있고,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해지길 옛날에 토성(土姓)을 가진 어느 임금님이 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석벽 사이로 폭포가 까마득하게 날 듯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전해진다.<sup>16)</sup>

그 후 조선(朝鮮) 후기에 편찬한 거의 모든 『읍지(邑誌)』에도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성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성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 다) 덕산봉수(德山烽燧)

속초시(束草市) 대포동(大浦洞) 외옹치리(外甕峙里) 봉끝에 위치했던 봉수대(烽燧臺).

15) 在雪岳頂石築周衛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頽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闖入我疆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即此

설악산 정상의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았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낙산사 기록에 몽고 침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고적조

16)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 石築遺跡尙存俗傳 古有土姓王築此云 有瀑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니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관동읍지』 양양 고적조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현지 사람들은 봉수터보다는 보통 봉화터라고 부른다. 설악산(雪嶽山)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達魔峰), 주봉산(朱鳳山), 청대산(靑岱山)을 거쳐 이곳에서 끝나는데 이 산 이름이 덕산(德山)이므로 덕산봉수(德山烽燧)라 했다.

현재 봉수대(烽燧臺) 자리에는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으나 곧 군부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그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지금은 봉수대(烽燧臺)의 흔적이 거의 없어졌으나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발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를 보게되면 당시엔 봉수대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봉수제도는 고려 중엽부터 국가의 중요한 통신기관으로서 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또는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동시에 해당지방의 주민에게 알려서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봉수대는 신호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사태를 조정에 알렸는데 밤에는 횃불로 알렸고, 낮에는 연기로 알렸다.

평시에는 1거, 적의 모습을 나타내면 2거, 적이 접근해 오면 3거, 적이 경계를 넘어오면 4거, 적과 싸움이 시작되면 5거로 반복하여 알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만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봉화의 거(舉)가 불가능할 때는 봉수군의 도보나 기마에 의해 연락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수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봉수로가 있어서 변경 어디에서나 중앙(서울의 목멱산<현재의南山>)으로 시급히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봉수대(烽燧臺)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 『양양읍지』 등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덕산봉수는 남쪽으로 양양의 수산봉수(水山烽燧), 북쪽으로는 고성군의 죽도봉수(竹島烽燧)로 연결되었다.

### 바. 천연기념물과 사적지

#### 1) 천연기념물

##### 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1호

국립공원 설악산은 지리적으로 북위  $38^{\circ} 5' 25''$  ~  $38^{\circ} 12' 36''$ , 동경  $128^{\circ} 18' 16''$  ~  $128^{\circ} 30' 43''$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한반도 중추인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의 중부에 위치하여 북으로 금강산을 거쳐 북한의 고원지대로 통하고 남으로는 오대산, 태백산을 거쳐 차령, 소백산맥으로 통한다.

설악산은 남한에 있어서 한라산 및 자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으로, 그 웅장한 절경은 남한 제 1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163.4\text{km}^2$ )로 지정됨으로써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1969년 1월 21일 관광지( $16.2\text{km}^2$ )로 추가지정 되었다.

그리고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을 확장하여  $174\text{km}^2$ 로 넓어졌다.

국립공원화된 이후 이곳 설악의 산악, 기암, 폭포, 식물의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고 전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울산 바위, 저항령, 마등령, 화채봉, 대승령, 대청봉, 한계령, 가리봉, 점봉산 등의 고산지대를 자연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일체의 인공미를 가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외의 산지는 자연환경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악동 입구, 도문동, 척산 온천 일대와 한계리 옥녀탕 하류, 용대리 백담사 계곡 일대는 국립공원의 관문으로 공원의 보호와 주위 환경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보호 구역으로 설정, 그 토지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1971년 9월 18일에는 설악산 국립 공원 관리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1972년 10월에  $344\text{km}^2$ 의 전지역을 국립공원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설악산이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설악산 이름의 유래는 주봉인 대청봉( $1,708\text{m}$ )에 연중 5~6개월간 눈에 덮여 있어서 설악(雪嶽)이라 하였던 것에서 기인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는 한가위(中秋)부터 쌓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夏至)에 이르러 비로소 녹기 때문에 설악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증보문현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이곳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지었다고 써어 있다.

설악산의 신비경으로 알려진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쪽은 마등령, 미시령을 이루고 서쪽은 한계령을 거쳐 남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이룬다. 이 능선을 중심으로 그 서부 일대를 내(内)설악이라 부르고 동부 일원을 외(外)설악이라 통칭한다.

내설악에는 88m의 대승폭포를 비롯하여 12선녀탕, 귀폐기청봉, 마등령, 한계령, 가리산, 주걱봉 등 대표적인 명승지가 있으며, 백담, 수렴동, 가야동, 백운동, 구곡담 계곡 등 크고 작은 계곡이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무수한 희귀종 동·식물이 서식하여 학술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외설악에도 신흥사를 비롯하여 금강굴, 내원암, 비선대, 오련폭포, 양폭, 울산바위, 토왕성 폭포, 천화대, 와선대 등의 명승지와 천불동계곡, 설악동 남쪽의 퀸금성 등 크고 작은 20여개의 계곡과 동해안의 수많은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다.

### 나) 설악동 소나무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51호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0의 1번지

설악동의 이 소나무는 속초 설악동 C단지에서 노루목고개 로타리 사이의 도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은 500년이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6m, 줄기 둘레 4m이며, 줄기 윗부분의 많은 가지와 잎이 달려 있는 부분(수관樹冠)은 동서가 21.4m, 남북이 19.4m에 달한다. 줄기는 지상 2.5m에서 세 개의 가지로 갈라져 있었으나 남쪽과 북쪽의 두 가지는 죽고 현재 중앙의 가지만 남아 있으며 그 밑둘레는 3.5m이다. 1987년 10월에 속초시에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썩은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였다. 이 소나무는 예전에는 서낭나무로 보호되어 왔고, 이곳을 지나면서 나무 밑에 돌을 쌓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지나는 사람들이 쌓은 돌이 무더기를 이루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 2) 사적

#### 가) 조양동 선사유적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76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 142-8번지

이곳에서는 기원전 9~8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시대 집자리 7기와 빗살무늬 토기편 등 160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언덕 위에서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2기가 발견되었다.

이것의 집자리 평면은 모두 직사각형이고 가장 큰 집자리는 동서 길이 12.8m, 남북 폭6m, 면적76.8m<sup>2</sup>(약23평)이다. 집자리들은 풍화된 암반을 파서 만든 움집형식으로 집자리 벽은 물론이고 바닥,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화덕자리들이 대부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잘 드러난 경우는 중부 동해안 지방에서는 이 유적이 처음이다.

이들 집자리에서는 빗살 무늬 토기편, 민무늬 토기편, 돌칼, 반달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돌가락바퀴, 돌 그물추 등 모두 169점이 출토되었는데 민무늬 토기에는 구연부에 구멍무늬를 장식하고 그 밑에 문살무늬를 새긴 토기, 아가리를 밖으로 겹싼 이중 구연토기, 이중구연의 접합부분에 단사선(短斜線)을 새긴 토기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토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토기는 한반도 동북 지방과 서북 지방 및 중부 동해안 지역의 문화 교류는 물론 신석기시대 말부터 청동기시대 초기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문화접촉 양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굽손잡이 그릇(3호 집자리에서 출토)의 경우, 동부지방의 신석기 말기 유적인 함북 무산 호곡동 1기충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출토된 토기와 유사한데 이는 남한지방에서는 처음 출토된 것이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말기와 청동기시대 초기에 동부지방과 강원영동지역간의 문화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며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의 민무늬 토기 문화가 신석기시대 말기 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확인 시켜주었다.

이 집자리들은 주변 지역 유적들의 탄소측정 연대와 출토유물의 형식 비교방식에 의하여 기원전 9~8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었던 제1호 고인돌은 길이194cm, 폭130cm, 두께 19cm의 덮개돌 밑에 남북 길이 172cm, 동서 폭60cm, 깊이 32cm의 활석으로 만든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 도끼 1점과 돌화살촉 9점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 도끼는 해방 후 만주 요령성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만주식 동검 문화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다. 한반도에서는 실물로서, 북한 지방의 의주 미송리 출토품과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거푸집으로는 함남 영흥 출토품이 알려져 있으며 남한에서는 부여 송국리에서 돌로 만든 거푸집이 출토되었으나 그 실물이 발견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전파와 확산 경로를 연구하는데 있어 획기적 자료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 조양동 집자리와 고인돌이 갖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사. 명승 및 속초팔경

### 1) 명승

#### 가) 비선대

와선대에서 계류를 따라 약 300m 정도 올라가면 비선대에 이른다. 이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리면 비선대 반석 위로 몇 번이나 꺾이는 폭포를 만드는데 그 광경이 흡사 천의 자락이 펼럭이는 것 같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마고선녀가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였다하여 이 설에 의해 비선대라 불린다. 봄이 오면 봄꽃의 냄새가 골짜기를 메우고, 여름이면 녹음의 신선미를 느낄 수 있으며,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에 물들고, 겨울이면 눈꽃이 골짜기를 장식하니 과히 절경이다. 이곳의 절경은 금강산의 만폭동을 무색하게 하는 설악산의 가장 대표적 명승지로서 설악의 8경 중 하나에 속한다.

#### 나) 울산바위

설악산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울산바위(780m)는 둘레가 4km에 이르는 화강암 봉우리로서 30여개의 봉우리가 만드는 울산바위의 그 거대한 웅장함과 기상은 찾아오는 관광객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정상의 전망대까지 관광객을 위해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기 쉽도록 하였는데, 울산바위 정상에 서면 대청, 중청봉과 천불동계곡, 화채능선, 북주릉을 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속초 시가지뿐만 아니라 동해바다와 달마봉, 학사평 저수지 일대, 청초호, 영랑호를 볼 수도 있다.



이 산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전해온다.

첫째, 우는 산, 울고 있는 산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이 산에 바위 구멍이 많아 산중에서 바람이 스스로 불어 나와 산이 울리는 것 같은데 때문에 천후산(天吼山)이라고 한다.

둘째,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울타리처럼 우뚝 솟아 있으므로 한자어로 ‘울타리리(籬)’ 자를 써서 이산(籬山)이라고 한다.

셋째, 조물주가 금강산(金剛山) 1만 2천봉을 빗으려고 온나라 잘 생긴 바위를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하였는데, 울산 땅에 있던 이 바위도 금강산을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위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서 겨우 설악산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금강산 1만 2천봉이 다 빚어지고만 후였다. 그래서 이 바위는 설악산 기슭에 놀러 앉고 말았는데 이 이후부터 울산에서 온 바위라 하여 전설적인 이름인 울산(蔚山)바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16세기 중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18세기 중반에 쓰여진 『여지도서』 양양편에는 이산(籬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 간성(杆城)편에는 천후산(天吼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속에서는 울암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에서 전승되어 온 전설과 함께 울산바위로 고정되었다.

### 다) 천불동 계곡

천불동 계곡은 외설악쪽의 비선대에서부터 대청봉에 이르는 8km의 중심 계곡으로 설악산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곳은 설악의 모든 절경이 이 천불동 안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가지고 있다. 천불동 계곡은 설악동에서 와선대, 비선대, 문주담,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 천당폭, 양폭산을 거쳐서 죽음의 계곡 직전에까지 이르는데, 계곡 주위로 하늘을 떠받드는 듯한 봉우리, 골짜기마다 걸린 수많은 폭포, 거울보다도 맑은 연못 등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절경을 이룬다. 또한 봄의 야생화, 여름의 푸른 숲과 구름바다, 가을 단풍, 겨울의 눈 속에 핀 꽃 등이 계곡과 함께 사철 관광객의 홍취를 돋운다.

### 라) 와선대

와선대는 천불동 계곡을 찾아드는 입구, 신흥사 서쪽 4km 지점에 있으며 소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천연의 암반대석으로 옛날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한다. 와선대의 반석은 높이가 약 3척, 폭이 약 10여 간이 되므로 여기서 70~80명의 사람들이 앉아 놀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 바위 위에 손톱이 긴 늙은 선녀인 마고선이 신선들과 함께 석대 위에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동천의 아름다움을 즐겼다고 하는데 신선들이 누워서 경치를 감상했다하여 와선대라 한다.

### 마) 금강굴

비선대 앞에 높이 우뚝 솟아 있는 3각 모양의 돌 봉우리를 미륵봉(장군봉)이라 한다. 그리고 미륵봉 중간 허리에 있는 길이 18m 정도의 작은 자연 석굴을 금강굴이라 한다.

굴 안의 넓이는 약 7평이나 되고 그 안에는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어 믿음이 돈독한 불자들에게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 도장이 된다.

석굴 입구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빛나는 광경이 전개되는데 멀리 동해의 창파가 보이고, 겹겹이 쌓인 석벽처럼 보이는 천불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그 옛날 신라 때부터 원효, 의상 등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바) 토왕성 폭포

토왕골에 있는 폭포로서 가장 아래에는 육담폭포, 중간에 비룡폭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토왕성 폭포는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土王城)이란 이름은 과거에 산성이 폭포 부근에 있었던 관계로 유래된 것 같다.

### 2) 속초팔경

속초 8경은 속초시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선정,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 따라서 속초시민은 물론 속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 속초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가)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히면서 신묘(神妙)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이 일대는 비선대(秘仙臺)라는 곳인데 일제시대 속초항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서 축항(築港)을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岩盤)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주변 영금정 해맞이 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금강산 자락을 조망 할 수 있어 자연의 조화로움을 더해 준다.

#### 나) 영랑호 범바위

영랑호는 둘레 7.7km 넓이 36만평의 거대한 자연호수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新羅)화랑인 영랑(永郎)이 동료 술랑(述浪), 안상(安祥), 남석행(南石行)등과 금강산(金剛山) 수련 후 귀향길에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블게 물든 저녁노을 그리고 호수에 웅장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범바위가 물속에 잠겨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 다) 청대리 청대산

청대산은 해발(海拔)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 병풍을 들려친 것과 같다하여 『청대화병』(靑岱畫屏)이라 하였다. 또한 청대산은 속초 시가지와 동해 일출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대청봉(大青峰), 달마

봉(達磨峰),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천연(天然) 전망대이다.

### 라) 청초호

과거에는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 하였던 청초호는 둘레가 5km 술단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 호수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갈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마경(靑湖磨鏡)이라 불렸다

99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를 상징하는 73.4m전망대에서 본 청초호변 야경(夜景)과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동해일출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 마) 속초해수욕장 조도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조도는 아름다운 백사장(白沙場)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야8경(所野八景)에 『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행사 뿐만 아니라 해돋이 전망, 바다 낚시, 백사장 산책로가 각광(脚光) 받고 있다.

### 바) 대포 외옹치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잡은 대포(大浦)는 6·25사변을 전후로 발행된 지도에 동해안(東海岸) 표기로는 부산, 포항, 목호, 대포, 장전, 원산항 순서로 표시될 정도로 큰 포구(浦口)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어, 넘치, 방어 등 고급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외옹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우며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등대 및 조도(鳥島)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景觀)이 아름답다.

### 사) 내물치 설악해맞이 공원

조선시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함경도(咸鏡道) 덕원에서 거제도로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때마침 폭우로 물이 불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 하여 물치(勿淄)라 불렸다고 한다 주변에 탁트인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조각공원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비취지는 일출의 조화로움은 이곳만이 연출 할수 있는 비경(秘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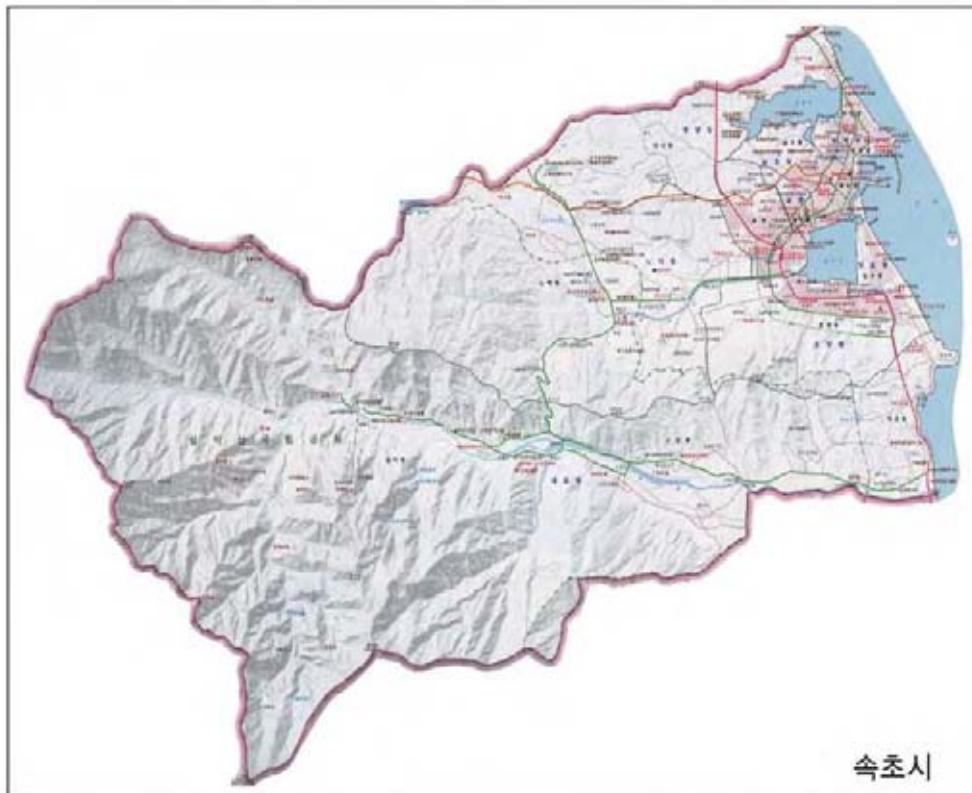
### 아) 상도문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發源)되어 흐르는 쌍천면(雙川邊)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 9년(1872)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성에만 전념한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意齋)라고 쓰여 있다. 울창한 송림 속의 고즈넉함과 주변 전통 한옥(韓屋)마을이 풍취(風趣)를 더해준다.

## 2. 지도로 찾아보는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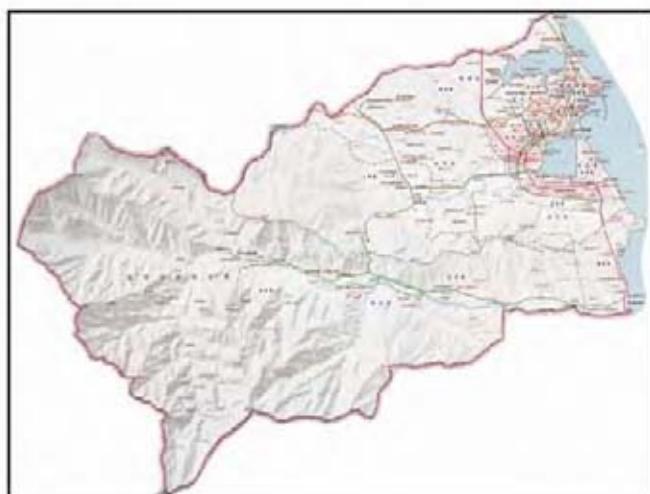
속초시

- 영랑동
- 장사동
- 동명동
- 노학동
- 조양동
- 대포동
- 도문동
- 설악동

속초시(東草市)  
영랑동(永郎洞)



1.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속초시 영랑동 영랑호 동남쪽 295-37
2. 영랑동시장  
속초시 영랑동 131-188
3. 김동석 가옥  
속초시 영랑동 131-96
4. 영랑상회  
속초시 영랑동 131-29 7/1
5. 강덕준 주택  
속초시 영랑동 131-31
6. 속초등대  
속초시 영랑동 1-1



속초시(東草市)

## 영랑동(장사동<章沙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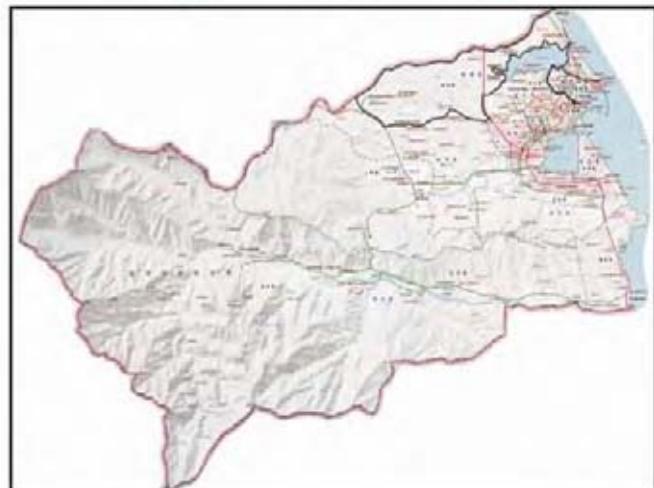
7. 해경충혼탑  
속초시 장사동 사진리 482-3
8. 김식주 가옥  
속초시 장사동 장천리 238 5/2
9. 장사동 청동기시대 유적  
속초시 장사동 산268-2



## 동명동(東明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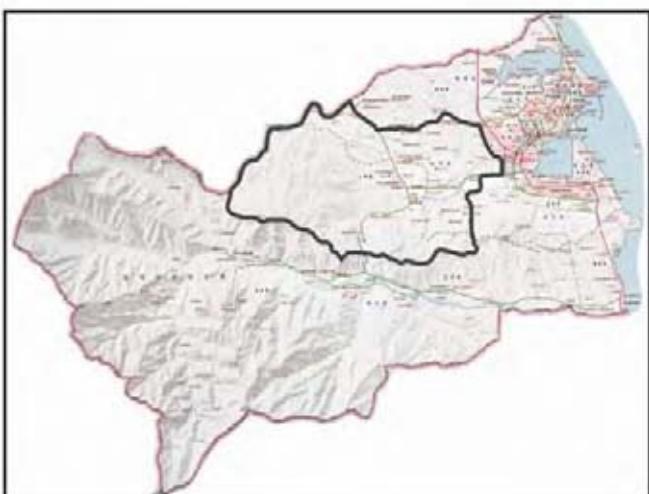
10. 동명동성당  
속초시 동명동 333-3
11. 수복기념탑  
속초시 동명동 374
12. 영금정(靈琴亭)  
속초시 동명동 속초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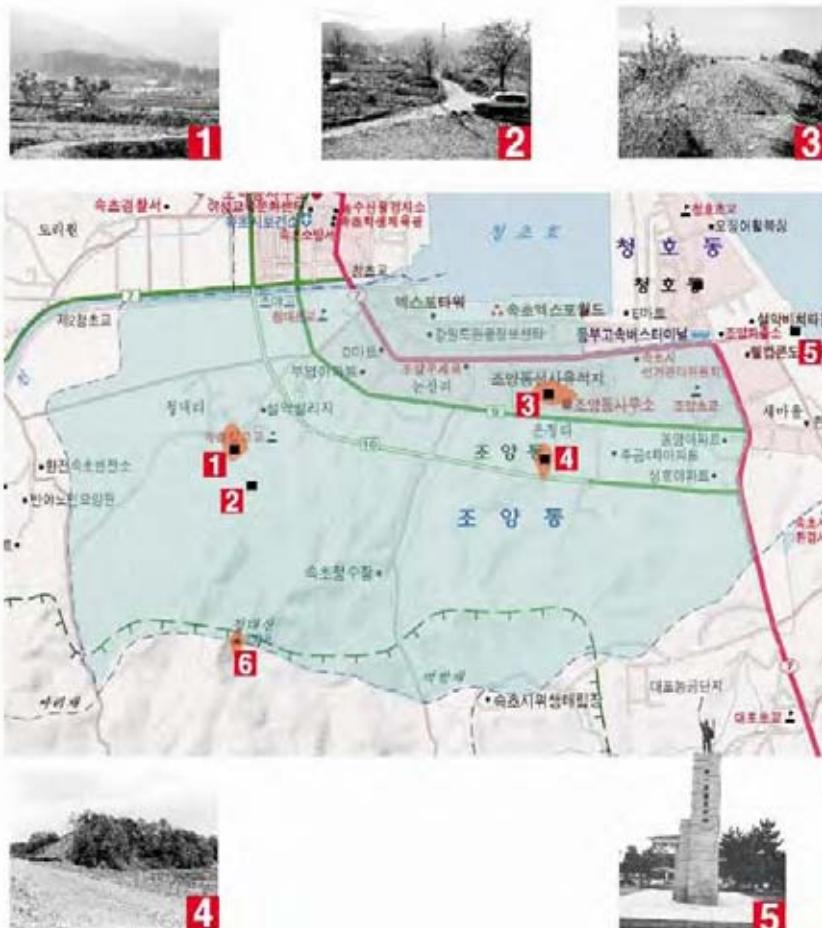


속초시(東草市)  
노학동(蘆鶴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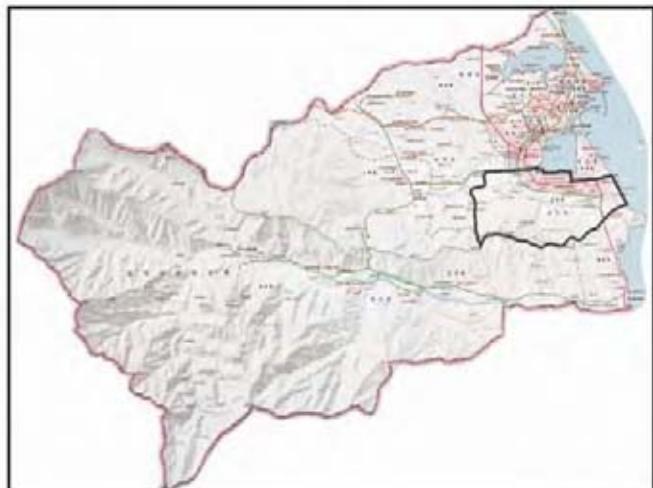


1. 노학동 3층석탑  
속초시 노학동 436
2. 삼연 김창호 선생 추념비  
속초시 노학동 348-3
3. 노학동 유물 분포지  
속초시 노학동 속초변전소 뒷구릉 455일대
4. 노학동 편질토기지표채집지역  
속초시 노학동 응골마을 산553





1. 청대리 유물 산포지  
속초시 조양동 청대리 359전 일대
2. 청대리 편질토기지표채집지역  
속초시 조양동 청대리 청대산 북쪽능선  
중간지점 산 356
3. 조양동 선사유적  
속초시 조양동 산 142-8
4. 조양동 무문토기 산포지  
속초시 조양동 산 1196-1
5. 제1군단 전적비  
속초시 조양동 1456답(속초해수욕장 입구)
6. 청대산 유물 산포지  
속초시 조양동 청대리 청대산 정상 203



속초시(東草市)

## 대포동(大浦洞)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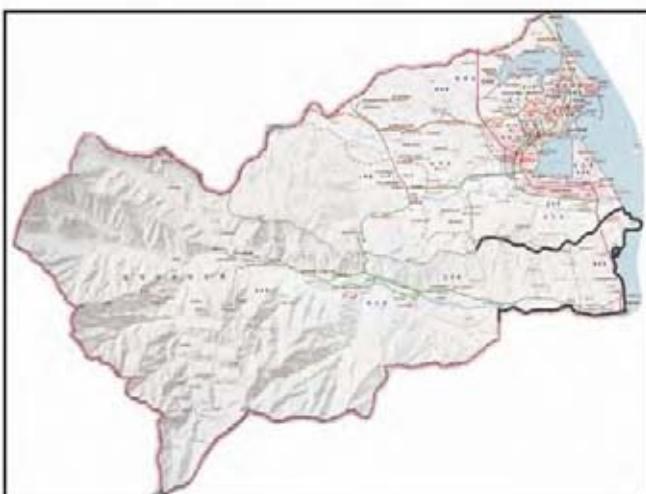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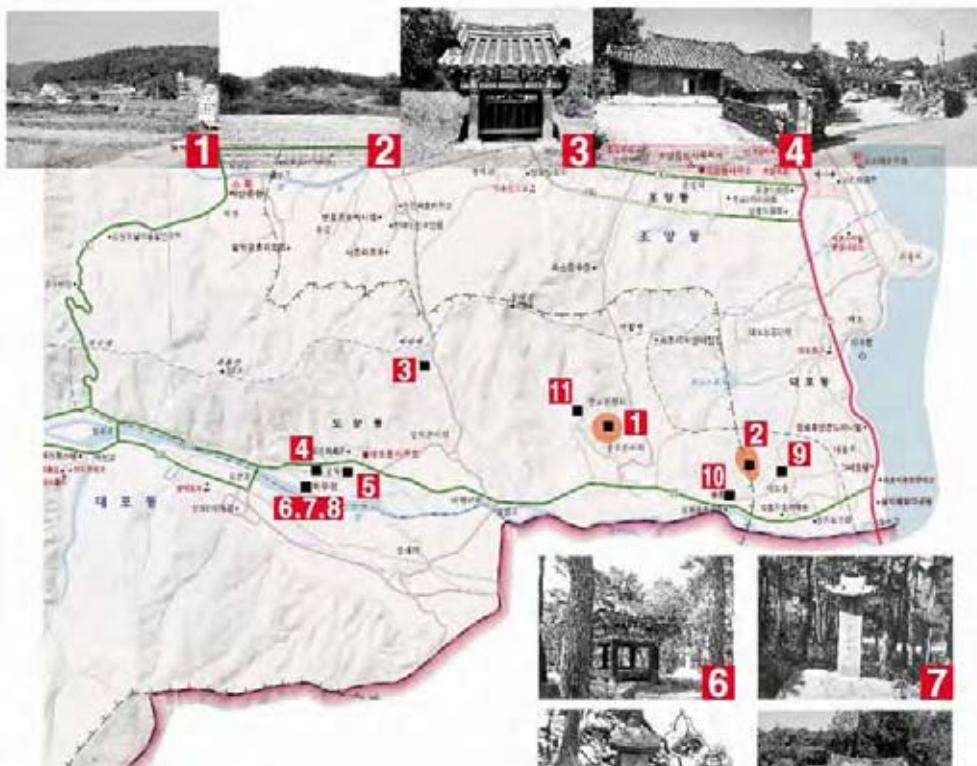
3

1. 물재 유선생 유허비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리 886-1답
2. 박상희 읍장 송덕비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리 886-1답  
(좌, 新碑 우, 舊碑)
3. 덕산봉수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리 641-4임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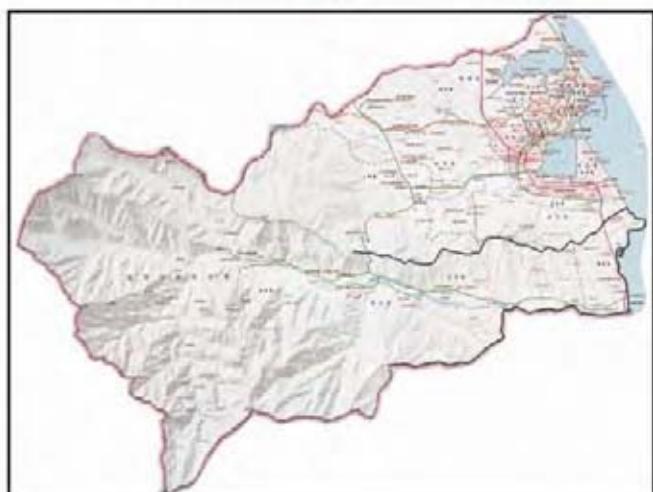


속초시(東草市)

## 대포동(大浦洞 <도문동(道門洞)>)



1. 도문동 청동기시대 유물 산포지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산124일대
2. 도문동 청동기시대 유적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2구 산48일대
3. 박지의 효자각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 속개골 산224
4. 매곡 오윤환 생가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 195 5/3
5. 박의균 가옥  
속초시 도문동 363 5/5
6. 학무정
-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246-3일
7. 학무정 기념비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246-306
8. 박지의 효자비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246-3일
9. 김근수 가옥  
속초시 도문동 1반 1504
10. 충혼탑  
속초시 도문동 신문덕 832
11. 김종우 가옥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1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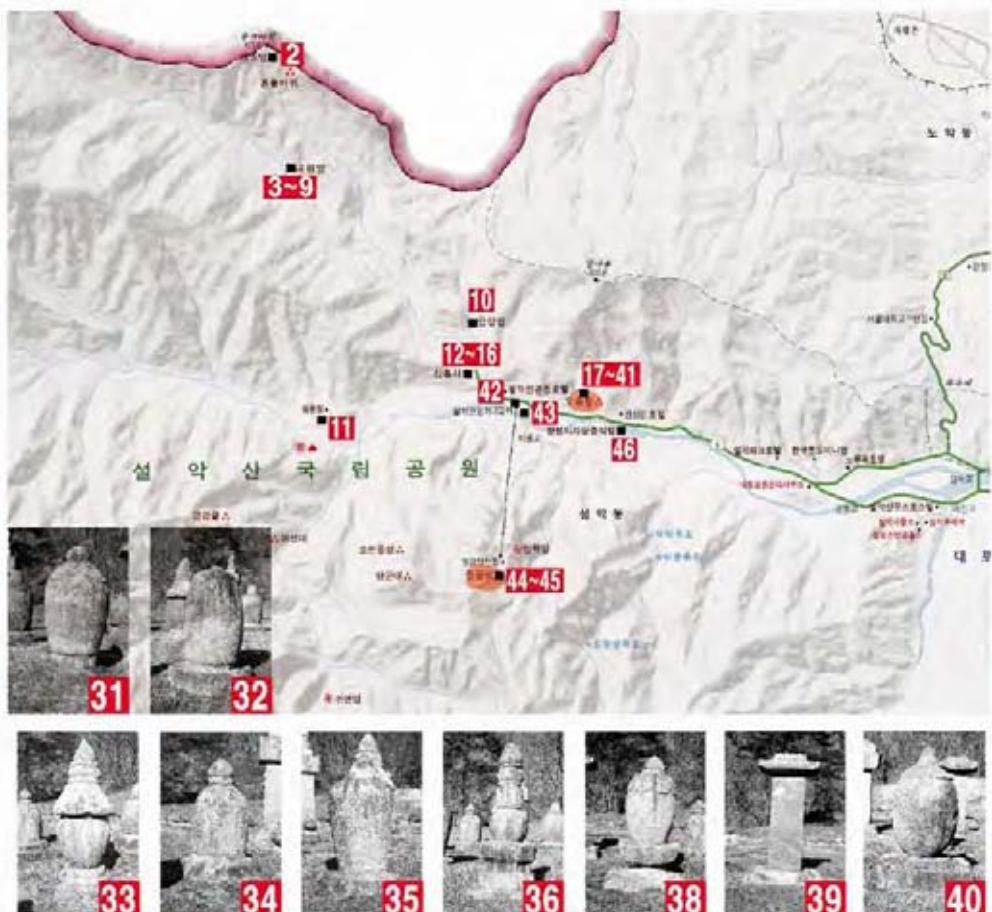
속초시(東草市)

## 대포동(大浦洞-설악동<雪嶽洞>)

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속초시 설악동 78-2번 외 236필지
2. 신흥사 계조암  
속초시 설악동 산40
3. 신흥사 내원암  
속초시 설악동 산40
4. 내원암부도 중 ○奉堂塔  
속초시 설악동 산40
5. 내원암부도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산40
6. 내원암부도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산40
7. 내원암부도 중 不空塔  
속초시 설악동 산40
8. 내원암부도 중 龜趺  
속초시 설악동 산40
9. 내원암부도 중 勤奉堂塔  
속초시 설악동 산40
10. 신흥사 안양암  
속초시 설악동 산40
11.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속초시 설악동 정고평
12. 신흥사  
속초시 설악동 170
13.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  
속초시 설악동 170
14. 신흥사 극락보전(極樂寶殿)  
속초시 설악동 170
15. 신흥사 보제루(普濟樓)  
속초시 설악동 170
16. 신흥사 경판(經版)  
속초시 설악동 170
17. 신흥사 부도군(浮屠群)  
속초시 설악동 170
18. 신흥사 부도군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26-11
19. 신흥사 부도군 중 龍○堂大禪師碑  
속초시 설악동 26-11
20. 신흥사 부도군 중 金壽永功績紀念碑  
속초시 설악동 26-11
21. 신흥사 부도군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26-11
22. 신흥사 부도군 중 笑蓮堂浮屠  
속초시 설악동 26-11



속초시(東草市)  
설악동(雪嶽洞)



31. 신홍사 부도군 중 向西堂塔  
속초시 설악동 26-11
32. 신홍사 부도군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26-11
33. 신홍사 부도군 중 龍岩塔  
속초시 설악동 26-11
34. 신홍사 부도군 중 東坡塔  
속초시 설악동 26-11
35. 신홍사 부도군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26-11
36. 신홍사 부도군 중 碧潭塔  
속초시 설악동 26-11
37. 신홍사 부도군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26-11
38. 신홍사 부도군 중 聖谷堂塔  
속초시 설악동 26-11
39. 신홍사 부도군 중 新興寺事蹟碑  
속초시 설악동 26-11
40. 신홍사 부도군 중 海岩居士塔  
속초시 설악동 26-11
41. 신홍사 부도군 중 無名浮屠  
속초시 설악동 26-11
42. 자연보호현장비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
43. 설악산지구전적비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
44. 권금성(權金城)  
속초시 설악동 산41
45. 權金城寺址  
속초시 설악동 산41
46. 향성사지3층석탑(香城寺址三層石塔)  
속초시 설악동 산11-2



### 3. 속초의 민속(民俗)

#### 가. 속초의 구전민요

‘앞뜰에는 동해안, 뒤페이지는 설악산’이라고 부르는 속초환경과 같이 속초지역은 바다와 산악을 끼고 있다. 홍길동전의 저자 교산 허균 선생은 「교산여기시」에서 “천후산 앞에는 풀이 정히 꽂다운데, 영랑호 호숫가에 지는 꽃이 향기롭네”(天吼山前草正芳 永朗湖畔落花香)라고 읊었다. 이렇듯이 속초의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순후한 인심과 어울려 많은 구전설화를 잉태하였고,<sup>1)</sup>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전래소리도 줄곧 불려졌다. 청정한 동해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어부들의 벳소리가 불려졌으며, 도문뜰, 조양뜰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에서도 사철농사와 관련된 농업노동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도문동에서 전승된 메나리농요는 삼척이나 춘천권의 메나리와 달리 신흥사의 불교문화권 영향을 입어 염불이나 범파소리를 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의 닮은 형태가 양양메나리와 흡사한 것은 도문동과 양양군 강현면이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초지역이 속했던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속초는 또한 남북분단의 1번지로서 함경도 이주실향민의 고장이다. 이들 이주민의 생업이 어업이었던 관계로 기존의 속초수산업과 이주민 수산업이 합쳐진 수산도시로 수산노동요도 해안권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청호동 지역에 함경도 피난민의 벳소리가 남아 있는 것은 함경방언과 마찬가지로 소리권의 독자적인 섬으로 남아 있는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sup>2)</sup> 민속문화도 이주민 속과 토착민속의 습합현상을 보인다.<sup>3)</sup>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 10월 14일 동해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를 대표하여 참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속초지역에서 수집한 구전민요의 분류와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 1) 농업노동요

속초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어 벳소리가 발달하였지만 설악산 산자락을 중심으

1)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2) 장정룡, 「속초시민요의 분포와 양상」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2003, 42쪽

3) 장정룡·김무립,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9쪽

4) 장정룡, 「속초시 민요」 『강원의 민요II』 강원도, 2002, 467~578쪽

로 한 도문평야와 조양평야에는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다.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농기구를 손질하면서 농사일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며 질을 짜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못자리를 심고 논을 가는데, 흔히 소 두 마리로 가는 경우 ‘한스레’라 하여 큰 스레를 소에 걸어 사용하고, 소 한 마리로 갈 때는 ‘쪽스레’라 하여 작은 스레를 사용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논삶는소리다.

다음 예문 ①이 그 예이다. 논을 다 삽으면 본격적으로 모를 심는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한춤소리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나가 하니 나도 한다 한춤’하는 소리로, 노동의 속도를 배가하며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소리다. 예문 ②는 모심는소리다.

① 이러- 올라서라 바로 가란 얘기다 이소야  
 어디 둘고 쉬어 야 이러 우후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해는 멀지않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자  
 이러이러 빨리가자  
 날은 일모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허 어디여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② 얼른 하더라니 한 춤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꼽실꼽실 하더니야 또 한춤

모내기가 끝나면 김을 맨다. 아이김(초벌 김)을 맬 때는 모가 약해서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조심스레 김을 맨다. 그러나 두벌김부터는 소리를 하면서 흥겹게 김을 맨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메나리다. 도문동에는 메나리라 불리는 소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예문 ③이 그것이다.

③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나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나 높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나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나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도문메나리는 강원도 농산노동요로서 김매기 소리로 전승되는데 춘천, 삼척, 양양, 속초일대에 전승된다.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문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농민들이 3~4명 짹을 지어 ‘질’을 째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메나리 민요에 관한 관심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 민요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반적인 전승상황이나 구연방식, 음악적 특성 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몇몇 민요 연구자나 국악관련 연구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에 비하여 많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메나리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들이 일찍이 나왔는데 홍사용은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는 글을 『별건곤(別乾坤)』(1928.5)에 발표하였는데,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메나리는 글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또 시도 아니다. 이 백성이 생기고 이 나라가 이룩될 때에 메나리도 저절로 땔아 생긴 것이니 그저 백성이 저절로 그려저려 속 깊이 간직해 가진 거룩한 넋일 뿐”이라고 말하여 이를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재욱은 메나리에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을 『新興(신흥)』(1931.12)에 발표하였다. 그는 백제 말엽에 불렸던 ‘산유화’가 신라 군인들에 의해 영남지방에 전래했다고 추정하였고, 상주와 선산지방에서 불려지는 ‘미나리’와 ‘산유화’를 관련지어 ‘山有’는 ‘山遊’로 바뀌면서 이를 훈독하여 ‘꾀노리’, ‘꾀나리’로 통칭되었다고 보았다. 이재욱의 견해는 이후에도 메나리를 언급하는데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별다른 검토 없이 이후 연구자들이 인용(仍用)하였다.

한정동은 『朝光(조광)』(1939.10) 「내 故鄉의 民謡 情調, 平安道篇」에서 메나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三千里(삼천리)』(1936.8)라는 잡지에 「메나리야 메나리야」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앞의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민요가 지난 정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서 고정옥은 「조선민요의 분류」에서 ‘미나리’의 일종으로 부여지방에서 불린 산유화가가 메나리로 된 예를 인용하였다.<sup>1)</sup> 임동권 역시 같은 견해를 견지하여 부여지방에 전하는 산유화와 영남지방에서 불리는 ‘미나리꽃’과 유관한 것

1) 高晶玉, 『朝鮮民謡研究』 首善社, 1949, 183쪽.

으로 보았다.<sup>2)</sup>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김연갑은 메나리의 정착과정을 추적하여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다양한 전거를 동원하여 관심을 다시 일으켰다.<sup>3)</sup> 이후 강등학은 삼척 메나리의 가창방식·가창구조·기능양상·오독떼기의 비교 등을 논했고<sup>4)</sup> 김영운은 삼척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연구에 이어서 오독떼기와 메나리의 비교연구로도 성과를 거두었다.<sup>5)</sup>

이소라는 「민아리와 어산영(산유해), 이른바 산유화가의 비교」라는 글에서 민요권·용도·가창방법·이재욱의 가정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sup>6)</sup> 필자도 삼척지방의 민간신앙과 지명유래를 조사하면서 채록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척지역 마을신앙과 메나리」(『들소리』 제4호, 농민요보존회, 1993.2), 「삼척 메나리」(『강원일보 사라지는 강원풍물』, 1994.4)라는 단편적인 글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속초시 도문동 도천 메나리를 발굴하였고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였다.<sup>7)</sup>

‘메나리’라는 용어의 유사범주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나리’가 있으며 이밖에 여러 명칭으로 ‘뫼노리’ ‘메노리’ ‘민아리’ ‘미누리’ ‘먼아리’ ‘네나리’ ‘나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현재 ‘메나리조’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는 형편이다. 우선,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 <미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각쟁이들도 불렀으며 통소나 젓대 혹은 풀피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 <니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곡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山有花>를 풀어서 ‘뫼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 철이라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sup>8)</sup>

뫼놀이와 미나리꽃의 어원 설은 앞서 언급한 이재욱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재욱은 이능화의 견해를 인용하여 “慶尙道 善美那里歌 按美那里 疑是山遊歌之轉

2) 任東權, 『韓國民謡史』 집문당, 1964, 32쪽.

3) 김연갑, 「아리랑 先行 연구검토와 메아리 원형가능성 고찰」, 『民學會報』 15, 1987, 16~30쪽.

4) 姜騰鶴, 「삼척지역의 메나리에 관한 연구」, 『泮橋語文研究』 반교어문연구회, 1990.

5) 金英云, 「嶺東地方 메나리의 音樂的 研究」, 『국악원논문집』 제4집, 국립국악원, 1992, 「嶺東農謡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比較研究」, 『韓國音樂研究』 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6) 李素羅, 『韓國의 農謡』 제4집, 현암사, 1990

7) 장정룡, 『속초지방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89쪽.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권 메나리, 1991, 790쪽.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蓋我認山曰美 遊曰奴里故也”<sup>9)</sup>라고 한 것에서 유추하였는데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뵠노리로, 뵠노리에서 미나리로 詛傳하지는 아니하였슬가”라고 의심하였다.<sup>10)</sup> 이 견해를 수용한 고정옥은 산유화가와 메나리를 같은 노래로 보았다.

메나리꽃아/메나리꽃아/저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

저꽃이 저서/ 농사일 필역하세/얼렬렬상사뒤여/어뒤여상사뒤(중략)

이 노래는 扶餘古蹟保存會發行 <百濟事蹟> <夫餘名勝舊跡>에 실린 山有花曲과 같되, 初句가 <山有花兮 山有花兮> 代身 여기에는 <메나리꽃아 메나리꽃아>로 되어 있다. 이는 산유화가와 미나리의 교섭에 착목한 이재우씨의 탁견의 한 유력한 증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氏는 山有-山遊-뫼놀이-미나리로 推斷하였는데 이 노래는 現行 山有花歌가 바로 메나리로 되어 있는例다.<sup>11)</sup>

이처럼 메나리에 관한 이론은 이재우 이후 산유화가에서 파생된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음악적인 측면에서 재론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메나리와 미나리, 산유화가(山有花歌)가 같은 민요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이소라는 산유화가를 백제가곡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산유해(어산영)과 산유화곡이 유관하리라는 가능성은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선산(善山)지방 부녀자들 간에 성창되는 미나리는 현재 나물을 심거나 벤 때 부르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가사 내용으로 담은 교창식 모노래가 아닐까 의심하였다.

미나리요는 조선시대 구전민요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 민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 장희빈이 원자를 낳아서 왕비가 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장희빈은 장다리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는 미나리가 사철 푸르듯이 민비에 있다는 것을 예언한 참요(讖謠)라고 한다. 가사는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 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sup>12)</sup> 보아도 민요 메나리와는 무관하다. 실제로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는 미나리 노래는 가사에서 “미나리야하 미나리야하 너흘로 피라”라는 것을 보아도 실증된다.<sup>13)</sup> 아울러 미나리는 메나리라고도 불렸는데 참메나리요를 보면 “이아이들아 저아이들아 참메나리 캐리가자”<sup>14)</sup>라는 가사에서 메나리는 미나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리와 메나리는 같은 나

9) 李能和, 『朝鮮女俗考』 참조.

10) 李在郁,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 1931.12  
최철 설성경 엮음,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126~132쪽 재수록.

11) 高晶玉, 前揭書, 183쪽.

12) 『민속예술 사전』 한국문예진흥원, 1979, 123쪽 참조.

13) 李素羅, 『韓國의 農謠』 4집, 현암사, 1990, 742쪽.

14) 林和 編, 李在郁 解題, 『朝鮮民謡選』 學藝社, 1929, 175쪽.

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민요를 구분하는 명칭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민요집성』에도 메나리와 미나리를 구분하여 싣고 있음에서도 손쉽게 알 수 있다.<sup>15)</sup>

메나리는 뵈노리(산놀이)나 미나리 나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힐 수 있는 것은 밭이나 논김매는 소리인 ‘메나리’가 산을 뜻하는 ‘뵈’와 ‘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원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메나리가 산간지방의 소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설로 메나리는 뵈노리 즉 산놀이로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이라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메’는 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법’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밥을 만드는 일 즉 농사일과 관련된 노래라는 생각도 일면 가질 수도 있다. 밭이나 논은 산에도 있지만 오히려 평지가 많고 ‘나리’가 ‘놀이’를 뜻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평안도의 ‘기나리’라는 민요 역시 나리가 놀이나 나리꽃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에서 비견된다. 이 노래는 ‘긴아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平安南道 龍岡 江西지방의 남녀가 西海바다 갯가에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얻은 그런 노래라고 일러 온다”는 해설에서도<sup>16)</sup> 간취 된다. 한정동은 평안도 민요를 소개한 「내 故鄉의 民謡 情調」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 지방의 민요는 打鈴, 기나리, 메나리(外 略함) 三種이 일반 農謡인 同時에 그 主가 되어 있다. 타령과 기나리는 대략 歌詞도 같고 曲調는 퍽 다르나 다같이 盛行하는 것으로 어린 牧童들까지라도 잘 노래하고 있으며 메나리는 農謡이면서도 歌詞가 길고 曲調가 힘든 까닭인지 모르거나 지금에 와서는 間或 불리어지나 衰退하는 감이 없지 않다.<sup>17)</sup>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 ‘메나리’는 ‘민아리’ 또는 ‘미나리’의 연계된 용어로 의심케 된다. 즉 ‘민’과 ‘아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아리’의 ‘민’은 봉산탈춤 춤사위에서 ‘민사위’라는 춤사위가 소무나 노장이 뛰지 않고 채지 않으면 곱게 넘어가는 사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접두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찰은 어원적, 음악적으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김연갑이 “메나리조 노래 중 메나리, 山有花, 山遊花는 사실상 같은 음의 전사, 훈독에 불과하다는 것, 한자적 영향으로 또 다른 문자형태로 파생,

15) 김태갑 · 조성일 편저,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22~25쪽.

16) 成慶麟 · 張師勛 共編, 『朝鮮의 民謡』 國際音樂文化社, 1949, 151쪽 참조.

17) 韓晶東, 「내 故鄉의 民謡 情調」, 『朝光』, 1939.10.

최철 · 설성경, 『민요연구』 정음사, 1984, 213~214쪽 재수록.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정착된 것일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아리랑의 아리를 메아리 원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이와 연관된 메나리는 그 의미가 노래, 산노래, 산악인의 노래이며 독특한 가락의 특징과 ‘아리’ 인자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sup>18)</sup> 이소라 역시 ‘민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 ‘민아리’의 ‘아리’는 ‘아리랑’의 ‘아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단은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 명칭이 음악적 용어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에 힘입어 ‘메나리’는 ‘민아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되고, 민아리는 곧 메나리로서 산유가가 아니라 아라리, 아리랑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민아리는 ‘민아라리’의 축약형으로 고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강릉 오독떼기도 메나리조라고 하지만 오독떼기와 메나리, 아라리가 같은 소리면서도 다르다는 변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곡조에 의해 창자나 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메나리는 ‘맨아리’ 또는 ‘민아리’, ‘민아라리’라는 음악적 용어로서 아라리의 한 분파가 아닐까 하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속초 메나리는 삼척이나 양양 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면서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간 불교문화적 영향 하에서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염불이나 범파소리를 닮고 있음도 흥미로운 일이다.

농사의 진행상 가을 추수를 할 때에도 다른 농촌처럼 소리가 있다. 벼베는소리다. 벼를 베어 놓은 후 벗단을 가지런히 세운다. 이때도 역시 소리를 하는데 아래 예문 ④, ⑤가 그 예이다.

### ④ 흄청흡청 하더니 하-안 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흄처흡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 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18) 김연갑, *상계논문* 30쪽.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넉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타래 세웠습니다.

농촌의 즐거움은 타작을 하여 낱알을 곳간에 저장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아래 ⑥은 도리깨를 갖고 타작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다. 타작을 하면 벼 검불로 몸이 따끔거리는데 이를 털기 위해서 벼 검불을 터는 소리를 한다. 황덕불을 피워놓고 옷자락을 흔들며 옷에 걸린 벼 검불을 태워버린다.

⑥ 자 때려라/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아흐-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벼 나깁니다 벼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⑦ 넘어간다 넘어간다 뱃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뱃가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위의 예문 ①~⑦은 도문동의 김남형 씨가 부른 소리다.

## 2) 수산노동요

속초지역은 일찍이 어로문화가 전승된 곳이다.<sup>19)</sup> 신석기 시대유적인 혈암제 결합 낚시가 동해안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고, 속초시 조양동 2호 집 자리에서 나온 어망추나 동해안에서 출토되는 뼈낚시, 뮤음식낚시, 창끝 등으로 미루어보면 이 일대의 어로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sup>20)</sup> 이처럼 고고학적 자료에서 입증되듯이 생계경제와 노동형태, 의례와 식생활, 놀이문화, 주거양식 등 속초지

19) 장정룡, 『속초시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20) 장정룡, 「동해해역의 생활사 문화자원배경」 『한국의 해양문화』 4, 동해해역, 해양수산부, 2002, 29쪽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역민의 독특한 어촌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어업요도 다양하게 전승되는 편이다.<sup>21)</sup>

어업과 어로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어로민속은 생업민속이며, 어로는 물속에 사는 생물 즉 어류, 패류 및 조류(藻類) 등을 채포하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어업이라 한다.<sup>22)</sup>

민요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수산노동요인 뱃소리다. 속초의 어로민요는 노젓는 소리인 ‘지어소리’, 그물을 당기는 소리인 ‘다리어소리’, 고기를 펴울리는 소리인 ‘가래소리’와 ‘산대소리’, 고기를 그물에서 벗기는 소리인 ‘베끼소리’, 배를 바다에 내리는 ‘든대소리’, 해녀의 ‘물질소리’ 등이 있다.

대부분 어업요는 둛배(풍선배)라는 무동력선으로 조업을 할 때까지 소리의 전승이 가능했는데 작업과정에 힘든 노동이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뱃소리가 불려졌다. 속초에서 채록된 뱃소리는 놀배기소리 (노젓는소리)로는 ‘으샤으샤’ (대포동 김병국), ‘어야디여’ (동명동 최재윤, 영랑동 김갑용), ‘에라소 가래라소’ (장사동 김현배) 등이 있다. 1945년 이전에 일본 배들은 ‘어여차 디야’ (김갑용 증언)라 하였다. 산대소리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었으니 산대로 고기를 푸라는 소리다. ‘가래라소’ 혹은 ‘에라소 가래로다’ 등으로 부른다.

길게 할 적에는 사설을 집어넣어 가사를 만든다. ‘그물당기는소리’는 요즘은 ‘어샤어샤’를 많이 쓰나 과거엔 ‘당겨보자 에야디여’를 즐겨 썼다고 한다. 또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리면 ‘푸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많다’라는 말이나 ‘또’ 등의 말들은 쓰지 않는다. ‘다리어내자’는 함경도에서 그물을 당기는 소리라고도 하나 속초지방에서도 많이 쓰였다고 한다.

장사동에서는 고기그물 당길 때 ‘에이산자’라는 후렴도 사용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자- 자-’하고 소리한다. 단순한 가사이지만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알려준다. ‘자-’라고 소리할 때마다 힘을 불끈불끈 주어 배를 나아가게 한다.<sup>23)</sup> 든대질은 ‘설망’ 즉 진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를 옮기는 과정에 부르는 소리다. 이 과정에 아래 예문 ⑥처럼 다양한 사설이 들어간다.

속초 지방의 뱃소리를 보면, 다양한 사설을 가진 여러 소리가 있는데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그물당기는소리, 산대소리, 베끼소리 등이 채록되었다.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띠는데 허리도리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다리어소리는 그물을 당기는 소리로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고 역시 선후창으로 부른다.

대포동 그물당기는 소리는 정치망 그물을 당길 때 멀리서부터 차츰 그물을 돌우고 죄여 가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는데 이를 배에 펴 담아

21) 장정룡, 『속초지역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26쪽

22) 박구병외, 『수산사전』 협설출판사, 1994, 151쪽

23) 장정룡, 「강원의 소리, 소리꾼」 강원일보사, 제3회 속초뱃소리 김봉준, 1997. 3. 31

울 때 부르는 소리다. 대포동 산대소리는 고기를 펴 올리면서 처음에는 ‘이이이이’하면서 서로 숨을 맞춰 가지고 ‘야이야이’로 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요 구성음 라/솔/미/도이고 래는 미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자라고 한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는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이 나는 소리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은 없고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하는데 이는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가사는 뱃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문도 있고, 또 뱃사람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지문도 있는데 예문 ①~⑦은 뱃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문들이다. ‘다리어’, ‘에라솔 가래라솔’, ‘베끼어라 보자’ 등의 후렴도 농촌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특히 ⑥의 예문은 이 지역 뱃사람들의 행동환경을 알 수 있는데, 남쪽 삼척 앞 바다에서부터 강릉, 양양, 간성, 장전 앞 바다를 거쳐 위로는 함경도 원산 앞 바다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 바다 일과 관련된 정보와 소리들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리는 든대소리 뿐만 아니라 산대소리에도 응용되고 있음을 봐서는 가창자 능력에 따라 응용되었을 것이다.

예문 ⑦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원산내기 바람이 뱃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람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동명동 최재윤 씨도 샛바람이라고 부르는 원산내기 바람이 가장 무섭고, 다음이 ‘내바람’ 즉 ‘하늬바람’이라도 하면서 맞바람 즉 마파람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한 바람이라고 한다.

예문 ⑤에서는 뱃사람이 고기를 잡은 후 어떤 순서로 고기를 나눠 갖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대포동(외옹치) 김병국 씨에 의하면 명태바리는 선장, 기관장, 낚시사공, 선원이 있어서 잡은 고기를 선장 집반, 기관장 집반, 낚수사공이 삼부, 선원들은 일부를 나눈다고 한다.

- ①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 < 다리어소리 >

- ②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눕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어야어야 어야어야 < 다리이소리>

- ③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라솔 < 가래소리 >

- ④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 베끼소리 >

- ⑤ 이번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 산대소리 >

- ⑥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구나 < 들판소리 >

- ⑦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취한 술이 절로 깐다      베끼어라 보자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이처럼 뱃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촌, 산촌 등 일반적으로 널리 불려졌던 가사도 뱃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래의 예문 ⑧~⑫는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로 이런 보편적인 가사에 뱃소리 특유의 후렴을 붙여 뱃소리로 부른다.

- ⑧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⑨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우리 저 명텅구리는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에라소 가래로다 에라소 가래로다 에라소 가래로다 에라소 가래로다 < 산대소리 >
⑩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위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잎이 피고 꽃이 편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⑪ 간다간다 나는간다 임을두고 나는가네 내가가면 아주가나 아주간다고 잊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자 < 다리어소리 >
⑫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딸이나면 열녀나고 소가나면 특소나고 닭이나면 봉황나고 개가나면 삽살개고 말이나면 용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이외에도 고기숫자를 세는 소리도 있다. 속초에서는 주로 명태를 잡는데, 명태를 잡아 풀어놓고 고기 숫자를 셋 때 ‘하나이요 둘이요 서이요’ 하면서 흥겨운 리듬 속에 고기를 세어 끓어내어 놓는다. 이 소리는 노동의 힘듦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노래이다. 단순한 가사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되는 리듬은 노동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한다.

동해안 벗소리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된다. 강원도식 벗소리는 사설이 풍부하고 장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지역이면서도 함경도 풍속들이 교차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벗소리와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가 습합되어 어부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다.

### 3) 유희요

강원도에 널리 퍼진 아라리는 속초에서도 도처에서 불린다. 속초에서는 아라리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와 가사는 같아도 곡조는 어랑타령의 곡조로 불리고, 뱃노래, 청춘가의 곡조로도 불리는데 다음은 그 예이다.

- ① 산천초목이 불붙은건 소방서나 끄지요/요내가슴 불붙은건 어느 대장부가 끄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 최월선(영랑동)
- ②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조꼬만 여자 속이야 뛰그리 깊을소냐  
여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 ③ 울너며 담너며 꽂배는 총각아/눈치가 있거랑은 외 받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 ④ 산이 높아야 골골이 깊지요/죄꼬만(조그만) 여자속이 열매나 깊느냐  
- 차종용(노학동)

①은 어랑타령 ②, ③은 뱃노래 ④는 청춘가다. 그러나 그 가사는 아라리 곡조로 불려진다. 속초에서는 강원도 산골과는 달리 아라리의 절절함이 감소되어 있다. 그것은 그만큼 노래의 곡조가 어랑타령, 뱃노래처럼 흥겨운 곡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흥겨운 곡조는 필연적으로 놀이를 동반하고 또 유희적 상황에서 불려졌다. 가창자 대부분이 장구를 즐겨 치는 분들로 삼월 삼진날 화전놀이를 가거나, 농사일을 끝내고 호미씻이를 하거나 여러 행사 때 많이 불려져서 농촌에서 불려지는 아라리와 차이가 생겼으며. 가사는 슬픈데 종국은 흥겨움으로 끝난다. 다음은 그런 몇 가지 예이다.

- ⑤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정거정 대합실에 한강수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나 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영애(동명동)
- ⑥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요내몸은 엇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등등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 박계랑(도문동)

흥겨움은 아라리, 어랑타령, 뿐만 아니라 여러 동작유희요에서도 보인다. 대표적인 유희요로 가장 많이 채록된 것이 다리뽑기로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 ⑦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 천두 만두 두만두 / 짹 발레 회양주 - 전기준(도문동)
- ⑧ 한알개 두알개 / 삼사 너구리 / 똥개 망개 / 참낭그 지계통 / 고불통 내아들  
- 남복우(장사동)
- ⑨ 재짱 개짱 / 쇠스레 넉장 / 콩죽 팔죽 / 얼어 먹었니 / 못얼어 먹었니 / 사 마 / 지 꽁  
- 김정수(도문동)
- ⑩ 이뚱 저뚱 행기뚱 / 지 할미 꼽새 뚝 - 김옥진(영랑동) 김영애(동명동) 김윤문(영랑동)

- ⑪ 이원 지원 / 가매 꼬지 - 박계랑(도문동)
- ⑫ 이거리 저거리 갓고리 / 심지 망근 도망근 / 짹 바리 호양장 / 도루메 장치 장두깨 / 모개 밭에 작서리 / 동 지 설 달 / 대서리 - 이옹숙(대포동)
- ⑬ 왕그리 땡그리 / 죄가 재축 / 오리 고이기 / 먹으나 못먹으나 / 죄가 때끔 - 차종용(노학동)
- ⑭ 왕그리 땡그리 / 삼사 뚱개 망개 / 참나물 등거리 / 고등어 찐지 / 죄가 때끔 - 차종용(노학동)

다리를 뻗어놓고 여럿이 다리를 서로 집어넣은 후 이 소리를 하면서 다리를 하나씩 친다. 한쪽 다리를 칠 때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치다보면 필경 마지막 소리에 걸리는 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리를 구부려놓고 다시 남은 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또 이 소리를 한다. 이 소리들은 여성 가창자에게 채록이 되었으나 ⑩의 예는 남성 가창자에게서도 채록이 되었다.

이 소리를 다리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을 경우 방귀 냄새가 나면 이 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방귀꾼놈이라 하며 웃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희요로서 춘향이 놀이를 또 들 수 있다. 여럿이 모여 한사람을 지목하여 손바닥을 마주치게 한 후 춘향이 소리를 하면 차츰 마주 대었던 손바닥이 차츰차츰 벌어지면, 그 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신들린 듯 춤을 추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도문동에서 채록한 춘향이 소리다.

#### ⑮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이도령님 만났을 때  
종글종글 내리시오/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 - 박선춘(도문동)

#### 4) 도문 메나리농요의 유래와 구성

도문메나리는 도천메나리라고도 한다. 이 메나리 농요는 속초의 전래 농업노동요로서 그 명칭은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진 명칭에서 나왔다. 조선 영조 36년 (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당시는 86호가 살았으며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었다. 조선시대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였고 1759년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지명이 유지되다가 일제 무렵 속초의 청초호가 개발됨에 따라 속초리가 커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 1937년 도천면사무소는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어, 속초는 작은 동리이름에서 면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모두 14개리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도천메나리’라는 명칭에 사용된 ‘도천’(道川)은 도천면에서 따온 것으로 도천면은 도문면과 所川面이 합쳐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도문메나리’의 주요 전승지인 상도문리는 조선조 말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이 지은 학무정이 있는 유서깊은 마을로서 일제 초기 도문면에 속했으며, 당시 20여 호가 살았으며 남녀 합하여 66명이 거주하였다.<sup>24)</sup>

강원도 민요 가운데 농업노동요로서 김매기소리인 메나리는 춘천·삼척·양양·속초일대에 전승되는데,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도문메나리는 농민들이 3~4명씩 짹은 지어 ‘질’을 짹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멎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sup>25)</sup>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파소리의 유형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문메나리 놀이마당은 다음과 같다.<sup>26)</sup>

### 첫째마당: 서낭굿

정초가 되면 한 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도문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풍물패가 성황당에 모여서 서낭굿을 친다. 신목과 서낭대를 놓아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상쇠가 쇠를 치면서 고사반을 한다.

모십시오 모십시오 서낭님을 모십시오  
서낭서낭 서낭님 강원도라 속초시에  
설악산의 정기 받은 도문동에 모십시오  
서낭님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라고 비옵니다  
물 없는 눈에 물을 주시고 오곡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낭님께 비옵니다

24) 장정룡, 『매곡 오윤환 선생 선양사업기본계획』 속초시, 2003.

25) 장정룡, 「강원의 소리, 소리꾼」 강원일보사, 제4회, 속초농요미나리 김남형, 1997. 4. 7

26)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 자료집,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동해시), 2003. 10. 15

### 둘째마당 : 논삶는 소리

논삶는소리는 ‘소모는소리’로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 즉 겨리소로 농사를 짓는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타로서 보통은 일 잘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가는데 소를 모는 성군은 소 한 마리 즉 호리소 안쪽 스타로 논을 갈기도 한다. 논을 갈 때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하는 이 소리는 소를 다 몰고 끌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끌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창자나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이러 어디야 이~ 이~  
 이 큰 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꼇으로만 찾어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둬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설악산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둬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둬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캡싸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둬  
 해는 일락서산에 지는데  
 언제갈고 집에 갈라느냐  
 이러이러 이~ 어둬 와와

### 셋째마당 : 모찌고 심는 소리

논을 갈고 한편에서는 모를 쪐다. 모를 췈 때도 또한 소리를 하는데 흔히 ‘한춤소리’라 부른다.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둑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하더니 한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 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춤 집어 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다.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례를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후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기도 한다. 농기를 듣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 다가 꽂아놓고 모를 찌며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온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다. 논을 다 삽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린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 양양, 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점심참이 늦기전에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초생달이 뜨기전에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동자같은 어린모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우리집 도련님 노빵나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얼씨구 부지런히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우리네 논꾼들 잘도심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 넷째마당 : 김매는소리

도문동 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메나리는 ‘김매기소리’이다. 보통 두 번 짐을 멜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 일이 힘에 부치게 되므로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 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부가 소리를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처럼 메나리소리는 참일꾼만이 부른다고 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는 세별 김을 매고 나면 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고 한다.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나주오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 적삼입고 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 하세

동해동창 솟은 해가 반공중에 높이 아어였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아가네  
 지여 간다 말만 말고 요 논배미 매어아아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아하네

심심하고 얌양한데 질꼬내기 불리보세  
 남쪽남산 봄이드니 불안잠떼 새솔잎나네

녹수청강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속에속잎 절혀두고 속에속잎 나를주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위마라  
 꽃이지면 아주나 지나 명년삼월 다시 피지

### 다섯째마당 : 벼베기와 한단소리

곡식이 익어 황금들녘을 이루면 참새들이 와서 볍씨 나락을 파먹는다. 이럴 때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동네 청년들은 파대를 만들어 치면서 소리로 새를 쫓는다. 또한 농민들은 참새들이 볍씨를 파먹으므로 ‘워이워이’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도문동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들녘으로 나가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새를 쫓는 풍속이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을철에 조류의 피해를 감할 수 있다고 한다. 파대는 새끼줄을 2m 정도로 꼬아서 만든 새쫓는 도구로서 이것을 휘감아서 논바닥을 때리면 ‘딱’하는 큰 소리를 내게 되므로 새들이 소리에 놀라 날아간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나서 ‘한단소리’를 부른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실제로 낫으로 벼를 벨 때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하지 않고 베 놓은 벚단을 묶을 때 한단소리를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한다.

얼른 하더니 한단 나간다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한단 나간다  
그 소리 끝나기전에 나도 또한단 나간다  
얼른 흄청흡청하더니 또한단 나간다  
초승달 뜨기전에 너도 한단이야 나도 또 한단 나간다  
한단 한단 하지말고 부지런히 하게나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단 나간다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나도 또 한단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단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단

### 여섯째마당 : 마뎅이와 벗가리지우는소리

벗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 마무리를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뎅이’라고 한다. 텃돌(태상)에 쳐서 떨어진 벼 날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하는데 텃돌이란 널찍한 돌멩이를 구해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상도리깨 소리는 다음과 같다.

에호 에호 타작 한번 해보소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여기쳐라 저기쳐라 상도리깨가 나간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사람들이 많다만은 도리깨소리는 적구나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넘어간다 넘어간다 벗가리가 넘어간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벗가리가 넘어가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짬나요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천석이오 만석이오 금년농사가 대풍이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그럭저럭 하다보니 금년타작이 다끌났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탈곡을 하여 벗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면서 벗가리를 지운다. 이때도 ‘벗가리지우는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벗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뜻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불면서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며 키를 가지고 털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날알을 삼태기로 퍼서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껴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훈든다.

도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마을의 역사를 살필 때 생성시기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고찰인 신흥사의 권역에 속한 이 마을주민들은 일찍이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사찰소유의 부지에 형성된 농촌마을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파소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466년 윤 3월 14일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오대산 상원사로 가는 도중 강릉 연곡리에 머물면서 농민으로서 농가를 잘 부르는 사람을 모아서 장막 안에서 노래하게 했는데 양양의 관노인 동구리가 최고상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과거 양양도호부에 속했던 도문동 지역의 소리가 그 전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두레농경을 하면서 불려졌는데, 속초 도문동에는 과거에 ‘질례’가 네 개나 있었다고 한다. 서로 ‘공론한다’며 모심기 차례를 정하면 15~20여명의 질례꾼들이 돌아가면서 모를 심고 김을 매준다. 이 마을에서 ‘질괄 아먹는다’고 하면 모심기에 못나가게 될 경우 품앗이를 대신 주는 것이고, “질걸 어 먹는다”는 말은 각자가 술이나 고기, 쌀, 돈 등을 낸 것으로 잔치를 벌리며 쓰레술도 먹는 것을 말한다.

메나리농요는 아이짐 즉 초벌 김매기에는 벼 포기가 약하므로 손상을 입힐까 두려워 소리를 하지 않고, 두벌 세벌 맬 때 주로 불린다.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유장하고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시조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셋째, 도문메나리 사설은 김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특징을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지닌다. 처음 소리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도 그 가사 속에 담는다. 김매기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과 가사는 메나리와 비슷하지만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려’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넷째, 도문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으며 후렴은 없으나 ‘아어’라는 여름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양양메나리는 ‘이-하-’라는 후렴이 있고, 삼척메나리는 ‘이후후’라는 후렴소리가 있는데, 속초 도문메나리는 삼척메나리와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다소 다르다. 삼척과 양양지방은 4음보를 고수하는 것이나 후렴구를 붙이는 것은 비슷하지만 소리의 톤을 보면 유장함에서는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김을 맬 때 강릉에서는 오독떼기를 부르고, 속초와 양양, 삼척에서는 메나리를 부르는데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관련 가사들이 많이 있다. 가창방법은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한 편이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다섯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농촌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겨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이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메나리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밥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강조되는바 도문메나리의 전통은 소중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다.

## 나. 속초의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한 해와 네 계절의 풍속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때에 철을 인식하는 철갈이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철이 오면 그 철에 맞도록 계절의 바뀜에 따라 주기적으로 때맞추어 살아가려는 삶의 다양한 적응이다. 때에 어둡지 않고 철에 맞추어 살아가려면 우주의 변화인 천상(天象)과 기후의 변화인 기상(氣象), 계절적 변화를 지시하는 물상(物象)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세시의 기본이며 철

을 아는 삶이다. 이에 반해 무시(無時)는 때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철없는 삶이고 철모르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전해오는 선인들의 지혜는 오늘의 천체력, 생업력, 의례력 역법은 단순히 때를 가르쳐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삶에서 천체와 계절 변화를 받아들이는 생활상의 주기적 대응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시풍속은 특정한 때에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풍속인데 여기에는 자연신앙이나 조상숭배, 종교 주술적인 행위, 놀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sup>27)</sup> 전통적인 세시풍속이 외래적인 세시풍속과 습합되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미풍양속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다. 1990년대에 조사한 자료와<sup>28)</sup> 2005년에 새롭게 조사한 세시풍속을 비교해보면 명절풍속을 지키는 가정이 현저하게 줄고 간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초지역의 세시풍속은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고,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있는데<sup>29)</sup> 어촌, 산촌,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나누어 청호동, 도문동, 대포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1) 정월달 새배와 뱃고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1월 1일을 설날이라 한다. 그냥 ‘설’이라고도 하는데 떡국차례를 올리고 나서 새배를 한다. ‘설빔’을 입고 정초 둘째 날부터 일가친척이나 동네어른들에게 새배를 다닌다.

정초에 어촌의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무엇보다 정성을 기울이는 뱃고사는 배안에 모신 성주신에게 한 해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다. 대체로 무당에게 부탁하여 날을 받거나 택일을 하는데, 정월보름 전에 고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고사를 지낼 때는 주과포는 물론이고, 그 해 들어 처음 잡은 생선을 말렸다가 쓰거나 가장 큰 생선만을 골라서 제물로 쓴다. 이것은 풍어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어부들은 “잘되면 북치고, 안되면 가슴친다”고 할 정도로 만선에 대한 기대감을 뱃고사 때 기원한다. 배에 성주를 모신 선주들은 마을 성황당에 가서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자신의 배에 가서 고사를 올린다. 선주들은 복조리를 설날이 지나고 첫 번째 개시되는 장터에 가서 사면 좋다고 하여 사다가 선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27)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19쪽

28)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1쪽

29) 장정룡,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609쪽

### 2) 정월 첫째 뱀날풍속

정월 들어 첫 번째 드는 뱀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하는데, 이 날에는 출어를 하지 않는다. 이 날을 특별히 거리는 이유는 배가 출어하면 뱀처럼 미끄러져 전복된다고 하는데 뱀의 표피가 미끄러운 것을 연상한 풍속이다. 요즘에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다. ‘유모일(有毛日)’이라 하여 12띠 중에서 텔이 있는 짐승의 날에 출어를 하면 풍어가 된다고도 한다.

### 3) 까치보름과 달점치기

속초에서는 정월 14일을 ‘까치보름날’이라 한다. 이날 아침에 오곡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보름날에 오곡밥으로 보름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다. 예전에는 수수깡으로 조나 보리, 콩, 벼 등을 만들어서 두엄 위에 꽂았다가 다음날 “우여 우여” 하며 새 쫓는 타작흉내를 내면 피해를 줄이고 풍년든다고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 날을 ‘여름날’이라하며 분주히 보내고, 13일은 봄날, 16일은 귀신날이라 하여 쉰다. 보름행사는 대체로 14일 저녁부터 이루어진다.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아침에 부럼을 깨물어 몸의 부스림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약밥을 한다. 약밥을 찔 때 해초를 넣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과 명태젓갈 등을 반찬으로 먹는다. 저녁이 되면 성황당이 있는 봉우리에 올라가 누구보다 먼저 달을 보면 좋다고 하는데, 달빛을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달이 뜨면 아이들은 바닷가로 나가 광솔불을 피워 쇠통에 넣고 빙빙 망우리를 돌린다. 이렇게 망우리로 달맞이를 하면 아이들은 한 해 동안 건강하다고 전한다.

### 4) 연날리기와 헛불싸움

정월 대보름날까지 연을 날리는데 바다 쪽을 향해서 띄운다. 참나무 껍질로 손바닥만하게 배를 만들어 띄우고 거기에 연줄을 묶는다. 이렇게 참연(방패연)이나 가오리연을 만들어 바다에 띄우다가 연 밑에 쑥을 묶어서 불을 붙이면 줄이 끊겨 연이 하늘로 난다. 이것은 자신의 액을 멀리 보내는 것이라 하고, 보름이 지나서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놀린다.

헛불싸움은 영랑동과 조양동의 청년들이 고함을 지르며 헛불을 빼앗으며 놀았고 내풀치와 하도문에서도 깡통으로 만든 망우리를 돌리면서 달보기를 하다가 헛불싸움을 하고 놀았는데 이십년 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행하지 않는다. 속초에서는 동해에 뜨는 달을 처음 보면 그 집에 경사가 든다고 하여 헛불로 달맞이를 하거나 망우리를 돌리면서 아이들도 달맞이를 한다. 헛불과 달빛의 상승작용으로 풍요를 기원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 5) 엄나무와 체바퀴달기

보름날에 가시가 있는 엄나무와 구멍이 많이 난 체바퀴를 쳐마 밑에 매달아 잡귀를 막는다. 전하는 말로 야광이란 귀신이 밤에 내려와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해가 불길하므로 체를 쳐마에 걸어놓는데 야광이가 체구멍을 세느라고 훔칠 생각을 잊는다고 한다. 이날은 신발을 엎어놓고 자기도 한다.

### 6) 봉숭이밥 싸기와 탈놀이

정월 보름날에 자기의 나이 수대로 약밥을 짜서 ‘봉숭이밥 쫄다’고하여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의 일종으로 한자로는 어부시(魚鳧施) 또는 어부식(魚付食)이라 쓴다. 속초에서는 한지에 자기의 나이 수만큼 찰밥이나 약밥을 짜는데 도문동에서는 쌩천에다 버린다.

이렇게 하거나 자신의 밥그릇에 밥 세 웅치를 떠서 한지에 사고 생년월일을 적어 넷가에 띄우기도 하는데 최영년의 『해동죽지』에는 정월대보름날 조밥을 우물샘에 살포하여 고기더러 먹으라는 뜻을 붙여 살어식(撒魚食)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액을 막는 방법으로 대체로 보름날 저녁에 달이 뜨면 시작한다.

물치마을에서는 젊은이 여러 명이 대보름달이 뜨면 종이로 탈을 만들어 쓰고 집집을 방문한다. 이때는 노인과 여자 등으로 꾸미는데 “이 집에 손님이 왔소. 술 내놓으시오.”하면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놓고 잡색꾼들은 풍년가를 부르면 홍겹게 놔다.

### 7) 귀신날

음력으로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 하는데, 이 날을 귀신에게 홀린다고 배를 띄우지 않는다. 따라서 어부들은 출어를 하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거나 집에서 쉰다. 머리카락이나 고추씨를 태워 잡귀를 막기도 한다.

### 8) 바람님날

2월 초하룻날을 주부들은 ‘바람님날’ 또는 ‘영등할머니날’이라하여 ‘영등신’ 또는 ‘바람님’을 잘 모신다. 어민들은 비바람에 따라 출어가 정해지므로, 바람에 특히 신경을 쓴다. 따라서 70년대 초까지도 영등날에 바람님을 잘 모셨는데, 근래 들어 이 신을 모시는 가정이 드물다고 한다.

영등신은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모시는데, 이 날 장독대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린내 나지 않는 생선, 비늘없는 생선인 명태로 무를 넣어 무왁찌기와 잡곡밥,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나물, 떡, 술 등을 놓고 가정의 안녕과 어업의 무사, 풍어 등을 빈다. 이때는 식구 수대로 무왁찌기에 수저를 꽂아놓고 가족의 안녕을 빌고, 떡시루에 꽂기도 한다.

영등신을 잘 모시는 가정에서는 음력 2월 15일 영등신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기간동안 여신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상가집을 가지고 않고, 흉한 일을 꺼릴 정도로 근신을 한다. 2월 1일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고 바람불면 ‘바람영등’이라 하는데 물영등이 되면 풍어가 된다고 한다.

영등신의 노여움을 받으면 무서운 바람인 ‘서마나울’이나 ‘원산내기’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해난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호동 선주들은 이 날이 되면 아침에 해뜨기 전에 나와서 배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빈다. 선주들은 그 해 운이 나쁘다 싶으면 별도로 배성주에게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제물을 차려 빈다.

### 9) 좀생이보기

속초에서는 2월 6일을 ‘좀생이날’, ‘좀성날’이라 하는데 이 별자리는 28성수 중 묘성으로 작은 별들이 모여 있다. 이날 달과 좀생이의 거리와 모양에 따라 풍흉을 짐친다. 달과 좀생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풍년이고, 가깝게 가거나 바빠 가는 것처럼 보이면 흉년이 된다고 한다. 그것은 모심기 할 때 부인들이 있고 가는 밥꽝주리가 달이고, 좀생이는 아이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그 해 아이들이 배가 고플 것으로 짐작한다. “좀생이보고 그 해 일할 짚신을 삼았다”고 할 정도이며 조선시대 『열양세시기』에도 제법 맞는 풍속이라고 하였다. 좀생이 색깔이 붉으면 가물고 투명하면 꼭식이 잘된다고도 믿는다.

### 10) 무먹기

무를 청근이라고도 하는데 2월 7일 날 아침이 되면 무채를 썰어놓고 이것을 찬 물을 동쪽바다 쪽을 향해 마시면 한 해 동안 건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2월 1일 영등날에는 무를 먹지 않고 제물로 사용하는 찌계에 넣는다.

### 11) 한식날

한식(寒食)은 글자 뜻 그대로 찬밥 먹는 날로 알려져 있다. 동지 후 105일 만에 이 날이 드는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서 성묘를 한다. 흔히 2월에 들면 “철이 빠르다”고 하고 3월에 들면 “철이 늦다고 한다. 한식날은 귀신도 꼼짝하지 않는다 하여 무덤을 손질하여도 탈이 없다고 한다.

찬밥 먹는 풍속은 중국 진나라 때 충신 개자추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여 불을 금지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때는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 하여 양양과 간성사이에 바람이 심하게 분다. 따라서 불을 잘 못 사용하면 대형산불이 나므로 금화하던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봄철 산불은 성묘객들이 향족을 사용하고 성냥불을 끄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한식날의 근본 취지가 산불방지 입을 잘 알아야 한다.

### 12) 삼진날

음력 3월 3일을 삼진날 또는 삼질날이라고 한다. 이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처음 본 나비를 보고 집안에 상고가 날 것을 예측한다.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을 입게 된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들판으로 나가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솔뚜껑을 뒤 짚어 놓고 핍쌀가루로 반죽하여 꽃지짐이를 해먹었다.

### 13) 곡우물먹기

24절기 가운데 여섯째인 곡우날에는 설악산 산중이나 인근 앞산에 가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 나무에 흄을 내고 깡통을 매달아 놓으면 수액이 흘러내려와 차는데 이것을 곡우물이라 한다. 이때 농가에서는 피나무껍질을 벗겨 뱃줄도 만들었고 봄에 쓸 나무를 잘라오기도 한다. 여름철에 더위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 날 오색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먹기도 하는데 지금은 잘 하지 않는다.

### 14) 초파일날

4월에는 석가모니 탄일인 초파일이 들어 있다. 이때는 불교신자들이 신흥사와 인근 사찰을 찾아가서 예불을 올린다. 불교신자들은 누구보다 일찍 절에 가면 좋고, 누가 물어봐도 부정을 탈까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 하루 동안 세 군데 절을 찾아 예불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 15) 갈꺾기

갈꺾기는 지금은 사라져가는 풍속이다. 속초의 농가에서는 소만이 들어있는 4월중에 논의 퇴비로 쓰기 위해 갈을 꺾으러 갔다. 그런데 동네 어른의 명령이 있어야 갈을 꺾는데, 퇴비권장을 위해서 공평하게 소만 전에는 입산을 금하고 소만 날 ‘영갈’이라 하여 갈꺾기를 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16) 질어울리기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면 도문동 논에서 서로 남의 모를 매어 주는 것을 “질어울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질래짠다”고 한다. 질은 ‘두레’와 같은 것으로 두 세 개씩 만들어 모심기를 하는데 요즘은 기계영농을 하면서 이러한 풍습도 사라져 간다.

### 17) 단오맞이와 약쑥캐기

속초에서는 음력 5월5일 단오날 쑥떡을 해먹는 집이 많고 예전에 단오제사를 지낼 때는 취떡으로 차사를 올렸다고 한다. 일부 마을에서는 그네를 뛰고 씨름도 하고 논다. 단오날 아침에 말을 하지 않고 약쑥을 입으로 뜯어야 약효가 좋다고 한다. 또한 이슬이 맷혀야 좋다고 하는데 여름철 배탈이 날 때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농촌에서는 주부들이 뜯으러 다닌다.

### 18) 유두날과 쓰레씻이

음력 6월 15일을 유두(流頭)날이라 하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양기를 내포하므로 여기에 머리를 감으면 한여름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속초에서는 약수터에 가서 속옷을 입고 물을 적시거나 울산바위 밑의 냉정터에 가서 물을 몸으로 받는다. 이렇게 물맞이를 하면 건강하다고 하며 유두를 전후하여 강우량이 많으면 “우두물 지운다”고 하고 유두국수나 부침이를 먹고 고추장을 푼 장떡도 지져먹으면 더위를 피한다고 한다.

유두날 농촌에서는 쓰레씻이를 하는데 이것은 일꾼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다. 집집이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일꾼들에 잘 해주는 데 모내기를 끝내고 하는 행사 이므로 봄철에 하거나 이때쯤 한다. 쓰레씻이 같은 성격인 ‘승백내기’ ‘싱갯상차리기’를 하는데 일꾼들에게 큰 상차림을 차려주는 것을 말한다. 농기구인 쓰레를 씻으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로 ‘호미씻이’와 유사한 행사다.

### 19) 복날

복날은 하지 후 셋째 경일을 초복, 둘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흔히 삼복(三伏)이라 부른다. 이날 ‘복다림’을 한다고 닭이나 개를 삶아 먹는다. 농가에서는 이때 천둥이 치면 머루다래가 풍작이라고 믿는다. 흔히 복날이 낀 6월을 ‘썩은달’ ‘액달’이라 하여 이사를 피하고 혼사도 미룬다. 앓은 방석도 옮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때 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 20) 질먹기

질먹기는 호미씻이와 같은 뜻으로 농사에 고생한 사람을 모아서 위로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흔히 “깐깐5월, 미끈 6월, 어정7월, 동동8월”이라고 하는데 7월은 질먹기를 하며 어정거리면서 보낸다는 뜻이다. 질먹는 때는 논김을 다 매고 밭김은 두 별 매고, 김장무를 심는 때이다.

## 21) 한가윗날과 백로

음력 8월15일은 추석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한가위라 부른다. 속초는 제1설, 제2추석, 제3단오라고 명절의 순서를 정한다. 이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햄쌀로 메를 짓고 송편을 만들어 조상의 차례상에 올리고 절하며, 낮에는 산으로 성묘를 나간다. 차례상에는 ‘치’자 들어간 생선을 올리지 않는데 도치는 싱어, 새치는 이면수라 하여 쓴다. “더도 덜고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도 하고 “오월농부 팔월신선”이라 하듯이 외지에 나갔던 식구들이 모여 단란한 가족애를 느낀다.

도문동에서는 이때 체육대회도 하고 친선놀이를 하면서 마을의 단합을 도모한다. 추석명절 음식으로는 닭요리, 송편, 무와 호박을 섞은 시루떡, 송이국, 토란국, 고지국을 끓여 먹는다. 백로때 서리가 일찍 내리면 흉년이 된다고 믿는다.

## 22) 배나무골 풍년놀이와 만천광대놀이

추석 무렵 배나무골인 도리원마을에서는 풍년한마당 놀이를 놀았다. 텃줄에 벗단을 묶어 태를 치고 도리깨질, 치질, 풍구질로 타작하는 과정 등을 농악놀이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농사의 풍작을 맞아 농악대와 함께 벼타작을 하면서 풍년가를 부르고 홍겹게 주민들이 하루를 보낸다. 만천마을에서도 농악대 걸립패가 변복을 하고 탈을 쓰고 노는 풍년광대놀이를 했는데 달맞이를 하고나서 놀았다.

## 23) 성주단지갈기와 문바르기

추석 때 새로 수확한 수댓쌀을 성주단지에 채워 넣는데 찹쌀을 넣는다. 성주단지에 있던 쌀은 2월 초하룻날 떡을 해서 나누어 먹는다. 성주단지를 갈 때는 주부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치성을 올린 다음 아침밥을 먹는다. 옛날식 한옥에서는 창호지 구멍 난 것을 바를 때 7월에 바르면 도둑이 들고 이 날 바르면 들지 않는다고도 한다.

### 24) 중양절 단풍놀이

음력 9월 9일을 중구일 또는 중양절이라 한다. 이 날은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돌아가고 기러기가 찾아온다. 부녀자들은 산과 들로 나가 국화꽃잎을 따서 침쌀 가루로 전을 지져 먹는데 국화주를 담가 설악산으로 단풍놀이 많이 간다. 이 날에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좋다고 집안 가족이나 계모임에서 산에 소풍을 간다. 청학동에서는 이때 서낭제사를 지내고 ‘9월맞이’라 하여 액이 든 사람은 무당에게 찾아가 이름을 걸고 정성껏 빌어줄 것을 청한다. 이날 차사를 올리는 집도 있었는데 감떡을 올렸다고 한다.

### 25) 상달 고사

10월을 ‘상달’이라하는데 가정에서는 고사를 올린다. 이것을 ‘안택고사’라 하는데 성주신은 안방, 조왕신은 부엌, 토지신은 뒤템장독대에서 지낸다. 제물은 뒤템에 백설기, 붉은 시루떡을 차리고 안방은 팔시루떡, 부엌에는 메만 한 그릇 올린다. 고성군에서 시집온 여성의 집안 가운데 군옹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마굿간에 제물을 차려놓고 가축의 무병을 빈다. 외옹치 서낭당에서는 10월 초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내고 3년마다 궂을 한다. 10월 1일 날씨가 따뜻하면 겨울이 대체로 따뜻하다고 일기를 점친다.

### 26) 설악문화제

신라시대 아래 오랜 산악제의 유풍을 지녀온 설악제는 현재 설악문화제로 불리면서 종합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1966년 설악제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등반대회를 했으며 1976년 10월 7일 제9회 설악제부터 산신제를 독립시켜 제사를 지냈다. 요즘은 10월 중순경 단풍절정기를 정하여 전야제 제등행렬을 비롯, 각종제례와 체험 및 동대항 경기, 갯배 끌기 등 다양한 행사로 설악산악, 해양·민속, 실향의 테마로 편성해 2006년 현재 41회를 개최하고 있다.

### 27) 송개틀기

가을철 벼베기를 마치고 10월에 택일하여 ‘송개틀기’를 했다. 이것을 ‘속갱이하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송개튿다’며 소나무 솔잎 검불을 굽으러 간다. “나무가 묵어서 썩는 집은 쌀도 남아 썩는다”고 할 정도로 송개를 많이 하면 겨울연료걱정을 덜었다. “검불 밑이 썩으면 좋다”고 하여 새로 해 온 ‘송개’를 위에다 쌓는데 송개를 솔갈비, 소갈비라고도 부른다.

### 28) 김장하기

김장을 반양식이라 한다. 하장동저(夏醬冬菹)라 하여 우리민족은 여름에는 장을 담그고 겨울에는 김치를 담그는 것이 음식세시풍속이다. “김장은 땅에 묻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속초는 명태나 오징어 등의 해산물을 넣어 시원하게 만든 것이 별미다. 한국의 김치가 우리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것처럼 속초의 김치도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있다고 하겠다.

### 29) 동짓날과 팔죽

동지를 ‘작은설’이라 한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데 집집마다 팔죽을 쑤어서 먹는다. 팔죽에는 ‘옹생이’, ‘옹심이’라 하여 새알심을 넣는데 나이 수대로 넣기도 한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여 팔죽을 쑤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나쁘고 그 해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한다. 중동지나 노동지인 보름이후에 들면 팔죽을 쑈다. 속초에 전하는 말로 “동짓날 팔죽 아홉 그릇 먹고 검불 아홉 짐 지고 와야 좋다”고 한다. 동짓날 팔죽이 일찍 쉬면 다음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속초에서는 함경도 출신이 많아 ‘오구랑 팔죽’이라고도 말한다.

### 30)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초호가 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북판만 갈면 이듬해는 풍년,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라고 점친다.

용경을 청호동 주민들이 점을 치는데, 영랑호와 청초호에는 암룡과 수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러한 용경풍속은 조선시대 읍지나 『동국세시기』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청호동 주민들은 용이 밭을 가는 동지 무렵이면 소들이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증언한다.

### 31) 윤달

윤달은 ‘남은달’ 또는 ‘남의달’, ‘공달’이라 부른다. 윤달은 4년마다 드는데 농가에서는 5~6월에 들면 좋다고 하고 하지나 설달, 정월달에 드는 것은 싫어한다. 흔히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하여 재액이 없는 달, 손 없는 달로 친다. 수의를 만들고 화장실을 수리하고 산소를 옮기는 이장을 하거나 비석도 세우고 묘소도 손을 본다.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지난 윤달에 만든 수의를 윤달이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다시 오면 꺼내서 살펴본 후 다시 넣어 보관한다.

### [조사사례 1]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 o 조사일자 : 2001년 7월 14일
- o 조사자 : 장정룡 (강릉대 교수)
- o 제보자 : 백희손(여.70), 김복순(여.82), 추진녀(여.86) 이갑년(여.78), 이월계(여.81), 박인학(남.75)
- o 마을개관 : 청초호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있는 것 같다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득으로 변하고 한자로 써서 반부평이라고 하였다. 수복 이후 1954년 11월 법률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로 청초호를 끼고 있어 청호동으로 바뀌었다.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많아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아바이마을이라고도 한다. 청호동은 현재 6,000여명 2,000여 세대가 있다. 청호동 주민들의 삶은 청초호와 관련성이 높다. 청초호는 영랑호와 마찬가지로 석호로서 바다와 격리되어 있는데,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아지고, 좁은 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유출된다. 파랑이 세지면 모래가 대량 운반되어 석호의 수로가 막히고 바닷물이 유입된다. 따라서 염분농도가 담수호에 비해 높고 해수보다는 낮다. 1998년 마을을 가로지르는 청초호 신수로 개발과 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면서 행정구역이 인근 조양동과 합쳐졌다. 따라서 함경도 주민들로 구성된 난민취락의 모습도 부득이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을 갯배 나루라 하고, 청호동 앞 바다에 있는 섬은 조도(鳥島)라고 한다. 새섬이라는 뜻이다. 한때 용초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헐리고 조그마한 등대만 있다.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다.

### [ 1월 ]

#### 1. 정초

차례 설날 아침 차례를 올리고, 자손들이 와 세배를 하고 음식을 먹고 종일 즐기며 논다. 떡은 이북식으로 큼지막하다. 송편은 빛으나 찰떡은 하지 않는다. 모른다. 만두국, 떡국떡을 집어넣은 만두국, 밥 등 집안마다 제 각각으로 초하룻날 차례상을 차린다. 만두 속은 대부분 소고기로 만든다. 차례 상에 올리는 제물 중 어물을 문어, 명태, 가재미, 놀래미, 열 GANG이, 이면수 등을 쓴다. 꽁치, 도치 등 치자로 끝나는 고기는 쓰지 못하나 새치는 이면수라고 불리기도 하기에 쓸 수 있

다. 그러나 속초 원주민은 도치(싱어)를 꼭 차례나 제사상에 쓴다.

**복조리** 이북에서는 그런 풍속을 모른다. 속초에는 있다. 예전에 ‘복조리 사례’하고 그믐에 복조리를 팔려 오면 사서 불같이 활활 일어나라고 해서 성냥도 넣고 명을 길게 하라는 뜻으로 실도 넣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문에 걸어놓는다.

**안택** 보통 택일하여 정월 보름 밑에 한다. 팔시루, 백설기도 하고, 어물, 주과포를 장만하여 비는 이를 데려다가 지낸다. 3~5일 전부터 새끼줄에 솔가지도 달아매 금줄도 치고, 진흙으로 대문 곳곳에 소복히 담아놓아 부정한 외인의 출입을 금한다. 3년에 한번씩 돼지도 잡을 만큼 성대히 치루었다고 한다.

**상사일(上巳日)** 정월 들어 첫 번째 드는 뱀날을 상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에는 출어를 하지 않는다. 이날을 특별히 꺼리는 이유는 배가 출어 하면 뱀처럼 미끄러져 전복된다고 하는데, 뱀의 표피가 미끄러운 것을 연상한 풍속이다.

**연날리기** 정초부터 대보름날까지 바다 쪽을 향해 연을 날린다. 참나무 껌질로 손바닥 만하게 배를 만들어 띄우고 거기에 연줄을 묶는다. 이렇게 참연이나 가오리연을 만들어 바다에 띄우다가 연밑에 쪽을 묶어서 불을 붙이면 연줄이 끊겨 하늘로 난다. 이것은 자신의 액을 멀리 보내는 것이라 하여 보름이 지나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놀린다.

**허재비** 일년 신수를 보아 무엇이 나쁘다고 하면 허재비를 만든다. 보통 비는 이(무당, 점장이)들이 다 만들어 온다. 사람 형상으로 크기는 30cm이고 속에 한지에 이름을 써넣고 액을 떼어 달라고 뭐라 방법을 한 후에 삼거리에 가 불 태운다. 원래 속초풍속으로는 삼거리에 버린다.

## 2. 대보름

**더위풀기(14일)** 여름날 아침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 후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리’고 한다. 그러면 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등심한다(14일)** 북한 풍속으로 14일날 등심한다고 명태를 써 가지고 명태를 뜯어먹는다. 등심이란 머슴이 등에 힘을 받아야 일을 잘한다는 뜻이다.

**김치 안먹기(14일)** 여름날 김치를 먹으면 몸에 쇄기가 쏟다고 김치를 안 먹는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귀밝이술(14일, 15일)** 북한 출신들과 속초주민들 가운데 14일 먹는 집도 있고, 15일 먹는 집도 있다.

**오곡밥** 14일 저녁에 오곡밥을 만든다. 조, 콩, 수수, 기장, 찹쌀 등을 집어 넣고 만든다.

**부럼** 대보름날 아침 호도, 땅콩, 밤 등으로 부럼 깨문다고 서너 번 외친다. 그러면 일년 열두 달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매운 것 안먹기(15일)** 대보름날 매운 것, 짠 것을 먹지 않는다.

**대보름 제사(15일)** 속초 주민은 예전에 오곡밥을 해서 대보름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봉숭이밥싸기** 대보름날 저녁에 용왕제를 지낸다. 밥과 나물을 장만하여 간소하게 지낸다. 자기의 나이 수대로 약밥을 한지에 싸 ‘봉숭이밥 싼다’고 하여 바다에 버린다. 어부시(魚鳧施)의 일종이다. 그 외 개인이 치성 드리는 것과는 달리 어촌계가 주관해 3년마다 용왕굿을 한다.

**귀신날(16일)** 이날은 귀신에게 훌린다고 출어를 하지 않는다.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거나 쉰다. 머리카락, 고추씨 등 냄새나는 물건을 태워 잡귀를 막는다고 한다. 신발을 엎어놓아 귀신이 발을 맞추어 보지 못하게도 한다.

### [ 2월 ]

**영동행사** 2월 초하루를 ‘영동날’이라고도 한다. 영동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한다. 바람이 불면 바람영동으로 땔을 테리고 오고, 비가 오면 물영동으로 며느리를 테리고 온다고 한다. 물영동이면 해사가 걸고 풍년이나, 바람영동이면 출어 하지 않는다. 팔시루떡, 무왁찌기, 무나물 등을 장만하여 부엌(조왕)에서 모신다. 15일 날 영동 할머니가 올라간다고 하고 20일이 되어야 완전히 올라간다고 한다. 15일 날 올라가는 날도 간단히 제를 올린다. 2일에서 14일까지 매일 물을 떠놓고 빙고 금줄을 치지는 않는다. 정초에 고기든 미역이든 쌀이든 일단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 하나씩 걸어 넣고 영동할머니 올라가는 날 그 것들을 가지고 고기는 찌고, 쌀은 밥을 해서 제를 올린다. 이북에는 없는 풍속이다.

[ 3월 ]

**한식날** 북한 출신들은 이날 차례를 올린다. 밥, 탕, 육고기, 어물을 갖추어 산에 간다.

[ 5월 ]

**단오** 이북에서는 쑥떡이나 쥐떡도 해먹고, 창포뿌리를 삶아 머리도 감고, 며칠 그네도 뛰면서 엄청 크게 쉰다. 단오제사도 산소에 가서 지낸다. 속초에서는 없는 풍속이다. 창포뿌리를 삶아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비듬도 안 낀다고 한다.

**약쑥** 단옷날 아침 일찍 이슬 맞은 것을 뜯어 말려 놓았다가 속이 아프면 삶아 그물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 6월 ]

**유두** 속초 주민들은 이날 적(부치개)을 부치는데, 적에 멘드라미도 박고, 꽃 같은 것들, 즉 백일홍도 집어넣어 부쳐 먹는다. 일꾼을 두었을 경우 유두상 잘 차려서 산에 넓은데 가서 텐트 쳐 놓고 먹고 논다.

**봉숭아물** 손톱들이기 봉숭아를 찌어 가지고 백반에 섞어 손톱에다 대어놓고 하루 자고 나면 손톱이 빨게 진다. 지금 봉숭아로 물들이면 저승길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 생겨나 물들이지는 않는다. 이북 분들 사이에는 물들이면 수술도 못한다고 해서 겁나서 물을 못 들인다는 말도 한다.

[ 8월 ]

**추석** 이 날 송편을 빚는데 월남한 북한출신 주민들은 만두처럼 반달모양으로 빚는다. 속초주민들은 그냥 동그랗게 손자국 내면서 빚는다. 송편 속에는 팔, 밤, 깨, 강낭콩, 대추 등 농사지은 것은 모두 사용한다. 송편을 빚어 차례 상에 올린다.

[ 9·10월 ]

**시제** 북한 출신들은 시제를 올리고 싶어도 조상이 북에 있기 때문에 못 올린다. 속초토착주민들은 9~10월에 떡과 제물을 장만하여 산소에 가서 제를 올린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 11월 ]

**동지** 이날 팔을 젊어서 팔죽을 쌈다. 이북에서는 팔죽제사를 올린다. 특히 이북에서는 옹샘이를 오그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올리는 제사를 오그랑 팔죽제사라 한다. 오그랑은 새알 크기로 찹쌀을 빻아 가지고 만든다.

**팔죽뿌리기** 팔죽을 쑤어 처음 것을 떠가지고 액을 물리치고 잡귀도 물리친다면 바깥에 뿌린 후에 팔죽을 먹는다.

### [ 12월 ]

**만둣국제사** 이북에서는 만두국 그믐제사를 지냈지만 이남으로 내려와서 안 올린다.

### [ 윤달 ]

**윤달** 모든 일에 잡귀가 없다. 그래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친다. 대문 등도 손본다. 수의장만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 [ 연중 ]

**성황제** 봄, 가을 택일을 하여 두 번을 한다. 어촌계에서 주관한다. 일종의 풍어제다. 할아버지 성황, 할머니 성황, 두 분을 다 모신다. 전에는 소를 잡았다. 지금은 소머리와 사족을 가지고 소의 형상을 은유해 지낸다. 제관은 생기 복덕이 맞는 분들로 선정하여 도관, 부도관 등 총 세 명이 지낸다. 예전에 성황굿은 3년에 한 번씩 했으나 지금은 3~5년 만에 한 번씩 한다.

**뱃고사** 예전에는 매월 음력 보름에 뱃고사를 올렸으나 요즘은 몇 달에 한 번씩 올린다. 일반제사처럼 문어, 명태, 돼지고기, 포, 실과, 밥, 떡 등을 장만하여 배에서 직접 선주, 선장, 선원들이 같이 올린다. 배성주 모신 곳 아래에서 제를 올린다. 초지를 올리고 실타래 놓고 명태는 실타래해서 놓고, 배 뒷머리에서도 올리고, 물론 촛불도 밝힌다. 소지도 올리고, 짚을 고해서 짚단에 불 붙여서 바다에 던져 액을 물에 띄워 보낸다. 밥을 몇 숟가락씩 떠서 바가지에 담아 물에 뿌리고, 저녁에 시간에 맞추어 지낸다. 바쁠 때는 배가 입항해서 고기를 다 뿌리고 나서 고사를 지낸 후 식사를 한다. 출항할 때는 안 지낸다. 배성주는 수지에 싸 가지고 선장실, 즉 조타실에 모신다.

## [조사사례 2]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마을

- 조사일자 : 2001년 7월 21일
- 조사자 : 장정룡 (강릉대 교수)
- 제보자 : 최춘집(여.71), 김상옥(여.71), 김병국(남.67), 김옥순(여.64), 서원순(여.94)
- 마을개관 : 새마을과 대포 사이에 있는 바닷가쪽 마을로 뱃독재라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옹진리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옹치리로 바뀌었고,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외옹치항은 대포항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으며, 1980년대 개발된 소규모의 항구로 활어판매장이 있고 가리비 생산항이다. 속초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관광휴양지로, 해맞이 장소로, 해양박물관 견립 등 관광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항구다. 외옹치 새마을 쪽에서 대포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는 기른네비라 하며,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는 덕이 있게 생겼다고 해서 덕대바위, 또는 덕대암이라고 한다.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곳은 조선시대 덕산봉수가 있었던 터라하여 봉수터, 봉화터라 불린다. 또는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고 하여 봉끝이라고도 한다. 마을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데 원래는 외옹치 구도로 바닷가에 있었다. 84년 수해 나며 신도로 가에 세워놓았다가 96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신도로 입구에 장승을 세웠다. 그전 장승은 소나무 베어 만들었는데 썩어서 태워버리고 최근에 다시 만들었다. 마을주민은 90세대로 250명 정도로 15년 전에는 바닷가 쪽에 집이 있었으나 84년 수해에 도로 안쪽으로 이주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명절은 추석, 대보름, 설이다.

## [ 1월 ]

## 1. 정초

**설날** 차례 설날 아침에는 밥으로 차례를 올린다. 떡국은 안올린다. 차례 후 세배를 하고 성묘를 갔다 온 후 윷놀이도 하고 논다.

**복조리** 정초에 대나무로 복조리를 만드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고 속초 장에 가사온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문 위에 걸어놓는다. 실과 성냥은 집어넣지 않는다.

## 2. 대보름

**더위풀기(14일)** 여름날(14일) 아침에 아무개야 하고 부른 후 대답하면 ‘내 더위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사라'고 한다. 그러면 일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눈썹 희게칠하기** 여름날(14일)에서 보름날 사이의 밤에 잠을 자면 눈썹 희게 센다고 한다. 잠을 자면 팬히 밀가루를 바르고 장난을 치는데, 이는 대보름 제사를 보게 하려고 잠을 안 재우던 풍속에서 기인한다.

**오곡밥, 오곡밥제사** 오곡밥은 14일에 오곡 이상을 넣어 만들어 대보름날 아침에 그 밥으로 제사 지낸 후 그 밥으로 식사를 한다.

**김치 안 먹기(15일)** 대보름날 김치 안 먹는다. 농사짓는 이들은 쐐기가 쏘지 말라고 안 먹는다.

**나물먹기(15일)** 대보름날 콩나물, 무나물, 고사리, 괴비(고비) 등을 볶아 먹는다. 이날 나물을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한다.

**지신밟기** 대보름 때 장구도 치면서 마을을 돌면서 지신도 밟아주고 걸립도 했다. 걸립 한 것은 한 군데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지금은 없어진 풍속이다.

**액맥이** 정초에 신수를 보아 삼재 들거나 수액이 안 좋은 이들은 액맥이를 한다. '대보름날 저 바다에서 달이 올라올 때 달맞이(맥이)를 한 후, 동서남북으로 절세 번씩 하면 속적삼을 갖다가 태우고, 잡곡, 잡밥을 했던 것을 가지고 장승한테 가서 '차를 물고 다니니 사고 없이 다니게 해주세요'하고 빈다.

**귀신날(16일)** 신발을 엎어놓아 귀신이 발을 맞추어 보지 못하게도 한다. 성황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장승에다가 비는 사람도 있다.

### [ 2월 ]

**영등행사** 음력 2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한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물영등이 좋다. 마을에서 거의 이날 제를 올리지는 않으나, 지금도 80살 넘으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영등제를 올린다. 팔밥을 해놓고 된장에 무를 넣어 왁찌기처럼 끓여 가지고 술 한 잔 부어 뒤안 바깥에 내어놓고 절을 한다. 15일날 영등할머니가 올라간다는 날에도 똑같이 팔밥을 하고, 왁찌기를 해서 제를 올린다. 2일에서 14일 사이에도 정화수를 바친다.

[ 5월 ]

그네뛰기, 창포로 머리감기 단오에 별다른 행사는 없었으나 동네 어귀에 그네를 매어 뛰기는 했다. 그러나 창포뿌리로 머리를 감거나 궁깽이를 머리에 불들여 맨 후 거리를 다니곤 했다.

약쑥 단옷날 새벽에 일찍 나가 이슬 먹은 약쑥을 뜯어 말려 놓았다가 속이 아프거나 팔다리가 저릴 때 쑥을 찌 그 물을 마시거나 뜸을 뜨거나 한다.

[ 6월 ]

삼복 복 때림 옛날 복날에 닭을 사 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삼복 모두 닭 국 끓여먹는다.

[ 8월 ]

추석 아침에 차례를 올리고 햇곡으로 밥과 떡과 송편을 한다. 송편 속에는 콩, 팥 등을 넣는다.

[ 9월 ]

성황굿 성황제와 달리 4년 만에 동네 대동굿을 하는데 최근엔 2000년 9.9일에 굿했다. 이날 성황굿 하는 날엔 부정굿을 한 후 성황문을 열어놓고 한 식 굿을 한 후 무당이 웃을 입고 골넥이(장승) 성황 모시러 가 모셔온 후 한 당을 만들어 화해동참을 시켜놓고 합동굿을 한 후, 굿이 끝나면 폐상할 것을 한 함지 만들어, 용왕제 지내려 내려 갈 적에는 축항까지 끼고 내려간다. 용왕제 지낼 사람들은 이미 축항에다 개인 것을 쭉 차려놓는다. 용왕굿 한 식씩 하고 난 후 무당들이 굿하고 난 다음 나쁜 사람들은 공수를 집어주고 상 모두 차려놓은 것은 상마다 앉아서 빙고 소지를 올리고 빙어 주고 난 후 함지에 담아간 것은 뒷풀이를 하여 바다에 버린다.

[ 11월 ]

동지 팔죽제사 동지에 팔죽을 쑤어 먹는데 찹쌀로 웅심이를 만들어 가지고 조상에 한 그릇 떠서 올린 후 먹는다.

팔죽 뿌리기 동지날 팔 삶은 물을 화장실과 네 기둥에 뿌리면 좋다고 한다. 또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동지가 아니어도 새로 나무를 들여와 기둥을 세워도 팔죽을 만들어 뿐린다

### [ 12월 ]

**만두제사** 그믐날에 만두를 빚어 저녁에 만두제사를 올리는 집도 있으나 대부분 하지 않는다. 만두 속에는 두부, 김치, 소고기 등을 집어넣는다.

### [ 윤달 ]

**집 수선** 윤달에는 만사가 무해하다며 무엇을 해도 괜찮다. 집도 고치고 이장도 하고 여러 것을 한다.

### [ 연중 ]

**성황제** 성황제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치성을 드린다. 옛날에는 택일해서 제관들 생기도 맞추어 지냈는데 예전 어른들이 날짜를 고정시키고 돌아가셨다. 제관은 4명 내외이다. 제관들만 제사에 참석한다. 지금은 간소하게 한다. 외옹치산에 올라 성황제를 자정쯤에 시작해 장승까지 제를 올리면 2시쯤 되어야 끝난다. 떡시루는 세 개를 찌는데, 백설기는 칠성시루이고, 성황시루와 성주시루는 붉은 시루다. 밥, 어물, 삼실과, 나물, 소머리 등을 장만하고, 제주는 막걸리를 쓴다. 실지로는 성황은 말이다. 그래서 소를 바치더라도 말머리 바친다고 말한다. 그전에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올렸는데, 지금은 머리와 사족, 꼬리만 올린다. 장승제는 주파포만 가지고 간단하게 올린다. 이때 창호지를 실로 장승에 맨다. 장승은 절대 장군이라 한다. 천하장군, 지하장군 두 분 장승이 있다. 차 물고 다니는 분들 아무 탈이 없으라는 의미에서 제를 올린다. 제가 끝난 후 제관이 그 자리에서 조금 먹은 후에 차린 제물은 동네 분들이 먹으라고 따로 차려 놓는다.

**안택고사** 택일해서 3월이나 10월에 붉은 시루떡을 하고 명태나 가자미, 문어, 열기, 대구 등 적당히 몇 개를 찌고 나물을 장만하여 제를 올린다. 며칠 전부터 금줄을 친다. 송침(솔잎)을 금줄 사이에 집어넣는다. 지금 진흙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진흙도 대문 앞에 뿌려놓았다.

**텃고사** 텃고사는 가을에 택일하여 성주를 모신다. 성주는 종이를 실로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거나 벽에 붙여놓는다. 텃고사 순서는 성황 전에 먼저 올리고, 다음 성황 문 열고 집에 와 차고사(장승) 올리고, 용왕님께 뵙고 방에 들어가 성주에게 뵙었는데, 지금은 성황, 차고사(장승) 성주, 용왕 순으로 올린다. 배가 있

는 집은 두 번째로 차 대신에 배로 간다.

**군웅장군** 예전에 군웅장군 모신 집도 있었다. 소귀신도 있는 집이 있었다. 군웅이 탈이 나면 소가 병이 든다. 그러면 구용에다 밥을 지어놓고 군웅을 달랜다.

### [조사사례 3]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마을

- 조사일자 : 2001년 7월 28일
- 조사자 : 장정룡 (강릉대 교수)
- 제보자 : 김정수(여.74), 오대환(남.72), 유순덕(여.76), 이상녀(여.64), 최영철(남.74)
- 마을개관 : 조선시대에는 도문면(道門面)으로 그 관할 하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용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문은 마을이름이자 면 이름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6년 동제를 실시한 후 상, 중, 하도문리가 합해져 도문동이 되었다.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는 신라 때 원효와 의상대사가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속에서 맑은 소리가 들린 후 홀연히 무상무아의 불법을 깨달았다. 도통의 문이 열린 공이라고해서 도문리라 이름하였다. 그 외 여러 전설이 전한다. 상도문리는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는 배의 뒷대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뒷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이 되었다고 한다. 또 그물을 드는 형국이어서 그망골, 거망동이라고도 불린다. 마을 서북쪽 척산리와의 경계에 해발 388m의 봉황의 형국이 주봉산이다. 마을 남쪽 앞 소나무 숲에 육각으로 된 정자가 있다. 원래 학무정이나 육각으로 되었다고 하여 육모정이라 부른다. 속초8경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또 마을은 돌담으로 집들의 경계를 한 것이 특색인데,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들이 많다. 상두계, 상포계, 혼인계 등이 아직도 있다. 상여를 보관한 곳집도 있다. 도천메나리와 같은 소리도 있어 지금도 부르는 분이 있다. 주생업은 농사이나 계절적으로 민박과 상업도 같이 한다. 마을은 7번 국도에서 물치에서 설악산으로 들어가면 설악산 입장료 받는 입구 못미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 1월 ]

#### 1. 정초

**차례** 설날 아침에 차례를 올린다. 만두떡국이나, 떡국이나, 밥으로 차례를 올린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다. 만두 속에는 잡채, 돼지고기 등이 들어간다. 절떡, 찰떡, 기정떡도 져 제사를 올린 후 먹는다. 차례 상에 올릴 때 절떡 위에 찰떡, 찰떡 위에 기정떡 순서로 올린다. 생선은 명태 위에 가재미, 그 위에 문어를 올린다. 송편도 빚어 올리는데 송편 속에는 콩, 설탕에 깨를 섞어서 만든다.

**기정떡 만들기** 쌀 갈아다가 막걸리 넣고 식기마다가 밥 좀 넣어서 막걸리 좀 넣어서 밥솥에다가 놓으면 보글보글 끓는다. 그러면 쌀가리에다가 그걸 넣어 풀어 가지고 동이에 담아서 덮어놓으면 수북하게 올라온다. 돌벼섯(석이벼섯)도 가늘게 썰어 그릇 모양으로 넣고, 빨간 맨드래미도 쟁어서 집어넣어 모양을 낸 후에, 그 위에다가 참깨를 뿌리면 기정떡이 만들어진다. 떡 중에는 최고로 간주하여 떡을 여러 겹 쌓을 때는 맨 위에 올라간다.

**과줄 만들기** 찹쌀을 빻아와 아주 오래도록 담궈 놓고 물에서 뿌걱뿌걱 거품이나와 쉬도록 한 후, 쟁어서 갈아다가 반죽을 해서 찐서 담탱이다 대고 찢어 가지고 여기다가 (칼국수 밀어먹는)상을 펼쳐놓고 거기 위에다가 감자가루 쭉 펼쳐놓고 그것을 퍼서 바싹 밀려서 고결 짹 갈퀴로 짹 쓸어 가지고, 막걸리나 소주를 부어 요통요통 한 후, 솔잎을 따서 솔잎 한 적지에 그것 하나씩 놓으면 출출하게 땅땡해진다. 기름에 튀길 때는 솔잎을 하나하나 뜯어내면 솔잎이 일어난다. 강밥 튀기는 데서 통쌀을 깨어 달라고 하면 깨어준다. 으깨어진 통쌀을 가지고 와 거기에 무치면 과줄이 된다.

**복조리달기** 정초가 되면 복조리를 만들어 거는데 두 개를 만들어 하나로 묶어 건다. 집이 활활 일어나라고 성냥을 넣고, 또 오래도록 살라고 실을 복조리에 넣는다.

**윷놀이** 정초에 싸리나무를 쪼개어 윷을 만들었다. 주로 밤윷을 만들어 대보름 무렵까지 마을주민들이 잘 논다.

**지신밟기** 20년 전 까지 마을농악 있어서 지신도 더러 밟았다. 마루에다가 쌀 한 말 담고 실도 한 태 놓고 술 한 상 봐 놓으면 농악패들이 마당에서 지신을 밟은 후 술 한 잔 먹은 후에 가지고 간다.

**연날리기** 정초에 아이들은 가오리연, 참연 등을 만들어 연을 날렸다.

## 2. 대보름

**소밥주기(14일)** 14일날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고, 소가 나물을 먼저 먹으면 풍년 든다고 한다. 나물은 산마루이나 고비를 준다.

**더위풀기(14일)** 여름날(14일) 아침에 아무개야 하고 부른 후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고 한다. 그러면 일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오곡밥(14일)** 14일에 팔, 찹쌀, 맵쌀, 차좁쌀 등을 넣어 오곡밥을 한다.

**눈썹 희게 칠하기** 여름날(14일)에서 보름날 사이의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신다’고 한다. 잠을 자면 괜히 밀가루를 바르고 장난을 치는데, 이는 대보름 제사를 보게 하려고 잠을 안 재우던 풍속에서 기인한다.

**부럼 깨물기** 대보름날에 아침에 아침밥 먹기 전에 부스럼 나지 말라고 볶은 콩이나 땅콩이나 호도, 투자 등으로 ‘부럼을 깨문다’하고 말하고 소리가 나게 깨운다.

**대보름제사** 대보름 아침에 오곡밥이 아닌 찰밥을 짜서 차례를 올린다.

**복쌈** 대보름날 곰취를 삶아서 잡곡밥에다 쌈 싸먹으면 농사지을 때 몸에 죄기가 안 쏘고 좋다고 한다. 김치를 먹으면 죄기가 쏜다고 한다.

**찬물 안 먹기** 대보름날 찬 물을 먹으면 열 년 열두 달 중에 소낙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날 찬 물을 먹지 않는다.

**귀밝이술** 정초에 귀밝이술로 막걸리를 담가서 청주를 떠놓았다가 대보름날 그 것을 귀밝이술이라고 먹는다.

**오곡밥 얻어먹기** 대보름날 오곡밥을 얻어먹으면 좋다고 해서 남의 집으로 오곡밥을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다. 보통 아이들이 단체로 몰려다니며 얻어와 한곳에서 섞어 먹는다.

**팔랑개비 만들기** 대보름날 종이와 수구멍이(수수깡)를 가지고 팔랑개비를 만들어 돌리고 담 벽(돌담) 사이에 꽂아 놓기도 했다. 수수껍질로 조 형상을 만들어 집 앞에 걸기도 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세 쫓기** 대보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를 쫓으며 ‘휘이휘이 내 논에 앉지 말고 저 강릉 이통천네집으로 다 가거라.’고 한다. 일 년 열두 달 중 혹 감기에 걸려도 ‘휘이휘이 저 강릉 이통천네집으로 다 가거라.’고 한다.

**불쏘시개점** 대보름날 밥 절 적에는 부뚜막에다가 싸리깨 나무를 떼어야 하는데, 부뚜막에 열두 달을 상징하는 불쏘시개를 쪽 집어 내놓는데 뿐만 아니라 사그리지는 달은 가문다고 하고, 껴멓게 사그리지는 달은 장마진다고 한다.

**아홉번 행동하기** 대보름날까지 여자들은 사뭇 열나흘 날은 밥을 아홉 그릇 먹고 삶을 아홉 광주리 삶으라고 하고, 남자들은 밥을 아홉 그릇 먹고 나무를 아홉 침 하라고 한다.

**달맞이, 망우리 돌리기** 처음 뜨는 대보름달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 해서 달맞이를 했다. 또 망우리를 돌린다고 짚을 엮어 돌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깡통에다가 한다.

**어부식** 보름날 아침에 식구대로 나이 수대로 밥을 뜯다. 예를 들어, 13살이면 큰 거 하나 뜨면서 열이라고 한 후 다음 것은 열하나, 이런 식으로 13살을 뜯다, 하얀 백지에다가 약봉지처럼 싸 가지고 아무 살짜리 아무개 어부식이라고 써서, 보름 달 올라오는 쪽으로 향해서 물에다가 던지면서 입으로 ‘어부식 한다, 어부식 한다’고 외치면서 던진다.

**귀신날(16일)** 이날 귀신날이라고 해서 여자들은 안 나가 다녔다. 엄나무 찍어다가 처마 밑에 달아매고, 마당에 쑥 같은 걸 태우거나 귀신불을 해놓았다.

### [ 2월 ]

**영등행사** 초하룻날은 어디에서 음식이 들어와도 뒤란에다가 내어놓고 난 후 먹는다. 이날은 밥, 명태찌개, 꿀단지, 수저도 식구 수대로 꽂아놓고 뒤란에서 빈다. 물영등이 바람영등보다 좋다. 2월 보름에 영등할머니가 올라간다고 한다. 내려올 때처럼 밥 해 놓고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아놓고 빈다. 시루떡은 아니하나 팔 삶아 팔쥐어미 떡을 해먹는다. 팔을 꼭꼭 지어서 만든 떡이다.

**장담그기** 2월 1일이나 3월 3일날 담근다. 지금은 정월도 막 담근다. 장 단지에다가 원새끼 꼬아서 금줄을 친다. 숯댕이를 간장물에 담그고 한 달 지나가면 간

장 때릴 때 금줄도 풀고 숯검뎅이도 건져낸다. 말날(午日) 담그면 좋다고 하고, 신일(辛日)에 담그면 장이 시어진다고 이날을 피한다.

### [ 3월 ]

**산치성** 3월 3일, 9월 9일날 두 번 산치성을 피골 안에 함지박골로 간다. 나무아래 바위에다가 제물 차려놓고, 산신님이 좀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매년 같은 바위 찾아간다. 4월 초파일날 가는 분들도 더러 있다.

**한식** 예전에 한식날에는 송편을 단단하게 빚어 제사를 지냈다. 이북사람은 지금도 제사를 지낸다.

### [ 5월 ]

**단오** 마을에서 그네를 만들어 그네도 뛰고, 또 취나물을 뜯어서 취떡도 만들고, 제사 도 지냈다. 지금은 없어진 풍속이다.

**약쑥** 아침 일찍 이슬을 머금은 약쑥을 베어 막걸리를 푸우하고 부은 후 응달에서 잘 말려놓으면 약이 된다. 배가 아플 때 효험이 있다.

**창포 머리감기** 창포뿌리를 베어 삶아 머리를 감는다. 옛날엔 머리를 기르니 머리끝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미드미 먹는다’고 한다. 창포뿌리를 파다가 머리 감으면 미드미가 안 먹는다고 한다.

### [ 6월 ]

**유두상** 유두날 넷물에 머리를 감았다. 집에서 일꾼 두고 농사지을 때 이들에게 유두상을 잘 차려주었으며 적도 지져 먹었다.

**노래기 없애기** 삼복날 세 번에 걸쳐 한다. 부엌의 채를 가지고 삼복(초복, 중복, 말복)에 세 번을 ‘노내각시 분 받아라, 노내각시 분 받아라’ 하고 말하면서 뿌리고 다니면 없어진다고 한다.

**질 짜기** 모 심을 때 질을 짠다. 보통 12집 정도다. 질이 끝나면 한 집에다가 크게 차린 후 잘 먹고 논다. 전도 지지고 막걸리도 먹고 잘 논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복날** 김 한창 맬 때 논두렁에다가(중복 무렵에) 감자적을 논두렁에서 지져 먹는다. 기름내를 풍기어 병충해 피해를 없이 해달라는 뜻이다. 주로 초복, 중복 등 복날에 한다. 또 복날엔 복매림이라 하여 개도 잡아먹고 닭도 먹는다. 일꾼들 잘 대접하는 날이다.

### [ 8월 ]

**송편** 추석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곡식으로 차례를 지낸다. 송편은 솔잎을 깔고 찐다. 콩, 팔, 밤, 깨를 넣고 찐다. 솔잎 한 번 깔고 또 그 위에 깔고 하는 식이다.

### [ 9월 ]

**김장하기** 예전에 상강 지나가면 김장을 했는데 지금은 입동 지나간 후에도 한다. 김장하는 날은 택일 안 한다. 젓갈로는 오징어젓갈을 넣는다. 지금은 멸치젓도 쓴다.

**중앙절 제사** 중앙절에는 감 썰어 넣고 만든 뭉생이 시루떡해서 제사 지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 [ 10월 ]

**안택고사** 가을수확이 되면 성주고사를 올린다.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올린다. 성주는 단지는 없고 실에다가 초지를 달아매 놓고, 팔시루 짜고 밥 해놓고 축원 한다.

### [ 11월 ]

**안택 고사** 동지달 초순에 택일해 지낸다. 봄에는 안 지낸다. 집안 네 기둥에 성주를 모시고 소지를 올리는 집도 있고, 터주 단지를 모시고 축을 읽는 집도 있다. 축 읽은 집을 보면, 집 뒤에 기와장을 놓고 거기에 쌀 한줌 집어넣은 것이 터주다. 택일 후 제사 준비할 때, 뒤 안 단지를 소제한 후 찹쌀과 맵쌀을 조금 넣은 후 덮어놓고 축을 읽는다. 쌀을 단지에 가득 안 채운다. 다시 명년 그때가 되면 썩어버린 곡식을 꺼내 버린다. 뒤 안에서 텁제사를 올리고 난 후 마루에서 성주제사를 올리고, 그 후 부엌에서 조왕신을 모실 때는 함지 채로 놓고 지낸다. 지금 부엌은 하지 않는다.

**성황제** 11월 달에 택일해 지낸다. 새벽 해뜨기 전에 지낸다. 돼지 머리, 백설기, 삼실과 등을 장만한다.

**동지** 팔죽을 쑤어 먹는다. 옹심이도 찹쌀로 만들어 집어넣는다. 초사흘에 동지가 들면 아동지(애동지)라 한다. 애동지에 안 쑤 먹는 집도 있으나 제사를 올리는 집은 애동지라도 쑤 먹는다.

**팔죽점** 날씨가 더워서 팔죽이 일찍 쉬면 그 해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옹심이점** 동지 옹심이 빛으면 팔죽 쑤는 부엌에 가서 임신했을 때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그것을 구우면 어떤 때는 그것이 쪼개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길쭉해지기도 한다. 쪼개지면 딸, 툭 불거진 게 아들이라고 점친다.

**팔죽뿌리기** 제사 지내는 팔죽은 쑤어서 함지에 따로 담아 펴놓고, 그 다음에 팔죽 쑤던 가마에 물 부어 씻어서 그 물을 가지고 바가지에 담아 작은 바가지 하나 띄워 가지고 나가, 굴뚝 있는 곳부터 ‘굴뚝장군이요, 터주신이요’ 하고 부르면서 팔죽물을 뿌렸다. 잡귀를 다 몰아낸다는 뜻으로 집안 전체에 다 뿌렸다.

### [ 연중 ]

**머리카락 태우기** 대보름이 아니고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천동이 칠 때 머리카락을 태운다. 연기가 나면 잡귀를 물리친다고 믿는다.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자루나 바가지 등이 있다. 여기에 월 넣어 모신다. 이런 신체가 없이도 삼신할머니를 찾기도 한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 머리맡에서 빈다.

**군웅신** 군웅이라는 신에게는 밖에서 뭘 가져오면 먼저 외양간에 가 소머리 맡에 놓는다.

**허재비 액맥이하기**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을 때 비는 사람을 데려다가 빌고 나 후 허재비를 만들어 삼거리에 나가서 태우거나 혹은 개울에 가 태워 버린다.

**기우제** 삼색 실과, 돼지머리, 강아지를 갖고 앞산 복골로 간다. 강아지를 칼로

베어 부정을 치면 비가 온다고 한다.

### 다. 속초의 민간신앙

민간신앙은 신앙전승행위로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집안에서 신봉하는 것,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것, 무속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으로 나뉜다. 속초지역은 마을 단위의 성황제와 무속제의인 용왕제 및 풍어굿, 수살굿 등이 있고, 선주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배성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지역은 신양전승은 주로 어로 신앙이 중심을 이루는데,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위하여 전승시켜온 민속이다. 민간신앙은 집안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등으로 나누어 속초지역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집안신앙

속초지역에서 신봉하는 집안신은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 성조신, 조왕신, 삼신, 토지신, 군웅신, 영등신, 용왕신, 축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신을 위하는 상황이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정초 안택고사는 성조, 토지, 조왕신을 함께 제사지낸다. 대체로 정월달에 행하고 음력 10월 중에 좋은 날을 받아 일주일 동안 금기한 다음 팔시루떡과 제물 등을 마련하여 집에서 빈다. 음겨 2월, 6월과 12월은 피하는데 가족의 생기와 일진을 맞추어 날 받는 사람에게 길일을 받는다.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주인이 주로 하고, 빌 줄 아는 무당을 청하여 오기도 한다. 안택제를 지낼 때는 대문 쪽에 황토를 양쪽으로 뿐리고 원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잡인의 출입을 막는다.

배를 가진 선주들은 안택제를 지내고 나서 배성주를 위한다. 배성주는 오징어, 과일 등 간단한 제물과 실과 한지를 가지고 가서 선장실에 뺏고 난 다음 한지는 한쪽에 매단다. 그 해에 처음 잡은 생선도 함께 매단다.

배성주제는 ‘배서낭제’라고도 부르고 흔히 ‘뱃고사’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주가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리는 것인데, 집안의 성주시과 같이 배를 집으로 여겨 성주신을 봉안한 것이다. 배성주에게 치성을 올리는 경우, 배로 새로 만들었을 경우나,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낼 때, 첫 출어시, 첫 수획 시, 흉이나 풍어 시, 매년 정초 무렵에 안전과 만선을 기원할 때 등으로 다양하다.

제의 형식은 개인 고사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편적으로 무당을 청해서 고축을 하며,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특별하고 엄격한 금기를 요구하지도 않는 편이다. 배성주의 신체를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길지형(吉紙形)이라 부른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길지형 이외에도 무신체형, 지방형, 벗기형, 서낭단지형, 서낭합형 등이 있으나, 청호동은 길지형이 많고 벗기형도 더

러 있다.

선주들이 처음에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 떡, 술 등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절을 하고 축원을 한다. 다음에 배성주의 신체로 한지를 걸게 되는데 이미 달아놓은 배성주 신체를 불에 태운다.

제물로 쓰는 메는 남자나 여자 성주를 한 분씩 모시고 있으므로 한 그릇을 놓고, 조상신을 모시고 있으며, 거기에도 한 그릇을 놓는다. 배에는 배성주기와 만선기를 싣고 다니는데, 배성주기는 상단에 청색, 하단에 흰색으로 만든다.

배성주의 신체는 남녀로 구분되는데 성별의 구분은 선주의 생기를 맞추어 무녀가 정한다고 하며, 무녀들의 경우 배에서 굿을 하면 신의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게 되므로 그때 정한다고 한다. 또한 선주의 꿈에 성주가 나타나면 알게 되는데, 남자 성주는 한지만 매달고, 여자 성주는 삼색 천을 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여자 성주가 많다고 한다.

속초지역은 배에는 여자 성주가 많은데 배를 만들어 배내릴 때 성주를 모셔놓고 술 한 잔씩 올린다. 술잔은 성주 앞에 올리고 바닥에도 뿐리고, 첫 설망할 적에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를 성주님한테 바친다. 성주는 일번에 한 번씩 정총 가는데 다시 모실 때는 과거에 명태를 올렸는데, 지금은 오징어를 올린다. 성주는 실하고 한지를 매달아 성주신임을 보여준다. 바다에 나가서 일기가 나쁘면 성주가 운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배성주 성별을 나누는 방법으로 무당에 의한 결정, 혼몽, 마을 성황신의 성별에 따르는 경우, 배만드는 목수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배성주제는 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띄울 때인 설망 시에 소나 돼지를 잡아서 지낸다. 배성주에게는 초하루나 보름에 고사를 지내는데, 고기와 메를 바치고 향과 초를 피우고 빈다. 배성주에게는 첫 날 첫 낚시하여 잡은 생선을 반드시 바치고 화장(배에서 밥하는 사람)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용왕님 잡수십시오”라고 빌면서 바다에 던진다.

성조신은 성주님, 성주대감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집안의 안녕을 유지해주는 최고신이다. 성조신의 형태는 종이와 단지를 모시는데 도문동 지역에서는 성주단지라고 하여 뚜껑이 있는 막단지에 맨 처음 방아 짹은 수댓쌀을 넣는다. 농사가 잘되고 무병과 평안이 목적인데 성주단지는 반드시 안방 위 공간에 올려놓거나 상량대 밑 다퉁공간에 성주한지와 함께 모신다.

한지를 매다는 성주는 부엌으로 통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상량대 밑의 동자기등 상단에 매단다. 성주단지에 넣은 쌀은 꺼내서 떡을 해먹거나 이웃과 나눈다. 이사 갈 경우 단지는 산에 묻고 종이성주는 마을 앞산의 나무에 매달아놓고 간다. 성주단지 속에는 헷벼를 그냥 넣기도 하는데 이때는 창호지 한 장을 접어 명주실 한타래를 동여매어 단지 손잡이나 상량대에 다시 매단다. 성주는 집을 세

로 짓거나 이사온 사람도 택일하여 모시는데 지금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조왕신은 부엌에 모시는 신으로 주부가 모신다. 조왕신은 신체는 따로 없고 ‘부뚜막신’이라 하여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기도 하고 안택제때 솔뚜껑을 뒤짚어놓고 그 위에 간단히 제물을 진설하고 위한다. 조왕신은 집안에서 위급할 때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찾는데 조왕신을 잘 위하면 먹는 복을 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쇠구영신’은 군웅신이라고도 한다. 소의 건강을 기원하는데 ‘소삼신’이라고도 한다. 군웅신은 육축을 관장하는 신인데 농가에서는 소를 위해 믿는다. 한지를 외양간 입구에 매달기도 하고 배를 찰 때 말코 옆을 끊어서 매달기도 하고 구멍난 돌을 매달아 소의 순산을 빌기도 한다. 안택제를 지낼 때 팔떡을 제물로 놓고 빈다.

‘삼신’은 잘 알려져 있듯이 자식을 점지해 주는 태신이다. 보통 ‘삼신할머니’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인식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자식에게 병이 있을 때 찾는다. 신체는 보통 안방 시렁 위나 천정 구석에 모시는데 그릇에 쌀을 담기도 하고 배를 만든 주머니에 쌀을 넣어 시렁 위에 걸어놓는다. 아이를 낳은 집에서는 동쪽 방구석에 정화수 한 대접, 메 한 그릇, 미역국을 차려놓고 위하고 아기가 혹시 아프면 또한 이렇게 차리고 빈다.

‘영등’을 속초지역에서 잘 모시는 풍신이다. ‘영동할머니’라고도 하는데 음력 2월 초하룻날 내려왔다가 15일날 하늘로 올라가고 20일날 수부신도 마저 올라간다고 한다. 보통 장독대에 비늘 없고 비린내 안 나는 명태에 무를 넣고 와찌기를 끓어놓고 빈다. 팔밥을 함께 차리고 하는데 나물과 주파포를 차리며 주부가 빈다. 이 날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여 풍년이 들고 바람불면 바람영등이라고 그 해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측한다. 영등할머니는 매우 까다로운 신이라고 한다.

‘지신제’는 속초지역에서 ‘터주제’라고도 하는데 땅을 신을 위하는 것으로 정초에 농악대가 와서 지신밟기를 해준다.

### 2) 마을신앙

마을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서낭제이다. 이를 성황제라고도 하는데 속초역시 동네마다 서낭당이 있다. 주로 바다가 보이는 쪽에 위치하고 있거나 마을이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다. 동네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마다 제사일이 다르다. 장사동은 8월 한가위를 전후하여 택일하고 도문동은 동지달 초순, 영랑동은 단오와 동지에 두 번지내고 3년에 한번 굿을 한다. 대포동은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고, 외옹치는 3월 3일과 9월 9일, 물치는 음력 3월 3일과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년에 두 차례 지내는 마을이 한 번으로 줄여서 지내기도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제관의 고령화로 몇몇 사람들의 마을제사로 축소된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대포동은 외옹치 마을인 밧독재에서 서낭제와 용왕제를 지내고 목장승제를 지낸다. 노학동 학사평에서도 1930년대 까지 장승과 수살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외옹치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대포동은 3년마다 풍어굿을 하는데 근래는 5년마다 굿을 하기도 한다. 외옹치 서낭당에는 정면에 화상이 그려져 있고 ‘성황대신지위’라고 위패를 써서 모셔놓았다. 영랑동과 중앙동, 장사동에도 화상이 걸려 있다.

어촌서낭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청호동 서낭제를 중심으로 마을제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호동은 동쪽으로 바다, 서쪽 청초호 사이에 형성된 마을로 본래는 백사장이었다. 그러다가 실향민들이 이곳에 모여 들면서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수복 이후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주하여 속초리 5구가 되었다. 이후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청호동이 되었는데, 1통은 심포마을, 3통을 영홍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사람 허리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창문과 출입구만 지상으로 내놓은 토굴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해일만 일면 마을이 훑쓸려 갈 정도였는데, 이러한 피난민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분적인 개축이 허용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항지구이므로 도로가 협소하고 불량 노후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아직까지 피난민촌의 인상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년 전 해일피해로 방파제가 무너지고 마을이 위험에 처하자 시에서 부월리에 연립주택 400여 호를 지어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있다. 청호동은 함경도 어민들이 주로 월남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이들이 계속된 어로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항만에 접한 작은 반도이므로 주민의 60%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아 남하한 실향민의 70%가 집단 정착하고 있으므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규제가 많아 계획도시로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동에서 무동력 운반선인 갯배를 이용하였다. 청호동의 상징물인 이른바 ‘5구도선장’은 실향민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 날랐다고 할 수 있는데, 함경남도 해안가 주민들이 배를 타고 월남하여 지금도 ‘북청상회’ 등의 상호명을 볼 수 있다. 북청군민들은 수복후 1958년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자놀음으로 실향의 한을 달래며 통일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속초문화원 이사인 김철섭 씨의 부친 김윤삼 씨도 북청사자놀음에 대해 자세히 고증하였는데,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 친목계가 속초에 결성되면서 이들이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중심이 되어 사자놀음을 전승했다고 한다. 1944년 통계를 보면 당시 북청군민이 총 28만 4천 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4만 명 정도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속초에는 300내지 400가구가 모여 살았다.

서낭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낸다. 어촌계에서 주관하므로 해서 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서낭당은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길목 야산에 있어 동해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대략 40년 전에 선주들이 풍어와 안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내던 곳이다. 주민들은 청호동민들이 점차 들어나면서 이곳에 성황당을 세웠다.

제당은 외벽에 ‘城隍堂’이라고 고덕체한자로 써서 걸었으며, 건물은 시멘트로 가로와 세로 3m 정도의 넓이로 한 칸 건물을 지었다. 지붕은 시멘트 기와를 얹었으며, 시멘트로 담장을 쳤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남녀신 화상이 걸려 있으며,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남서낭신은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이며, 여서낭신은 족두리를 쓴 여인모습이다. 제단위에는 촛대와 연꽃 지화가 양쪽에 있고, 벽에는 오색 예단을 걸어놓았다. 또한 우측에는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오방위기를 보관하고 있고 벽에는 청호동 수산협동조합원 명단을 붙여 놓았다.

청호동 서낭제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제물은 삼색실과, 어물 등을 장만하여, 이외에도 소머리를 반드시 쓴다고 한다. 마을 제사 때 제관은 고령자 중에서 부정함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며, 제사를 진행한다. 선주들은 서낭제 때 이외에도 정초에 첫출어를 할 때나, 어로작업이 부진할 때 성황당에서 와서 기원을 하고, 객지에서 이쪽으로 고기 잡으러 온 어부들도 풍어와 안녕을 빌고 있다.

주로 선주들이 가고, 선원들 중에서도 배를 새로 사면 가서 제사지내고, 또 객지 사람들이 남바리 와서, 장기간 한 달 이상 배를 대고 조업을 하면, 제일 먼저 성황당을 찾아간다. 서낭당위치가 바다가 보이는 명당이다. 옛날에는 소를 두 마리씩 잡고 했는데,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지낸다. 이밖에도 3년이나 5년마다 풍어제와 용왕위령굿을 어촌계 주관으로 거행하는데 풍어제는 만선을 기원하는 것이고, 용왕 위령굿은 수煞굿 계통으로 바다에서 어로 작업 중 희생된 어부들을 위한 영혼위령굿이다.

마을신앙의 한 형태로 산신제가 있다. 설악산신제는 유서 깊은 제의로 신라 때부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설악산신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소사(小祀)로서 국가적 치제를 행했다. 신라 때는 삼산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대중소사로 나누어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당시 설악산신제를 지냈으며 오늘날까지 설악문화제의 중심적인 산신제로 계승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신제로 산삼을 캐는 심폐마니의 제의가 있다. 설악산에서 산삼을 캐는 심폐꾼들은 산삼을 캐러 가서 금기를 하고 목욕재계를 한 다음에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 산신령에게 새옹메를 바치고 산삼을 점지해 달라고 빈다.

### 3)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무당들에 의해 치러지는굿이 대표적인 제의다. 개인가정굿과 마을 공동굿, 축원굿과 오구굿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동굿으로는 별신굿과 풍어굿이 전승된다. 이 굿은 속초경신연합회 소속 무녀들이나 동해안별신굿 계보의 무녀들이 참가하여 굿을 한다. 속초의 무당은 만신 또는 대신,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통 12석을 한다고 한다. 대체로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성주굿, 망자굿, 세존굿, 오구굿, 별상굿, 대감굿, 말명굿, 칠성산신굿, 꽃노래, 뒷풀이 등이 있다. 12거리가 아닌 일반굿은 병굿, 혼신굿, 수살굿, 재수굿, 화도굿, 신굿, 망령굿, 살풀이, 고사 등이 있다고 하는데 재수굿이 가장 많다고 한다. 혼신굿은 결혼혼신굿이라고도 하는데 사혼(死婚) 또는 허혼(虛婚)을 말한다. 즉 처녀 총각이 죽었을 때 산 사람과 똑같이 사주단자를 주고받은 다음 초례도 치르고 영혼을 잘 천도하며, 화도굿은 미치는 병이 있을 행하는 낳기 위해 하는 치병굿이다. 신굿은 강신을 하기 위해 받는 굿이고 수살굿은 오구굿이라고도 한다. 속초의 수살굿은 바다에서 익사했거나 비명횡사를 했을 때 한다. 무속인은 만신, 무당, 복술, 명신동자, 절래 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개인에 따라 무속인 분류도 다르고 굿의 명칭도 다르다.

#### (가) 용왕굿

청호동에서는 선주들이 각자 용왕제를 지내기도 하고, 어촌계의 주관으로 3년마다 용왕제를 공동으로 지내는데 이것을 ‘배신굿’이라고도 말한다. 청호동 바다의 용왕신을 달래서 어민들의 안과 태평을 바라는 것이다.

용왕제는 풍어굿을 겸하는데, 첫째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의 성격이고, 둘째는 바다에 나가서 사고 없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의 성격이 있다. 용왕제 때 행해지는 굿은 풍어굿과 수살굿으로 나눌 수 있는데, 풍어굿은 만선을 기리는 축원굿 계통이고 수살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오구굿 계통이라고 하겠다.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으면 혼을 불러서 고사를 할 때 용왕님한테 “아무개 김뭐이, 최뭐이 이름 써서 산닭 집어넣고 그 사람 혼이 나와 달라”고 그것을 사해용왕님에게 육지로 환생해 달라고 빈다. 혼을 불러올 때는 닭을 넣어야 하는데 닭을 안 넣으면 그 혼이 안나온다고 한다. 밥그릇에다가 밥을 떠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매어서 고나풀을 길게 하고 닭도 밭을 묶어 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무당이 “용왕님, 사해용왕님요. 내 명에 죽었는지, 남의 명에 죽었

는지, 용왕님 앞에 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쌍한 중생 혼을 좀 육로로 환생 시켜 주옵소서”하고 그 닭이 물에서 휙 뱉기다가 물먹고 죽으면, 혼을 건진 것이라고 한다. 닭이 숨지면, 그것을 불러내다가 땅을 파고 그 해 손없는 방위에다가 땅을 파고 닭을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 혼이 나온다고 믿는다.

청호동 무속굿은 풍어굿, 성황굿, 수살굿이 주류다. 무속굿에는 개인가정굿과 마을공동굿이 있는데, 공동굿에는 별신굿과 풍어굿이 있다. 굿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성주굿, 망자굿, 세존굿, 오구굿, 별상굿, 대감굿, 말명굿, 칠성굿, 산신굿 등이 있다.

### (나) 수살굿

수살굿은 어촌굿으로 지역성이 강조된 예로 청호동에 거주했던 빈순애 무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청호동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업중 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정이 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닿아 몸이 아프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살아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혼백을 떨쳐 버리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굿이다.

수살굿의 절차는 먼저 ‘혼부름’이다. 무녀 2명, 화랭이 2명, 사공 1명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지고 간 산 닭다리에 끈을 묶어 바다에 던진다. 이때 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서 같이 던진 다음, 남자 무당인 화랭이가 혼을 끌어 올리는 대나무인 ‘인흔’에 죽은 사람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매달아 빙글빙글 돌리면서 ‘금일 영가 아무개 영가’라고 망자를 세번 부른다. 이러면 배에 있는 상주가 대답을 한다.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 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육지환생하옵소서’라고 고축을 한다. 이 과정은 상례의 초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흔대를 몇 차례 더 휘두른 다음에 인흔대를 내려놓고 마른 옷을 바다에 던진 닭과 밥그릇을 끌어 올린다. 올라온 닭이 죽지 않았을 때는 혼백을 끌어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화랭이는 끈을 당기면서,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바다에서 건져낸 혼백을 담은 뜯자리와 위패는 굿당으로 모신다.

다음은 ‘수살잡귀구축’인데 죽은 닭은 곧 망자의 육신을 상징하며 여기에 혼백이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에게 덮혀 소나무 신목을 잡고 강신이 되면 굿당에서 혼실을 건져 싸고, 가지고 온 뜯자리를 보고 쓰러지면 무녀가 미망인을 뜯자리를 덮어준다.

무녀는 복승아나무를 가지고 뜯자리를 때리면서 “온다. 귀신아 물에 수살귀신, 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 많고 원 많은 귀신들아. 잡귀잡신들 물려가라”하며 수살잡귀를 내쫓는다. 이렇게 해야 미망인이 제 정신이 들고

아픈 몸이 낫는다고 한다.

다음 절차는 ‘길가름’으로 미망인이 혼백을 길가름하는데, 이는 혼백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게 서면 무녀는 돛자리와 혼백상자를 안고 춤을 추면서 광목천을 가른다. 무녀가 천을 가르면 길 가름을 하면서 혼백상자를 이끌고 나갈 때 상주들은 천위에 노자돈을 놓는다. 천을 갈라 두 절래가 되면 이를 잡고 극락춤을 춘다. 마지막은 ‘극락춤’인데 무녀가 선소리에 맞추어 출상소리를 하면 상주들이 뒷소리를 부른다. 이 모습은 발인과정으로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추고, 가정의 태평과 안일을 기원한다. 이 극락춤은 상주뿐 아니라 평소에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이 수살 고혼이 된 망자의 혼백을 견져서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오구굿 의식이다.

## 라. 속초의 통과의례

통과의례(通過儀禮)는 관혼상제라고도 하는데 한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형식이다. 인생의 긴 과정에서 출발과 종착점은 출산과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혼상제 뿐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된 것, 백일, 첫돌, 회갑 등 기념일과 관련된 것이 있다. 지금은 통과의례도 간소화되어 그 의미가 상실하였거나 축소된 것이 많은데 관례는 성인식으로 바뀌었고, 혼례는 서양식으로 변했으며, 상례는 현대화 하였고, 제례도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례는 비교적 전통적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서구화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겠다. 통과의례의 속초지역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의례는 가문과 개인에 따른 차이가 심한 편인데 크게 보면 기자속(祈子俗), 산전속(產前俗), 산후속(產後俗)으로 나뉜다. 기자속은 아들낳기를 바라는 풍속으로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서 아들을 원하는 집에서 강한 집착을 보인다. 기자행위에는 치성형기자와 특정사물이나 음식에 의지하는 주술형기자로 나눌 수 있다. 치성형기자는 설악산이나 절에 가서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대부분 설악산에 많이 가는데 몸을 깨끗이 하고 근신한 후에 바위나 고목이 있는 곳에 가서 쌀, 과일, 향, 초, 소지종이를 차려놓고 메를 지어 올리고 축원한다. 축원 후에는 소지 종이를 태우는데 곧장 위로 잘 올라가면 좋다고 한다.

『태교신기』(1877)에 의하면 ‘스승 십년이 어미 열 달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 만큼 태교가 중하다는 말이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이나 가문에 따라 차이가 난

다. 아기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습속을 산속(產俗)이라고 하는데, 통과의례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출생의례이다. 오늘날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므로, 고유한 산속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산속은 자식낳기를 바라는 기자속, 출산을 전후한 산전속과 산후속 그리고 육아속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5책(산속편, 하권, 1994)을 참조하고 현지조사를 보태었다. 청호동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자속(祈子俗)

-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에게, 어떻게 기원하는가?
  - 산에 가서 빈다. 삼신께 빈다. 바위에 가서 빈다. 칠성께 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용왕님께 빈다. 서낭님께 빈다.
  - 산월에 일부는 어떠한 음식을 가리며, 또 먹으면 어떻다는 것인가?
    - 토끼고기, 오리고기(발가락이 붙는다), 닭고기(닭살이 된다), 상어고기(피부가 거칠다), 개고기(아이가 사람을 문다), 문어고기(머리에 부스럼 생긴다), 오징어(빼없는 아기를 낳는다)를 먹지 않는다, 상가(喪家) 음식은 먹지 않는다.
    - 잉태 후는 물론 산월이 가까워지면 산모가 금기하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고,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아궁이 수리를 않는다. 문구멍을 바르지 않고 굴뚝을 고치지 않는다(코가 막힌다. 손가락 없는 아기를 낳는다). 소고삐를 넘지 않는다(열 한 달만에 아기를 낳는다). 귀퉁이나 마루에 걸터앉지 않는다. 산소에 가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을 보지 않는다.(불부정은 큰 부정이다)
      - 신생아를 위해서 가족들이 먹지 않고 가리는 음식은 없는가, 또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개고기, 상가음식을 먹지 않는다.(부정 탄다)
        - 신생아를 위해서 가족들이 금기하는 일은 없는가. 만일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개, 닭, 돼지 같은 것을 살생하지 않는다. 상가에 가지 않는다.
          -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할 때에 어떻게 해서 미리 아는가?
            - 아기가 올려 붙으면 딸, 내려붙으면 아들이다. 뒤에서 불렀을 때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 오른쪽으로 뒤돌아보면 딸이다. 먼저 난 아이가 안길 때 궁둥이를 들이밀고 안기면 아들이고, 앞으로 안기면 딸이다. 산모 배꼽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들, 오른쪽에 아기가 있으면 딸, 왼쪽이면 아들이다. 신랑과 신부가 나이를 합해 짹수면 딸, 홀수면 아들이다. 두 사람의 나이를 합해 문살을 세었을 때 문살에 맞으면 아들, 창호지에 맞으면 딸이다. 산모의 궁둥이 모양을 보아서 뒤로 빠지면 딸이다. 먼저 낳은 아이가 홍두깨를 집으면 아들, 주걱을 집으면 딸이다.

- 아기를 낳을 날짜를 미리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 경도를 보아서 알 수 있다.
- 난산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순산할 수 있는가. 또 안산(安産)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미역국과 쌀로 죽을 쑤어 마당이나 뜰에 뿌린다. 순산한 여자의 치마를 입거나 허리띠를 두른다. 피마자기름을 먹는다. 은가락지를 삶은 물을 먹는다. 한약을 먹는다. 굴뚝 밑에 밥을 해놓고, 바가지를 엎어놓고서 빈다. 아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치마로 허리를 묶는다. 남편이 허리를 타 넘는다. 삼신께 백일치성 드린다. 둘 바위에서 정성을 드린다. 농문, 대문, 솔뚜껑 등 모든 문은 다 열어 놓는다.
- 아기가 유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심한 일을 하지 않는다.
- 태몽에 아들과 딸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태몽은 적중하는가, 믿지 못할 것인가?
- 흰 구렁이, 붉은 고추, 고구마, 호랑이, 밤, 배, 용은 아들, 파란고추, 또와리, 호박, 꽃, 가위, 실은 딸이다.

#### (나) 산후속(產後俗)

- 아기를 출산한 후 삼가는 음식은 무엇인가?
- 김치, 과일, 호박, 무, 배운 것을 먹지 않는다(치아가 상한다). 삼가 제사음식은 먹지 않는다(부정 탄다).
- 출산 후 산모가 회복될 때까지 첫날부터 3·7일까지 식사는?
- 첫 칠일까지 미역국과 밥을 먹는다. 세 칠일까지 먹기도 한다.
- 아기를 낳은 직후 금기하는 일과 이를 벼하면 어떻게 되는가?
-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아기를 업지 않는다. 상제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 맷돌이나 절구질을 하지 않는다.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맷돌에 앓지 않는다(밑이 빠진다). 물동이를 들지 않는다(밑이 빠진다). 못을 박지 않는다(눈에 삼이 선다). 상가에 출입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난 곳에 가지 않는다. 삼칠 일까지 이러한 것을 지킨다.
- 신생아를 위해 가족들이 가리는 일은 없는가. 만일 벼하면 어떻게 되는가?
- 삼가에 가지 않는다. 개나 닭을 잡지 않는다. 산모가 금하는 것과 일치한다. 빨래를 하지 않는다. 기름에 튀기지 않는다(몸이 홍역한 것처럼 된다).
- 아기의 태는 누가 무엇으로 가르는가?
-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산파할머니, 본인, 남편이 가위, 수솟대, 이빨 등으로 가른다.
- 아기의 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돌을 달아 바다에 띄운다. 태워서 뒷간에 버린다. 산에 묻는다. 아궁이에서 장작불에 태운다. 말렸다가 태열이나 경기를 할 때 아기에게 달여 먹인다.
  - 아기를 낳는 방은 어디로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따뜻한 안방,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산후통이 온다.
  - 같은 해나 같은 달에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동시출산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또 가축과 같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 한 해, 한 집에서 두 명이 출산할 때 한 사람은 다른 집에 가서 낳는다. 외가에서 낳았을 때는 손 없는 날에 집으로 온다.
  - 아기를 낳았을 때에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 원새끼로 꼳 금줄을 대문에 맨다. 소아피(솔가지)를 섭찌질(대문간)에 건다. 아들은 숯, 고추, 솔가지를 달고 딸은 숯과 솔가지를 단다. 삼칠일이 되면 대문 한 쪽으로 밀어 놓는다.
  - 삼신을 모시는 곳과 표식 등은 어떻게 하는가?
- 아기 머리맡에 모신다. 세 분을 모신다. 3·7일 동안 모신다. 시어머니가 모신다. 미역국과 메 한 그릇, 수저 3개를 상위에 차린다. 바가지에 쌀을 넣어 벽의 구석에 모시고 한지도 매단다. 삼신할머니, 삼신할아버지, 아기 등 국과 메를 모두 3개씩 차린다. 아기 낳고 3일 만에 모신다. 첫 칠일, 두 칠일, 세 칠일, 백일, 돌에 모신다. 주머니에 쌀과 실, 고추를 넣어 벽에 건다. 밥과 국, 물 한 그릇, 실 한 타래를 상위에 놓고 촛불을 켜놓고 시어머니나 무당 할머니가 빈다.
  - 아기의 옷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드는가?
- 주로 할머니나 어머니가 흰색으로 만드는데, ‘배내저고리’ ‘첫저고리’ ‘배안옷’이라 부른다. 첫아기의 것을 두었다가 입히는데 융으로 만든다. 실이나 끈으로 옷을 묶어준다. 포대기도 미리 만드는데, 아기를 낳은 후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 산파는 누가 맡는가?
-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복 많고 자손 많은 이웃할머니, 순산한 여자, 본인이 한다.
  - 산파에게 사례로 무엇을 주는가?
- 옷 한 벌, 벼선, 신발 등을 해준다.
- 아기의 장수와 다복을 위하거나, 딸일 경우 그만 낳으라고, 천한 이름을 지어 부르는 예가 있는가?
- 개똥이, 오쟁이, 마당쇠, 바위, 부엌쇠, 정낭쇠, 서낭쇠(서낭에 팔았다는 뜻), 칠성바위, 돌바위, 정성이, 뒷간쇠, 딱막이, 광줄이, 부엌띠기라고 짓는다.
  - 배내머리는 언제, 누가 깎아주는가?
- 세 달 후에 자른다. 그냥 놔두면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긴다고 그냥 놔두었다

가 아주 길면 자른다. 날을 받아서 어머니가 머리 꼭대기를 남기고 자른다.

- 아기의 손톱과 발톱은 언제 누가 무엇으로 자르는가?

- 아무 때 잘라준다. 치아나 가위로 어머니가 자른다. 백 일전에 자른다.

- 아기의 목욕은 언제, 어떻게 하는가?

- 배총이 떨어지면 매일 씻긴다. 하루걸러 씻긴다. 머리부터 씻긴다. 하루는 치 씻기고, 하루는 내리 씻는다(살이 골고루 불고 잘 자라라는 뜻이다)

- 아기의 돌잔치는 어떻게 하는가?

- 백일에는 밥과 국을 해서 동네사람과 먹는다. 수수떡과 백설기, 수수팥떡을 하는데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눠먹으면 좋다고 한다. 수끼떡(수수떡)은 바람을 물리치라고 만든다. 돌상에는 책·연필·돈·쌀·방망이, 실, 붓 등을 올려놓고 아기가 무엇을 집는지 보아 미래를 점친다. 이것을 ‘돌 잡힌다’고 한다. 아기를 낳은 자리에 짚을 깔고 국밥을 올려놓고 삼신께 빈다.

- 아기의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가?

- 배꼽을 두었다가 태열이 있거나 경기를 할 때 태워서 기름에 개어 아기에게 발라준다. 바람막이로 아기 머리에 영사를 바른다.

-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 돼지족을 삶아 먹는다. 까치고기를 먹는다. 가물치고기를 우물가에서 먹는다.

- 아기가 첫나들이하는 때와 외가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 첫나들이 할 때 아기가 울면 자리도움을 하는 것이므로 빨리 집으로 돌아온다. 외가에 갈 때는 저고리 안섶에 바늘을 꽂고, 깃고대에도 바늘을 꽂고 변소에 들렸다가 들어간다. 아무렇게 하고 외가에 가면 아기가 아프다.

- 그밖에 출산에 관한 관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아기를 출산한 방은 짚을 깔고 난 후에 3일이 지나 거둬서 태운다. 산모가 목욕재계하고 나면 방을 청소한다. 산모는 쑥을 삶은 물로 쑥찜을 한다.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산모의 젖이 많으면 짜서 반드시 굴뚝에 버린다. 아무 테나 버리면 나쁘다.

## 2) 백일, 첫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삼칠일까지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백일이 되면 아기를 위한 경축일이 된다. 백일잔치는 잘 차려서 이웃 잔치식으로 하는데 아기의 무사함을 축하한다. 백설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백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속초에서는 여러 집에 돌리고 ‘바람 물리치라’고 수끼떡(수수떡)을 만들어 먹는다. 백설기와 수수떡은 악살을 막아준다고 반드시 백일 상에 올린다.

첫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1주년이 돌아오는 날이므로 ‘돌잔치’를 잘 차린다. 아기가 원하는 것을 잡도록 돌 상위에 돈, 책, 실, 연필, 쌀 등을 올려놓고 ‘돌잡이’를 한다. 요즘은 식당을 빌려서 손님을 초대하는데 과거에는 집으로 이웃을 불러 국수를 삶아서 잔치를 하고 떡을 해서 나누어 주었다. 아기가 돈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되겠다고 하고, 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고, 실을 잡으면 수명이 길 것이라고 점치며 즐거워한다. 여자아기의 경우 가위를 올려놓는데 이것을 잡으면 손재주가 좋겠다고 한다. 이렇게 ‘돌 잡힌다’하며 돌날 아침에 미역국을 떠서 삼신할머니를 위한 집도 있다.

### 3) 회갑

회갑(回甲)은 화갑(華甲)이라고도 하는데 육십갑자로 자기가 낳은 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甲’은 갑자를 뜻하고 ‘華’자는 풀어서 61이 된다고 한다. 대체로 고려 초기부터 회갑연을 열었던 것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 회갑은 당사자 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을 받는다. 이를 수연상(壽宴床)이라 하며 자손들이 변창함을 이웃친지에게 보여주고 부모가 오래 산 것을 축하드리는 자리이다. 지금은 회갑연도 예식장을 빌리거나 호텔연회장에서 손님을 초대하기도 한다.

### 4) 상장례

상제례(喪祭禮)는 혼례와 달리 전통성이 강한 면모를 보인다. 청호동의 경우 혼례문화는 현대화되었으나 상례와 제례는 아직도 북한 지방의 풍속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정착한 청호동 실향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상제례를 통하여 자신끼리 정신적으로 결속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함경도의 상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3일장을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오일장이나 칠일장, 십 일장 또는 십 오장도 지낸다고 한다. 청호동에서는 보통 삼 일만에 내 간다고 한다.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 염습, 성복, 문상, 치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임종 즉 초종을 맞게 되면 자손들이 지켜보는데 숨을 거두는 것을 행복한 임종이라고 한다. 이때 초혼 즉 고복을 하는데, ‘흔 부른다’고 말한다.

남자의 경우 ‘아무개생 아무개 복복복’ 이렇게 외치고, 여자의 경우는 아무개 부인이라고 한다. 고복이 끝나면 ‘수세건음’을 하는데 손을 펴서 배위에 올려놓고, 발을 똑바로 세운 다음,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다음에 한지를 세 번 두르거나 베로 손목, 발목, 허리를 묶는다.

이것이 끝나면 역복을 하는데 상주들은 직령으로 갈아입고 남좌여우라하여 남자가 돌아갔을 경우 왼쪽 팔, 여자의 경우 오른팔을 끼지 않고 통건을 쓴다.

호상은 상주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모든 일

을 처리한다. 염습은 습과 소렴으로 구분되나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하는 것이다.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아주 묶어 입관하는 것이다.

수의는 '습의'라고도 하는데 생시에 마련해 둔 속옷, 중의, 바지, 속직삼, 직삼, 저고리, 덧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히는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반합이라하여 쌀을 불려 시신의 입에 떠넣는 것이다. 저승갈 때 식량이라고 한다. 반합은 세 번하는데, '천석이오, 만석이오'라고도 하고 동전을 같이 넣으면서 저승가는 노자로 쓰라고 '백냥이오, 만냥이오'라고도 한다.

다음에는 교포를 쓰는데, 시신을 묶은 다음 입관하고 천금을 덮는다. 그리고 관뚜껑을 닫고 결관을 한다. 관위에는 명정을 써서 덮는다. 이 과정인 염습이 끝나면 성복을 한다. 성복이 끝나면 혼백을 접고 궤연을 설치하여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을 한 후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데 이 과정이 끝나는 3일장이나 7일장 후에 치장을 한다. 장지가 결정되면 출상 당일 발인제를 지낸다. 청호동의 경우는 함경도 각지역 도민회에서 마련한 장지가 있으므로 그곳으로 향한다. 이후 치장을 하는 과정은 줄인다.

제례는 차례 또는 차사, 절사라고 하는데, 전에는 설, 대보름, 한식, 추석, 동지 등에 지냈으나 요즘에는 설과 한식, 추석차례를 지내고 있다. 초저녁 제사는 없고, 주로 새벽 서너 시에 지내고 있다. 조상제례는 시제, 기제, 묘제 등이 있는데, 사당제는 거의 없어졌다.

기제는 삼 년 이상 지난 망자의 죽기 전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개 고조 까지 지내고 그 위는 시제나 절사만을 지낸다. 절사는 명절에 묘지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지낸다. 제의 대상은 직계조상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치'자 들어간 생선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도치를 싱어, 새치를 임연수 라하여 제물로 쓴다.

제사 음식의 그릇 수는 반드시 홀수로 장만하며, 날회는 쓰지 않으며, 김치는 셋어서 담는다. 닦은 대꼬치에 꽂아서 굽고, 무 숙채는 반드시 만들어 올린다. 떡은 편틀에 고여 담는데, 제편, 약계, 중계, 인절미, 절편, 솔편, 웃지지 순서로 고인다. 떡에는 차좁쌀로 만든 조찰떡을 비롯하여 시루편, 자바위 등이 있는데 자바위는 찰떡을 쳐서 밀대로 밀어 얇게 하여 썰어서 기름을 치고 번철에서 구워내서 물엿을 바른 떡이다. 제사에 쓰는 과질은 찹쌀로 큼직하게 만든다. 대체로 크게 만들어 높이 고이며 젯상에는 붉은 빛은 안 쓰고 하얗게 만든 것만 쓴다.

## 마. 속초의 민속유희

### 1) 민속극

북청사자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자들이 1950년대 초반에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면서 속초사자놀이가 되었다. 함경도 사람들이 점차 집단화되자 1958년 청호동에 거주하던 김수석 씨가 처음 사자탈을 만들었으며, 1959년 5월 2일 속초에서 북청동향 친목계를 만들면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 공연단 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청도청 계칙 및 계원명단의 계요는 다음과 같다. 계칙은 전체 8장 23조로 되었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장 조직에서는 계원자격으로 당시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으로 하고 계원수는 36명으로 정했다.

3장은 권리와 의무로서 매월 20일에 월례회의를 갖는다고 하였고, 4장의 역원에서 계장1, 부계장1, 총무1, 재무1, 서기1, 간사1, 의식부2, 연예부2, 장의부2, 고문 약간명인데 중요한 것은 연예부에서 북청사자놀음에 관한 공연계획을 주무로 한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3월20일, 월례회는 매월 20일로 정해 고령자 순위로 자택에서 소집했다. 6장은 부조사업, 7장은 자금 및 운영, 8장은 상벌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계원명단의 나이 주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李貞基(63.북청읍 외서리), 吳景昌(59.내리), 金南龍(54.남리), 金壽石(52.죽평리), 李昌熙(52.거산면 평리), 李浩永(51.북청읍 외서리), 全三默(49), 方鶴福(48.북청읍 서리), 朴鎮漢(48.신북청면 신상리), 李在燮(47.신포면 육구), 崔舜在(47.하차서면 상신리), 李泌泳(48.북청읍 상동리), 李完燮(46.남리), 朴成哲(46.서리), 方錫洪(45.서리), 梁桂乾(45.덕성면 동암내리), 金河侖(45.신북청면 양가리), 魯允武(45.덕성면 동암내리), 朴庚亨(43.상차서면 방촌리), 劉弘烈(43.덕성면 주의동리), 李鍾旭(43.상차서면 엄동리), 方錫在(43.북청읍 서리), 李鍾俊(42.상동리), 魚重龍(42.날미), 馬房燮(41.가회면 봉의리), 金洪川(40.가회면 봉의리), 李鍾浩(40.북청읍 서리), 閔丙國(39.거산면 하입석리), 崔乘潤(39.건자포), 金孝煥(38.신포면 신포리), 金先川(38.북청읍 상동리), 李奧燮(38.서리), 吳東述(36.죽평리), 申謙(36.죽평리), 馬裕得(34.가회면 봉중리), 林龍泉(33.북청읍 북삼리) 등이다. 참고로 1943년도 통계에 의하면 북청군은 총 호수 38,916호에 총인구는 224,027명이었고, 8.15 당시에는 약 28만 명의 인구로 늘었다. 당시 북청군은 3읍 11면 123리였다. 참고로 상세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함경남도지, 1988, 중보판, 901쪽 참조)

- ① 북청읍:내리, 남리, 동리, 죽평리, 동홍리, 남홍리, 중평리, 당포리, 북상리, 불리, 장항리(12개리)
- ② 신북청면:신북청리, 동중리, 동상리, 신상리, 무우대리, 하호리, 양천리, 초리, 보천리(9개리)
- ③ 신창읍:신창리, 만춘리, 경안대리, 승평리, 토성리, 덕음리, 신풍리, 보청리, 장호리, 예원리(10개리)
- ④ 가회면:중리, 나홍리, 마산리, 봉의리, 초리(5개리)
- ⑤ 하차서면:상신흥리, 월산리, 덕우대리, 하신흥리, 월근대리, 임자동리(6개리)
- ⑥ 상차서면:상돌리, 신태리, 중돌리, 하돌리, 수서리, 업동리(6개리)
- ⑦ 거산면:평리, 상입석리, 상세동리, 포항리, 하입석리, 하세동리(6개리)
- ⑧ 후창면:통이리, 오평리, 당우리, 일리, 이리, 동평리, 부동리(7개리)
- ⑨ 성대면:창성일, 수서리, 조양리, 양평리, 보성리, 칠동리, 평리(7개리)
- ⑩ 이곡면:초리, 제초리, 제중리, 제상리, 중리, 인동리, 상리(7개리)
- ⑪ 신포읍:신포리, 문암리, 중홍리, 석정리, 연호리, 도서리, 토성리, 육대동리, 육대서리, 중보주리, 상보주리, 신호리, 노평리(13개리)
- ⑫ 덕성면:수동리, 서장내리, 동장내리, 만항리, 수서리, 니망지리, 서홍리, 어은리, 주의동리, 죽전리(10개리)
- ⑬ 속후면:서호리, 창성리, 오매리, 간평리, 남호리, 서원리, 현금리, 강상리, 의호리, 서도리, 상창리, 하천리, 나호리, 연주리, 광천리, 용전리(16개리)
- ⑭ 양화면:유호리, 모가대리, 창상리, 후호리, 호만포리, 부창리, 양화리, 남안대리, 동리(9개리)

위에서 북청동향친목계에서 나타났듯이 함경도 피난민들에 의해 북청사자놀음이 재현되었는데,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미 13세 때부터 사자춤을 추었고, 19세에 애원성을 잘 불렀던 죽평리 출신 김수석 씨가 속초에 살고 있었으므로 북청군민회에서는 이 분을 중심으로 출연단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북청사자놀음이 남한에서 공연되었고, 속초에서는 구체적인 전승을 위해 북청도청을 만들었고 당시의 친목계 36명이 참여하였다.

북청도청 기금 마련을 위해 1957년 정월대보름날 김수석 씨가 속초에 정착한 다음해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탈과 통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 사자춤을 추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였다. 당시 친목계원 중에는 김수석, 오동술, 김하륜, 이재섭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계원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을 골라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약 10일 동안의 결립에는 북청군민지역 독지가로부터 거둔 기금으로 1958년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 소재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도청을 건립하였다. 이와 같이 속초에서 북청도청을 중심으로 사자놀음이 재현되자 이북5도청에서도 1960년 서울에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 1964년부터 전수에 들어갔다.

1966년 10월 24일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 이재섭 등이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았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0년 4월에 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이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인정받게 되었다.

『신북청면지』(1986.156쪽)에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였다.

사자놀음이 8.15해방과 1.4후퇴후에 남한에서 북청의 민속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게 된 때부터였다. 당시 본면 東中里 출신 趙瑞喜씨가 북청군민회장과 초대 북청명예군수를 겸임하면서 북청사자놀음을 무형문화재로 문공부에 등록시킬 것을 결심하고 함경남도지사 徐南龍 씨와 의논한 바 서지사의 찬동을 얻었다.

연후에 개최된 함남 명예시장 군수회의에서 북청사자놀음을 함남무형문화재 민속예술로 지정하여 문공부에 등록시키는 모든 업무를 조서희 군수에게 일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군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기능보유자의 인선문제와 경비지출 문제는 북청군민회 총무부장인 본면 출신 조하립 씨에게 일임시켰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에서 邊永鎬·全仲植·金三龍·董誠英·董泰善·李根花善·田光石, 경기도에서 尹迎春·馬厚燮, 강원도에서 金壽石·吳東述, 부산직할시에서 馬羲秀를 기능보유자로 선정하여 약 일개월간 피나는 연습으로 마침내 1967년 2월 25일 시민회관에서 발표공연을 하여 심사에 합격되어 북청사자놀음이 함남무형문화재로서 제22호로 지정, 문공부에 등록되었다. 총 12명의 기능보유자중 신북청면 출신이 명이나 되는 사실만으로도 사자놀음이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속초에서 연희된 1957년 초창기의 북청사자놀음 연희자는 다음과 같다.

사자:김수석(앞채, 애원성), 오동술(뒷채), 양반:이종옥, 꼭쇠:양계건, 사당춤:박씨, 위원:장남우, 승무:김봉수, 총각:김원사, 곱추:마유득, 도깨비:김효환, 중국인:이종호, 악사: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여러 명이 참가함.

필자가 김수석, 김하륜 옹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희시기: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 ② 연회장소: 도청마당, 가가호호 방문
- ③ 등장인물: 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 춤 2명, 거사춤 2명, 사당춤 2명, 칼춤 2명, 무동춤 4명, 꽁새춤 2명
- ④ 가면: 양반, 꼭쇠, 사자탈(종이탈)
- ⑤ 악기: 통소 3~4개, 팽과리, 장고, 북, 징
- ⑥ 연회소요시간: 40~50분, 사자춤 5~10분
- ⑦ 연회내용: 벽사진경
- ⑧ 연회마당: 아홉곳거리 열 두마당
  - 아홉곳거리-입장곡, 애원성곡, 애구 내딸 봉섬이, 연풍대,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자유곡
  - 열 두마당-양반 꼭쇠의 해학마당정리, 애원성노래, 사당춤, 무동춤, 꽁새춤,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승무, 풍자, 군무
- ⑨ 사자탈: 1958년 제작된 사자탈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이다.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 높이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을 칠했으나 종이로 만들고, 털은 그물에 색칠을 함. 이상과 같이 탈을 만들고 연희가 진행된다.

## 2)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즐기던 놀이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향유한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담긴 것이다. 민속놀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논뫼호 불꽃놀이

청초호를 옛 문헌에는 쌍성호(雙成湖)라 하였는데 이곳을 조선시대 학자인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았다. 청초호는 지역에서 ‘논뫼호’라 불렀는데, 논뫼는 논산리를 뜻하므로 논산리 앞의 호수라는 뜻이다. 이곳 청초호에서는 낙화유(落火遊)라 부르는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진하는 말로는 조선 숙종 때부터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뫼호에 꽃배를 띄우고 놀았다고 한다. 이때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3일 동안 밤을 새우며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널빤지에 숯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고, 주민들은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수령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불꽃놀이를 할 때 구경나온 주민들도 함께 흥겨워하고 뚝에서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불꽃놀이는 지방민들이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이

다. 청초호는 호수 둘레가 수십리로 경치가 영랑호보다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곳에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시켰다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기록하고 있다. 이곳 청초호 불꽃놀이가 중단된 것은 조선조 말엽으로 불꽃놀이 중에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 (나) 나룻배싸움놀이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다고 한다.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한 어부의 실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이 불에 탔다고 한다.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청초호의 수룡이 죽고 말았는데,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를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에게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에서는 이긴 마을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이긴 마을은 풍어를 거둔다고 믿으며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놀았다고 한다.

지금의 청호동 갯배나루는 90m나 되지만 옛날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리 싸릿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는 대포동에 이르렀다. 나룻배싸움놀이가 시작되는 음력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용신제를 올릴 길일을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와 제관은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을 금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용신제를 올리게 된다.

이들은 풍년과 풍어, 마을 안녕을 기원한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을 찾아서 인사를 한 다음 음복을 한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와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술을 마시며 홍을 둑운 다음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승패에서 패자가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짓고, 막대기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 풍어를 약속받는다고 한다. 나룻배싸움놀이로 승패를 정하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펼친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받지 않으며, 푸짐하게 대우를 해주게 되므로 배싸움에 몰두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결혼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했는데, ‘흔례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또한 나룻배싸움 때에는 아들을 많이 낳은 집안의 장정들을 뽑아서 참여시키는 것도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룻배싸움은 결국 암수의 용이 결국 하나로 화합하는 절차로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나룻배싸움놀이는 일종의 용선희(龍船戲)로서 해양민속놀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다) 든대질놀이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개안(항구가 있는 곳)과 날바리땅(항구가 없는 모래땅)을 주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속초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오산, 수산, 인구, 북쪽으로는 봉포, 공현진, 문암, 가진 등은 날바리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이다.

옛날부터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올리는데, 1950년대 초기의 청호동, 장사동에서는 날바리 땅이었다. 날바리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시간을 다투어 배를 끌어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 있게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의 유창한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 소리는 속초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와 같은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 시에 사람들은 ‘배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솔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 만선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리고 빈다. 제물은 술, 과일, 포, 돼지머리 등이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지낸다. 동해안에서는 이것을 ‘설망’이라고 한다. 설망을 하는 날은 택일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 후에 배성주신을 모실 돈은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한지를 한쪽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개 여러 겹으로 접어서 돈과 청홍실을 넣어 어부들이 잡자는 ‘방장’이나 ‘큰 대명’(고기를 잡아서 담아두는 곳)에 모신다. 배성주신을 모실 때는 제물로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쓰지는 않는다.

선주가 제사의 주인이 되면 도사공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꽂고 드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들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로 배가 물에 떻게 되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파리’를 잡은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뜻을 옮겨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불을 붙여 뱃전을 돌고, 뒷고물을 휘두른 뒤에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를 하는 것인데, 삼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이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하는데, 이것은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든대질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성주기(만선기)-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끓고,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② 고사-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히 차린다.

③ 액막이-이것은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면서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 주술적인 행위를 말한다.

④ 비나리-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정을 치면서 기도를 드린다. 이때 꽈자는 입지 않는다.

⑤ 든대질-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릴 부르면서 배를 물에 내린다.

⑥ 설망-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면서 뜻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으면서 풍어를 빈다.

⑦ 풍물-주민들이 팽파리, 징 등을 울리고, 걸립 시 무녀가 함께 풍악을 울리며 배의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 4. 속초의 방언(方言)

### 가. 속초 방언의 위상

속초(束草)는 조선 시대의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도시이다. 그러다가 청초호(靑草湖)가 개발되면서 1937년에 속초면, 1942년에 속초읍, 1963년에 속초시로 계속 발전하였다. 속초시는 인접한 양양군과 고성군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제는 영동 북부 지역의 대표 도시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관광의 기점으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어 앞으로의 발전이 전망되고 있다.

강원도에 속해 있는 속초의 언어는 흔히 중부 방언으로 모호하게 분류되었으나, 이익섭(1981)에 이르러 강원도 방언을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쪽의 영서(嶺西)와 동쪽의 영동(嶺東)으로 이분하는 방언권 설정에 따라 영동 방언으로 분류되고, 영동 지역에서도 남부 방언과 구분되는 북부 방언권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김영황(1982), 황대화(1986) 등의 연구에 힘입어 강원도 영동 방언은 ‘경상-강원-함경’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방언의 성격이 규정되기도 한다. 특히 동해안 방언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강원도 영동 방언은 동남 방언인 경북 방언과 동북 방언인 함경 방언을 잇는 전이지대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승녕(1967)이나 김병제(1988)에서 구분한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방언 구획은 다음과 같다.

#### ○ 국어의 대방언 구획

- 가. 동북 방언 지역: 함경도 지역
- 나. 서북 방언 지역: 평안도 및 황해도 지역
- 다. 중부 방언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
- 라. 동남 방언 지역: 경상도 지역
- 마. 서남 방언 지역: 전라도 지역
- 바. 제주 방언: 제주도 지역

이러한 대방언권에 의하면 강원도에 속하는 속초는 중부 방언권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동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북 및 동남 방언권과의 공통 점도 가지고 있음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드러난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속초 방언의 위상은 중부 방언의 성격과 동해안 방언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 전이 지역(複合轉移地域)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영동 방언권인 속초의 언어는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함경 방언과 같은 북부 방언과 경상 방언인 동남 방언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영서로 연결되는 중부 방언의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방언의 삼각 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동 방언의 특성은 영동 방언만의 독특한 체계로서 기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속성 자체가 주변의 다른 방언과 항상 공통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적 성격으로 인하여 영동권인 속초 방언의 위상이 편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방언 연구의 충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동의 북부 방언권에 속하는 속초 방언은 같은 방언권이라 할 수 있는 강릉 지역이나 삼척 지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현식 1991).

- 속초 방언의 특징: 강릉 및 삼척 방언과 비교하여
  - 가. ‘ㅂ, ㅅ’ 보존형이 우세하다.
  - 나. 단어나 문장의 고저 억양이 심하다.
  - 다. ‘-나?’보다 ‘-니?’가 우세하다.
  - 라. ‘-니다. -니까?’가 ‘-네다, -네까?’에 가깝게 발음된다.
  - 마. 일부 단어의 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속초의 북부 지역인 함경도 방언의 영향과 함께 한계령 및 진부령을 통한 영서 방언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의 방언은 그동안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의 방언 조사에 있어서도, 속초 지역의 방언 조사 지점은 속초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양양군과 고성군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속초의 방언은 영동 방언과 동북 방언의 전이 지대로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호동이라는 방언섬이 집단 주거 형태로 존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 지역이다. 본고는 속초 방언과 청호동 방언에 간략한 보고서이다. 청호동 방언은 함경남도(주로 북청 지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으로서, 동북 방언의 생생한 증언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속초의 방언은 넓은 의미에서 청호동 방언을 포괄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청호동의 언어와 부단한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나. 속초의 방언 어휘와 언어적 특성

속초의 방언은 남쪽으로 인접한 양양과 북쪽으로 인접한 고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부적으로는 양양의 방언과 고성의 방언 사이에 위치한다

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강원도 방언에 대한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 의거하여 강원도 전역을 조사한 것이 가장 체계적이다. 그런데 속초 방언은 속초를 직접 조사 지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양양군과 고성군을 조사 지점으로 하였으므로, 「한국방언자료집」(강원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에만 의거한다면 속초 방언은 양양군의 것과 고성군의 양쪽을 참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방언자료집」(강원도편)에 조사된 어휘를 속초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일시와 제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조사 일시와 제보자 명단

가. 조사 일시: 2005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 제보자 명단

  용정춘(여) 1935년생 속초시 장사동

  박영화(여) 1936년생 속초시 장사동

  김연옥(여) 1936년생 속초시 동명동

  최선희(여) 1937년생 속초시 조양동

다. 보조 조사요원: 안홍주(여,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 1) 속초의 방언 어휘

속초의 방언 어휘는 「한국방언자료집」(강원도편)의 분류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다만 한정된 지면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표준어와 차이가 나거나, 또는 기존에 조사된 어휘와 차이가 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방언 어휘를 제시하였다.

### 2) 농사 어휘(표준어-속초방언)

- 범씨-배씨    ○ 뜻자리-모자리    ○ 애벌맨다-아이침맨다    ○ 결두리-젠페리    ○ 호미씻이-유듀놀이    ○ 쟁기-엔장    ○ 보습-벼셨    ○ 쇠-쇠꼽    ○ 극쟁이-가데기    ○ 자루-잘기    ○ 삽-삽/삽장    ○ 벼훑이-저폐    ○ 새끼-새끼/새꼬래기/새꼬락지    ○ 노끈-내끈    ○ 방석-맷방석    ○ 광주리-광지리    ○ 바구니-소쿠리    ○ 디딜방아-발방아    ○ 맷돌-망    ○ 겨-제    ○ 왕겨-셋제    ○ 등겨-등개    ○ 어레미-얼계미    ○ 조-조이    ○ 옥수수-옥씨기/옥세기    ○ 무우말랭이-무쏭스레기    ○ 호박고지-호박송씨래기    ○ 시래기-건추    ○ 쓰레기-씨래기/씰게비    ○ 채소-푸성구    ○ 황소-화소
- 쟁기꾼-성군    ○ 고무래-고물개    ○ 메밀-메풀    ○ 수수/수수깡-쉬끼/쉬깻대    ○ 논곡식/밭곡식-논곡/밭곡    ○ 논두렁-논두럼    ○ 씨아-쎄    ○ 번데기-번더지    ○ 거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름-걸금/거름 ○ 꽀-고질 ○ 물거름통-액비통 ○ 오물바가지-귀때동우

### 3) 음식 어휘

○ 김치-짠지 ○ 상추-불기 ○ 오이-물외 ○ 오이소박이-외짠지 ○ 부추-분추  
○ 이남박-쌀람박 ○ 주걱-박죽 ○ 누룽지-소쨍이 ○ 흰떡/가래떡-절떡 ○ 기계  
국수-틀국시 ○ 고명-꾀미 ○ 새알심-옹시미 ○ 수제비-뜨더국/뚜더기국 ○ 튀  
밥-깡밥 ○ 엿기름-질금 ○ 장독뚜껑-장뚝꺼리 ○ 주발뚜껑-복찌께 ○ 아궁이-  
보강지/아궁지 ○ 화로-화리 ○ 부젓가락-부절까지/부절 ○ 석쇠-모태 ○ 시루-  
실기 ○ 젓가락-절/절까지/절가락 ○ 메밀묵-소적(素炙)/소제기 ○ 김치꽝-짠지  
헛간 ○ 부순-불가래 ○ 과줄-과질 ○ 김장-짐장 ○ 광주리(를 엮다)-광지리(를  
엮다) ○ 벼무리(떡)-뭉셍이

### 4) 가옥 어휘

○ 살강/선반-실경 ○ (열쇠를) 열었다-베꼈다 ○ 배개-비개 ○ 웃잇/요의-웃니까  
○ 마루-마루/마릉 ○ 미닫이-미닫이/밀짱지 ○ 바람벽-배람짝 ○ 기와집-기와집  
/채집 ○ 용마루-용말기 ○ 용마름-곱새 ○ 낙숫물-지시랑물 ○ 장독대-장뚝꺼  
리 ○ 변소-정낭/정냥/벤소 ○ 우물-우물/옹굴 ○ 또아리-또바리/파바리 ○ 수령  
-수령/수력 ○ 고드름-고드레미/고등내기 ○ 토방-뜨력/뜰/뜰꽝 ○ 뒷결-된/두란  
○ 광-고방 ○ 뒤주-두지 ○ 부엌-정지 ○ 여물꽝-고지까리/고질간 ○ 외양간-마  
구 ○ (등잔의)그을음-끄시름/끄름 ○ (솥의)그을음-솥꺼망/계망 ○ 뒤주-두지  
○ 부등가리-불비땡이 ○ 내/연기-냉고리/연기

### 5) 의복 어휘

○ 허리띠-허리띠/허리바 ○ 염낭-주머이/염낭 ○ 고챙이-고재이 ○ 누더기-투데  
기 ○ 누덕누덕-투덕투덕 ○ 대님-대임 ○ 집신-집쎄기 ○ 끊다-뜨다 ○ 혼수감  
-혼초 ○ 헉겼-흉겼 ○ 깁는다-짓는다/찢어맨다 ○ 재봉틀-재봉 ○ 골무-골미  
○ 가위-가새 ○ 반진고리-반지그릇

### 6) 인체 어휘

○ 가르마-가름배 ○ 수염-헴/췌미 ○ 눈두덩-눈탱이 ○ 눈꼽-눈꿰비 ○ 입술-입  
술/입술기 ○ 혀-세/해 ○ 병어리-버버리 ○ 귓불-귓부랄 ○ 귀에지-귀젖 ○ 가  
루비누-가루비누/갈기비누 ○ 거울-세경(←色鏡) ○ 열레빗-열개 ○ 마디-손매  
디 ○ 가부좌-올방지 ○ 넓적다리-넙쩍다리/신다리 ○ 무릎-무릎/꼬뱅이 ○ 정

강이-장갱이/앞장갱이 ○부스림-부시르미/뼈들가지 ○땀띠-땀떼 ○여드름-여드름/이드름/여드레미 ○멍-싱당구/심당구 ○언청이-혜챙이/째보 ○곰보-곰보/얽음배기/일금뱅이 ○학질-고금 ○홍역-호녁 ○감기-고뿔 ○딸꾹질-깔떼기  
○사례-사리 ○졸음-자오름 ○구린내-쿤내 ○겨드랑-저드랑 ○영덩이-옹생  
이/옹뎅이 ○복사빼-복상시 ○가마-가매 ○현데-현뎅이 ○눈두덩-눈탱이  
○구두쇠-구두생이 ○기침-지침 ○말더듬이-떠드바리

### 7) 육아 어휘

○여자아이-지집아 ○남자아이-미슴아 ○마렵다-매롭다 ○포대기-펴대기 ○  
섬마섬마-등기둥기 ○아장아장-자작자작 ○썰매-썰매/빙구/빙거(氷車) ○얼례  
-연자새 ○소꼽질-소꼽질/동구파리 ○고누-꼰자리 ○그네줄-다줄 ○부림-부  
시림

### 8) 인륜 어휘

○아버지-아버이 ○할머니-할머니/할머이 ○언니-성 ○아우보다-아시보다  
○사위-짜우 ○올캐-올개 ○시동생-시아제비 ○삼촌-아재 ○조카-조캐 ○  
초상집 밤새기-방팡이 ○함진애비-함애비 ○동생-동상 ○내외하다-내우하다

### 9) 경제 어휘

○마을간다-말도리간다 ○우수리-우사리 ○풀무-풍구 ○바퀴-바꾸 ○못(생  
선)-무데기 ○셋-스이 ○넷-느이 ○하루-할리/하루 ○올해-올개

### 10) 동물 어휘

○고기-고기/고이기 ○생선-바닷고기 지느러미-날개미/날개 ○아가미-아가미/  
아금지/썩거리 ○올챙이-올체이 ○갈치-칼치 ○계-기 ○다슬기-꼴뱅이 ○  
우렁이-논꼴뱅이 ○서캐-썩개 ○벼룩-베루기/베룩 ○모기-모기/모개이 ○지  
렁이-지렁이/지레이 ○회충-거시/거쉬 ○거머리-그마리 ○벌레-벌거지 ○바  
구미-바그미 ○노래기-노네기 ○진딧물-띠미 ○거미-거미/거무 ○방아깨비-  
방아메뚜기 ○버마재비-사마구 ○소금쟁이-엿장사/엿장수 ○방개-방기 ○반  
딧불-개똥벌레 ○땅벌-땡뼈 ○진드기-으네이 ○소입막이-멍 ○외양간-마구  
○발채(지개)-소고리 ○구유-쿵 ○여물꽝-고질끼리 ○염소-양이 ○고양이-  
고뎅이/고네이 ○수탉-수딱 ○암탉-암딱 ○벼슬-베실 ○모이-메이/멩이 ○  
노란자위-노란자우 ○거위-거우 ○노루-놀기 ○올가미-옹노 ○닭괭이-살쾡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이 ○술개-술개미 ○뜸부기-뜸부기/물닭 ○달걀-달챙이 ○창자-창지/뱉/열  
○불가사리-쪽발이 ○성제-성거 ○우령쉥이/멍게-행우/멍게 ○해초-말/나물  
○홍합-홍화 ○도미-되미 ○비늘-비늘 ○꼬리-꽁지 ○정어리-눈치 ○새치  
-이면수 ○조개-조가지/조개

### 11) 식물 어휘

○해바라기-해자우리/해바라기 ○꽈리-꿰리 ○진달래-참꽃 ○철쭉-함박꽃  
○도깨비바늘-개바늘 ○덩굴-덤불 ○냉이-나새이/나생이 ○질경이-빼짱우/빼  
짱구 ○달래-달래/달룩 ○멜기-쁨 ○뱀딸기-개미딸구 ○개암-개금 ○고욤-  
꼽 ○복숭아-복상 ○홍시-홍시/홍실 ○자두-꽤/꽤 ○호두-당추지 떡갈나무  
-구름나무 ○도토리/상수리-굴밤 ○뿌리-뿌레기 ○줄기-원등거지 ○삭정이-  
삭다리 ○솔가리-검불 ○도끼-도꾸 ○오디-오디/호디 ○달래-달루/달룩 ○  
질경이-빼짱우/빼짱구 ○모파-모개 ○보늬-밥고물 ○삭정이-싹쟁이/싹뎅이  
○알밤-밥알락 ○개암-개금 ○머루-멸구 ○씀바귀/고들빼기-씀바구/고들빼기  
○꽈리-꽈리 ○맨드라미-만드라미 ○창포-창푸 ○당귀-당구 ○오얏-꽤/꽈리  
/자두 ○솔잎바늘-송치미 ○소나무 썩은 뿌리-소깽이/소깡이 ○갈퀴-깍쟁이

### 12) 자연 어휘

○기술-산밑 ○꼿자리-깻자리/산자리 ○비탈-고댕이 ○메아리-산울림 ○바  
위-바우 ○저녁-지녁 ○글피-글폐 ○요즈음-요새 ○이슬비-이슬비/가랑비/  
능개비 ○소나기-소낙비 ○우박-누리 ○가을에-갈게 ○가을하다-갈걷이한다  
○진눈깨비-진갈비/눈개비 ○회오리바람-돌개바람 ○먼지-문지/문데기 ○모  
퉁이-모뎅이 ○모래-몰개/모래 ○동풍-들바람(약한 것)/서마바람(강한 것) ○  
서풍-하누바람 ○남풍-마파람 ○북풍-샛바람/급새(급한 샛바람) ○남서풍-갈  
바람 ○서북풍-뒷새바람 ○파도-멸기/멸개 ○큰 파도-나울 ○매우 크고 무  
서운 파도-서마나울 ○깊은 바다-갈매 ○북에서 남으로의 조류-설물 ○남에  
서 북으로의 조류-만물 ○동에서 서로의 조류-들물 ○동북에서 남서로의 조류  
-마안들물 ○남서에서 동북으로의 조류-새안들물

### 13) 어촌 어휘

○돛-도꾸 ○키-치(큰 배에 쓰임)/딸(작은 배에 쓰임) ○닻-닻/따래 ○노-놀  
○배 가운데-한창 ○미끼-메끼/메깟 ○나침판-페철 ○잠수 작업인-미거리  
○이물-이물/앞물 ○어부-뱃동무

#### 14) 상태 및 동작 어휘

○기울다-지울다 ○가깝다-가찹다 ○짜다-짜굽다 ○싱겁다-싱굽다 ○창피하다-남새스럽다 ○알리다-알구다/알기다 ○따스하다-뜨시다 ○나누다-농구다  
○맛있다-마습다 ○견디다-전디다 ○어울리다-어불리다

#### 15) 부사, 관형사, 감탄사

○겨우-제우 ○모두-마카 ○전부-전수/전부 ○매우-매우/되우 ○별씨-별씨/  
하마 ○일부러-우정/일부러 ○왜-왜서 ○무슨-무신/뭔 ○아직/아직도-상개/  
상거

### 다. 속초 방언의 언어적 특징

#### 1) 음운적 특징

속초 방언의 음운 체계는 19자음 체계와 10단모음 체계를 갖는 표준어의 음운 체계와 다르지 않다. 다만 ‘애’와 ‘에’의 중화 현상의 진행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속초 방언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외, 위’의 발음이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방언 조사의 대상이 노년층임을 감안하면 ‘애~에’의 중화나, ‘외, 위’의 이중 모음화는 젊은층의 방언에서 더 확산되어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속초 방언의 운소 체계는 장단(長短)에 더하여 고저(高低)가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동해안 방언의 특성상 성조로서의 고저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어휘 분화에 작용하는 뚜렷한 변별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찾기는 어렵고, 다만 일정한 억양에서 고저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저의 음운적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밀한 고찰이 더 필요할 것이다.

국어의 역사에서 어중의 ‘ㄱ, ㅂ, ㅅ’이 약화되어 탈락된 현상이 있다. 이러한 음운의 약화 현상은 중앙어에서는 중세 국어 시기에 이미 일어났다. 그러나 중부 방언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ㄱ, ㅂ, ㅅ’의 음운 남아 있는 많은 어휘가 발견되는데, 속초 방언도 예외가 아니다.

- ‘ㄱ’ 보존형: 물개(모래), 실경(시렁), 낭구(나무), 잘기(자루), 열게미(여레미), 썰게비(쓰레기), 웅굴(우물), 칼기(가루), 벌거지(벌레), 놀기(노루)
- ‘ㅂ’ 보존형: 또바리(또아리), 베비리(병어리), 고방(광), 달비(다리/鼈)
- ‘ㅅ’ 보존형: 가새(가위), 아시보다(아우보다), 나새이/나생이(냉이)

속초 방언에서 ‘ㄱ, ㅂ, ㅅ’의 보존 양상은 ‘ㅂ, ㅅ’에 비하여 ‘ㄱ’의 보존이 더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뜻령한 양상이다. 다만 ‘ㄱ’ 보존 형태에서 ‘잘기, 갈기, 놀기’ 등의 형태는 형태소 내부라기보다는 어원적으로 격조사 연결 형태인 점에서 달리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운 현상에 두드러진 것은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이다.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은 속초 방언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남부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다. 속초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잘 나타난 것은 ‘ㄱ, ㅎ’ 구개음화의 적용이 진즉에 확산되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 ‘ㄱ’ 구개음화: 지집아(제집아), 저드랑이(겨드랑이), 찌울다(기울다), 재집(기와집)
- ‘ㅎ’ 구개음화: 성(형), 송년(흉년), 세(혀), 시다(희다)

모음의 발음에서 특이한 것은 비모음화 현상이다. 비모음화 현상은 ‘양양 → 예양, 강원도 → 가원도’ 등에서 비음 ‘o’의 탈락이 완전하기 일어나지 않고 뒤에 오는 모음을 비음화시키는 현상이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영동 및 동북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비모음화(鼻母音化) 현상: 고녕이/고네이~(고양이), 올체이~(올챙이), 고재이~(고쟁이), 호녀~(홍역), 할머이~(할머니), 삼추이~(삼촌이), 마이~(많이)

비모음화 현상은 비음 ‘o, ㄴ’의 완전한 탈락인가, 아니면 뒤에 오는 모음을 비음화시키는가 하는 점이 명확지 않다. 그러나 완전한 탈락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모음화라는 관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비모음화 현상은 비음 ‘o, ㄴ’의 탈락에 이르는 과도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타의 모음에 관련된 음운 현상으로는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등과 같은 여타 방언에 흔히 나타나는 음운 현상 외에도, ‘이’모음화와 같은 좀 더 특징적인 것도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모음의 변이는 일정한 방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모음의 변이: 치매(치마), 조캐(조카), 모개(모과), 동새(동서), 화리(화로), 지사(제사), 바우(바위), 비눌(비늘), 저구리(저고리), 동상(동생), 새복(새벽)

## 2) 문법적 특징

속초 방언의 문법적 특징은 영동 방언의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어 방언의 문법적 특징은 조사와 어미의 특수한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익섭(1981)과 민현식(1991)을 참조하여 조사의 종류와 함께 상대존대의 등급에 따른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만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조사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장 용례는 방언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만을 들었다.

- 주격 조사: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이/-가’가 쓰이지만, 모음으로 끝난 명사되에서 ‘-이’가 쓰이기도 하며, 간혹 ‘-거’가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가/-이거’가 하나의 주격 조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앞 요소의 ‘-이’를 접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용례: 배이 잘 익어가문

벳바리거 한동에 쉰무지래요.

- 목적격 조사: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을/-를’이 쓰이지만, 간혹 말음 ‘-ㄹ’이 탈락된 ‘-으/-르’가 쓰이기도 한다. ‘-으/-르’ 형은 강릉에서 많이 쓰인다.

용례: 쇠르 모다가

- 관형격 조사: 표준어 형태인 관형격 조사 ‘-의’는 방언 및 연결 어휘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다. 속초 방언에서는 주로 ‘-어’ 형태로 나타난다.

용례: 이웃 으련어 지비는

- 부사격(처소): 표준어 형태인 ‘-에’가 기본적으로 쓰이며, 여기에 첨가 형태인 ‘-에다, -에다가’ 등이 함께 쓰인다. ‘-에다, -에다가’ 형태는 여러 방언에서 흔히 나타나므로 속초 방언만의 특징은 아니다.

용례: 논에다가 모 숭굴 때는

- 부사격(지향): 표준어 형태인 ‘-로’의 음운적 변이형 ‘-루’가 쓰인다.

용례: 약수터루 놀러가지요.

- 부사격(공동): 표준어 형태인 ‘-과/-와, -이랑’ 등이 그대로 쓰이고, ‘-하고’의 변이형인 ‘-하구’도 쓰인다.

용례: 칙떡하구 송기떡하굴랑은 춘궁기 때 먹지요.

- 보조 조사: 주제화 보조사 ‘-은/-는’은 그대로 나타나지만, 가끔 ‘-은/-는’의 중복 형태인 ‘-으는’이 나타난다.

용례: 부인들으는 신흥사를 가지고요

조사에 있어서는 이 밖에도 ‘-도 → -두, -까지 → -꺼정, -끼리 → -찌리, -부터 → -벼텀’ 등의 변이형이 발견된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상대존대의 등급에 따른 종결 어미의 실현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장 용례는 방언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만을 들었다.

○ 해라체: <평서: -아/-어, -지, -데, -이라니, -다야> <의문: -니?/-나?, -ㄴ?, -지왜?> <명령: -아라/-여라> <청유: -자>

용례: 기펜 기런기 아직 없었야.

기런 말으는 안 시데.

느 할머이 나간?

선달 그룸에 잠을 자문 눈썹이 시어진다지왜?

낯을 써라.

○ 하계체: <평서: -네> <의문: -너?, -는가?> <명령: -개/-게> <청유: -새/-세>

용례: 내 땅겨 오겠네.

갸를 봤너?

○ 하오체: <평서: -오/-우, -소, -아요/-어요, -이래요> <명령: -(시)오/-  
(시)우> <청유: -ㅂ시다>

용례: 어 드시우.

거는 뭐라 씨였우?

질 무서운 바람이 서마나울이래요.

○ 합쇼체: <평서: -ㅂ네다/-습네다, -이올시다, -습죠> <의문: -ㅂ네까/-습네까>

<명령: -십시오, -시어요> <청유: -십시오>

용례: 보름날밤 쇠가 울문 농사가 잘된답네다.

기 뭐이 돈주는 일입네까?

지녁에 만나십시오.

### 3) 어휘적 특징

중앙에서 먼 지역 방언에서 고어 형태가 발견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어중(語中)에서 ‘ㄱ, ㅂ, ㅅ’이 보존된 경우는 이들이 중앙 방언에서 소실되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방언 형태에 보존되어 나타나는 ‘ㄱ, ㅂ, ㅅ’은 고어의 보존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몰개(모래), 개금(개암), 실경(시렁), 멀구(머루)’ 등의 어휘에 ‘ㄱ’이 보존되어 있고, ‘또바리(또아리), 고방(광), 새비(새우)’ 등의 어휘에 ‘ㅂ’이 보존되어 있으며, ‘나셍이(냉이), 가새(가위), 귀숭(구유)’ 등의 어휘에 ‘ㅅ’이 보존되어 있다. ‘ㄱ, ㅂ, ㅅ’의 보존은 어휘의 형태 변화와 관련되지만, 표준어에서 이미 잘 쓰이지 않는 어휘로는 ‘고금(학찰), 거시/거쉬(회충), 누리(우박), 우퇴(수의)’ 등을 들 수 있다.

어휘의 의미적 용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의미 용법의 세분화에 따른 어휘 선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어휘 선택 용법은 비단 속초 방언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어휘 실현에 있어서는 다른 방언과 구분이 되기도 한다. 몇몇 어휘를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명석을) 매다  
(가마니를) 치다  
(광주리를) 저다  
(돛자리를) 짜다  
(이영을) 배지다/엮다
- 그을음: 부엌 천정의 것 → 끄시름, 느스레미, 거무(치다)  
손밀의 것 → 솔거망, 계망  
방고래의 것 → 구제
- 잠자리: 소금쟁이, 소금쟁이: 엿장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속초 방언은 가깝게는 양양 지역과 고성 지역의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지역 방언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영동 지역의 큰 틀에서 보면 영동 방언은 영동 북부인 속초, 영동 중부인 강릉, 영동 남부인 삼척의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세 지역의 어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세 방언에서 차이가 나는 몇몇 어휘를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민현식 1991).

	속초	강릉	삼척
○ 쟁기(논 가는 것)	연장	보구래	왜보구래
○ 극쟁이(밭 가는 것)	가데기	흑쟁이	보구래
○ 누룽지	소찌이	소꼴기	소띠기
○ (물이) 괴다	개비다	개다	개비다
○ 수수	쉬끼	쉬시	대끼지
○ 목말	목말/무동	동고리	목말
○ 새총	새총/고무총	느르배기	새총
○ 청미래덩굴	통갈나무	땀바구	깜바구
○ 곤지곤지	곤지곤지/송고송고	장개장개	곤지곤지
○ 까끄라기	꺼끄랭이	까오치	까부치
○ 회충(/거위)	거시	거우	꺼꾸
○ 솔가리	차지검불/검불	소갈비	갈비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졸음/졸립다	졸음/졸립다	자우름/자우롭다	자부름/자부롭다
○ 밥주걱	박죽	주벽	박죽
○ 썰매	빙거/빙구	안질뱅이	스계또
○ 아재	아재(남자지칭)	아재(여자지칭)	아재(남녀지칭)
○ -니?	-니?	-나?	-나?

### 라.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 특징

속초시 청호동 주민은 함경도 주민이 주류를 이루고 약간의 평안도 주민이 혼재해 있으며, 함경도 가운데서도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주민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청호동의 언어는 속초 방언과 함께 평안도 함경도 방언이 섞여 있는 착잡성(錯雜性)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북청군 주민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도 북청 출신의 실향민 언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청군 출신의 월남민을 주 제보자로 한 방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청호동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청호동 방언의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 청호동 방언 제보자

<성명> <성별> <나이>			<원적 및 현주소>
김성길	남	73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의호리 / 속초시 청호동
여석창	남	72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 속초시 청호동
최옥순	여	68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 속초시 청호동
이주선	남	76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 속초시 청호동

<보조조사 요원: 최승기(강릉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1) 음운적 특징

청호동 언어의 음운 현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음운 현상의 하나는 속초 방언보다 활발히 나타나는 비모음화(鼻母音化)이다. 비모음화는 비음인 ‘ㄴ[n], ㅇ[ŋ]’이 주로 ‘이’ 모음 앞에서 앞 모음을 비모음화시키고 탈락하는 현상이다.

#### ○ 비모음화의 용례: 한비~:이지(한번이지), 마~:이(많이), 가마~:이(가만이) 큰 가~:이(큰 강이), 신북처~:이(신북청이), 바~:(방아)

치경음(齒莖音)이나 경구개음(硬口蓋音) 아래에서 후설모음(後舌母音)이 전설모음화하는 하는 것은 동북 방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호동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에서 전설모음화라 할 수 있는 용례가 발견된다.

- 전설모음화의 용례: 부시기(부수어)가지고(부수어), 시뚜리(숫돌), 국시(국수)

전설고모음화는 용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에, 어’가 ‘이’ 모음화하는 현상으로서, 이것은 동남 방언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전설고모음화의 용례: 어울린 디(어울린 데), 이바비란 기(이바비란 계), 치에(처녀), 상티(상투)

청호동 언어에서 구개음화는 속초방언과 마찬가지로 ‘ㄱ’ 구개음화가 많이 발견된다. 구개음화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개음화는 남부 및 동부 방언의 특징으로서 특히 서북 방언과 구별되고 있다.

- 구개음화의 용례: 가차우니(가까우니), 치(키), 질게(길게), 지르매(길마), 고어: 기르마/기른마), 저드랑(겨드랑)

청호동 언어에서 음운 및 음절의 탈락은 다양한 종류가 발견된다. 종류별로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음운 및 음절 탈락의 용례

가. 조사의 말음 탈락: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옷을 자를 적에 → 오스짜르찌기  
 농한기에는 → 농한기예느

나. 형태소 내부: 울타리 → 우타리  
 만약에 → 마야계  
 강냉이 → 강네, 강네  
 겨울이 → 겨리

다. 합성어에서: 돌찌귀 → 도쪼기  
 오늘나조 → 오나조

라. 기타: 어떻게 → 어테  
 이렇게하면 → 이케하면  
 있지 않은가 → 있짱가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2) 문법적 특징

조사의 연결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음운의 탈락, 전설고모음화, 개음절화, 그리고 접미사 ‘-이’ 등의 특징적인 방언 현상에 의하여 다음과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사의 형태적 특징이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 조사 연결에 나타나는 각종 형태
  - 가. 주격 조사: 북청읍이 → 북청으비가  
하나가 → 하내
  - 나. 목적격 조사: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참대를 → 참데르
  - 다. 부사격 조사: 여러가지로 → 여러가질루  
가을에 가서 → 가으리 가서  
중국에 → 중구기

주격 조사의 연결에서 ‘접이가’와 같은 것은 ‘-이’를 접미사로 처리하게 되지만, ‘하네(하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이(주격)’로 분석된다. 목적격 조사는 ‘ㄹ’이 탈락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부사격 조사는 음운의 첨가와 전설고모음화에 의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청호동의 언어에서 받침으로 끝나는 말에 접미사 ‘-이’를 연결시킨 형태가 일 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특히 동북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접미사 ‘-이’를 연결한 형태는 해당 어휘가 개음절화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개음절화와 일정한 맥락의 일치를 엿볼 수 있다.

- 접미사 ‘-이’에 의한 형태: 이바비(이밥), 명서기(명석), 노브리(노블/노을), 내구리(내굴), 반디뿌리(반딧불), 바치(밭), 바라미(바람)

### 3) 청호동의 방언 어휘

청호동 방언 어휘의 특징은 함경남도 북청 언어의 어휘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 용례를 조사하였다. 청호동의 방언 어휘는 옛고향의 언어를 잘 유지한 까닭으로 고어(古語)의 형태나 특수한 형태의 어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달(다리), 고굼(학질), 아시나조(초저녁), 열(쓸개), 우티(옷)’ 등의 고어형이나, ‘댕거지(고추), 노챙이(여자), 노존(자리), 멀기(파도), 배재(울타리), 통골(소경), 훌기(그네)’ 등의 어원을 알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있다. 아울러 ‘누비(누에, 누이), 노블(노을)’ 등

은 이들 어휘의 어원적 형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들이다.

어휘 의미에 있어서는 ‘그립다’가 ‘부족하여 아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나, 부엌 공간이 방과 함께 위치하는 북부 지역의 주거 특성상 ‘정지’가 ‘안방’의 의미로, ‘봉당’이 ‘부엌’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색다른 것이었다. 한편, 바람(風)을 뜻하는 고유 어휘인 ‘샛바람’이 ‘동풍(東風)’이 아닌 ‘북풍(北風)’을 뜻하고, ‘갈바람’이 ‘서풍(西風)’이 아닌 ‘남풍(南風)’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 <청호동의 방언 어휘>

여기 소개하는 청호동 방언 어휘는 방언 채록물과 거주민들에게서 일은 것으로서, 흥미 있는 어휘들이 많이 발견된다. 다음의 용례는 방언 어휘를 먼저 보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어나 간략한 뜻풀이를 하였으며, 청호동의 어휘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을 골라 실었다.

- 가달, 가다리: (사람의) 다리 ▷ ‘다리(足), 분파(分派)’를 뜻하는 고어 ‘가률’과 관련이 있다.
- 가마치: 누룽지
- 가매: 가마
- 가매목, 가매모기: 부엌에서 가마솥을 거는 부근, 부뚜막
- 가세/가새: 가위 ▷ 고어는 ‘굿애’
- 가스미, 가스이미, 가스어머이: 장모 ▷ 고어 ‘갓’은 ‘여자, 아내’를 뜻하는 말이다.
- 가스애비: 장인
- 가오뽀: 가오리
- 간: 반찬 ▷ 고어는 ‘군’으로 소금 성분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 간나, 갈라: 계집 아이 ▷ 어원적으로 ‘갓(女)+아이(兒)’에서 생긴 말이다.
- 갈바람, 갈바라미: 남쪽에서 오는 바람 ▷ ‘갈바람’은 원래 서풍(西風)이다.
- 감주: 막걸리
- 강네, 강네: 강냉이
- 개개: 개계 ▷ ‘개계’의 어원은 한자어 ‘가가(假家)’이다.
- 개자리: 가장자리
- 개지: 강아지 ▷ 축소 접미사 ‘-아지’에서 비음(鼻音) ‘ㅇ’이 틸락한 형태이다.
- 개파리: 개구쟁이
- 개파챙이(개파재~이): 장난꾸러기
- 거두께: 벼 타작, 추수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거름벵이(거름배~이): 거지

○ 검데기: 굴뚝 검댕이

○ 계시케: 계젓 ▷ ‘계(蟹)+식해(食醯)’이다. 생선젓을 뜻하는 ‘식해(食醯)’는 쌀밥에 엿기름을 넣어 만든 ‘식혜(食醯)’와 구분된다.

○ 계우닥질/계우각질: 구토(嘔吐)

○ 고굼, 고구미: 학질, 말라리아 ▷ 고여로는 ‘고봄, 고곰’이 함께 쓰였다. ‘고봄’과 ‘고곰’은 같은 말이다. 음운 변화에서 ‘ㅂ’과 ‘ㄱ’은 흔히 넘나든다. ‘거瞽(龜)’이 ‘거북’이 되고, ‘습(裏)’이 ‘속’이 되었다.

○ 고방: 광 ▷ 표준어 ‘광’은 ‘고방(庫房)’에서 음운 탈락과 축약에 의해 생긴 말이다.

○ 고토밤, 고토바미: 도토리 ▷ ‘꼬투리’의 고어인 ‘고토리’와 관련이 있는 형태로 생각된다.

○ 곤물: (떡)고물

○ 곰배: 아궁이에서 재를 퍼내는 기구, 고무래

○ 꽈찌: 괭이

○ 구먹떠리: 굴뚝 부근

○ 구묵, 구무기: 굴뚝, 구멍 ▷ ‘구멍’의 고어로는 ‘구무, 굽’의 쌍형이 있었다.

○ 구세/구새: 굴뚝

○ 구시: 외양간에 걸어 놓고 사용하는 소의 여물통, 구유 ▷ 표준어 ‘구유’의 고어로는 ‘구유, 구시’이다.

○ 구엥, 구영: 구멍

○ 국뚜기, 국띠기: 아궁이의 재를 굽어내는 기구, 고무래, 부삽

○ 굳, 구디: 곳 ▷ 표준어 ‘곳(處)’의 고어는 받침이 ‘ㄷ’인 ‘꼰’이었다.

○ 그: 그곳, 거기

○ 그립다: 아쉽다(예: 소금이 그리우니까, 물이 그립거든) ▷ 청호동 언어에서 ‘그립다’가 거의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아쉬워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길굼/질굼, 질그미: 콩나물이나 녹두나물

○ 까마치: 누룽지

○ 까세다: 썹다, 가시다

○ 꺠꺼버리: 말더듬이

○ 꼬장바지: 속바지

○ 내굴, 내구리: 연기 ▷ ‘내굴, 내구리’는 ‘너(煙氣)’에 접사가 붙은 말일 것이다.

○ 노블, 노브리: 노을 ▷ 표준어 ‘노을’의 고어는 ‘노을, 노을, 노을’ 등이지만, 아마도 ‘노블’이 근원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노쟁이(노재~이): 여자

- 노존(노조느): 깔고 생활하는 자리의 일종
- 놀가지: 노루
- 누깔: 눈알
- 누꺼리: 싸구려
- 누비/뉘비: 누이 ▶ ‘누이’의 고어는 ‘누위’이므로 방언형 ‘누비/뉘비’는 어원적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 누비고치: 누에고치 ▶ ‘누에’의 어원은 ‘눕-(臥)+에’이다. 그러므로 ‘누비’는 ‘누베’에서 전설고모음화를 거친 형태임을 알 수 있고, ‘뉘비’는 다시 ‘누비’에서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라 하겠다.
  - 누이: 누에 ▶ 청호동 언어에서는 ‘누비’와 ‘누이’가 함께 쓰인다.
  - 놔, 누마: 사내 남자를 이르는 말 ▶ 중세어에서 ‘놈(者)’은 비칭(卑稱)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平稱)이었다.
  - 니비띠: 허리띠
  - 단감주: 식혜
  - 닭수리: 독수리
  - 담배 꽁데기: 담배 꽁초
  - 대창: 조그만 창문, 환기창
  - 대통: 담뱃대(주로 긴 것)
    - 땅거지: 고추 ▶ ‘고추’의 방언인 ‘당가지, 땅거지, 땅가지’는 대체로 북부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당가지’로서, 어원적으로는 ‘당(唐)+가지’로 분석된다. ‘고추’는 가짓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가지’의 어원은 한자어 ‘가자(茄子)’에 있고, ‘고추’의 어원 역시 한자어 ‘고초(苦草 또는 苦椒)’에 있다.
    - 덤바치: 퇴비장 ▶ ‘덤’은 ‘두엄’의 준말일 것이며, ‘바치’는 ‘밭’일 것이다.
    - 도쪼기: 돌찌귀, 문지도리
    - 도투: 돼지
    - 두가달방: 두다리 방아
    - 두렁상: 둥그렇게 생긴 밥상
    - 둥기, 두명, 두무: 담는 큰 그릇
    - 뒤비/디비: 두부 ▶ ‘두부’에서 음운 변화한 말이다.
    - 뒷고방: 뒷광
    - 디우란/뒤울안: 뒷마당
    - 따꼽챙이(따꼽재~이): 자기것을 매우 아끼는 사람
    - 따발이: 또아리
    - 떡구시: 떡판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멀기: 파도, 물결, 멀미 ▶ ‘멀기’는 강원도와 함경도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 어휘이다. ‘멀기’는 ‘물결’이란 의미 외에 ‘멀미’의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멀미’와는 같은 어원이라 생각된다.

○ 메떼기: 메뚜기

○ 메지: 메주

○ 모새: 모래

○ 몽디, 몽치: 몽둥이 ▶ ‘몽디’는 ‘몽둥이’ → 몽두이 → 몽둬 → 몽디’로 변한 말이다.

○ 무끼, 무꾸: 무 ▶ ‘무’의 고어는 ‘무수’이다.

○ 무릅고도리: 허벅지나 무릎 부위의 뼈

○ 무스그: 무슨

○ 무쪼리: 담뱃대(주로 짧은 것), 담배 파이프

○ 물뚱기, 물두무: 물을 길어 담는 통

○ 미꽁, 미꽁이, 미꽁기: 엉덩이

○ 바다첸처리, 바다천처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

○ 바당: 부엌

○ 바당문: 부엌문

○ 바지가달: 바짓가랑이

○ 반칫상: 서당의 훈장에게 바치는 진지, 또는 잘 차린 상

○ 발찌질: 발길질

○ 방(바~): 방아

○ 방칫돌: 다듬잇돌

○ 배재: 울타리 ▶ 지역에 따라서는 ‘바자/바지(경북), 바재(중부 및 북부), 바주(평안, 황해)’ 등의 관련 형태가 있다. 이러한 방언 어휘는 기본적으로 ‘바자’라는 형태가 기본적인 것이며, 다시 ‘바자’는 한자어 ‘파자(笆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 배차/배채: 배추 ▶ ‘배추’의 어원은 한자어 ‘백채(白菜)’이다.

○ 밴세: (떡)만두

○ 뱤, 배리: 창자 ▶ ‘탕’은 표준어 ‘배알’의 준말이다. ‘배알’의 고어는 ‘비술(肉)’이다. 어원적으로는 ‘비(腹)+술(肉)’으로 이해되고 있다.

○ 뱃꾸비: 배꼽

○ 벼버리: 병어리

○ 벼치: 넓적한 걸그릇

○ 배랑떼: 경사진 벼랑

○ 봉당: 주방 ▶ ‘봉당(封堂)’의 원래 뜻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를 흙바닥 그대로 둔 곳'이다. 청호동 언어에서는 '정지'가 '안방'의 뜻으로 쓰이고, '봉당'이나 '벽'이 '부엌'의 뜻으로 쓰인다.

○부시기: 거짓말

○비치각질, 빼치각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말참견

○빼다지, 빼빼: 서랍

○빼지: 다래끼

○사막때기: 사마귀

○사치: 새끼(줄) ▷ '새끼(草索)'의 고어는 '숯'이므로, 고어 형태를 원형에 가깝게 보여주는 방언형이다.

○상티: 상투 ▷ '상투'의 어원은 한자어 '상두(上頭)'이다.

○새뜨개: 사괄뜨기

○새복: 새벽 ▷ '새벽'의 고어는 '새박, 새배'이고, 어원은 '새(新, 東)+皞(明)'으로 추정된다.

○새비: 새우 ▷ '새우(鯷)'의 고어는 '사비'이다.

○새옹: 총각, 시동생 ▷ 중세어에서 '샤옹'은 '남편(夫)'을 뜻했다.

○셋바람, 셋바라미: 북쪽에서 오는 바람 ▷ '셋바람'은 원래 동풍(東風)이다.

○생지: 행주 ▷ '행주'의 고어는 '횡즈'이다. '생지'는 '행주'에서 '횡' → 'ㅅ' 구개음화와 전설음화를 거쳐서 된 말이다.

○서나: 결혼한 남자 ▷ '선스나'가 줄어서 된 말로 생각되며, '서나'의 어원은 중세어 '손(壯丁)'으로 추정된다.

○서답: 빨랫감 ▷ '서답'의 어원은 '세답(洗踏)'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선스나: 남자, 사내 ▷ '선스나'는 동북 및 서북 방언에 분포하므로 한국의 북부 방언이라 할 수 있다. '선'은 '손(壯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스나'는 '사나이'의 고어인 '싸히(男子)'로부터의 변화한 형태로 생각된다.

○성: 형

○섶, 서피: 껍질 ▷ '섶'은 '섶나무(薪)'를 뜻하는 '섶'에서 온 말이다.

○세치: 작은 이면수

○소금재: 잡자리(곤충)

○소래: 세솟대야 ▷ 중세어 '소라(盃)'는 동글넙적하게 생긴 큰 그릇을 뜻하는 말이다.

○소케: 목화, 솜, 속, 고갱이

○소케기, 소궤기: 하얀 배추속

○솔검부리: 마른 솔잎

○쇠구시: (소)구유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쇠추네: 작은 미꾸라지, 작은 개울에 사는 고기, 아마도 세천어(細川魚) 또는 소천어(小川魚)에서 온 말로 생각됨.

○ 순대구영: 하수도

○ 숫가매(수까매): 숫구멍, 정수리

○ 췌미: 수염

○ 시애끼: 시누이나 시동생

○ 시이, 시이때, 시이땡기: 수수, 수숫대

○ 신다리: 허벅지, 넓적다리 ↞ ‘신다리’는 북부 방언이다.

○ 써개: 서캐, 이의 알

○ 썰: 혓바늘 ↞ ‘썰 쓸다(혓바늘이 돋다)’와 같은 관용구 형식으로 쓰인다.

○ 아궁지: 아궁이

○ 아마이: 할머니(혈육간에는 사용하지 않음)

○ 아바이: 할아버지

○ 아시나조: 초저녁 ↞ ‘아시나조’는 ‘아시(初)+나조(夕)’에 의한 합성어이다. ‘아시’는 ‘애시당초’의 ‘애시’와 같은 말이며, ‘나조’는 ‘저녁(夕)’을 뜻하는 말로서 중세어에서 빈번히 사용된 말이다.

○ 아재비, 아지비: 숙부

○ 아지미: 숙모

○ 아지미: 형수, 숙모

○ 안고방: 안광 ↞ ‘고방’ 참조

○ 안까이: 아내, 마누라

○ 어기며케다/어기막히다, 어기차다: 어이없다, 기가 차다

○ 얼기: 큰 빗

○ 얼라: 어린애

○ 얼레기: 얼룩

○ 에미네: 여자, 부인들

○ 여수땡이: 사탕수수

○ 역사질하다: 노력하다

○ 연무기: 서까래

○ 열, 여리: 쓸개 ↞ ‘쓸개’를 뜻하는 ‘열, 여리’는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방언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이다. ‘열’은 중세어에서 이미 사용되었으며, ‘옹담(熊膽)’을 ‘고민열’이라 하였다.

○ 열레: 서까래

○ 염지: 부추

○ 염치개, 엽치개: 주머니

## ○엽차개: 주머니

○옇다: 넣다 ▶ ‘넣다’의 고어는 ‘넣다’이다. 그러므로 ‘넣다’에서 초성의 ‘ㄴ’이 탈락하면 ‘媖다’가 되고, 초성의 ‘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모음 ‘이[j]’를 탈락시키면 ‘薨다’가 된다. 이것은 두음법칙(頭音法則)에서 초성의 ‘ㄴ’이 ‘이’ 모음 앞에 오기 어려운 음운적 상황을 방언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예장간/애장간, 예장간이/애장간이: 대장간 ▶ ‘예장간/애장간’은 함경도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이다.

○오나조: 오늘 저녁, 오늘 밤 ▶ ‘오늘’의 고어는 ‘오늘’로서, 어원적 분석은 ‘온(今)+울(日)’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오나조’는 ‘온(今)+나조(夕)’에서 동음 생략에 의해 ‘ㄴ’이 탈락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왜지: 오얏 열매

## ○외가달방: 외다리 방아

## ○외기호미: 호미의 일종

## ○우땡, 우떼니: 뒷마당

○우티: 웃 ▶ ‘우티’의 고어형은 ‘우퇴’이다. 원래 ‘우퇴’는 ‘치마’나 ‘아랫도리 웃’을 뜻하는 말이었다. 청호동 방언에서는 일반적인 ‘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웅디: 웅덩이 ▶ ‘웅덩이’에서 둘째 음절의 비음 ‘ㅇ’이 탈락한 형태인 ‘웅더 이’에서 ‘웅디’로 변화한 말이다.

## ○유거리: 거지

## ○이민수: 이면수

○이밥/이바비, 이팝/이파비: 쌀밥 ▶ ‘이밥, 이팝’의 ‘이’는 고어에서 ‘니’로서, ‘니’ 또는 ‘니발, 니쓸’은 ‘멥쌀’을 뜻하는 말이다.

## ○이차: 이내, 곧

○자랑, 자랑이(자라~이): 어른 ▶ 함경도에서만 사용된다. 이 밖에도 ‘자란이, 자랑기, 자란사람’ 등의 형태도 함경도 지역에서 사용되므로, 이 말의 어원은 ‘자라-(成長)+ㄴ(어미)+이(접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새, 연짜새: 물레질할 때, 실 감는 기구

## ○자시다: 췄다, 가시다

## ○자신물: 그릇 췄은 물

## ○자신통: 그릇 췄는 통

## ○작디: 작두

## ○작시: 지게 바치는 것

## ○장물: 국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점바치: 점쟁이
- 정약깐: 변소
- 정지: 안방
- 조가지: 조개
- 조양깐: 찬장
- 조밥: 조밥
- 종가리: 종아리
- 주디: 주둥이 ↞ ‘주둥이 → 주두이 → 주디’의 변화 과정을 거친 말이다.
- 지렁(지러~): 간장 ↞ 전라도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관련된 형태로는 ‘지랑(경북, 충남), 지래(합북)’ 등이 있다.
- 지렁보시기: 간장 종지
- 지자마기: 참빗
- 지제기: 기저귀
- 질구뱅이: 질름발이
- 짐치: 김치 ↞ ‘김치’의 가장 오래된 고어형은 ‘딤치’이며, 그 이후의 어형으로는 ‘짐치, 텁치’ 등이 있다. 그러므로 ‘짐치’는 ‘딤치’에서 ‘ㄷ’ 구개음화를 거친 어형으로서, 결코 ‘김치’로부터 ‘ㄱ’ 구개음화에 의해 변화한 말이 아니다. ‘김치’는 ‘짐치’로부터 부정회귀(不正回歸)에 의해 생긴 어형이다. ‘김치’의 어원은 한자어 ‘침채(沈菜)’에 있다.
- 집나이: 출가외인, 시집간 딸
- 철떡, 철며그: 찰떡, 인절미
- 칡시꾸비: 칡시의 일종, 칡시의 굽(바닥)
- 초리: 꼬리 ↞ ‘꼬리’의 고어는 ‘꼬리’로서 같은 의미로 쓰인 ‘초리’와는 별개의 말이다. ‘초리’는 표준어에도 ‘회초리, 눈초리’와 같은 말에 남아 있다.
- 초매, 치매: 치마
- 초매령이: 부인, 시집간 여자
- 치매띠: 여자(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 치예: 쳐녀
- 칠시깐: 변소
- 크애비: 큰아버지
- 큰애비: 큰아버지
- 큰이미, 큰어머이: 큰어머니
- 턱씨기: 명석의 일종
- 토새: 지신을 모시는 것
- 통골, 통고리: 소경, 장님 ↞ ‘쇠경’이란 말과 함께 쓰인다.

- 하니바람, 하니바라미: 하느바람. 서쪽에서 오는 바람
- 하리: 항아리 ↞ ‘항아리’에서 비음 ‘o’이 탈락한 형태이다.
- 할개: 기지개
- 해자바리: 해바라기
- 헌거트: 형겼 ↞ ‘형겼’의 고어는 ‘헌것’이었으므로 제2 음절의 받침은 오히려 청호동 방언이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해챙이(해체~이): 언챙이
- 호부래비: 훌아비
- 호부리미: 과부
- 훌기: 그네 ↞ 함북 지역에서는 ‘굴기’라는 형태로 쓰이므로 ‘훌기’는 ‘굴기’와 관련 있는 형태이며, ‘굴기’는 고어 ‘글위’와 관련되므로, ‘훌기’의 ‘훌’은 ‘굴’에서 마찰음화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라도에는 ‘군지’라는 형태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굴기, 군지’는 우선 관형형 어미라 할 수 있는 ‘-ㄴ’의 연결 여부에 의해 분화하고, 구개음화의 여부를 거쳐 각각 형성된 어휘인 것을 알 수 있다.

## 마. 맷음말

속초의 방언은 크게는 영동 방언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동 방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릉 방언에서 좀더 동북 방언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동북 방언에 바로 인접한 속초 지역의 특징이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동 방언의 주요 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속초(북부), 강릉(중부), 삼척(남부)의 세 지역을 비교하더라도 다른 두 지역과 구분되는 속초 방언만의 특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속초 방언의 위상은 속초 방언의 보존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속초의 방언은 인접한 양양군과 고성군의 사이에 위치하지만, 속초에는 청호동이라는 특수한 방언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방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남도 방언(특히 북청 언어)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이것은 속초시 청호동 지역에서 함경남도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이곳의 문화나 언어에 크게 동화되지 않고 고향의 민속과 언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초시 주민이나 청호동 주민의 언어 사용을 관찰하면 각각의 고유한 언어 특성을 보이면서도 두 지역의 교섭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속초에 근거를 마련한 청호동 주민에게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영동 방언과 동북 방언의 전이 지대로서 속초 방언의 위상은 다른 방언권에 비해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충분히 주목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면밀한 조사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V. 만화로 보는 “속초” 문화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이 지역이 지금 살고 있는 모양으로 말들어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습니다.

하~

높게 솟아오르니  
바다도 훤히 보이고  
좋네!

아름다울 높은 산과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진 곳은 전세계적으로도 속초읍에  
열 달니다.

또한, 설악산은 맑은 물을 풍고 있다가 서울시민이  
쓰고 마시는 환경汙濁까지 물을 쓸려보내고 양양  
남대천과 속초의 하천을 통해 동해바다로 흐릅니다.



설악산이 배터져라  
받아 모은 물



아껴 씁시다!

태백산맥에서 우리 지역으로 흐르는 하천들은 짧고  
경사가 심한데 이런 하천의 하류에는 논으로 이용됩니다.



맑은 물과 송사리, 미끄러지, 불어, 물방개, 개구리, 소금쟁이 등이 노닐고, 헤엄을 치고 놀았던...  
지금은 물이 많이 줄고 생물들이 오염으로 일해 자취를 감춰 버릴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우리나라 최고의 깨끗하고 맑고 푸른바다가 널 Był거리는  
동해안...



동해안은 강릉을 경계로 북쪽과  
남쪽의 지질구조와 지형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남쪽은 암석해안이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쪽은  
모래해안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동해사면은 금경사를 이루어 홍수시 많은 모래들이 바다로 흘러나와 바다를 고립시켜 명량호와 같은 서호와 청호동마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속초 지역의 해안은 대포 외옹치를 경계로  
북쪽 해안은 모래해변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속초는 옛날 신라의 화랑들이  
머물다 갔다는 명량호와 그리고 청호호  
2개의 서호(潟湖)가 있습니다.



명량호는 장사동, 금호동, 명량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서호로 면적은 1,024,000m<sup>2</sup>, 둘레 7.7km 정도입니다.



속초시에 있는 2개의 서로 중 ‘팔광엑스포’가 열렸던 남쪽에 있는 청초호는 속초항의 항구로 쓰이면서



생활 하수쓰레기 등에 의해 본래의 아름다움 모습을 잃어버려 예전에 맑게 빛났던 푸른 물빛은 볼 수 없었지만 최근 청화작업에 의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엄마! 청초호를  
옛날로 돌려  
주세요!



이게 뭔 냄새나?



집에  
물안  
나오나?



애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게 남기고 저게  
쓰면 될 것을



음식쓰레기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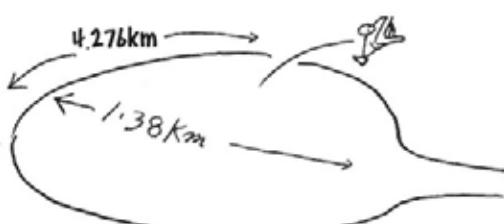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려나  
윤석아!



꽁

청초호는 청학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서로로 면적은  $879.863\text{m}^2$ , 둘레는  $4.276\text{km}$  정도이고, 생김새가 목이 잘록한 향아리 모양인데 최근에 매립으로 일해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서호는 지형적으로 배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가졌기에 항구로 사용되고 생활하수도 흘러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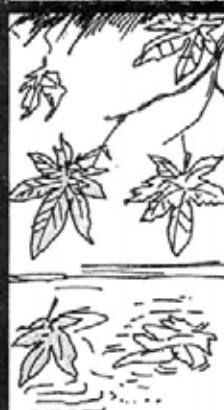


기형 물고기가 잡히는 등 심하게  
오염됐는데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청새가 찾는 등 많이  
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환경은 망가지기 쉬워도 되돌려  
놓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돈이 듭니다.

제자신이  
청춘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속초는 우리나라의 중간, 동쪽에  
속해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대성 기후가 특징입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의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특히 속초는 설악산을 서쪽에  
두고 동쪽으로 동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우나 가뭄, 폭풍이나  
대설 등 다양한 기상악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다행히도 속초는 지형적 특성상 많은 비가 내려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태지역에 비해 홍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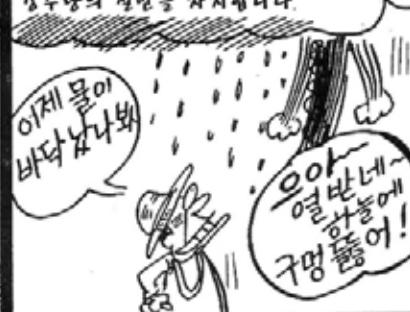
속초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은 1342mm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봄철에는 약 220mm로 1년 강수량의 17%를 차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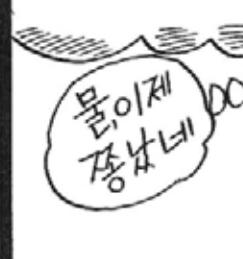


8월의 강수량이 293mm로 가장 많은 비가 오며 특히 여름철 6~8월에 618mm로 1년 강수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루동안 비가 가장 많이 온 날은 1999년 9월 2일  
344mm이고, 태풍 주사가 속초지방을 지나가던  
2002년 8월 26일은  
295mm의 일 강수량으로  
세번째로 비가 많이 왔다.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86년 768.8mm이고  
가장 적었던 해는  
97년 246.6mm를 기록



속초는 지형이 금경사를 이워 비가 올 때 물을 담아 놓지 못하므로  
강수기에는 물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겨울철 강수량은 약 150mm 정도로  
1년 강수량의 약 10%내외,  
눈이 많이 오거나 척계 내리는  
것에 따라 화우되며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특산식물이 설악산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나동네 내동네가  
왜 없어 있지”

이 중 자연생태계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거나 회귀식물들이 있어 함부로 식물을 뽑거나 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린 사람이  
동네를 정해주지

남나무

주로 불재용, 정월수용, 등산로 확장, 산나물 채취, 화훼용, 약재로 일부 물지각한 어른들이 마구잡이 개발과 불법 파괴가 가거나 먹어치워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악산에 등산객이 급증하고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일한 외부로부터의 자재를 받 등의 요인으로 귀화식물의 도입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약50종)



이들이 해안식물인데 해안식물은 부족한 수분과 무기영양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일과 출기에 비하여 뿌리가 매우 발달해 뿌리의 양이 일과 출기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물 흡수의 기회가 많은 대륙으로 갈수록 일과 출기의 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속초의 해안식물은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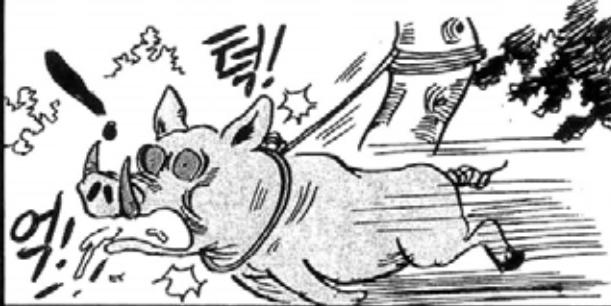




파다한 등산객과 면중 무휴의 임산 등  
인간의 간섭으로 이들의 서식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대로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천적인 포식동물의 감소 등 복합  
적인 요인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두더지, 맷돼지, 고라니, 다람쥐,  
멧토끼, 청설모, 둑쥐(땃쥐, 뒤지,  
등줄쥐, 대류밭쥐 등) 등이  
있습니다.



설악산과 속초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46과 121속 227종이 됩니다.



설악산에서 조사될 파충류는 13종이며, 설악산  
경계 밖 저지대에서 발견한 7종을 포함 16종이며



설악산에서 관찰된 담수어 11종에 속초 지역의 담수어를  
포함하여 65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입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또, 절흙을 빙어 불에 구워서 토기를 사용함으로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조사, 보고된 신석기시대 유적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빗살무늬토기, 갈석기 등이 전국적으로 출토되고 있고

조양동에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속초 지역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속초에서 유적지의 발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곳이 원시시대 사람들의 이동경로이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하였다는 정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 경에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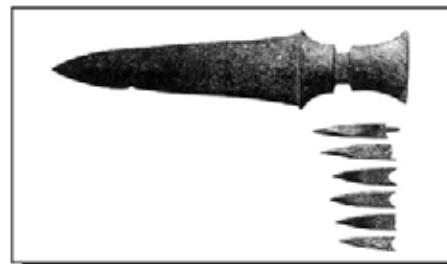
청동기 시대는 생산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청동기에 이어 BC 400년경부터는 철기가 쓰여지기 시작하였는데 청동기보다 강한 철기로 다른 부족을 침입하는 등 부족 간의 세력 확장이 있었습니다.



속초 장사동지역(현. 속초고등학교 앞산)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갈돌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이 1980년 12월에 발견되었으며 이외에 철기 1점과 토기편 3점이 같이 출토 되었습니다.



장사동 출토  
청동기시대 유물

또, 강릉대학교 밭 물관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 유물로 보아 이곳 일대는 선사시대 이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지배, 피지배 관계가 나타나고 이것이 발전하여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 국가가 생기는데,



그 초기 국가로 강월도 동해안에 ‘동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예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병합되었습니다.





▲동해의 영역

##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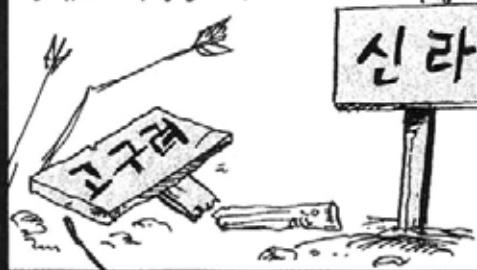
### 삼국시대의 속초



고구려 때의 양양이름은 '익현현' 다른말로  
'이물현'이었고, 고구려 때 갈성의 이름은  
'수성군' 다른말로 '가라홀'이었는데



고구려에서 신라로 속하게 되는데  
신라 진종왕 17년부터 신라에 속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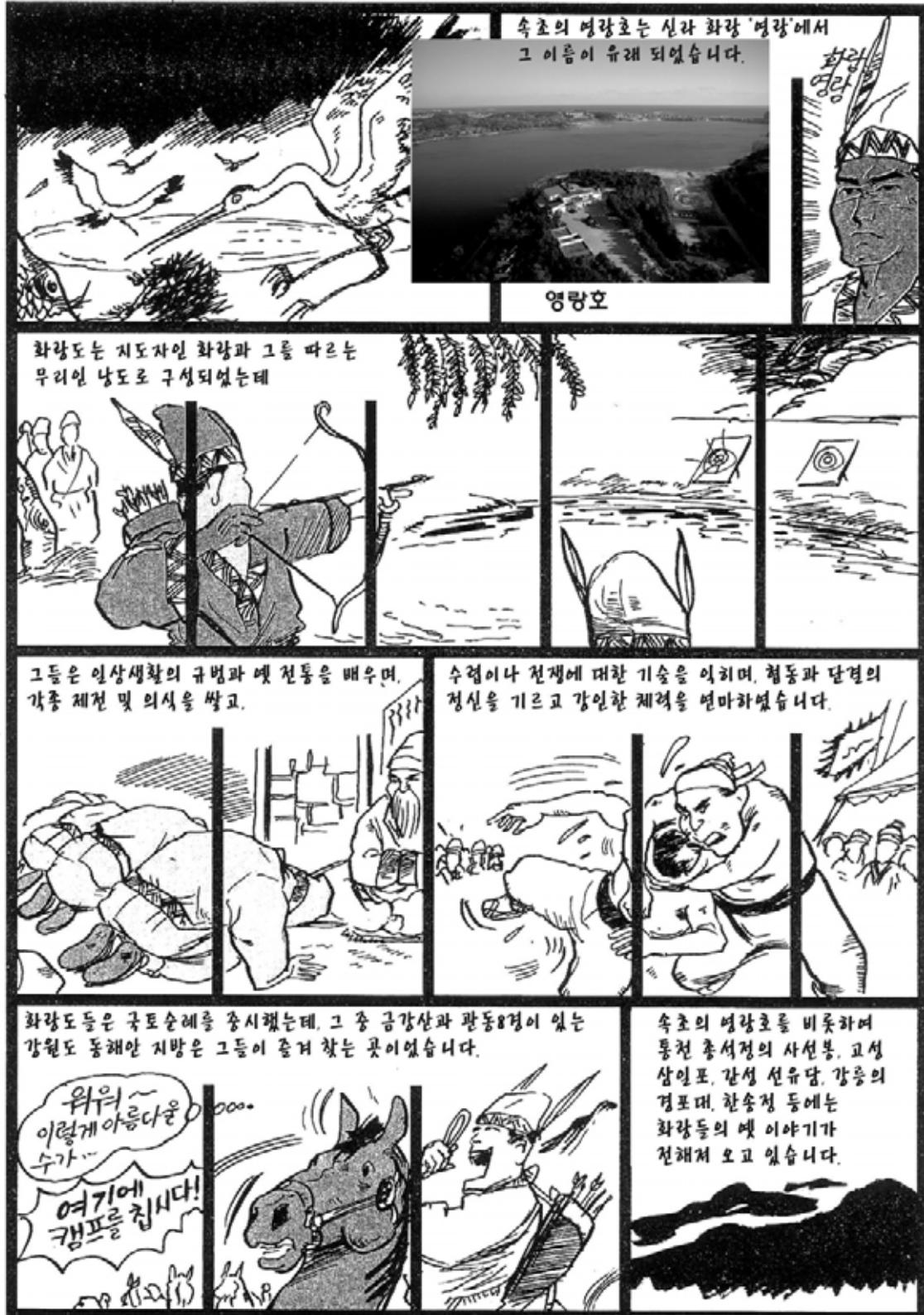


그후 속초, 갈성, 양양지역은 신라의 북상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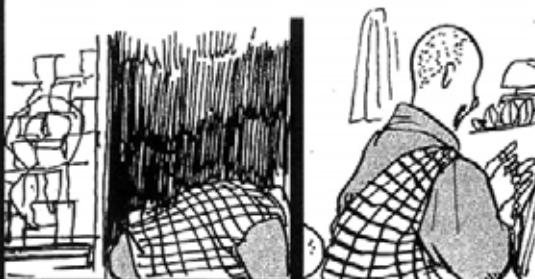
신라 때 양양은 익현에서 익령으로 고쳐졌고,  
갈성은 수성에서 수성으로 고쳐져 9주 중  
명주에 속하였는데,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입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또한 이 고장은 화랑들 뿐만 아니라, 고승들도  
줄며 찾아 찰랄한 불교문화를 꽂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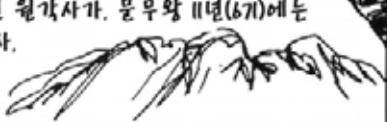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을 사에 의해 신종사의 전신인 향성사가 천재 계성던호텔 자리에 창건되었고, 그 외에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에 의해 전봉사의 전신인 월각사가, 물우왕 11년(691)에는 의상대사에 의해 낙산사, 신문왕 8년(688)에는 원효대사에 의해 명혜사,

혜공왕 5년(769)에는 진표을 사에 의해 화암사가 개창되었습니다.

선종의 대사찰 진전사, 선림원도 이때 세워진 사찰인데,

이러한 사실은 이 고장에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려시대

#### 고려시대의 속초

고려는 신라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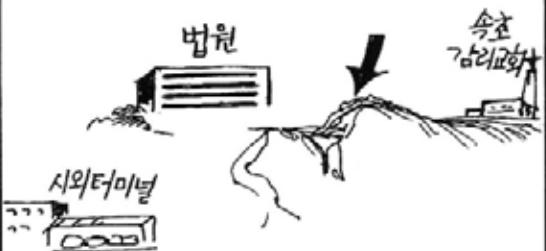
발해 멸망 이후 지방의 여진족은 천종 2년(1041)부터 숙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며 노략질을 한 것이 20여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리하여 고려는 여진의 침략을 당한 취약지역에 성을 쌓아 대비하였는데



속초 장안포(법원과 속초 감리교회 사이에 위치한 풀짜기 마을의 옛이름)에 기록된 성터도 이때 쌓은 것이 아닐가 여겨집니다.



또 청실에 남아 있었다는 말호첨사(萬戶僉使)터나, 오늘날의 청초호인 쌍성호(雙成湖)에 말호영이 있었다는 '신종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당시 동여진의 해적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기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체국을 건설한 몽고는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왔고, 제5차 침입 때는 강원도에 침입하였으며, 고려 후기에 왜구는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는데 무려 42년간 4기회나 침략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속초 일군의 침입을 살펴보면, 우왕 9년 (1383) 10월에 왜구가 동산천에 침입한 것을 월수 이을진, 부월수 절현통, 명마사 광충보 등이 격퇴시켰고,



그 후 그를 모시는 동명서원이 그곳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가 이부근에서 왜구를 격파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속초

강원도(江原道)라는 이름은 태조4년(1395)에 충청도에 소속이던 원주를 이곳으로 옮겨 감영소재지로 하고....



강원도는 처음에 고려말에 형성된 교주 강릉도의 이름을 바꿀 때서 출발하였습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3년(1393)에 생긴 것이며, 1395년에 충청도에 속해 있던 원주를 강원도에 복귀 시켰고, 그 후로 조선 말기(1895)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가 그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원양도, 강양도, 강출도, 원출도 등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인구는 영조36년(1760) 편찬된 '여지도서'에 도물면과 소천면의 인구 1265명, 18기년에 편찬된 팔동읍지에는 120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 도물면과 소천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방교육기관으로는 '향교'를 들을 수 있는데, 향교는 관립학교로서 모든 교육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 갈성에 모두 향교가 있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로는 양양을 조산리에 고려말의 무장 조일璧(趙仁璧)을 모시는 동명서원이 있었으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에는 유회일을 추모하고 제사 지내던 '향현사'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기판에 해당하는 맑은 서당이 있었고,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4개의 서당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속초에는 맑은 서당이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활방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양양의 활방으로는 양양읍성, 궐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 (청초호), 대포(양양 조산리)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큰 전쟁이 없었는데



다면 임진왜란(1592~1597) 때 제나침으로 상륙한 모리요시나리 군이 안면에서 명동지역으로 남하 하였고,



이에 사명대사가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아 전투에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양양 향토지에 부사 김수연이 9월에 부임하여 방어하지 못해 10월에 면직 당하고, 임시 수령 정운신이 11월에 부임하였다가 12월에 해임되고, 12월에 부사 황규가 부임하는 등 그 피해가 5개월에 달하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 일제시대

#### 일제시대의 속초



일제는 이어서 1910년에는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빼았았고, 주권을 빼앗길 뒤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족의 활동이 1919년 3·1 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불기의 폭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족의 활동에 맥을 같이하여 활발한 주권 회복을 벌였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시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임법, 사법, 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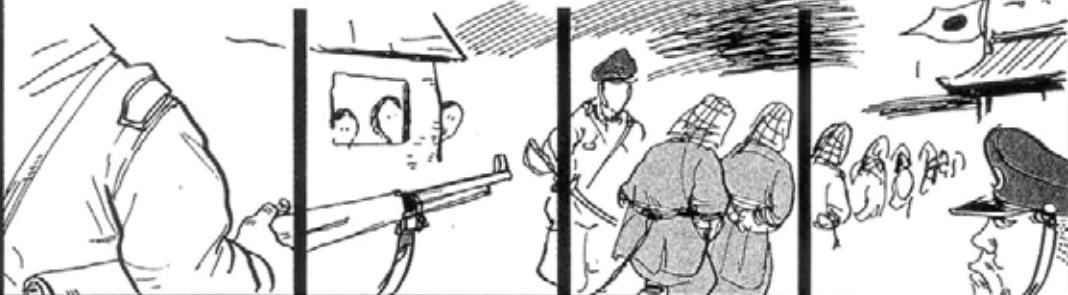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당시 양양군 소재지인 양양은 아직 멀어있으나 속초는 이미 물이 되면서 커지기 시작하고 6.25동란 후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정착하였습니다.





만세울동으로 12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났으며, 시위로 망미암아 체포되어 강옥에서 고생하게 된 사람도 많았지만 잘려가서 태형을 받은 이가 특히 많았고, 또한 도망한 이들의 가족을 괴롭히는 등



타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비폭력 만세울동이 이제 군경의 무차별 칠암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 시위를 통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 불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농동적으로 만세울동을 전개함으로서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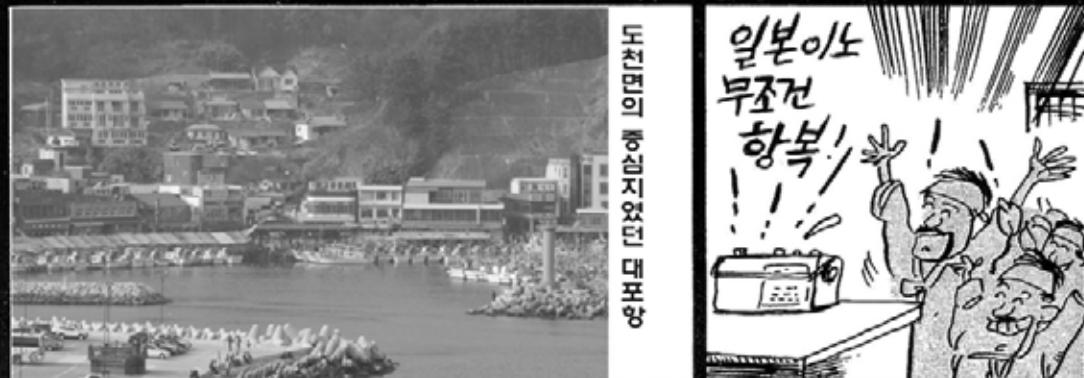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대화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3.1운동에 참가했던 보통학교 종업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물물을 배우고자 대도시나 국외로 유학, 또는 망명의 길을 떠났는데 이러한 유학과 망명은 군대 물물을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하지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층이 상당히 많았는데, 소작농의 75%가 출궁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양양지방의 조개, 미천, 강천, 서림 등 화천민들은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한다는 당시 실물보도가 있는가 하면 소작농의 66%가 빵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통치속에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막아하였으므로 해방될 민족을 조직하고 영도할 만한 혁신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련 정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 이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 국가를 수립하자고 모임단체였지만 1946년 거사를 모의하다 탄로나 모두 체포되었으나 1946년 6월 19일 풀려났습니다.



그밖에 '호김유격대'의 멸공작전과 반공청년들의 전투가 지역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국군은 밀족의 불달선을 무너뜨린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질격의 장으로 전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 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고



치안확보를 위해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는데, 치안대는 국군과 활동으로 패하여 도망가는 북한 공산군을 논산리(지금의 조양동) 앞풀에서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국토의 불달은 밀족의 대이동을 가져왔습니다. 1946년부터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낭비한 월남민은 약 5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1503) 진보조에 ‘속초(束草)포’이며, 그 이후 조선 영조내년(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라는 한 동리였습니다.

속초 지명에 팔해서는 뿌를 속(束). 풀 초(草)라고 써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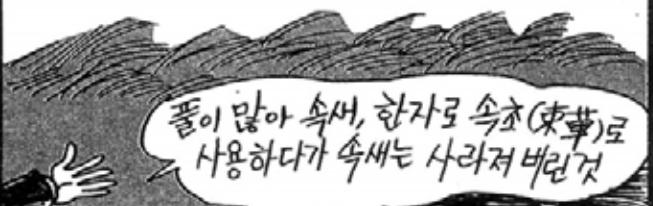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포구를 들여다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

풀수지리적으로 속초지형이 화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치었다고 합니다.



이 회에도 속초라는 한자 지명의 뜻에 ‘풀을 묶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있는데 모두 전설적인 얘기로 신빙성이 희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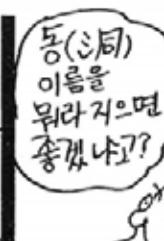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속초리는 속새, 속새울이라고도 했는데 ‘속새가 많은데서 유래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과 다른 지역의 지명도 속새라는 풀이 많은데서 유래된 지명이 많은 것을 보아 속초도 속새의 한자 표기로 속초, 속새를 함께 사용하다가 속초라는 지명만 남고 속새는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각 동의 지명 유래를 알아 보기로 할까요?



영랑동(永郎洞)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 1구를 영랑호에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여 영랑동이라 하였고,



당연히  
영랑동  
이라 칭하  
을 거!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동명동(東明洞)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 2구를 통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해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으로 이름 하였고



중앙동은 1966년 동체 실시 때, 속초리 3구를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중앙동이라 하였고



중앙동, 교동은 타도내에도 많던 걸요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 옛 이름이 용수골이라 불리어졌는데 물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어서 '용소골'이라 불리던 것이 '용수골'로 변화되었고



교동(校洞), 중앙동은 1966년 동체 실시 때, 속초리 6구가 청학동과 교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보통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 하나 속초에는 향교가 없었으므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속초중학교가 위치 했었기 때문에 교동이라 했다고 합니다.



만천동(萬泉洞, 萬千洞)은 교동 성당 부근을 일컬던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명의 유래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가 될다는 뜻으로 치었다는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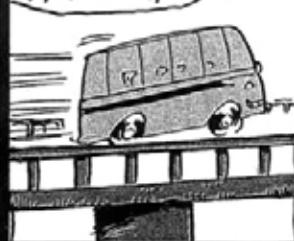
만서풀이 살았다거나, 만천이란 아주 좋은 생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청초천 하류에 놓여 교동과 조양동을 연결하는 두개로 된 다리가 있는데 두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쌍다리라 부릅니다.



또, 금호동은 동(洞)제 실시때 속초리 4구를 금호동으로 했지요!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예전에 조도에는 용호정이란 정자가 있었는데, 강월도지사였던 이용이 재직시 이 성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호(草)를 써서 '용호정'이라 이름 하였는데 현재 정자는 혀리고 조그마한 둑대만 서 있습니다.



대포동(大浦洞)은 1966년 동제 실시 때, 외옹치리와 내옹치리가 합쳐져서 됐는데, '큰 포구'라는 뜻으로 대포는 일제시대에 상당히 큰 항구였고, 1937년까지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했었습니다.



도물동(道門洞)은 1966년 동제 실시 때, 상도물리, 중도물리, 하도물리가 합쳐져서 도물동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도물면이라 하였습니다. 도물이라는 유래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신라 때 월호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천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알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충분히 크게 깨닳아 도통의 물이 옛것으로, 이 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물이 옛길 물이라 하여 도물이라고 했고,



조양동(朝陽洞)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 운정리, 논산리, 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이라고 하였는데 조양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소야8경의 하나인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리의 아침 햇볕이 비치는 경관에서 따온 것입니다.



대포는 '큰항구'라는 뜻으로 속초시 이전의 속초리, 속초리전의 도천면 사무소가 있었죠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깨닫는 듯 하며



또 하나는 양양군 강천면 강선리에 내려온 신선이 이 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화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는데,



이 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이곳을 도문(道問)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변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달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하여 도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설악동(雪岳洞)은 1966년 동(洞)체 실시 때, 종래의 장항리를 설악동으로 개칭하였고,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양군 강천면 삼복고리를 포함하게 되었는데.



종래의 이름 장항리는 노루목 고개의 노루목을 한자로 표기한 장항에서 온 것으로, 노루목은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솔수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을 한자어로 장항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노학동(蘆鶴洞)은 1966년 동체 실시 때, 종래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풍리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이름하였다는데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의 '노'자와 척산리 학사평(鶴沙坪)의 '학'자를 딸 것입니다.



학사평(鶴沙坪)의 원래 이름은 딱사발(학사발)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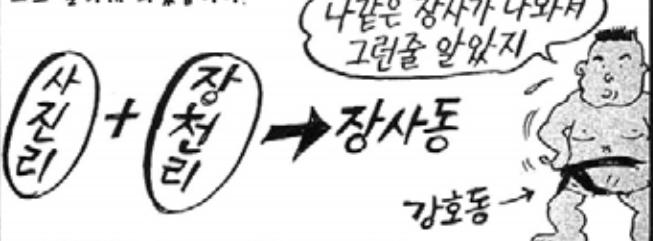
후에 학이 내려와 않는 별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자를 써서 학사평으로 개명되었다고 하는데, 딱사발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별판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말음상 '딱사발'이라고 합니다.



장사동(章沙洞)은 고성군 토성면에 속했던 지역이나 속초의 발전에 따라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일의 첫글자를 따 장사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닌 바다였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불리어졌고,



한자어로는 사야지(沙也只),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부르다가 일제시대부터 줄어서 사진리라고 불리어졌습니다.



또 영랑호 서쪽에 장천리(章川里)라는 마을이 있는데, 장천의 '노루장'은 마을 서쪽 월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마을 앞 냅개가 노루목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차자로 표기하여 장천(章川)이라고 하다가 장천(章川)으로 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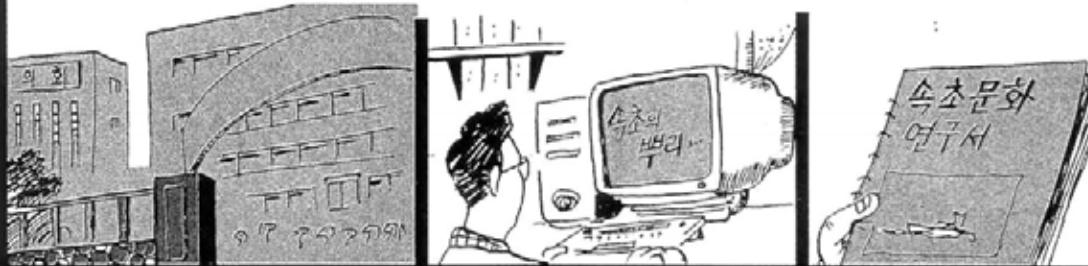
제가 사는 청학동은 이렇다할 뜻이 빠졌네요



혹시~ 푸른학이 내려와 앉았던가 하는 전설이 있었던게 아닐까요?



지방자치체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지역의 문화를 바로 알리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향토문화당사 과정에서 조상의 역사 술기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문화를 가꾸는 마음까지 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가장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놓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청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재에 관한 것을 찾아 봐나 볼까요?

문화재에는 크게 유적과 유물로 나뉘게 되는데, 과거 사람이나 사랑집달의 행동이 행해진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을 유적이라고 하고



유물은 과거의 사람이나 사랑집달의 행동 결과로서 남긴 물건을 말합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는 기원전(B.C) 7~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빗살무늬, 밀무늬토기 등 160여점의 유물이 발견되어,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교체되는 시기의 유물로 인정되어 1992년 10월 2일 사적지 제37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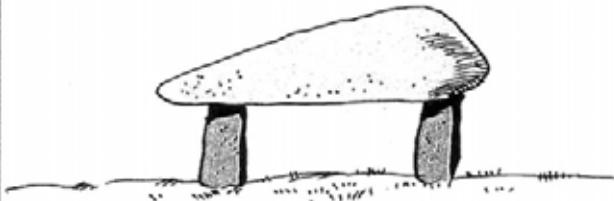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는 하천이나 평야에서 가파른 낮은 야산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주검을 매장하는 위치와 발침들이 있고 협교에 따라 크게 북방식, 남방식, 개선식 등으로 나누는데 조양동 선사유적지의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로 추정됩니다.



그 밖의 토기, 석기, 청동기의 유물들은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속초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의 역사와 어촌,  
산촌, 생활민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고유의 향토민속예술과  
농어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로  
속초시립박물관과 생활민물화촌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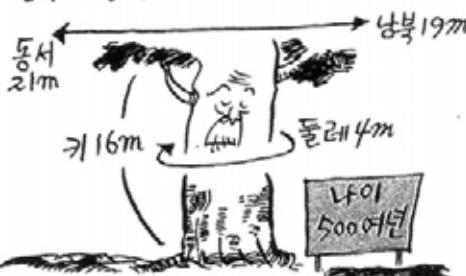


실향민문화촌 이북5도가옥은 개성집, 평양집, 경안도 쌍채집, 환경도집, 황해도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숙박체험도 가능하다. 매일 오전, 오후 시립풀물단 공연이 있으며, 피난민가옥촌은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초기생활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공동주택 2동, 은서네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전시동과 관리동 그리고 전망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층은 수장고, 기계실 2층은 전시실, 기증유물실, 기획전시실과 강당이 있고, 2층은 제1전시실, 3층은 학예연구실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설악산 소나무  
(전연기념 제351호)

설악동 소나무는 나무나이가 500여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고, 나무의 높이는 약 16m, 줄기 둘레는 4m이며, 가지펴침은 동서로 21m, 남북 19m입니다.



옛날에 '나무밑에 둑을 쌓으며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둑을 쌓아 둑무더기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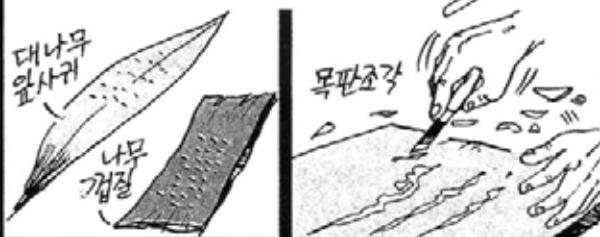


신흥사 경판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5호)

경판이란? 부처님께서 따르는 제자와 중생을 상대로 설파하신 내용을 기록한 ‘경’을 담아 놓은 광주리란 뜻인데,



경판은 처음에는 종이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므로 대나무, 일사귀, 나무껍질 등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없었으므로 뒤에는 목판에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실풍사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은 불경을 비롯하여 불교 팔계 물현을 새긴 목판으로 대형과 소형 2가지로 모두 280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근수 가옥(강원도문화재자료 제64호)  
속초시 도문동 1504번지에 위치

우리나라의 밀가는 그 지역의 기후조건, 재료 등에 영향을 받아 각기 지방에 따라 독특한 형식을 이루며 발전해 왔습니다. 속초 지역의 가옥은 북부형 가옥으로 모든 공간을 옥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후적으로 혹독한 추위에 대한 방한적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김종우 가옥(강원도유형문화재 제85호)  
속초시 도문동 1186번지에 위치



쿵고 침입시 견씨, 김씨 등 두장군이 백성을 이 성에 피난시켜 난을 피하게 하였다고 하여 “권금성”이라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학무정(속초팔경) 속초시 설악동 상도문 1리

학무정은 이 마을 출신 오윤환이 1934년 친척들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지었는데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서 "육모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곳(학무정)에서는 선비들이 글과 시를 짓고 읊었으며, 강훈도하고 교육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산수가 광고 아름다운 장소를 택합니다. 따라서 산용파기의 시냇물과의 높은 장소에 자리잡는다. 학무정도 그런 경우입니다.



또 영랑호 동남쪽 물파기에 위치한 사찰로 '보광사'가 있는데 1937년 정화당 스님이 세웠습니다.



신흥사(新興寺)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호

신흥사는 설악산과 더불어 수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절 이름을 '신흥사'라 한 것은 명서, 연옥, 혜월 스님이 절의 재건에 매진하고 있을 때 그스님 모두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현재의 신흥사 터를 명월토혹(明月土壘)이라고 불리우며, 그재(火)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정치해 줄 테서 불여진 것입니다.



신흥사 부도군(新興寺 浮屠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5호  
부도는 승려의 사리탑을 일컫는 것으로 수명이 높은 승려에게 불타(佛塔)와 같은 애우를 해 주게된 대서 비롯한 것으로 부도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



**보제루**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영조46년(1770)에 세워진 것으로 누각(樓閣)식으로 아래층 가운데 칸은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위층은 다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의 높이는 사천왕문 보다는 높게, 보전보다는 낮게 구성되어 있다.

팔작지붕



맞배지붕



**극락보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모신 신흥사의 본전으로 정면3칸, 측면3칸  
검처마 팔작기와 지붕의 다포양식의 건축입니다.



**명부전(冥付殿)**  
저승세계를 상징하는 전각



**삼성각(三聖閣)**

불법이 세상에 어지러워지는 마지막 시기에 종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하여 전각을 세워 봉안해 놓은 곳이다.

**향성사지 삼층석탑(보물 제443호)**

자장을사가 건립했다는 이 석탑은 현재 헌성현호를 앞 갓길에 위치하며 1966년 8월 25일 보물 제443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이다.



**노학동 3층석탑**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7호)

설악산 목우재 휴게소 앞 도로 건너편 골짜기의 통산로를 따라 계을 오른쪽으로 약30분 정도 산을 오르면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석탑 1기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석탑 1기와 석축 및 여기저기에 기와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지(寺址)임을 알려주고 있고,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시풍속이란 일상 생활에 있어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활동적으로 되풀이되는 생활행위라 할 수 있는데 속초의 세시풍속은 산간과 어촌, 자연 부락간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며,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의 세시풍속으로는 1월 1일 '설날'이 있습니다. 그냥 '설'이라하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 날에는 초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떡국차례'를 치낸다고 하는데 차례가 끝난 후에 어른에게 세뱃돈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정초의 심이지일, 입출날, 까치보름날, 대보름날 행사가 있고 이 가을에서 대보름날에 하는 행사에는 주로 약밥, 오곡밥 먹기, 터위팔기, 귀밝이술, 김치찬물 암먹기, 새소리 듣기, 달 정치기, 용왕제, 배서낭제, 귀신날 등이 있습니다.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1인날 영등할머니가 내려울 때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하고 바람불면 ‘바람영등’이라  
하는데



물영등이 되어야 풍년이 되고 바닷일이 잘 될다고 합니다.



영등할머니는 여신이므로 성격이 까다롭다고 하며  
영등날 머느리와 내려울 때는 비를 내려서 머느리  
옷이 절개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심심해죽겠는데



고얀년 비나  
실컷 맞아랏!



딸과 함께 올 때는 바람을 불게하여  
딸의 치마가 잘 날려 보기 좋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머느리의 갈등을 현실에 빛댄 이야기인데 영등제사를  
지내려 땅 나락을 막리는데 새가 이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  
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영등할머니를 잘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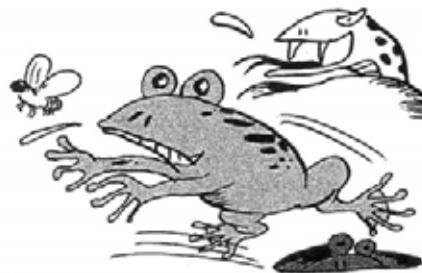
(감내도 얼씬 못하게  
했으니)

영등할머니 부디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는 자연에 술을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총생이보기, 무먹기, 머슴날, 한식날  
경찰여기 등이 있습니다.



3월 세시풍속으로는 삼짓날, 꼭우 물먹기, 첫발갈기,  
풀가시놀이와 벼들피리, 갈장당그기,  
4월에는 초파일, 갈매기, 절어올리기



5월에는 달오날, 창포비녀와 머리감기, 약쑥캐기, 그네뛰기  
등이 있고.



6월에는 6월 15일을 ‘유두날’이라 하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양기를  
내포하므로 여기서 머리를 감게되면  
한 여름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년 안덥단  
말이거?



속초에서는 약수터에 가서 속옷을 입고 물을 적시거나  
울산바위 밑의 냉정터에 가서 물을 몸으로 받는데 이렇게  
물맞이를 하면 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느정도껏 물맞일 해야지  
도리어 병을 얻었네  
얻었어



그외에도 쓰레빛이, 복날 등이 있습니다.





또, 7월의 세시풍속으로 칠서날, 배중날, 칠미기 등이 있으며, 8월의 세시풍속으로는 벌초하기, 찰가위, 배나무풀 풍면마당 놀이 등이 있는데, 그 중 '말천광대놀이'는 말천마을에서



찰가위 때 일년동안 땅 흘려 가꾸어 놓은 들밭을 바라보며 풍년을 자축하는 찰마당 놀이를 하는데 집집마다 돈이나 쌀을 내놓으며 이것으로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고 남녀노소가 집집을 둘러 농악에 맞춰 달맞이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깁니다.



다음해 풍년을 기원하며  
항바탕 뇽더쿵 ...



9월의 세시풍속으로는 중구일 그리고 10월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는 상달(의용치 서낭당에서는 10월 초순에 마을제사를 지내는데 3년마다 굿을 하기도 한다)과 설악문화제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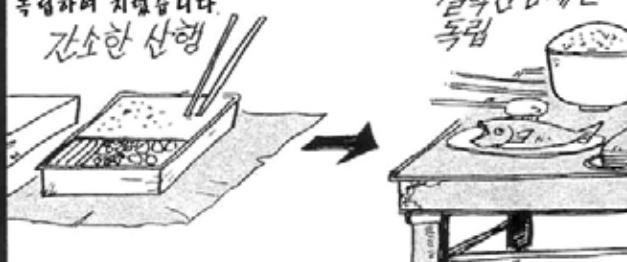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례의식을 변화 발전 시킨 향토축제로 고대의 제천행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김부식 ‘삼국사기’ 신라시대 때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



1966년 산신제와 등반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현재의 문화축제로 발전



처음에는 설악산을 총보하기 위해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하게 되었고, 설악제 등반대회시 간소하게 산행의 절차로 시작했던 것을 1976년 10월 7일 제9회 설악제 때 산신제를 독립하여 치열합니다.



요즘은 달중 청정기에 행사기간을 정하여 보다 역사에 맞는 제례의식을 갖추어 산신제, 용왕제, 성황제, 망향과 통일기원제, 상신활동제의 제례로 속초시의 무사안녕을 기원합니다.



제17회 설악제부터는 ‘시민의 날’제사와 병행하여 개최하고, 이후 24회부터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1996년도에 설악제에서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문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4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설악제 행사에서 출발한 설악문화제지만 산악인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풍어를 빙고 산행의 안전과 지방민의 안녕을 비는 행사로 설악산악, 해양과 민속, 신령이라는 3대 테마로 민족통일분위기 조성과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문화의 특성을 부각하여 차별화, 특성화된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

이외에 10월에는 송 개틀기, 김강하기 등이 있습니다. 11월의 세시풍속으로는 동짓날, 용경 등이 있는데 '용경'은 동짓날에 청초호가 얼었을 때 얼음이 어는 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정쳤다고 합니다.

'용경(龍耕)' 또는 '용갈이'라고도 하고 호수 밑의 용이 눈두렁처럼 얼음을 깨어 놓은 것으로 팔달하는데



얼음을 남쪽으로 향해 깨어 놓거나 북판만 깨면 풍년

북으로 향해 엊갈거나 옆을 깨면 풍년이 되고, 좌우로 마구 깨면 평년작이 된다고 해습니다.



속초의 전설에 의하면 영랑호는 암룡이 살고 청초호에는 숯룡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초호의 용이 얼음을 깨어 놓는 용경 밀속은 조선시대 읍지화 동국세시기 등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천동 나루배 싸움놀이는 이 전설을 근거로 하여 이뤄진 놀이인데 부월리, 조양동 주민들에 의하면 용이 밭을 가는 둘째 때 품이면 소들이 질탕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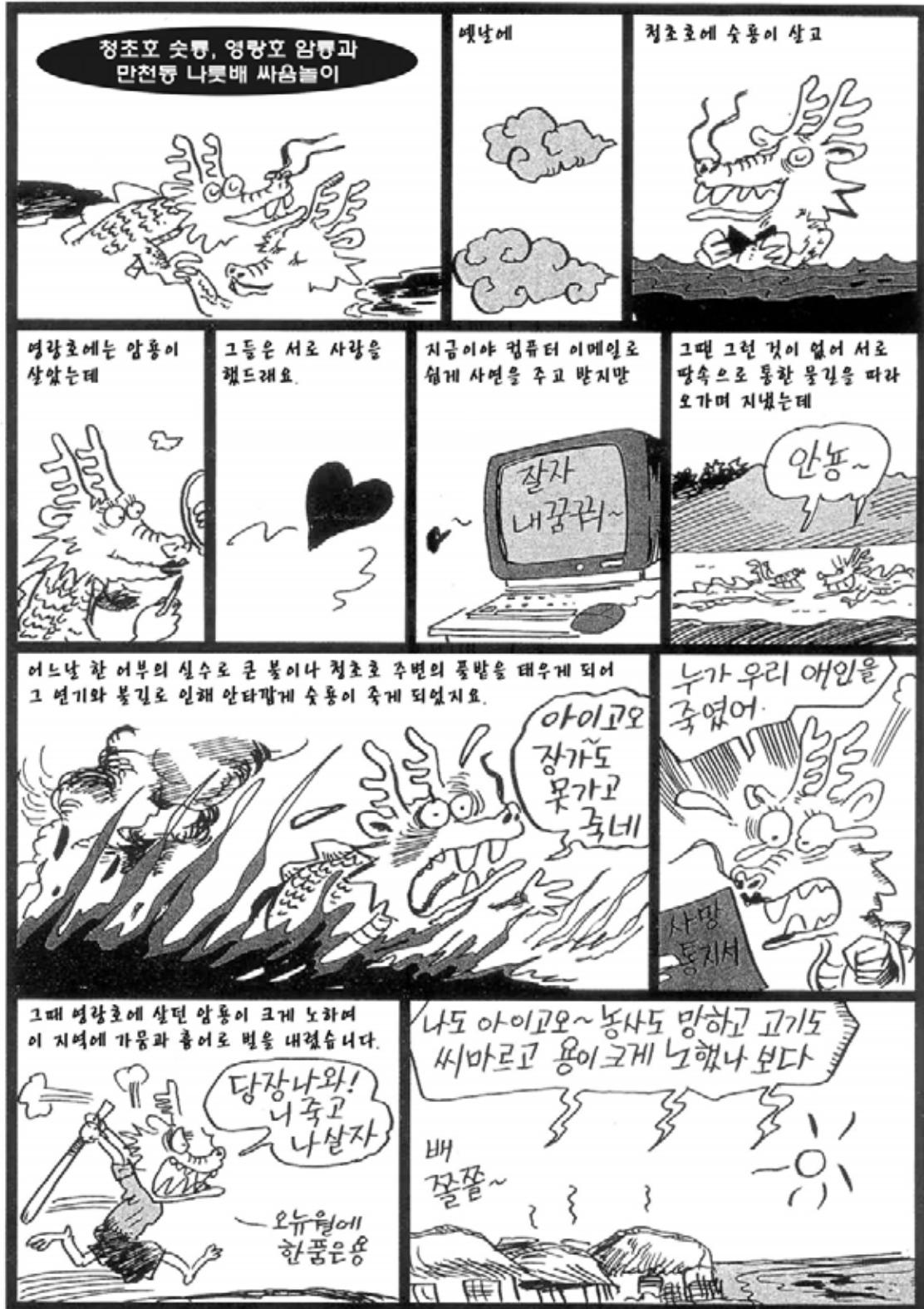












그 후에 어민들은 청월대보름달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청성전 기우제와 용신체를 지내고 숯통의 죽음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해 입 했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닐테지~

흐!

또한 이 때에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으로 한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밀속 놀이를 거행하는데



이 바웅에서 길 마을 쪽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길 쪽 마을은 풍어와 대풍을 거둔다고 믿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가무도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말천동의 나룻배싸움 놀이는 이런 숯통과 양동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인지요.



소야팔경  
(所野八景)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갈대꽃이 맑이 피고 그 위에 달이 훤히 비치니 노동명월 (蘆洞明月)이라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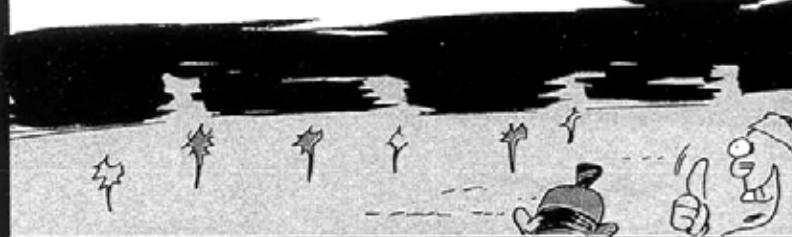
그리고 이동백설(梨洞白雪)이 있는데 '이동' 이란 빼풀 동네가 있었는데 배나무 오얏나무가 많았답니다. 일제 때 사람들에 의해 나무가 베어져 버렸답니다.



그 다음은 청대화병(靑岱畫屏). 청초호에서 청대산을 바라 보면 병풍 그림같이 아름답다하여 이름 하였고,



다음은 주교야화(舟橋夜火)인데 주교리에서 밤에 계참는 불꽃이 기가 막히게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요즈음 오징어잡이 배 불빛을 보고 회지인들이 바다에 전기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탄성을 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주교는 옛날의 부월리, 배다리 동네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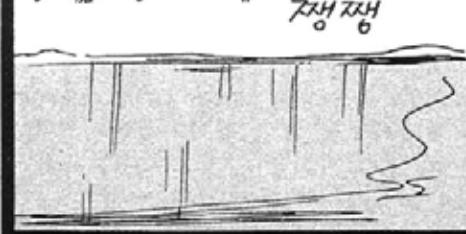
다음은 논산조양(論山朝陽)인데 논산이 속초에서는 가장 높은 곳인데 해가 뜨면 어느 곳보다도 먼저 해가 비쳤고 논산에 아침해가 비치는 광경이 아름답다고 하여 이름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귀범(東草歸帆). 속초에서 보면 배가 들어오는 것이 해는 저물고 서양빛을 받아서 둑대를 달고 돌아오는 게 아름다워서 소상팔경의 하나인 월포귀범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다고 하여 지었습니다.



다음은 청호마경(淸湖磨鏡). 청호 호수는 엎드려 보면 마치 유리거울 같이 맑게 보였다고 하고 거울을 깔아놓은 것과 같아 갈마(磨)자를 써서 지었고



마지막 온정조하(溫井朝霞)라 하는데 온정의 아침노을. 지금도 온정리에는 터울물이 나오는데 옛날도 거울아침이 되면 수중기가 물라가서 알개 같은 게 피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 속초8경

속초8경은 속초시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선정.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9년도에 선정했습니다.



###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히면서 신묘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성이 '거물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불여진 이름이며 일제시대 속초항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어서 축항을 조성함으로서 지금의 넓은 암반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영금정 해맞이정자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금강산 자락을 조망할 수 있어 자연의 조화로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 영랑호 범바위



영랑호는 둘레 7.7km 면적 1,024,000m<sup>2</sup> 거대한 자연호수로 '삼국유사'의 기록에 신라의 화랑 영랑이 동료 술 랑, 안상, 남석해 등과 금강산 수련 후 거향길에 명경같이 잘잘하고 맑은 호수에 볶개 물든 저녁노을 웅대하게 부각될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바위가 물속에 장려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하며 그후부터 영랑호가 화랑의 숲도장이 되었고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 청대리 청대산



청대산은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산의 정상에서는 속초시가지와 동해 일출, 대청봉, 달마봉,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천연의 천망대입니다.  
해발 230m로 예 기록 속야8경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명풍을 둘러싼 것과 같다하여 '청대화령'이라 하였습니다.

**청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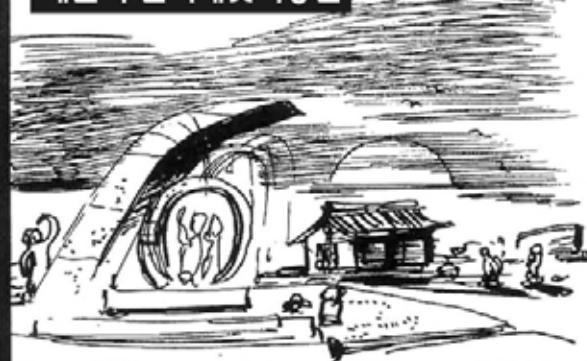
쌍성호(雙成湖), 칠성호(七星湖)가 부르기도 하는 청초호는 둘레가 4.276km로 숲 달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활의 테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청초호가 활동평경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이며, 소야8경에 호수 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같고 닮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마경이라 불리웠습니다. 1999년 강원국제관광박람회가 청초호 일대에서 개최되었고 그 때 지어졌던 주제관과 72.4m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전망대에서 본 청초호면 야경과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동해일출은 한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속초해수욕장 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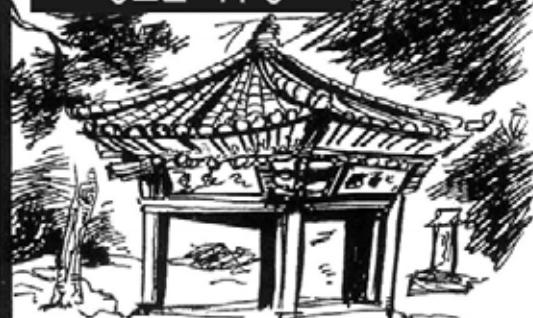
새들이 많이 찾는 성이라 하여 불여진 조도와 백사장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의 조화로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소야8경에 ‘논산조양’이라 하여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뿐만 아니라 해돋이 전망, 바다낚시, 백사장 산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포 외옹자**

외옹자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는 해안가 언덕으로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조도, 백사장으로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이 아름답다.

**내물치 설악해맞이공원**

조선시대 무왕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함경도 덕월에서 거제도로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 갔다가 날이 저물어 머무르게 되었는데 폭우로 물이 불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 하여 물치(勿淄)라 불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탁트인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조각공원, 소나무 사이로 비쳐지는 일출의 조화로움은 자연만이 연출할 수 있는 비경(秘境)이고, 쟁버리기념탑을 비롯 일어별일상 등 많은 조각작품과 야외공연장이 있어 찾는 이들의 쉼터로 일기가 좋은 곳입니다.

**상도문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쌍천변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9년(1972)에 이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연구와 일제 육성에 말 전념한 매곡처사 오윤환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습니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남쪽에는 ‘학무정’, 북쪽에는 ‘영모재’, 북동쪽에는 ‘일지당’, 남서쪽에는 ‘경의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읊창한 송림속의 고즈넉함과 전통한옥 마을이 있어 풍취를 더해 줍니다.



속초문화유산

##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펴낸곳 / 속초문화원

엮은이 / 한정규

집필인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정환, 박명선, 손병섭, 정종천, 최현식

편집 및 쪽은 곳 / 열린마당

인쇄 / 2007년 6월 일

발행 / 2007년 6월 일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전화 / 033. 632-1231, 639-2439

전송 / 033. 632-1241

홈페이지 /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 [sc2439@sokcho.org](mailto:sc2439@sokcho.org)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 및 강원도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전      화 : 033)632-1231, 639-2439

홈페이지 : [sokcho-culture.com](http://sokcho-culture.com)

[sokcho-history.com](http://sokcho-history.com)